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8권 제4호 (통권 97호) / 2023. 12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4호 (통권 97호), 2023년 12월호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 강진구
A Study on the Image of Christians in Netflix Korean Drama ‘Squid Game’ | Jingoo Kang
- 029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PERMAS 모델을 중심으로 | 김수지
The Consider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bout Well-Being Theory of Positive Psychology
-Focusing on PERMAS Model | Sooji Kim
- 061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정진 / 하규영
The Effect of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 Jeong-Jin Kim / Gyu-Young Ha
- 083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중심으로 | 조경덕
The Protestant Hym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and the Making
of Modern Nation State - Focused on *Chanmiga* 『讚美歌』(1908) Translated
by Yun Chi-ho | Kyoung-Duk Cho
- 101 기독교대학 교수의 인식조사에 의한 중요성공요인의 분석과 성공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 박문식 /김재철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study of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 Moon-Shik Park / Jae-Chul Kim
- 137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 심상용
Issues Surrounding the Expression of Malformed and Deformed Huma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he Art Works of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 Sang Yong Sim
- 161 노아 언약과 두 나라 이론에 비추어 본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성경적·신학적 의의 | 조혜신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litical Entity
and Law in Light of Noah Covenant and the Two Kingdoms’ Theory | Hye Shin Cho
- 193 기독교 관점에서 본 해결중심치료: 적용과 한계 | 홍구화
Solution-Focused Therap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 Gu Hwa Hong
- 215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현직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인식과 요구 | 김기흥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among Current School
Teachers Volunteering as Sunday School Instructors | Ki Heung Kim
- 239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창세기 1:1을 중심으로 | 소진희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 Jin-Hee Soh
- 267 신명기 6:4-9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한 유아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고찰:
부모의 마음을 중심으로 | 박은호
Discussion about the purpose and details of biblical parenting during infancy
through a command to teach in Deuteronomy 6:4-9: Focused on parent’ hearts | Park, Eunho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A Study on the Image of Christians in Netflix Korean Drama ‘Squid Game’

강진구(Jingoo K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age of Christians in Netflix Korean drama <Squid Game> to examine what Korean society thinks of Christian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world-famous drama <Squid Game> features three types of Christian characters, all of which have negative images. The first appears in the image of a hypocritical figure. The second is described as the image of a believer who judges others and acts out of context. The Third has an image of a self-centered evangelist who focuses too much on evangelism.

Such negative images are understood to reflect Christians that ordinary people face in the real world, and are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Korean Church's social credibility poll released by the Christian Ethics Practice Movement. In particular, it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Fermi Project, which studied the image of American Christians, giving the impression that Korean Christians are becoming more like evangelical Christians in the United States.

The image of Christians in the drama is subjective and excludes the reality of good Christians. However, the influence of the image is so strong that it may cause obstacles to missionary work.

As an alternative to this, we can think of three things. First, it is to try to live a life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by mirroring the negative image of Christians in <Squid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20일 최종수정, 11월 21일 게재확정
2023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23.06.10.)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교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moviejin1@naver.com

Game>. The second is to have a good influence on the church by serving the world's neighbors in the public domain. Third, the church is interested in mass media such as movies and dramas and sends Christian pop artists trained in faith to the scene. All of this means correcting the dichotomy between faith and the world.

Key words: Squid Game, Netflix's Korean drama, the image of Christian, Unchristian, the social credibility of Korean churches, Francis Schaeffer, Cultural Apologetics

I. 서론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으로는 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우호적이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 2년여 동안 한국교회의 주요 장로교단 신자 수가 55만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¹됐는가 하면 디지털 시대의 여론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온라인 여론 분석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²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대중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OTT(Over The Top·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도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인은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되는 바람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국교회의 주요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국민일보 자문위원회의 경우 <더 글로리>방영 직후 이루어진 모임에서 기독교 비하 풍토가 만연한 현실에 대해 한류열풍 속에서 K-선교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일보, 2023).

한국의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글로벌 OTT업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넷플릭스(Netflix)가 제공한 콘텐츠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한 돈으로 만들어 자신의 플랫폼 전용으로 활용하는 콘텐츠를들 '넷플릭스 오리지널(Netflix Original)'이라고 하는데, 다른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을 사 오거나 빌려 와서 일정 기간 가입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품에 투자해서 만든 콘텐츠를 자신의 전용 플랫폼을 통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드는 경우 충분한 제작비와 더불어 감독이 상상했던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제공받고 있어서 넷플릭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에 있다.

무엇보다도 국내 제작사 같았으면 방영되기 어려운 장면들도 넷플릭스 안에서는 마음껏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영상 콘텐츠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부정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1) 국민일보가 2022년 9월 21일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백석·고신·합신 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6개 장로교단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2019~2021년)치 교세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현재 이들 교단의 총 교인 수는 688만1766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742만7446명보다 7.3%(54만 5680명) 줄어든 숫자다(국민일보, 2023).

2)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교회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연구소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2개월간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뉴스, 네이버 블로그 및 다음카페에 게시된 본문과 댓글에 대해서 '기독교', '목사', '교회'의 키워드를 통해 수집한 총 1,256,518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집단감염'(170,368건), '목회자 범죄'(131,734건), '방역수칙 위반'(119,808건), '입양아 학대'(36,809건) 순으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제작되기 쉽지 않았을 내용이나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보여주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킴으로 말미암아 전도와 선교를 비롯한 교회사역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한류문화가 해외 선교지에서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크며,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인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이 선교에 큰 힘이 된다고 선교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윤명진, 2022: 141-143). 최근에 제작된 한류 콘텐츠에 등장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지금까지 해외선교가 누려온 한류문화의 혜택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OTT서비스에 나타난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의 제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들을 모두 시청한 후 이 가운데 부정적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선명히 드러난 콘텐츠들을 선별하였고, 이를 종합하고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오징어 게임>을 선택하였다. <오징어 게임>에는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의 다른 오리지널 콘텐츠의 문제 장면들을 포함하여 분류,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표현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의 특징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최근의 조사까지 7차례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까지 활용되어왔다.

또한 한국보다 앞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를 실행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넷플릭스에 나타난 한국 기독교인의 이미지와 비교하였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에 나타난 특정 집단의 이미지 연구는 주로 흑인이나 성소수자 같은 사회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Harris, 1997: 68-69).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연구의 경우는 미디어에 등장한 모습을 가지고 연구하기보다는 기독교 외부의 사람들이 현실사회에서 마주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연구한 사례는 있다. Fermi Project로 이름 지어진 미국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는 주로 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처럼 복음주의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교회가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사점을 남긴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넷플릭스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현실 속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프란시스 웨퍼의 변증학을 적용하였다. 현대 문화선교의 중요한 이론가이며 또한 실천가였던 프란시스 웨퍼의 '문화적 변증론(Cultural Apologetics)'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왔다. 웨퍼는 '문화적 변증론'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방어보다는 전달을 더욱 강조했다(강진구, 2020: 43). 이점은 기독교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산출하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부정적인 기독교인 이미지를 보여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현황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은 한류열풍의 당당한 주역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내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테드 서랜드스(Ted Sarandos) 넷플릭스 CEO는 2023년 6월 22일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콘텐츠 제작에 4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스포츠통아, 2023). 서랜드스 CEO가 언급한 투자 금액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지난 2016년부터 계획 발표 전까지 투자한 것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놀라운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온 세계의 열광적인 호응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이 BTS와 함께 한류열풍의 주역이 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자아도취적인 분위기에 휩싸였고,³ 정부는 반도체 못지않게 수출전략의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지원에 나서는 등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은 안팎으로 큰 성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표현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바라보자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드라마란 점에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주고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기독교인에게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의 부정적 시선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거리가 되기도 한다.

넷플릭스에서 2021년 1월에서 2023년 8월까지 방영된 한국 드라마 가운데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노출시킨 드라마들은 다음과 같다.

3) 한류문화의 우수성에 열광하며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일컬어 '국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국뽕'은 국가와 히로뽕(philopon)의 합성어로서 과도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문화라 할 수 있다. 마치 히로뽕을 맞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한민족과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평판 듣는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는 '국뽕'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Table 1. Netflix’s original drama list showing negative images of Christians in Korea⁴

번호	드라마 제목	회수	방영 시작일	흥행 기록
1	오징어 게임	9회	2021.09.17	넷플릭스 서비스 190여 개국 모든 국가에서 1위. 에미상 6관왕.
2	지옥	6회	2021.11.19	첫째 주 전체 순위 1위.
3	지금 우리 학교는	12회	2022.01.28	2주간 전세계 넷플릭스 TV시리즈 1위.
4	수리남	6회	2022.09.09	한국 1위, 공개 후 둘째 주 비영어권 1위.
5	더 글로리 ^{1,2}	1·2부 각8회 총16회	2022.12.30	넷플릭스 아시아권 1위.
6	DP 시즌2	6회	2023.07.28	첫 주 비영어권 순위 5위, 전체 10위.
7	마스크걸	7회	2023.08.18	공개 후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 1위.

최근 3년 안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들이 모두 부정적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남녀성별이나 혹은 평신도나 성직자 관계없이 한국 기독교인의 부정적 묘사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는 쉽게 발견되고 있다. 비록 드라마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한국인의 사회상과 일상을 표현할 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등장시키는 일이 잦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는 만큼 때로는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 묘사가 등장한다면 그 원인과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현실사회 속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신앙인들의 삶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까닭이다. 비록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묘사가 현실이 아닌 연출자의 상상력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 드라마가 재미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개연성을 가진 이야기 안에서 인식된다면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시청자들이 현실의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효과 이론에 따른 검증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지만 최소한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문화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에 숙제를 남겨주고 있는 현실이다.

4)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각종 순위서비스인 flixpatrol.com을 통해 넷플릭스 전체 및 국가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왜 '오징어 게임'인가?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

<오징어 게임>은 흥행성적에 있어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들 가운데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다. <오징어 게임>을 2분 이상 시청한 사람은 작품 공개 23일 만에 1억3천200만 명에 달했고, 경제학자들은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8억9천110만 달러(약 1조원)로 추산하고 있다(경기연합뉴스, 2023). 서비스되는 세계 전지역에서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할 만큼 흥행에도 성공하였고, 2022년 9월에는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미국 에미상(E Emmy Award) 시상식에서 감독상(황동혁), 남우주연상(이정재), 여우게스트상(이유미), 시각효과상, 스텐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을 받아서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의 아동 놀이문화인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 유행이 되었는가 하면, 배우들이 입었던 초록색 트레이닝 옷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인기상품이 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공식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이 '문화적 시대정신'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하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을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진단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23).

<오징어 게임>의 사회적 영향과 다양하게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학술논문을 통해 나타난다. 허만섭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학술 포털사이트인 'Google Scholar(구글 학술)'을 통해 <오징어 게임>의 영문 제목인 'Squid Game'으로 검색한 결과인 1070편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148편을 선별하여 연구하였는데, 주제별로 나누면 사회(29.1%), 영상 콘텐츠(17.6%), 디지털 미디어(14.2%), 한류(12.2%), 게임(6.8%), 제국주의(6.1%), 언어(6.1%), 윤리·종교(4.8%), 교육(3.4%) 영역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가 29.1%를 차지해서 제일 많았지만 윤리·종교분야는 4.8%에 불과했다(허만섭, 2023: 715-719).

기독교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기독교인을 다룬 논문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속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이 있을 뿐이다(김태룡·안승범, 2023:45-46). 이 논문은 <오징어 게임>을 포함하여 넷플릭스의 다른 한국 드라마 속 기독교인 캐릭터들이 사회적 경제적 계급 권력 혹은 젠더 및 세대 권력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기타 <오징어 게임> 관련 국내 문헌의 경우 2023년 8월 6일 기준으로 국내논문검색 사이트인 디비피아를 살펴볼 때 84건이 발견되었다. 주제별로 보면, 신문방송학 9건, 인문학 일반·예술 체육학 일반·문학이 각 7건, 종교학/신학 4건, 법학·디자인 각 3건 등이며 이 가운데 학위 논문도 10건에

이르렀다(경향신문, 2023). 학술적인 논문들이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생산되었다는 의미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사회적 영향력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이해될 만큼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이미지의 위험성

전자영상매체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인류에게는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미지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아도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미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정적 기독교인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심리적인 불편함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이미지의 효과 때문이다. 만일 정반대로 넷플릭스 드라마 속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기독교인 시청자들은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이미지는 사물이나 사람 등 어떤 대상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획득되는 인상(印象)을 뜻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상의 본질이나 속성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실체와 다를 뿐만 아니라 대상의 전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에서 오랫동안 악역을 맡았던 배우들은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심지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는 수난을 당하기도 한다.⁵ 악역을 맡는 일은 단지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본질, 즉 본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이미지는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이란 점이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넷플릭스 드라마 속의 부정적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수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작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피상적인 인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자신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려면 결국 타인을 거울로 삼아야만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의 특성은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연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란 상상력에 호소하며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힘을 갖는 형

5) 악역 단역만 40년을 해온 탤런트 겸 영화배우 변희봉씨는 '수사반장'에서 잡범, 도적놈, 간첩, 도굴꾼, 교주, 등의 역할을 할 때 가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술회했다. 그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이가 아빠의 직업을 이해하면 서도 아빠를 알아보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모욕 때문에 탤런트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았다는 아픔을 말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08).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⁶

이것은 이미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란 시각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청각이나 미각, 후각 또한 상상력을 자극하여 특별한 형상을 형성한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머리 모양과 의상, 표정 심지어 음성의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에 의해 머리에 떠오른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미지의 힘과 중요성은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송태현은 그의 책 <이미지와 상징>에서 전자 영상 매체가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점을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송태현, 2005: 64-67).

첫째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기서 '수동적'이란 말은 자신이 경험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는 그대로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작자의 세계관이나 논리가 비판 과정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한다.⁷ 매력적이며 잘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에 심취한 시청자들로부터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현실과 대조하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둘째는 제작과 유통과정에서 배후에 권력가와 자본가의 개입을 우려할 수 있다. 현재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자본의 힘은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미지가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자본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영상제작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등장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이 경우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비판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본을 늘려주는 흥행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영상매체가 제공하는 과도한 정보다. 정보의 과잉이란 내용의 중요성에 상관없이 자극적인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자의 뇌에 전달되는 과도한 이미지들을 말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6) 소쉬르의 언어이론이나 기호이론의 주요 개념들을 시각 영역에 적용한 연구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왔다. 소쉬르의 자필 수고를 참조했을 때 그는 세 가지의 이미지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청각영상(image acoustique)이며 둘째는 문자언어로 대표되는 시각적 이미지이고 셋째는 사고와 개념, 즉 관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김우창·성완경 외, 1999: 164-166).

7) 워너브라더스가 2007년 제작한 영화 <300>의 경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파르타 병사들의 모습이 한국의 TV오락프로그램에서 패러디되며 크게 유행한 반면, 스파르타와 싸웠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 이란의 언론들은 자신의 조상을 야만인에 가깝게 표현했다며 격분했다. 영화 <300>은 서방의 스파르타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반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극악무도한 군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빨간 망토를 두르고 복근이 빛나는 근육질의 백인 남성들이 인기를 끈 것은 인종차별적이고 미국과 이란의 적대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이미지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중앙일보, 2023).

한국 드라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면 한류열풍은 오히려 선교대상자들의 머릿속에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영상 이미지는 이야기의 개연성을 살피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머릿속에 느낌의 상태로 먼저 자리 잡기 때문이다.

IV. 현상-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부정적 기독교인의 세 가지 특징

영화 <도가니>(2011)와 <수상한 그녀>(2014) 그리고 <남한산성>(2017) 등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이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서 공개한 9부작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Squid Game, 2021)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황동혁 감독은 사회문제를 감각적인 연출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한편, 영화는 영화대로 흥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놀라운 재주를 보여왔다. 영화 <도가니>(2011)가 장애인 성폭력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부여하는 일명 ‘도가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성공 요인 가운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한국 놀이문화가 주는 신선함에서 오는 재미도 있지만,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한국적인 문화이지만 게임 참가자들의 모습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서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성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황동혁 감독은 <도가니>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했다. 드라마에는 세 명의 기독교인 캐릭터가 언급되거나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기독교인 캐릭터는 세 가지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위선적인 인물의 이미지로 나타나며, 둘째는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리고 셋째는 이웃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고 전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전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1. 위선적인 캐릭터로서의 기독교인

<오징어 게임>의 244번 참가자 지영(이유미)은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현장에서 살해한 후 교

도소 복역을 끝내자마자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경우다. 탈북민으로 소매치기까지 하며 살아온 강새벽(정호연)과 짝을 이루어 진행하는 4번째 게임에서 지영은 게임을 포기하며 새벽과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언급된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성폭력을 일삼는 짐승과 다름없었다.

“그 인간 직업이 목사였어. 엄마를 때리고 나한테 그 짓을 하고 나면 항상 기도를 했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드라마에서 인식되는 기독교인의 첫 번째 이미지는 위선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오징어 게임>에 나타나는 위선적인 인물은 목사이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딸에게는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형태로 제시된다. 지영이 살해한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은 단지 출연자의 단 한 번의 대사를 통해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것과 유사한 사건 보도를 언론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그 이미지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거기다 자살과 다름없는 지영의 죽음을 유도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드라마 속에서 언급된 목사는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지영과 새벽이 구슬치기하는 짝으로서 게임을 해야 하지만 지영은 새벽이 이기도록 스스로 게임에서 저준다. 그러한 행동의 원인은 그곳에서 벗어나 살아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지해줄 부모도 없고, 무엇보다도 목사인 아버지의 위선적인 태도로부터 신앙은 자신의 인생을 세워줄 버팀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독교인이 반사회적 존재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일은 드라마 <수리남>에 와서 더욱 분명해진다. <수리남>에서는 비록 사기꾼이 목사 신분으로 위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배경(교회)과 행동(예배), 신분(목회자), 의상(성직자 의상, 십자가 목걸이)과 언어(교회언어) 등에서 교회 성직자의 완벽한 모습을 갖추는 바람에 목회자란 이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2.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의 이미지

<오징어 게임> 속 244번 남성은 ‘기도하는 XX’로 불리운 사람이다. 유리 징검다리를 건널 때 뜬금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가는 도중에 주저앉는 바람에 뒷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밀쳐서 떨어져 죽게 만들기도 한다. 즉 살인을 저지른다는 사실이다. 그 역시 타인에 의한 죽음을 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호명에는 차례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린 어차피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와 같은 그의 언행에서 시청자들은 현실 상황과 동떨어진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 남성 캐릭터는 참가자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그 설교는 위

로나 용기와는 거리가 멀며, 심판의 날을 얘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남을 심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의 극 중 논리는 누가 어떻게 최후의 1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겨루는 ‘데스 매치’의 성격이라서 배반과 반칙이 난무하지만 244번 남성의 경우 그 어디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구별된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 배우의 결합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더 글로리>의 등장한 기독교인 또한 <오징어 게임> 속 ‘기도하는 XX’로 불리는 남성과 유사하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을 소재로 주인공의 계획적인 복수를 그리고 있다. 여기서 악당역 가운데 한 사람은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이다. 드라마의 가장 핵심 악역의 절친 이사라(김히어라)는 부정적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다.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목사인 까닭에 기도하고 성가대 활동을 하는 등의 신앙적 면모가 겉으로는 묘사되지만,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며 약자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가져다 모아 놓은 종합세트 같은 캐릭터라 할 수 있다.

3. 전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전도자의 이미지

드라마에 등장한 세 번째 기독교인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이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비 오는 거리에 버려졌을 때 처음 만나는 인물이다. 비가 오는 날 길거리에 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글자가 쓰여진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을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볼 수도 있는 반면, 과도하게 전도에 집착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장면은 기독교 변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구원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기독교 전도자로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칠 때 전도자의 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세속적인 사회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선교언어를 재생시켰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나 감독은 기독교의 교리적 특성이나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갖고 기독교인을 묘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전도에 집착하는 이미지로 기독교인을 희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거리의 전도자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기훈을 보고 입을 연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였다. 지나치게 전도에 집착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입고 있던 우비를 벗어주지도 않았고 위급의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거나 쓰러진 사람을 세워 일으키는 등의 약자를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기독교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즉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앙적 일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제공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V. 사회적 분석

미디어 중심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학자들 가운데는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비판이나 부정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작에 참여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조직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제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지를 세심하게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박진규, 2023: 112-113). 즉 해당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해 낸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는 일이다.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부정적 기독교인의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위치한 종교적 상황이나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의 영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는 무종교다.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무종교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다. 한국갤럽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무종교인의 비율이 1984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Gallup Korea's 'Religion of Koreans' 2021 Survey (%)

조사년도/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종교 없음
1984	19	17	6	56
1989	21	19	7	51
1997	18	20	7	53
2004	24	21	7	47
2014	22	21	7	50
2021	16	17	6	60

*그 외의 다른 종교: 1984년 3%, 1989년 2%, 1997 2004년 1%, 그 이후는 1% 미만.

한국갤럽은 무종교인 비율이 증가한 결정적 원인을 청년들의 종교인구가 감소한 데서 찾아냈다. 2004년 조사를 할 당시 20대 종교인구는 45%였는데, 2014년에는 31%, 2021년에는 22%로 조사되

었다. 15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속적 문화에 세례를 받고 자란 청년들은 뜻밖에도 판타지에 익숙하다. 인기있는 온라인 게임의 이미지와 스토리는 신화나 종교적 성격을 가진 판타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교회와 예배에 관심 없는 현대인들이 지옥, 영혼, 심판, 부활과 같은 초월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를 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박진규는 ‘매개종교(mediated religion)’란 개념으로 이름 붙였다(박진규, 2023: 43-48). ‘매개종교’란 단순한 현실의 투영이나 반영이기보다는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에 의해 나타나는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된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간 드라마에서 기독교인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사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첫째 그들은 무종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써 종교적 가치나 종교의 거룩함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고 다만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원초적 액션과 새로운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둘째는 무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떻게 나왔든 관심이 없다. 기독교인의 등장은 드라마 속의 소품 역할인 경우가 많고 그 소품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제자리에 놓일 수도 있고 주인공에 의해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속의 기독교인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 개연성을 놓칠 수는 없다.

1. 현실사회에 나타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중 영상물들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인식되어 왔다. 비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투명한 거울은 아닐지라도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습을 분간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새로운 모습을 영상 콘텐츠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들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도 극중 표현된 이미지들을 통해 관객이나 시청자는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2023년 2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최근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단순한 상상력의 결과가 아닌 사실에 기반한 이유 있는 묘사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로 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4%로 집계됐는데, 불신한다는 응답은 기운실이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시행해 온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목회자를 향한 신뢰도 역시 낮게 조사됐다.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0.8%에 불과했고, 절반을 훌쩍 넘는 74.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온 국민이 방역에 힘을 쏟을 때 종교의 자유, 즉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권리를 주장하며 대면 예배를 강조하거나 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일들은 비록 몇몇 교회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체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하기도 했다.

정재영은 이러한 한국교회와 목회자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언급했다.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와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상대방을 단순히 전도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왔다.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는 전도의 대상자와 타협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우월감으로 상대를 낮잡아보기 쉽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90).

동북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빠른 교회 성장을 이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드라마 속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비춰지는 현실은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의 결과가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교회 생활의 영역에만 가둬둔 채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거룩성을 상실했고 늘 세상을 세속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와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김광연, 2022: 60).

이것은 곧 넷플릭스 드라마에 묘사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감독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 속 기독교인의 모습을 일부나마 투영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다.

2. 미국 바나(Barna) 연구소의 'fermi project'와의 비교

현실사회의 교회 밖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연구한 기관은 미국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통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바나 연구소(Barna Institute)이다. 바나 연구소는 비기독교인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기 위해 설립한 Gabe Lyons의 'fermi project'를 진행했다. 기독교가 사회에서 외면 받는 현실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양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총 20여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조사를 해온 바나 연구소의 자료와 16세에서 29세 사이의 비기독교인 젊은이들을 대상을 실시한 이 연구는 2007년 <Unchristian>이란 이름의 책으로도 발간이 되었다(Kinnaman, David and Fermi Project, 2008: 435-43).

비록 지금의 본 연구와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아닌 현실사회에서 마주하는 미국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다루었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드라마와 드라마가 비추는 현실이 완벽한 분리 상태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관계일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fermi project’는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과도 일치한다.

Table 3. Comparison of the negative images of Christians in <Squid Game> and ‘Permi Project’

<오징어 게임>의 한국 기독교인 이미지	바나 연구소의 ‘fermi project’결과에 나타난 미국 기독교인의 이미지
1. 위선적인 인물의 이미지 2.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의 이미지 3. 전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전도자의 이미지	1. HYPOCRITICAL(위선적인) 2. JUDGMENTAL(타인을 판단하는) 3. TOO FOCUSED ON GETTING CONVERTS(전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4. ANTIHOMOSEXUAL(동성애를 혐오하는) 5. SHELTERED(안일한, 고루한) 6. TOO POLITICAL(지나치게 정치적인)

바나 연구소의 ‘fermi project’ 결과를 보면 총 6가지 종류의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가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중 3가지는 <오징어 게임>에서 발견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이것은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미국인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자신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인과 다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나머지 3가지의 이미지 또한 아직 한국의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았을 뿐 현실 세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뉴스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아울러 기독교인들의 동성애 반대 집회 소식을 듣게 된다. 일부 목회자들이 거리에서 정치집회를 열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또한 뉴스 보도를 통해서다.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급감하는 이유가 출생률 저하에만 있지 않고 교회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문화 갈등 또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한국의 교회들은 경험하고 있다. 아직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하지 않은 이 세 가지 교회 현상들은 모두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산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 아래서 행해지는 신앙의 정체성과 정당한 행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세속적인 사회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암5:24) 해야 하는 책임과 더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사40:3, 요1:23)로서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도 필요하며 현실적인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VI. 프란시스 웨퍼의 문화적 변증론으로부터의 대안 모색

비기독교적이며 반기독교적인 문화적 분위기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고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던 프란시스 웨퍼의 ‘문화적 변증론(Cultural Apologetics)’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웨퍼는 ‘변증학’의 목적을 방어(defense)와 전달(communication)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방어는 비기독교 혹은 반기독교적 메시지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논증적 방어를 말하며, 전달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소통시키는 것을 말한다(Schaeffer, 1994:179).

먼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논증적 방어를 웨퍼의 이론에 적용하자면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의 긴장 지점들(points of intension)을 찾아내어 이것들이 내포하는 더 넓은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McGrath, 2014: 228).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긴장점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롬3:23) 즉 죄인 된 인간 존재의 특성에서 우리는 위선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선적인 면모를 누구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비난하고 보여주는 미디어에서 우리는 세속적 사회가 기독교인들에게 갖는 ‘기대(expectation)’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박진규, 2023: 113-114). 미디어는 공공의 삶에서 종교가 차지해야 할 바람직한 위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속 사회가 일반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정된 가치 기준이 있고 이것에 미치지 못할 때 기독교인은 위선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난 기독교인의 위선적인 모습의 원인에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경향이 깔려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은 낙태나 동성에 반대뿐만 아니라 순결서약과 도박 금지와 금주 등을 얘기하며 도덕적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인간은 누구나 완벽해질 수 없지만 투명해질 수는 있다. 일반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솔직하기를 바라고 지도자라면 당연히 솔직해야 한다. 투명함의 동기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투명성의 회복은 위선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Kinnaman, David and Fermi Project, 2008: 100-105).

쉐퍼는 그의 다양한 저술과 강연 그리고 영화제작 활동이 의미하듯이 ‘방어’보다 ‘전달’에 관심이 많았다. 즉 그는 어떤 특정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독교를 전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쉐퍼의 이 같은 변증론은 일종의 ‘문화 선교’로써 OTT 서비스를 즐기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진리를 소통할 때 필요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소명의식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애플TV의 드라마 <파친코>(2022)와 동명의 원작 소설의 흥행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의미있는 행동을 통한 인생 구원의 역사가 펼친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이삭 목사는 일본 교회에서 사역 중 중국인 성도가 천황숭배 대신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죄목으로 2년간 투옥되고 가뜩이나 병약한 몸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당하고 고문 끝에 순교한 주기철 목사처럼 그 역시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제 치하의 기독교 신앙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다.

<파친코>의 원작자인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 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자신이 기독교 신앙인이며 원작에는 성경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하기도 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라는 사실에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평양 백부자의 모델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평양 백부자에게는 독립운동하다 죽은 큰아들 사무엘과 둘째 요셉 그리고 셋째 이삭이 있다. 이름을 짓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자세와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암시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독교인의 높은 위상을 드라마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세계를 향한 OTT 드라마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담아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이다.

VII. 결론 및 제언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대상 자신이 본질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략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뜻한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벧전2:9) 이라는 성경에서 규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가 성경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때 큰 힘이 되는 메시지임이 분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발견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는 성경에서 얻은 것이 아닌 일상에서 경험 되어진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연출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기독교인에 대해 갖는 판단의 근거가 되거나 기존의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과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오징어 게임>을 반면교사(反面教師) 삼아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하고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쓰는 일이다. 기독교 변증학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McGrath, 2014: 63). 세상이 기독교인에 갖고 있는 기대감에 부응하는 삶은 분명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공공의 영역에서 세상의 이웃을 섬김으로써 교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이다. 이웃과의 친절한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교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한다면 분명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기술, 학문 등의 공공영역을 주도하였던 곳이 바로 교회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활동했던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구원과 개인적 경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공공영역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다(손봉호, 2017: 92-93).

셋째는 교회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훈련된 기독교 대중예술가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일은 신앙과 문화 혹은 교회와 세상을 나눠서 보는 이분법적인 판단은 중지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창1:28)을 실

현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세상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진구 (2020). 교회제작 영화 연구. **복음과 선교**, 51, 9-51.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김광연 (2022).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이중적 태도와 선교적 과제-교회와 사회적 삶의 연결부재와 선교방향 모색. **복음과 선교**, 59, 49-79.
- 김우창·성완경 (1999).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 김태룡·안승범 (2023). 넷플릭스 시리즈 속 기독교인 캐릭터에 투영된 상호교차적 권력관계 고찰. **신앙과 학문**, 28(3): 29-48.
- 문석호 역 (1994). 기독교 문화관. Schaeffer A. Francis (1980). *The Complete Works of Francis A. Schaeffer A Christian Worldview Volume One*.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박진규 (2023).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 서울: 컬처룩.
- 손봉호 (2017). **주변으로 밀려난 기독교**. 서울: CUP.
- 송태현 (2005). **이미지와 상징**. 서울: 라이트하우스.
- 유평근·진형준 (2009). **이미지**. 파주: 살림출판사.
- 윤명진 (2022). 중앙아시아 선교와 한류에 관한 고찰. **복음과 선교**, 59: 115-153.
- 이현모 (2022).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선교. **복음과 선교**, 57: 115-151.
- 이현주 (2021). 일간신문의 종교보도 현황과 선교적 대응과제. **복음과 선교**, 56: 197-238.
- 피종호·이준서·임상욱 (2002). **영상문화시대에 따른 인문학적 대응전략으로서의 이미지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교육개발원.
- 허만섭 (2023). 넷플릭스 킬러콘텐츠<오징어 게임>의 해외 연구 동향: 체계적 문헌 고찰. **디지털 콘텐츠학회**, 24(4): 713-723.
- 이창근·김광수 역 (1997). **매스미디어 심리학**. Harris, Richard (1987). *A Cognitive Psychology of Mass Communication*. 서울:나남출판사.
- 이혜진 역 (2008). **나쁜 그리스도인**. Kinnaman, David and Fermi Project (2007). *unChristian*. 파주: 살림출판사
- 경기연합신문 2021. 10. 18일자. “오징어 게임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 넷플릭스 ‘1조원 이상 평가’
<https://www.g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489> (검색일 2023.08.01)

경향신문 2008.03.06일자. “악역 단역 40년 만에 꽃피우는 배우 변희봉”

<https://www.khan.co.kr/article/200803061000265>.(검색일 2023.08.18.)

경기연합신문 2023.08.06.일자. “한류·제국주의·반페미니즘 ‘백래시’… 세계 학자들이 연구한 ‘오징어 게임”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2308061522001>.(검색일 2023.08.06)

국민일보 2022.09.21일자. “팬데믹에 썰물처럼…장로교단 성도 3년새 55만 명 뚝”.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94869>. (검색일 2023.08.11)

국민일보 2023.03.20.일자. “기독교 비하 풍토 만연…세상 속 복음 스며들게 해야”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2445>, (검색일 2023.09.15)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02.08일자. “빅데이터로 본 2022년 한국교회 4대 이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7.(검색일 2023.08.0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11.02.일자. “개신교인의 교회 인식 조사”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9.(검색일 2023.07.31)

스포츠동아 2023.06.22일자.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도스 ‘믿음 보여준 韓, 25억 달러 투자 예정”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622/119886609/1>.(검색일 2023.07.31)

연합뉴스 2021.10.20일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대박에 3분기 신규가입자 438만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0011700075>. (검색일 2023.07.31)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 연구

A Study on the Image of Christians in Netflix Korean Drama 'Squid Game'

강진구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독교인 캐릭터가 등장하며 모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첫째는 위선적인 인물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둘째는 타인을 판단하고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셋째는 지나치게 전도에만 집중하는 자기중심적인 전도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일반인이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연구한 Fermi Project의 결과와도 유사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닮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 속의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주관적이며 선한 기독교인의 실체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지의 영향력은 매우 강해서 선교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거울삼아서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쓰는 일이다.

둘째는 공공의 영역에서 세상의 이웃을 섬김으로써 교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일이다.

셋째는 교회가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훈련된 기독교 대중에 술가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일이다.

이 모두는 신앙과 세상을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이 우리에게서 시급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주제어: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기독교인 이미지, 나쁜 그리스도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프란시스 웨퍼, 문화적 변증론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PERMAS 모델을 중심으로*

The Consider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bout Well-Being Theory of Positive Psychology -Focusing on PERMAS Model

김수지 (Sooji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positive psychology's theory of well-be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o reveal its acceptability and limit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Positive psychology, which pursues a scientific approach to studying human happiness, has changed the direction of psychology. Previously focused on problem-solving, psychology now emphasizes growth and prevention. Positive psychology initially proposed the authentic happiness theory with human happiness as its central theme. However, after discovering various limitations within this initial theory, it advocated an expanded theory of well-being. The theory of well-being aims at flourish, a life that surpasses momentary happy and thrives continually. This theory includes the PERMAS model, which identifies key factors influencing flourish.

Positive psychology offer significant benefits in the field of counseling, yet it is a humanistic theory that requires evaluation and integr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before its applic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well-being and flourish are to liv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and they should be addressed together well-dying. Furthermore,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each of the PERMAS factors can be developed through a relationship with God rather than solely through human effort.

Key words: Positive Psychology, Well-Being, PERMAS, Christian counseling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27일 최종수정, 11월 27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ksjjj93@naver.com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논의는 고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행복한 삶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다루는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Deci & Ryan, 2008: 1).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행복은 개입 목적인 동시에 개입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감을 높이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리학의 주요한 실천 목표가 되어왔으며, 실제 초기 심리학의 실천적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후 심리학의 방향성은 정반대로 변화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심리학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심리적 장애를 밝히고 치료하는 데에 몰두하게 되었다. 심리학 연구는 많은 부분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성장보다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개입에 집중하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부정적 정서 및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연구와 개입에 주된 초점을 두었던 경향성은 기독교 상담의 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독교 상담의 원형은 교회의 변화 과정과 시대적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기에 각 시대적 사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양병모, 2011: 93-106). 제2차 세계대전은 사회에 소속되어 존재하는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일반심리학이 전쟁의 영향으로 문제 중심적 접근에 주력하게 된 것처럼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한 접근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간의 질병 혹은 부정적인 정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의 노력은 많은 연구를 거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 해결에 유익한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인간의 긍정적인 자원과 성장 가능성을 간과하였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Seligman은 기존의 심리학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인식과 함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며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Seligman, 김인자·우문식 역, 2014: 22-26). 1998년 미국심리학회장으로 취임한 Seligman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과 행복 증진을 위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전환과 새로운 방향성을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고 명명하였다(Seligman, 2011: 1-2). 이를 계기로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과 관련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도 긍정심리학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시작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Collins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10가지 대변화의 물결 중 하나로 긍정심리학의 발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ollins,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2008: 934).

긍정심리학의 발전을 “물결(wave)”에 빗대어 설명한 Lomas 외(2021: 660-661)에 따르면,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성에 집중한 첫 번째 물결로 시작하여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역동이었던 두 번째 물결을 지나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는 것을 강조하는 세 번째 물결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발전 속에서 긍정심리학은 초기에 제시했던 진정한 행복 이론의 여러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기 이론인 웰빙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인간의 강점과 행복을 과학적 접근방법으로 다룬 긍정심리학은 발전을 통해 기존에 이루어졌던 해결 중심적 접근보다 예방, 교육, 발달적 개입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며(강연정, 2015: 11), 개인과 집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긍정심리학의 발전과 변화 과정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치우쳤던 기존 심리학의 시각이 균형을 찾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 긍정심리학을 비평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긍정심리학이 주장하는 행복과 인간에 대한 관점,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적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이든 일반 이론을 활용한 기독교 상담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담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긍정심리학을 기독교 상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학의 관점과 이론의 내용을 파악하여 비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심리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강연정, 2015 ; 고윤숙, 2022 ; 권수영, 2012 ; 김도훈, 2017 ; 이창규, 2016), 일반상담 영역에서 이루어진 긍정심리학 관련 연구에 비하면 매우 미비하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초기 이론에서 발전된 형태의 이론인 웰빙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웰빙 이론은 초기 이론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욱 다차원적으로 다루었다. 무엇보다 인간의 성장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이 맞춰진 웰빙 이론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기초로 웰빙 이론은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평가하여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의 최초 이론의 확장된 형태인 웰빙 이론을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기독교 상담학적 수용

점과 제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학 이론의 기초와 초기 이론인 진정한 행복 이론에 대해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웰빙 이론과 웰빙 이론의 핵심 모델인 PERMAS를 정리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 이론과 핵심 모델인 PERMAS에 대하여 논의하고, 웰빙 이론을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수용 가능한 점과 제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긍정심리학의 진정한 행복 이론

1. 긍정심리학의 기초

긍정심리학은 행복한 삶과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성장을 위한 학문적 접근이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덕성 등과 같은 개인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장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 개인을 넘어 집단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관심을 가진다. Sheldon과 King(2001: 216-217)은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인간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행동하며, 삶에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평가하였다. 긍정심리학은 과거 심리학의 주된 목표였던 문제의 해결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를 넘어 성장과 예방을 위한 연구와 개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인간의 성장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학은 인간을 낙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발 가능한 가능성에 주목한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한다(권석만, 2008: 27). 긍정심리학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며, 그러한 삶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인간관은 상담 현장에서도 상담자가 내담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하였다.

인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긍정심리학이 태동하기 이전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인본주의 심리학의 관점과도 연결된다. 긍정심리학의 학자 중 한 사람인 Peterson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현재의 긍정심리학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우문식, 2017: 16-17). 또한, 긍정심리학의 낙관적인 시각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지닌 실존주의와도 연결된다. 실존주의는 인간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을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인간을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긍정심리학의 인간에 대한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비록 긍정심리학의 대표 학자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연구 방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긍정심리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을 구분하고 있지만(권수영, 2012: 382), 긍정심리학의 인간에 대한 관점과 가정만큼은 인본주의 심리학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긍정심리학의 기본이 되는 가정 중 하나는 인간에게 고통이나 질병 등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강점이나 탁월함과 같은 자원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Peterson, 2006: 5). 긍정심리학은 위기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치유와 회복을 지향하는 것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에게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보는 긍정심리학의 가정은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는 개입에 힘쓰도록 하였으며, 치료가 아닌 예방을 사명으로 삼도록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삶에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함을 인정하는 긍정심리학은 정서 역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각각 존재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과거 심리학의 주장과 달리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각기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심리학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지만, 긍정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과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과정이 매우 독립적이라고 본 것이다.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독립적인 변인이라는 것은 긍정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전의 장기적인 연구를 실행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하였다(Bradburn, 1969 ; Egloff, 1998). 긍정심리학 역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각 정서의 기능뿐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르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긍정 정서를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정서 자체를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뤄야 할 세 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긍정심리학의 기둥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세 가지 주제는 주관적 차원의 정서를 의미하는 긍정 상태(positive states), 일시적인 정서 반응과 비교하여 일관적인 특성인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인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이다(Seligman, 김인자·우문식 역, 2014: 25-26). 먼저, 긍정 상태는 쾌락과 같이 단기적으로 느끼는 정서 반응과 행복감, 안녕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되며, 일시적으로 느끼는 정서와 함께 자신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정서도 포함한다. 긍정 특질은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인 강점 및 미덕과 관련된 것으로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 포함되며, 개인의 능력도 함께 다뤄진다. 긍정 기관은 앞의 두 가지 주제인 긍정 상태와 긍정 특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제도 및 사회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긍정 기관은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이 위협을 받는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핵심 주제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행복감을 높이고 발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며, 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도록 하는 개입 방향과도 연결된다.

2. 진정한 행복 이론

긍정심리학은 여러 이론과 요인을 포함하기에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가설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 이론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 ‘진정한 행복 이론(authentic happiness theory)’을 구축하였다. 진정한 행복 이론은 인간의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을 삶의 만족도라고 보았으며, 추구되어야 하는 인생의 목표는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eligman, 우문식·윤상운 역, 2011: 36-37). 초기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 이론을 기초로 개인과 사회가 행복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방법과 개입 전략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힘썼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을 다루는 데 있어 행복에 대한 철학적 주장인 쾌락주의적(hedonism) 관점과 행복주의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자기실현적(eudaimonism) 관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단기적으로 즐거움과 만족감과 같은 정서를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최대화하는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 쾌락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의 행복은 고통과 불쾌함을 최소화하고, 쾌락과 같은 인생의 즐거움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Ryan & Deci, 2001: 143-145).

개인의 단기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행복과 달리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개인은 행복을 위해 자기를 실현하여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심리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덕성을 다루는 것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대모니아(eudaimonia) 개념과도 유사하다(박주언 외, 2008: 109). 따라서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며(Deci & Ryan, 2008: 2-3),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긍정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추후 행복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

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진정한 행복 이론은 행복을 주제이자 목표로 삼아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세 가지 기둥으로 소개하며 각 주제를 확장하였다. 행복한 삶은 첫째, 즐거운 삶(the pleasant life)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경험하는 삶, 둘째, 적극적인 삶(the engaged life)으로 일과 사람 등에 열정을 다하여 참여하는 삶, 셋째, 의미 있는 삶(the meaningful life)으로 개인의 삶에서 확장된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Seligman et al., 2006: 780). 행복 이론이 제시한 행복한 삶의 세 가지 기둥은 긍정심리학이 다루는 주요한 주제인 동시에 행복한 삶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므로 긍정심리학은 세 가지 조건을 실현하기 위한 개입과 실천 방법들을 다룬다.

행복한 삶의 세 가지 형태는 각각 긍정심리학의 세 가지 요소인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와도 연결되어 발전하였다. 진정한 행복 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세 가지 요소인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Seligman, 2011: 11-12). 첫 번째 요소인 긍정적 정서는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기쁨, 즐거움, 희열, 만족감, 자부심 등의 정서를 의미한다. 두 번째 요소인 몰입은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되어 자신과 타인, 시간 등의 요소를 자각하지 못할 만큼 특정 활동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다. 세 번째 요소인 의미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기초한다. 진정한 행복 이론이 다루는 세 가지 요소인 긍정적 정서, 몰입, 의미는 추후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이론인 웰빙 이론의 핵심 요소에도 포함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진정한 행복 이론이 지닌 한계점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Seligman은 행복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행복 이론이 세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우문식, 2017: 46-48).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 이론의 목표인 행복이라는 용어는 특정 시점의 정서 반응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용어의 한계는 일시적 정서 반응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로 측정되는 행복은 측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 측정에는 검사하는 당시의 일시적인 기분이 매우 지대하게 반영되었으며, 전체 검사자 중 70% 이상은 측정하는 시점의 기분 따라 삶의 만족도 수준을 결정하였다. 세 번째 한계점은 행복 이론이 ‘그 자체가 좋아서’ 선택하는 것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삶의 만족도 척도는 몰입이나 의미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eligman(2011: 13-15)은 이후 기존의 행복 이론에서 다른 요소에 일부를 추가하여 확장된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III.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과 PERMAS 모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긍정심리학은 진정한 행복 이론을 통해 인간의 행복한 삶을 다루었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킨 후 웰빙 이론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은 진정한 행복 이론이 주장한 행복을 넘어 개인이 최적의 기능을 하여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플로리시를 목표로 하며, 플로리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과 웰빙 이론이 추구하는 방향이자 목표인 플로리시를 위해 함께 제시된 PERMAS 모델을 살펴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웰빙 이론과 PERMAS 모델

‘웰빙(Well-being)’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 중 하나로 어원적으로는 ‘잘 사는 것’과 ‘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umner, 1996: 1-5). 웰빙은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제시된 용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48년 세계보건기구 헌장에서는 건강이 질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감을 느끼는 상태임을 제시하였다(예방의학 편찬위원회, 2007: 31-44).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와 같이 웰빙은 삶에서 부정적인 차원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인생에 대한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웰빙은 전통적으로 앞서 다룬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인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아실현적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쾌락주의적 관점에서의 웰빙은 긍정적인 정서를 수반하는 경험과 관련되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혹은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덕진·양명환, 2008: 3). 쾌락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의 삶의 질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포함한다(Diener, 1984: 543-544).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인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및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된 것이며, 인지적 요소는 삶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즉,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보다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많이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한편, 자아실현적 관점에서의 웰빙은 주로 심리적 웰빙 혹은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과 같은 요인으로 평가되고 연구되어 왔다(김덕진·양명환, 2008: 3). 자아실현적 관점에 기

초한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가능성을 높이는 태도와 행동을 통해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Deci & Ryan, 2008: 2-3). 심리적 안녕감은 쾌락적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에 일치되는 것과 관련되며(Ryan & Deci, 2001: 145-147),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웰빙은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을 기초로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삶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가지는 것과 성장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포함한다.

웰빙과 관련된 논의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욱 강조되고 있다. 웰빙에 대한 인식은 몸을 향한 관심으로 출발하여 건강과 삶의 질, 욕구의 실현 등으로 표현되다가 21세기에 들어 웰빙의 개념으로 통합되었으며(최남숙, 2005: 16), 현대에 이르러서 웰빙을 추구하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더불어 긍정심리학의 발전은 웰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긍정심리학은 초기 이론인 진정한 행복 이론부터 발전된 형태의 이론인 웰빙 이론을 통해 인간의 행복한 삶과 웰빙에 대해서 다루어왔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은 진정한 행복 이론에서부터 웰빙과 관련된 개념인 행복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여러 가지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 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 ‘웰빙 이론(well-being theory)’을 제시하게 되었다(Seligman, 2011: 13-15). 웰빙 이론은 진정한 행복 이론과 목표에서부터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Seligman은 웰빙 이론을 통해 ‘플로리시(번성, flourish)’가 긍정심리학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진정한 행복 이론의 목표가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었던 것과 달리 웰빙 이론은 행복에 비해 다원적인 개념인 플로리시 수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eligman, 김인자·우문식 역, 2014: 41).

플로리시란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상의 범위에 속하는 삶을 의미하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최적의 상태를 뜻한다(김혜진·홍혜영, 2023: 425). 플로리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웰빙 이론의 목표인 플로리시는 쾌락주의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의 각 측면을 다차원적으로 포함하고 있다(Huppert & So, 2013 ; Keyes, 2002). 즉, 플로리시는 인생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만족하는 쾌락주의적 웰빙을 포함하는 동시에 개인의 가치와 의미에 따라 자아실현을 이루는 자아실현적 웰빙을 포함하며,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에서도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어 왔지만, 웰빙 이론이 제시한 플로리시는 더욱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은 일시적인 행복감이 아니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는 플로리시를 지원하기 위한 이론이며, 플로리시는 지속성을 강조하고 행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상태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김선형, 2017: 353).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플로리시를 위한 웰빙은 개인의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최적의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우문식, 2017: 52), 인간의 전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웰빙 이론은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된 핵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핵심 모델은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웰빙 이론에서 핵심 모델의 각 요인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 주제를 다루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플로리시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

웰빙 이론은 플로리시를 증가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 모델을 제시하였다. 웰빙 이론의 핵심 요인은 기존의 행복 이론에서 다뤘던 세 가지 요소에서 두 가지가 추가되었으며,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P), 몰입(Engagement: E), 긍정적 관계(Relationships: R), 의미(Meaning: M), 성취(Achievement: A)의 앞 철자를 따서 'PERMA'로 명명되었다(Seligman, 2011: 24). 웰빙 이론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인 PERMA는 측정 가능한 다차원 구인으로 각 요인은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성격 강점(Strength: S)은 다섯 가지 요소의 기반이 되어 플로리시를 증가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Seligman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인에 성격 강점을 더한 'PERMAS'를 웰빙 이론의 모델로 삼았으며(우문식, 2021: 50),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긍정 정서(positive emotion: P)

PERMAS 모델의 첫 번째 요소인 긍정 정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방향의 다양한 감정이 포함되는 긍정 정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으며, Csikszentmihalyi(1990: 45-48)는 긍정 정서를 쾌락(pleasure)과 즐거움(enjoyment)으로 분류하였다. 일시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쾌락은 오감의 반응과 관련되어 본능적인 욕망 혹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느끼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다. 반면, 즐거움은 쾌락과 달리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장이나 발전의 결과 혹은 원하는 행동 그 자체로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이다. 긍정심리학은 일시적 정서 반응인 쾌락을 위한 노력보다 지속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권석만, 2008: 30).

긍정 정서는 다른 형태의 분류로 시간적 차원인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점에 의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 긍정 정서는 과거의 긍정 정서, 현재의 긍정 정서, 미래의 긍정 정서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

하며, 세 가지 정서를 아는 것은 개인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ligman, 2002: 62). 과거의 긍정 정서는 다른 시점의 긍정 정서보다 사고와 해석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감사를 통해 인생의 긍정적인 사건에 집중하고 용서를 통해 부정적인 사건과 정서를 해결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 현재의 긍정 정서는 쾌락과 즐거움과 관련되고, 마음챙김(mindfulness)과 음미하기(savoring)를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미래의 긍정 정서는 낙관성과 희망과 같은 긍정 특성의 영향을 주되게 받으며,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긍정 정서는 인간의 적응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부정 정서를 상쇄시켜 개인이 더욱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한다. 긍정 정서의 연구자인 Fredrickson(1998)은 긍정 정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확장 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을 제시하였으며, 긍정 정서가 개인의 자원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개인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하여 안녕감을 높인다고 하였다(Snyder & Lopez, 2022: 122-123). 확장 및 구축 이론에 의하면, 긍정 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혀 지속적으로 개인적 자원을 구축하도록 한다.

긍정 정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긍정 정서는 개인의 삶의 질 혹은 정신적 건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Snyder & Lopez, 2022: 120-134). 긍정 정서는 개인을 보다 확장하도록 하고, 성장과 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일상에 대한 만족도와 안녕감을 높였다(김경희·이희경, 2019; 347-348). 또한, 긍정 정서는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여 개인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은화 외, 2021: 383). 이처럼 긍정 정서는 개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며, 조직과 사회의 확장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 몰입(engagement: E)

두 번째 요소인 몰입은 Csikszentmihalyi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되었으며, 그는 몰입을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집중하고 심취해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71-72). 몰입은 주관적인 느낌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 정서와 공통점을 지니지만, 몰입을 통한 심리적 반응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긍정 정서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긍정 정서는 욕구가 충족된 순간 느끼는 긍정적인 느낌인 쾌락과 같은 일시적인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몰입은 몰입 상태에서 벗어나 그 순간을 회상할 때만 인식할 수 있다(Seligman, 2011: 16-17). 몰입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몰입의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 타인과 자신까지도 자각하지 못하게 되며, 몰입하는 그 순간에는 몰입 대상과 자신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몰입은 자기 목적적 경험으로 활동의 결과나 외적인 보상과는 무관하며, 개인의 내적 동기에 의해 유발된다(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15-35). 몰입은 개인의 선호도가 높거나 개인이 중요성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때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몰입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자원을 포함하여 개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으며, 몰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의 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몰입은 경험한 그 자체로 개인에게 동기를 일으키며,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도록 한다. 몰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며,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고와 경험을 확장하게 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낮았으며,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높았다(고현정·이민규, 2013: 286 ; 이보람·이정화, 2014: 357). 몰입은 긍정심리학이 말하는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여 성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도록 한다.

(3) 관계(relationships: R)

세 번째 요인인 관계는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ion)’라고 지칭되기도 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긍정적 관계는 행복하고 성숙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인생의 모든 발달 단계에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가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권석만, 2012: 447),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는 다양한 긍정적 자원을 가져다주기에 개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긍정적 관계는 긍정심리학이 강조하는 주요인 주제이자 플로리시한 삶을 위한 핵심 요인이다.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인 Peterson(2006)은 긍정심리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타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랑, 따뜻함, 친밀감 등의 많은 긍정 정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관계로부터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개인의 정체감 형성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Joiner와 Metalsky(1995: 783-786)에 의하면, 인간은 많은 경우 대인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며, 대인관계는 행복과 웰빙의 주요 요인이 된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을 중요시하며, 개인의 플로리시를 증진하고자 긍정적 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

(4) 의미(meaning: M)

네 번째 요인인 의미는 Frankl(2014: 93)에 의해 인간의 근원적인 동기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긍정심리학은 의미가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삶의 의미를 느끼고자 한다. 의미가 필요한 이유를 다룬 Baumeister(1991: 29-47)는 의미가 첫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발견하도록 하고, 둘째,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며, 셋째,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의미는 목표지향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삶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결정한다. 삶의 의미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의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행복한 삶의 필수적 요소이다(권석만, 2008: 445-448). 삶의 의미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인생을 더욱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Frankl, 2014: 151), 부정적인 사건과 정서의 영향을 완충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여 삶 자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박선영·권석만, 2012: 760). 이와 연결해 보면 인간은 의미를 통해 물리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이며, 삶의 의미를 확고히 하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장과 자기실현을 이루어 가는 데 필수적이다.

의미는 연결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며, 삶의 의미는 가족과 같이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큰 사회적 조직 혹은 어떤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05: 27). 인간은 의미를 느끼는 대상과 연결되기를 원하며, 의미는 연결성을 통해 개인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한다. 더 나아가 삶의 의미는 개인이 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므로 사회적 기능도 가진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대상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 성취(achievement: A)

다섯 번째 요인인 성취는 웰빙 이론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요인으로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Norrish et al., 2000: 153-154). 사람은 때로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성취를 추구하며,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긍정 정서, 의미, 긍정적 관계와 관련된 유익을 제공하지 않을 때도 그 일에 몰두하게 한다(우문식, 2021: 285). 하지만, 실제 많은 경우 성취는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를 느끼게 하

고, 몰입의 빈도를 높이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PERMAS의 다른 요인도 자연스럽게 함께 발전되는 것이다.

성취는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화가 가능한 몇 가지 요인으로 기술, 교육, 역할 모델을 꼽을 수 있다(우문식, 2021: 298-301). 성취를 위해 개인은 특정 영역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발전해 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 교육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앞서 성취를 이룬 모델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때, 성취는 개인의 선호와 관련되어 있기에 개인적 흥미 계발과도 연결되며, 흥미의 유지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취는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포함되기에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도록 하는 성격 특성인 집념(grit)이 요구된다.

성취를 다룸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점에 따른 성취의 영향력이다. 과거의 성취는 과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성취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느끼고 기대하게 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성취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동기가 되고, 이는 미래의 성취를 불러일으키는 자원이 된다(조은숙·김스완, 2016: 60). 성취 경험은 그것을 이룰수록 성취에 대한 동기와 성취를 이룰 때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심, 발전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높인다. 즉, 성취 경험 자체가 미래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미래의 성취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6) 성격 강점(Strength: S)

웰빙 이론의 마지막 요인인 성격 강점은 개인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이끄는 긍정적인 자질이 강점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 특성은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덕목으로 제시되었으며, 많은 심리학자 역시 인간의 긍정적인 특질과 관련된 여러 이론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긍정적인 특질은 긍정심리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이기도 했기에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긍정적인 성격 특성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VIA(Values in Action)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VIA 분류체계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에서 덕목으로 삼았던 성격 강점들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 구성되었다. VIA 분류체계에 의한 성격 강점은 6개의 핵심 덕목과 하위 24개의 강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점의 내용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성격 강점의 분류체계: VIA(Peterson & Seligman, 2004)

덕 목	지혜 (wisdom)	용기 (courage)	자애 (humanity)	정의 (justice)	절제 (temperance)	초월 (transcendence)
성격 강점	-창의성 -호기심 -판단력 (개방성) -학구열 -지혜	-용감성 -끈기 -정직 -열정	-사랑 -친절 -사회성	-협동심 -공정성 -리더십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통제력	-감상력 -감사 -희망(낙관성) -유머감각 -영성

성격 강점은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더욱 잘 발휘하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능이나 능력과 유사하지만, 긍정심리학자들은 성격 강점이 재능이나 능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그 자체보다 성과에 의해 가치를 가지지만, 성격 강점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계발할 수 있고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권석만, 2008: 176).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성격 강점은 실제 자아실현과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사고뿐 아니라 정서와 행동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다른 웰빙 이론의 다섯 가지 요인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PERMAS는 각 요소가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지지만, 동시에 서로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각 요인은 서로 동반되기에 하나의 요인을 높이는 과정과 결과는 다른 요인이 함께 높아지도록 한다(조은숙·김스완, 2016: 60). 즉, PERMAS는 상호관계성을 지니기에 서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 개인이 높은 수준의 행복과 플로리시를 추구하고 이루는 것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웰빙 이론의 핵심 이론인 PERMAS는 각 요소가 세부적으로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강화해 나갈 수 있다.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 이론과 PERMAS 모델

웰빙 이론의 주제가 되는 웰빙과 목표인 플로리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우선적이며, 복음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근거를 둔다(안경승, 2014: 232). 성경적 행복을 삶의 목적, 내용, 방법, 결과적 차원에서 정리한 강연정(2015: 23-26)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

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적인 심령의 복을 지향할 때, 복음을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궁극적인 소망을 품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일반 심리학이 제시한 행복의 특성들과는 달리 삶의 본질적인 목적 앞에 때로는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역설을 포함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앞서 기독교적 행복과 관련된 연구가 밝혔듯 행복이라는 개념의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제시된 웰빙과 플로리시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과 플로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풍성한 삶은 고통이나 질병,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맞게 합목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안점식, 2008: 159),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플로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에 따라 최상의 능동성을 발휘하여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개인적 성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과 플로리시를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관련된 ‘웰다잉(well-dying)’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인간이 탄생의 과정을 거쳐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예외 없이 노화와 죽음을 경험하며, 인간의 삶은 결코 죽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죽음과 연속선상에 있어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삶과 죽음의 거리는 가까워지며,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각자의 인식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때, 죽음과 관련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의 기반이 되므로 웰빙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직면과 수용을 통한 웰다잉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웰다잉은 좋은 죽음으로 정의되며, 웰빙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 차원 모두에서 잘 정리되어 존엄을 지키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석란, 2016: 5-6).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전영재, 2023: 72),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준다. 더불어 성경은 죽음의 기원과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하게 다루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연결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마무리인 동시에 영생의 시작을 향한 과정이며, 이러한 인식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내도록 하는 자원이 되어준다.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을 위해서는 삶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죽음을 함께 다뤄야 하며,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와 유

사하게 웰빙 이론이 제시한 핵심 모델인 PERMAS 모델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핵심이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선한 가능성을 추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며, PERMAS의 각 요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강화해나갈 수 있다. PERMAS 모델의 핵심 요인들은 각각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든 요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1)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긍정 정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PERMAS의 첫 번째 요인인 긍정 정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반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정서는 다른 어떤 경험 가운데 체험되는 긍정 정서보다 본질적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을 다루고 강조하며, 믿는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립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누릴 수 있으며(강연정, 2015: 23), 인간의 목적 중 일부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 분을 높이는 것이다(Piper, 박대영 역, 2016: 33).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된 존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긍정 정서는 다른 어떤 경험 가운데 체험되는 긍정 정서보다 근원적이다.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긍정 정서는 일반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와 달리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역설을 포함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긍정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만한 상황에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정서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긍정 정서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희락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긍정 정서를 느낄 수 없는 여건에서조차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의 긍정 정서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누리는 정서를 넘어 모든 순간에 만족함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며, 삶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

앞서 다루었던 긍정 정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와 같은 시점과도 관련된 복합적인 정서이기에 인생의 각 시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느끼는 긍정 정서를 높인다. 성경은 쾌락주의적인 행복을 추구하거나 더 높은 단계의 자기실현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상의 삶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때, 기독교 신앙은 과거로

인한 상처와 고통,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다가올 고난까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 희락주의를 제시한 Jone Piper는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Piper, 박대영 역, 2016: 378). 따라서 성경적 관점에서의 긍정 정서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긍정 정서를 발견하고 누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시기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야 한다.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몰입

두 번째 요인인 몰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성경적 관점에서 몰입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몰입의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몰입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을 통해서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지와 정서가 일치되는 신앙적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찬양, 예배 등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충만감을 느끼고 몰입하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다.

신앙 활동에서 경험하는 몰입 외에도 성경적 관점에서의 몰입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소명의식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뜻에 따르며(고윤숙, 2022: 2244), 하나님은 각 개인의 기질, 성격, 재능 등에 따라 비전과 소명을 허락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사용할 때 진정한 몰입을 경험하게 되며, 한 개인은 자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인정하고 소명을 삶 속에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체와 인지, 정서가 일치되는 순간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참된 목적과 소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몰입하게 되는 안정적이고 복된 상태를 만날 수 있다.

(3)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 관계

세 번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우선되는 관계 대상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관계는 본능적 욕구인 관계 욕구를 기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살면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기에(Vernon, 2006) 성경적 관점에서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맺게 되는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다른 어떤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를 주시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엇보다 완벽한 관계 대상이 되어 주신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관계 대상인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른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이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로 연결되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계를 다룸에 있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대인관계 대상이 있는 동시에 대인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인의 만족스럽고 번성하는 삶을 위해서는 긍정적 관계가 필수적이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공동체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랑과 정의를 관계 속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하며(강지희, 2018: 101), 더 나아가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술을 배우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 사람을 인내로 기다려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기관보다 부족함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관계기술을 건강하게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여 개인이 맺게 되는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건강한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철학자 Wolterstorff는 샬롬(shalom)과 평화(peace)가 관계성을 함의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과 자연, 나 자신과 맺는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였다(Wolterstorff, 홍병룡 역, 2007: 143-150). 앞서 다루었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자연과 나 자신과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모든 관계 대상과 적절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균형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번성해 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4)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의미

네 번째 요인인 의미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요인이다. 기독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신앙 체계이며,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하여 삶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고,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추구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여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삶의 의미는 개인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도록 한다.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후, 개인이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대처기술이다(Davis et al., 2000: 498-499).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의 삶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도 강조한다.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을 건강하게 견뎌내도록 하며, 심리적 적응과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삶의 의미에서 개인이 모든 대상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결성의 개념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연결성을 지니고 있고, 개인이 모든 대상과 연결되어 미치는 상호 영향은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앞서 관계에서도 살펴보았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대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수많은 연결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게 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인류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살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의미를 제공한다(Wolterstorff, 홍병룡 역, 2007: 149).

무엇보다 교회공동체는 공동체적 돌봄을 통해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목적을 형성하도록 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용성, 2016: 120).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함께 영적 성장을 추구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자신과 연결된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데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경적 의미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

(5)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성취

다섯 번째, 성취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영적 차원에서의 성취가 다른 어떤 성취보다 강조된다. 인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존재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 차원의 성취를 추구해 나간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기독

교적 가치를 실천하게 하고, 선한 열매의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영적인 성취를 이루게 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성취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서 허락하신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취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찾고 강화하는 것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성취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계발하고 사용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삶 속에서 각 개인이 받은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취는 개인의 성공이나 발전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같은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성취를 포함한다.

(6)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성격 강점

PERMAS 중 마지막 요인인 성격 강점은 기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성품과 연결된다. 기독교적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제시된 성령의 열매를 통해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성경에 제시된 성령의 열매와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성격 강점은 유사한 부분이 많고 삶을 행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박미하, 2010: 213), 긍정심리학의 성격 강점과 달리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기독교적 성품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향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기독교적 성품을 함양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특성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설명한 Maclaren(정충하 역, 2010: 548-557)은 성령의 열매를 관계적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의 경우 하나님의 특성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로 표현된다. 두 번째로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는 인내, 자비, 양선이며, 타인들에 대한 선한 태도와 같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인 충성, 온유, 절제가 있으며, 앞의 제시한 열매들에 비해 개인의 고유한 생활 영역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PERMAS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긍정심리학의 PERMAS와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이 제시하는 PERMAS와 달리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PERMAS의 각 요인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발전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맺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때 진정한 웰빙을 누릴 수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

해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적 플로리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V.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평가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 과거 심리학의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인간의 성장에 힘쓰도록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긍정심리학은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여러 요인은 기독교 상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긍정심리학과 웰빙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의 수용점과 제한점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기독교 상담학적 수용점

먼저, 긍정심리학과 웰빙 이론의 기독교 상담학적 수용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긍정심리학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기독교의 전제를 바탕으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간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영역을 연구하여 심리학의 관점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성화를 거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선함과 성화(sanctification)를 추구하고 변화해 갈 수 있다. 물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과 능력으로 성화를 추구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긍정심리학의 인간 이해는 많은 부분 성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며(이창규, 2016: 240), 긍정심리학이 강조하며 다루는 인간의 낙관적인 측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성화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자원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심리학의 연구와 개입은 기독교 상담에서도 필요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지닌 긍정성은 죄성과 한계를 지닌 인간의 측면과 함께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긍정심리학은 행복한 삶을 다루며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을 제시하였고, 인간의 영적 측면과 관련된 종교심리학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을 찾을 수

있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타인, 인류를 넘어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의미 있는 삶을 다루며 현세적 목적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을 함께 이루는 것을 강조하였다(최용성, 2016: 80).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지닌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영적 관계를 추구하고 살아가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긍정심리학이 인간의 행복에 있어 신과의 관계성과 영적인 인간의 종교적 차원을 함께 다룬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의 참된 행복을 제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통합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 상담에서 영성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제외할 수 없는 본질적 차원인 동시에 기독교 상담의 핵심 자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 측면을 인정한 긍정심리학의 태도는 종교와 영적 측면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다른 심리학에 비해서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수용 가능성을 높여준다.

셋째, 긍정심리학의 세 기둥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세 가지 주제 중 하나인 긍정기관과 관련된 접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이다. 긍정심리학은 다양한 사회 기관과 제도 등의 긍정 기관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개인을 둘러싼 공동체를 고려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도 유의미하다. 긍정심리학이 개인을 넘어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각 기관의 회복에 책임을 느끼고, 개혁을 위한 사명을 실천한다. 또한, 교회는 긍정심리학의 긍정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교회는 다양한 신앙적 자원을 제공해준다. 신학과 긍정심리학의 통합을 통해 긍정교회론을 제시한 김도훈(2017: 76)은 교회를 기쁨과 행복 공동체로 정의하며, 교회를 개인과 공동체의 플로리시를 위한 과제와 역할을 실행하는 긍정적 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실제 교회는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긍정 기관 중 하나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말씀, 교제 등의 자원은 기독교인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도구이자 유용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가정, 학교, 사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독교적으로도 유익한 자원이 되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긍정 기관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의 회복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넷째, 웰빙 이론은 플로리시를 이루기 위해 쾌락과 같은 일시적인 상태보다 지속성을 강조하며, 외적 조건보다 개인의 내적 차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의의를 지닌다. 긍정심리학이 다루는 주제들은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성장과 번성과 관련되어 있다(이창규, 2016: 241). 웰빙 이론은 플로리시를 이루기 위해서 각 개인이 일시적인 행복감을 초월하여 내적인 성장

과 발전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인생의 핵심 요소를 다루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기독교에서도 삶의 외적 조건이 아닌 근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주제이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성품을 추구하여 인격의 발달과 성숙을 이루어 가고, 더 나아가 진정한 가치와 번성을 추구하기를 강조한다.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가 지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외적 환경들을 뛰어넘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웰빙 이론에서 플로리시를 위해 일시적 상태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외적 조건보다 개인의 내적 차원을 다루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지향성과도 일치되며,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다섯째, 웰빙 이론이 플로리시의 요인으로 제시한 PERMAS 모델의 각 요소는 비판적 수용을 통해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웰빙 이론의 PERMAS 모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발전될 수 있으며,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PERMAS의 각 요인들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에 힘을 쓸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다. 첫째, 긍정 정서와 관련하여 즐거움이나 쾌락과 같은 긍정 정서를 느끼기 위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희락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도 고려해야 할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둘째, 몰입 역시 인간적 차원에서의 몰입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몰입을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있어 의의를 지닌다. 셋째, 관계 영역에 있어 기독교 상담자는 인간의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타인과의 관계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기독교는 의미를 제시하는 종교라는 점에서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기독교 상담에 있어 의미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동시에 큰 효과를 지닌다. 다섯째, 성취와 관련해서도 기독교 상담자는 영적 차원의 성취를 함께 고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취를 이루어가도록 도울 수 있다. 무엇보다 PERMAS 중 나머지 요인들의 기반이 되는 성격 강점은 성경이 제시한 성령의 열매와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갈라디아서가 제시한 성령의 열매는 기독교 상담에 있어 인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지향점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선한 특성들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 실제 기독교 상담에 있어 긍정심리학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한 Siang-Yang Tan(2006: 71-72)은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덕목과 강점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여 내담자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자는 성격 강점을 포함하여 내담자의 플로리시를 높이기 위한 요인을 발견하고 계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담자가 각 요인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에 힘써야 한다.

2. 기독교 상담학적 제한점

위와 같이 긍정심리학과 웰빙 이론은 기독교 상담학의 도구로서 평가의 과정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니지만, 웰빙 이론이 인간의 행복과 플로리시를 위한 완벽한 해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인간이 만들어 낸 어떤 학문이든 완전할 수 없으며, 모든 이론과 접근은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왜곡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은 현시대에 주되게 사용되는 상담 이론과 기법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유용한 상담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긍정심리학과 웰빙 이론을 다루었으며, 기독교 상담학적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학은 인간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선함과 능력을 신뢰하지만, 인간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보는 긍정심리학의 인간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물론 앞에서도 다뤘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이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동시에 구속의 대상인 죄인이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본질적인 변화와 자기실현을 이루어 낼 수 없으며, 죄성을 다루지 않고 긍정성을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으나,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적용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만으로 치유와 선한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한 구속사적 심리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김문숙, 2013: 93). 긍정심리학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성화와 선함을 추구하여 긍정적인 자원들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물론 긍정심리학 역시 인간에게 부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인간의 삶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지녔음을 밝혔지만(Peterson, 2006: 5), 문제는 긍정심리학이 긍정성과 부정성 중 긍정성을 다루는 데에만 집중하기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긍정심리학이 밝힌 것처럼 인간에게는 많은 긍정적인 요인과 가능성이 있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근원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 존재이다.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필연적이고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었다(안점식, 2008: 123). 모든 인간은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정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긍정심리학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긍정성을 지닌 동시에 부정성을 지녔고, 인생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음을 인식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을 계발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동시에 죄와 타락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부정적 측면과 이로 인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인식하여야 한다. 기독교 상담은 인간과 삶이 지닌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통해 내담자가 삶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며,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성의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하는데 있어 유익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이 제시한 웰빙과 플로리시의 개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은 인간이 최적의 경험을 통해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강점과 자원을 계발하여 번성을 확장해나가는 플로리시를 주요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일시적 행복감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은 심리학적 차원에서 잘 사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포함해야 한다. 웰빙 이론의 PERMAS 모델은 인간의 번성을 삶의 목적 그 자체로 추구하지만 (Seligman, 2011: 24),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지닌 목적에는 개인이 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웰빙 이론을 기독교 상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웰빙 이론이 제시한 플로리시의 개념적 한계를 고려하여 플로리시의 개념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긍정심리학의 웰빙과 플로리시의 개념은 기독교가 다루는 웰다잉을 내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제한점을 지닌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의 웰빙과 플로리시를 위해서는 건강한 죽음과 관련된 웰다잉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긍정심리학과 웰빙 이론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논의나 개념을 찾을 수 없다.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며,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가까워지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건강하고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는 인간의 삶과 함께 죽음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으며,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긍정심리학을 기독교 상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웰빙 이론이 제시한 삶에 대한 측면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련된 웰다잉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학이 다루고 있지 않은 웰다잉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웰빙과 함께 웰다잉과 관련된 기독교 상담학적 이론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을 기독교 상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점과 제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긍정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관점에 대해 살피고, 초기 이론 형태인 행복 이론과 핵심 연구 주제를 다루었다. 뒤이어 초기 이론의 발전된 형태인 웰빙 이론과 핵심 모델인 PERMAS에 대해 살펴보고, 웰빙 이론의 목표와 핵심 주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수용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긍정심리학의 수용 가능한 점으로는 먼저 긍정적인 인간관이 있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할 때 수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심리학은 신적 존재와의 관계성과 종교심리학을 다루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긍정기관에 대한 접근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했던 웰빙 이론이 제시한 플로리시는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 지속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내적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플로리시의 요소가 되는 PERMAS의 각 요소는 기독교 상담학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반면, 긍정심리학이 인간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보며, 인간의 부정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성화를 이루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 또한, 긍정심리학이 제시한 웰빙과 플로리시의 개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웰빙과 변성을 다루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긍정심리학의 웰빙과 플로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기독교가 다룰 수 있는 진리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은 긍정심리학을 기독교 상담 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지점과 연결된다.

긍정심리학은 현대에 이르러 더욱 주목받는 상담 이론이며, 인간의 긍정적인 차원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를 밝히고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긍정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이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지닌다. 따라서 긍정심리학 이론을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

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론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긍정심리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독교 상담자들이 긍정심리학의 바른 개입과 적용으로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연정 (2015). 긍정심리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행복(Happiness)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3(2), 9-37.
- 강지희 (2018). **전인적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독교신앙교육: 기억, 정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 고윤숙 (2022). 긍정심리학의 행복구조에 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및 적용: Seligman과 Ben-Shahar 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3(3), 2237-2250.
- 고현정·이민규 (2013). 대학생의 몰입이 스트레스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조절효과와 대처방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研究**, 21(4), 283-292.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12).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수영 (2012). 서구 긍정심리학, 얼마나 긍정적인가? -실천신학적 전망-. **신학과 실천**, 30, 377-403.
- 김경희·이희경 (2019). 긍정정서와 긍정정서 반응 양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6(3), 339-359.
- 김덕진·양명환 (2008). 신체활동과 웰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쾌락적 웰빙과 자아실현적 웰빙. **체육과학 연구**, 14, 1-23.
- 김도훈 (2017). 행복, 기쁨, 플러리싱(flourishing), 그리고 교회: 신학과 긍정심리학과의 대화에 기반한 긍정교회론의 시도. **선교와 신학**, 42, 71-99.
- 김문숙 (2013). **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통합모델 연구: 성경적 관점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석란 (2016). **암환자의 죽음인식이 웰다잉과 영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 활동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 김선형 (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플로리시 척도 개발 방향 및 구성 요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1(5), 351-376.
- 김인자·우문식 역 (2014).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서울: 물푸레.
- 김혜진·홍혜영 (2023). 한국판 다차원 플로리시 척도 타당화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423-443.
- 박대영 역. (2016). 하나님을 기뻐하라. Piper, J. (2011). *Desiring God: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 서울: 생명의말씀사.
- 박미하 (2010). 긍정심리학 관점에서의 크리스천 품성에 대한 연구. **한영연구논문집**, 2, 212-242.
- 박선영·권석만 (2012).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741-768.
- 박주연·강은호·박영민·최삼옥·채정호 (2008). 행복과 정신건강의 긍정심리학적 접근. **스트레스研究**, 16(2), 107-114.
- 안경승 (2014). 행복과 기독교상담. **ACTS 신학저널**, 19, 213-245.
- 안점식 (2008). **세계관 종교 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 양병모 (2011). **기독교상담의 이해: 개관과 전망**. 서울: 하기서원.
- 예방의학 편찬위원회 (2007). **예방의학**. 서울: 계축문화사.
- 우문식 (2017). **긍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물푸레.
- 우문식 (2021). **마틴 셀리그만의 팔마스 중심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우문식·윤상운 역 (2011). **마틴 셀리그만의 플로리시**.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서울: 물푸레.
- 이보람·이정화 (2014). 중년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경험과 몰입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49-361.
- 이은화·김혜련·이희경 (2021).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향유신념으로 조절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2), 375-403.
- 이창규 (2016). 긍정심리학에 대한 목회신학적 비평과 목회상담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8, 221-255.
- 전영재 (2023).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웰다잉 필요성 연구. **복음과 상담**, 31(2), 69-99.
- 정충하 역 (2010). **맥클라렌 강해설교 전집 13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1**. Maclaren, A. (1904).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조은숙·김스완 (2016). 긍정심리학을 반영한 무용교육에 대한 연구: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의 펄마(PERMA)이론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61(4), 55-71.
- 최남숙 (2005). **한국인의 웰빙행동에 관한 연구: 웰빙인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용성 (2016). 긍정심리학과 행복·덕윤리교육의 적용 -기독교적 관점에서-. *철학연구*, 140, 75-127.
-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2008). *New 크리스천 카운슬링*. Collins, G. R. (2007).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Davis, C. G., Wortman, C. B., Lehman, D. R. & Silver, R. C. (2000). Searching for meaning in loss: Are clinical assumptions correct? *Death Studies*, 24, 497-540.
- Deci, E. L. & Ryan, R. M. (2008). Hedonia, eudaimonia, and well-being: An introductio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1), 1-11.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Frankl, V. E. (2014).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Huppert, F. A. & So, T. T. (2013). Flourishing across Europe: Application of a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defining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3), 837-861.
- Joiner, T. E. & Metalsky, G. I. (1995).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ive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78-788.
- Keyes, C. L.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 Lomas, T., Waters, L., Williams, P., Oades, L. G. & Kern, M. L. (2021). Third wave positive psychology: Broadening towards complex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6(5), 660-674.

- Norrish, J. M., Williams, P., O'Connor, M. & Robinson, J. (2013). An applied framework for positiv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3(2), 147-161.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P.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 Schuster.
- Seligman, M. E. P., Rashit,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 774-788.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 216-217.
- Snyder, C. R. & Lopez, S. J. (2022).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mner, L. W. (1996). *Welfare, happiness, and ethics*. New York: Clarendon Press.
- Tan, S-Y. (2006). Applied positive psychology: Putting positive psychology into practic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5, 68-73.
- Vernon, A. (2004). *Counseling Children & Adolescents*. Colorado: Love Publishing Company.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PERMAS 모델을 중심으로

The Consider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bout Well-Being Theory of Positive Psychology -Focusing on PERMAS Model

김수지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심리학의 웰빙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기독교 상담학적 수용점과 제한점을 밝히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적인 접근을 추구하는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된 심리학의 방향성을 변화시켜 성장과 예방에 힘쓰도록 하였다. 긍정심리학은 초기에 인간의 행복을 핵심적인 주제로 삼아 진정한 행복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초기 이론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확장된 형태의 이론인 웰빙 이론을 주장하였다. 웰빙 이론은 삶에서 일시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번성하는 삶인 플로리시를 목표로 삼았고, 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PERMAS 모델을 함께 다룬다.

긍정심리학은 상담 영역에 있어 큰 유익을 주지만, 인본주의에 기초한 이론이기에 기독교 상담 영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웰빙과 플로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웰다잉을 함께 다뤄야 한다. 더불어 PERMAS의 각 요인도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발전될 수 있다.

주제어: 긍정심리학, 웰빙, PERMAS, 기독교 상담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김정진 (Jeong-Jin Kim)**

하규영 (Gyu-Young Ha)(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hurch leader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rough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among church members. Therefore, we will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For this purpose, the coaching leadership of church leaders, spirituality,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were measured among 400 Christia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aching leadership of church lead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In addition,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were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on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and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and is significant in that it discovered the path through which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influence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pirituality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church members' intention to continue their faith life, and that the direction of change in church leaders' leadership should be set to coaching leadership.

Key words: faith life, intention to continue, satisfaction, spirituality, coaching leadership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27일 게재확정.

**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심리학과 박사수료(Kwangwoo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mosesjin@hanmail.net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조교수(Kwangwoon University).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stella1221@kw.ac.kr

I. 서론

2023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에 대한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현재 종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종교인 37%, 무종교인 63%로 나타났으며 1998년 조사에서는 종교인 53%, 무종교인 47%로 무종교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종교인은 점점 줄어들면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2010년 285만 명에서 2019년 250만 명으로 12.1% 줄었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비드 19’이라는 전염성 질병은 교인 감소 현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코비드 19 이전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보면 ‘신앙수준이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020년 26%에서 2022년 38% 증가하였고, ‘신앙수준이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2020년 18%에서 2022년 13%로 감소하였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2a). 이는 시간이 갈수록 종교활동의 참여자가 줄어들고, 신앙수준이 약해지고 있으며 코비드19는 그런 상황을 더 가속시켰음을 보여준다. 개신교의 각 교단들은 현재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인 감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신앙생활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였다. 임명성(2021)은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다. 김영학(2022)은 인간은 종교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완성을 추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고 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의도를 높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참여할 의지와 의미를 부여하고, 참여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며, 참여를 결심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소는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2022b)의 3040세대 신앙의식 및 생활 실태 조사에서 ‘10년 후 교회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44%는 교회 이탈 의향을 보였고, 코로나 이후 현장예배 이탈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5%가 교회 이탈 의향을 보였으며 ‘신앙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즘에도 있다’는 응답이 40%,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은 없다’는 응답이 40%였다. 3040세대가 신앙생활에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감소시키고 교인 감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요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할 것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요소는 리더십이다. 개신교에 속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국 교회의 교인 수 감소에 대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다(권혁남, 2012; 조성호, 2012).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의향이 있는 원인 중 목회자 요인을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목회자의 설교’,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 ‘상처가 되는 말’ 등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은 바로 코칭리더십이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수평적 리더십에 코칭의 개념을 접목한 코칭리더십의 활용을 주장하였는데, 코칭리더십이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교회 지도자들의 코칭리더십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실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회 이탈 현상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하여 지속의도를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신앙생활의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영성이다. 이정아(2014)는 일터 영성이 높아지면 직무열의 또한 높아지며, 반대로 이직의도는 낮아진다고 했다. 김문선과 황혜정(2023)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이 군생활 적응과 응집성을 좋게 한다고 했다. 안재균(2022)의 연구에서 영성의 하위요인 용서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자살사고,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의 낮고, 회복탄력성과 소속감 지향점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군 생활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영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만족감이 높고 적응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사이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 심리적 요인과 신앙생활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어 한국교회가 처한 교인 감소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신앙생활 지속의도

기독교인에게 신앙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Daniel(1994)은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대상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진우(2018)는 신앙생활 경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교육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다고 했다. 신앙생활이란 절대적인 하나님과 창조물의 관계맺기이며,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교육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인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이를 구체적인 현장 즉 교회, 가정, 직장, 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높이는 방향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 연구 분야와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선영(2017)은 지속성은 목적성을 띠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활동은 포함되지 않으며, 의도적인 계획을 통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속의도라고 했다.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교회 안에 지속의도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혜정과 임희수(2022)는 기독교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은 많지만, 오히려 신앙의 회복과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음을 밝혀 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적, 외적 동기에 자극을 받고 그에 따라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2.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교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도자가 존재한다.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목회자, 그 목회자를 보좌하며 교회의 또 하나의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 권사, 집사, 소그룹 담당자, 교회학교 교사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요청되는 리더십의 형태 또한 다양하다.

급변하는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를 요구한다. 임은정과 탁진국(2023)은 현대 조직이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었으며, 존중과 신뢰를 근본으로 하는 수평적 리더십인 코칭리더십이 주목받게 되었고, 조직과 개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코칭리더십을 필요하게 되었다고 했다. 코칭리더십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게 하고, 개인의 발전과 성숙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관계를 향상시켜 주며, 잠재능력과 역량을 발휘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해 준다(조은현·탁진국 2011 ; 남정훈 2016 ; 도미향 외, 2022). 송영진(2012)은 코칭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코칭리더십이 성장, 성과달성, 향상,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코칭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대한 교회의 반응 방법이다. 권위주의를 벗어나고 수직관계를 벗어나 지도자와 교인이 평등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장의 파트너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다.

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와의 관계

기업에서 리더십의 유형은 직원들의 근무 지속과 이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신건용(2019)은 공유리더십과 지속근무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이 수평적인 리더십 형태로 조직의 비전, 계획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등 하나 된 조직을 만들어 팀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성원의 지속근무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남규(2019)는 변혁적리더십과 지속학습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속학습활동의 선행요인을 변혁적리더십으로 보았으며, 이는 변혁적 리더가 각 구성원에게 관심과 존중을 보여줄 때 구성원은 이에 보답하고자 역할 내·외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거나 기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피드백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발견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활동에 대한 지속의도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김사엽(2016)의 변혁적리더십과 운동 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변혁적리더십의 하위요인인 개별적 배려가 운동지속의도의 하위요인인 가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유진과 이숙경(2019)은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의 운동지속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지도자의 유형 중 변혁적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이 운동지속의도를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 박철용과 송영수(2023)는 코칭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경력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경력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리더들을 대상으로 코칭리더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지속 근무, 지속 학습, 운동 지속, 경력 지속 등의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리더십이 근무, 학습, 운동 등의 지속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리더십은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변혁적리더십은 개인의 잠재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은현과 탁진국(2011)은 코칭리더십과 관련된 척도 개발을 통해서 코칭리더십의 하위 요인을 존중, 목표제시와 피드백, 관점변화, 부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믿음 4개의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코칭 리더십의 존중은 코치와 고객의 수평적인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코칭리더십이 공유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과 공통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유리더십과 변혁적리더십이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면 코칭리더십 또한 지속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와 같은 추론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영성

현대 사회를 영성의 시대라고 하며 영성은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장미애(2022)는 영성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자연 및 상위존재와의 ‘조화로운 상호관계성’, 일상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초월성’, 신체와 정신 및 사회적 영역을 통합하고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힘의 ‘통합적 에너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내적 신념이나 가치관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종교를 뛰어 넘어 점점 확대되어지는 동시에 인간 내면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유해룡(1999)은 영성이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영’이라는 실재를 통한 자아 초월적인 경험을 현재적인 삶으로 실현하고 통합하려는 그 과정과 실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 경험되고 인식되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 된다고 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막연하고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존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경험하며, 성경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영성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함영주와 이현철(2021)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요인에 대해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교회 출석 이유가 개인의 영성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장미애(2022)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고 했다. 이처럼 기독교 영성은 교인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욕구이며, 육체적, 심리적,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5.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지도자가 교인들을 권위적이고 수직적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존중하고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과 관점을 변화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변화와 성장, 그리고 발전을 이끌어 내는 수평적 리더십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영적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더 많은 영적 실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김한나(2013)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과 영성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리더십과 영성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며 영성이 높을수록 리더십 또한 높아진다고 했다. 정현우, 서정기, 류태모(2014)는 윤리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는데, 부하가 지각하는 윤리적 리더십이 내면세계와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일터 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교(2023)는 임파워링 리더십에 관한 연구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일터 영성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김찬목(2014)은 목사의 리더십 요인 중 역량과 설교내용이 크리스천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영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조성호(2012)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가 영성이며, 교회의 리더는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은 실제적으로 교인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 긍정적인 영적 경험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영적 경험이 줄어들며, 긍정적인 영적지지를 받고 영적 실천을 많이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문선과 황혜정(2023)은 병사의 정서지능과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영성지능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영성지능이 높은 병사가 군생활 적응력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아(2015)는 영성리더십과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의 관계를 일터 영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일터 영성이 이직의도를 낮추게 하고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성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고,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영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영성이 매개할 것이다.

6. 신앙생활 만족

만족이란 개인의 욕구와 작업 환경의 요구조건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과 작업환경의 조화에 대한 개인의 내적 지표이다(김춘경 외, 2016). 이 정의를 통해 보면 만족은 개인적인 차원

에서 느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과 관계에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종교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 전성표(2011)는 종교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박준성, 박은미, 정태연(2012)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면적인 믿음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며 잘 대처하며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 종교는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내면을 단단하게 하여 삶의 만족을 누리게 하는 요소가 된다.

신앙생활만족에 대해 이종석과 정득(2018)은 종교가 주는 두 차원의 만족에 대해 설명하며 내재적 종교성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 주어 만족감을 가지게 하며, 인간의 보편적 문화 속에서 경험되는 외재적 종교성은 사람들이 종교적 실체에 많은 참여를 하는 활동을 통하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한다고 했다. 김정두(2017)는 교회생활만족은 교인들이 담임목사에게 대해 느끼는 교육, 예배, 설교, 소통에 대한 만족감 및 충족감 그리고 자족감이며, 교인이 느끼는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될 때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신앙생활만족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내면의 경험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 또는 참여자들의 정서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리더십이 정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조직에 기능, 변화, 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창준과 윤정구(2007)는 정서와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통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기쁨/만족>, <흥미/열정>의 두 가지 집단 정서를 유발시키고, 감정적 리더십도 <기쁨/만족>의 집단 정서를 유발하는 원천이 된다고 했다. 리더십은 조직의 정서조절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구성원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리더십은 조직 또는 참여자의 만족에도 영향을 준다. 이은기(2008)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리더십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서정하(2007)는 목회를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경영 리더로 보고 목회자 리더십이 성도들의 조직 몰입과 헌신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조직의 리더십의 특성에 따라 조직 또는 참여자의 만족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도연(2022)은 필라테스 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만족이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신체적 만족요인과 심리적 만족요인이 운동 지속의도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고 했다. 김진경(2012)은 필라테스 참여 여성의 여가만족은 운동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이 지속의도를 높이는 선행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리더십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만족은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앙생활만족이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신앙생활만족이 매개할 것이다.

8.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다중매개효과

오랜 시간동안 흘러온 기독교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활동을 멈추게 했다. 다시 영성에 집중하게 하고 영성적인 활동을 실천하게 하였다. 그런 지도자들의 역할과 교인들의 영성적인 활동이 교회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음은 교회사를 통해 증명 되었다. 조성호(2012)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주제가 영성이며, 교회의 리더는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회복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호(2023)는 개인주의를 넘어 ‘나노사회’라 불리는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의 융합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영성은 단순히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성은 인간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에 만족을 준다. 한석빈과 탁진국(2023)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재적 종교성향이 직무만족도와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했다. 이종석과 정득(2018)은 외재적 종교성이 교회만족도에 미친다고 했다. 내재적인 종교성향이 직무와 결혼 만족도, 행복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내재적 성향은 외재적 종교성을 통해 경험된다. 권영길과 고순자(2012)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앙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했다. 정진오, 변상해, 김종수(2009)는 중년기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이 모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은 영성과 그에 따른 신앙활동이 직무, 결혼, 가정생활, 부부생활등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어떤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만족이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 자신을 건강하게

하여 건강의 만족을 얻고, 그 운동의 자신의 체형을 바꾸어 날씬해진 몸매에 만족을 얻게 된다면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필라테스 참여자가 느끼는 신체적 만족, 심리적 만족, 여가 만족은 참여자가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김진경, 2012 ; 김도연, 2022). 운동에 대한 만족과 지속의도 선행 연구들은 모두 만족이 지속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리더십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영성은 만족에 영향을 주며, 만족은 지속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 사이의 관계를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다중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가설4.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 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다중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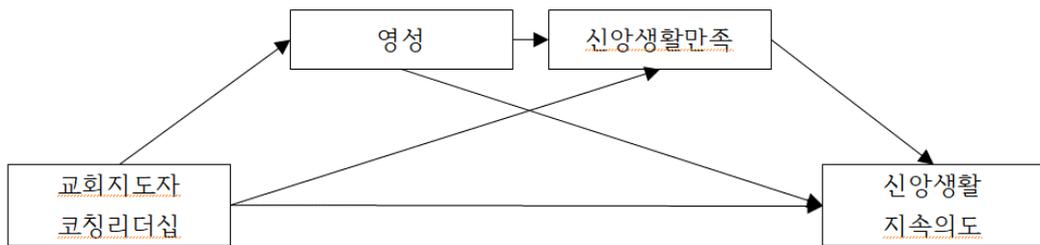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 리서치 기관에 등록된 회원들 가운데 설문참여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총 400명의 회원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400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남자 180명(45%), 여자 220명(55%)으로 남녀 비율은 10%의 차이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대는 만 20-29세 36명(9%), 만 30-39세 125명(31.3%), 만 40-49세 109명(27.3%), 만 50-59세 89명(22.3%), 만 60-69세 41명(10.3%)으로 만 30-49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다.

종교적 특성으로 개신교 259명(64.8%), 천주교 141명(35.2%)로 개신교인의 숫자가 더 많았으며, 신앙생활 년수는 1년미만 14명(3.5%), 1년이상 2년 미만 9명(2.3%), 2년이상 5년 미만 23명(5.8%), 5년이상 10년 미만 44명(11%), 10년이상 310명(77.5%)이었다. 세례(영세)를 받는 사람은 357명(89.3%), 받지 않은 사람이 43명(10.8%)으로 나타났으며, 영적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158명(39.5%), 약간 있는 사람 198명(49.5%), 자주 있는 사람은 44명(11%)이었다.

2. 측정도구

(1) 신앙생활 지속의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양명환(2004)이 Courneya와 McAuley(1993), Wilson과 Rodgers(2004)의 행동의도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제작한 척도를 신앙생활 지속의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으며, 일반적으로 .70 이상 나왔다면 분석 활용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2) 교회 지도자 코칭 리더십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코칭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조은현과 탁진국(2011)이 개발한 코칭리더십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의 리더십 대상은 상사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목회자, 소그룹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변형하였다. 코칭리더십은 총 4개의 요인,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칭 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3) 영성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Fetzer/NIA(1999)에서 개발한 다차원적 종교성/영성 척도-단축형(Brief-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Scale; BMMRS)을 윤혜영과 김근향(2015)이 타당화한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영성척도는 총 6개 요인,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에 대한 응답형식은 4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4요인은 Likert 8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적 실천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4) 신앙생활 만족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hattacharjee(2001)의 문항을 선택하고 번역한 장위(2020)의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버전을 사용하여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특성과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각의 변인들의 척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SPSS PROCESS Macro v4.2 Model 6)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 변인 기술 통계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1.신앙생활 지속의도	3.34	1.25
2.신앙생활 만족	4.85	1.06
3.영성	3.31	.78
4.코칭리더십	3.45	.70

2.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속 변인인 신앙생활 지속의도는 신앙생활만족($r = .58, p < 0.01$), 영성($r = .71, p < 0.01$) 코칭리더십($r = .55, p < 0.01$)과 유의한 상

관을 보였으며, 코칭리더십은 영성($r=.52, p<0.01$), 신앙생활만족($r=.57, p<0.01$)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영성과 신앙생활만족($r=.40, p<0.01$)의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표 2.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신앙생활 지속의도	-			
2.신앙생활 만족	.58**	-		
3.영성	.71**	.40**	-	
4.코칭리더십	.55**	.57**	.52**	-

** $p<0.01$

3.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이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v.4.2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Bootstrapping을 실시하기 위해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 신뢰구간 95%로 설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Hayes, 2018). 표 3에 결과를 제시하고,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영성($\text{coeff}=.58, p<0.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영성은 신앙생활만족($\text{coeff}=.24,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앙생활만족은 신앙생활지속의도($\text{coeff}=.26, p<0.0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인들의 영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인들의 영성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수록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교회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영성, 신앙생활만족,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경로계수

경로	coeff	se	t	p	LLCI	ULCI
코칭리더십 → 영성	.58	.05	12.133***	.000	.48	.67
코칭리더십 → 신앙생활만족	.88	.08	10.345***	.000	.71	1.04
영성 → 신앙생활만족	.24	.08	3.180**	.001	.09	.39
코칭리더십 → 신앙생활 지속의도	.14	.06	2.306*	.022	.02	.26
영성 → 신앙생활 지속의도	.72	.05	14.471***	.000	.62	.82
신앙생활만족 → 신앙생활 지속의도	.26	.03	8.075***	.000	.20	.33

*** $p<0.001$ ** $p<0.01$ * $p<0.05$

다음으로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Shrout and Bolger, 2002).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효과를 5,000번 반복 추출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한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교회지도자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 신앙생활만족의 매개효과

효과	Effect	se	LLCI	ULCI
총효과	.82	.06	.71	.94
직접효과	.14	.06	.02	.26
간접효과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코칭리더십-영성-신앙생활지속의도	.42	.05	.33	.52
코칭리더십-신앙생활만족-신앙생활지속의도	.23	.05	.14	.33
코칭리더십-영성-신앙생활만족-신앙생활지속의도	.04	.01	.01	.07

분석결과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의 매개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총효과(Effect=.82, 95% CI[.71, .94])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직접효과(Effect=.14, 95% CI[.02, .26])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에서 영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42, 95% CI[.33, .52])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리더십에서 영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42, 95% CI[.33, .52])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23, 95% CI[.14, .13])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23, 95% CI[.14, .13])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 코칭리더십에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을 경유하여 신앙생활지속의도(Effect=.04, 95% CI[.01, .07])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영성과 신앙생활만족은 교회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지속의도의 관계를 다중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점점 급속한 교인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데 있다. 전국의 성인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이 지속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신건용, 2013 ; 김남규, 2019 ; 김사엽, 2016 ; 선유진·이숙경,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연구는 직장이나 스포츠의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만족의 관계를 입증하였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생활 지속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 지도자가 교인들의 생각과 의도와 삶을 존중하고, 가치관의 관점을 변화시키며 신앙과 삶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돕고 교인들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신뢰를 해 줄 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할 의도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과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김문선·황혜정, 2023 ; 이정아,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영성이 좋아지며, 영성은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을 통해 교인들은 실제적인 신앙의 욕구를 발견하게 되고, 영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지속의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신앙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교회 지도자의 높은 코칭리더십 수준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만족감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을 통해 교인들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은 다중 매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인들의 영성이 좋아지며, 교인들의 영성이 좋아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의도를 높이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

제하며 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아진다. 특히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교인들이 영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스스로 영적경험과 변화와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지게 되고, 또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므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와 주저함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미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이다. 다른 연구 영역에서 지속의도는 중요한 주제였으나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신앙생활의 지속의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교인수 감소에 대한 보고들을 보면 환경적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요인을 개인의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 교회의 연구들을 보면 리더십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코칭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코칭리더십과 영성, 신앙생활 만족,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점점 교인 수가 감소하는 교회 현장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향상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교회 지도자를 양성할 때 코칭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영성의 수준을 높이는 예배, 교육과 체험을 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 지도자는 코칭리더십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피드백을 하고 교인들은 스스로 영성 향상의 변화와 성장의 시도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의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생활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만족도를 높이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만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코칭리더십, 만족, 지속의도)들은 다른 연구 영역들에 사용된 척도들이며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교회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에 대한 조사는 실제 교회 지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인식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인식과 교인들이 느끼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소속이 서로 다른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음 연구에서 한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해당 교회의 리더십, 영성, 만족, 지속의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통대로 교회의 변화 성장 방향을 더 자세히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영길·고순자 (2012). 기혼 여성의 기독교 신앙 활동과 가족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가족의 신앙 일치도와 신앙활동 지지도의 영향. **인권복지연구**, 12, 23-39.
- 권혁남 (2012). 목회자의 윤리적 리더십과 신앙공동체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29-72.
- 김남규 (2019). **변혁적 리더십과 동료의 도움행동이 지속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전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도연 (2022). **필라테스 참여정도에 따른 운동만족이 심리적 웰빙지각 및 운동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문선·황혜정 (2023). 병사의 정서지능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지능과 집단응집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 16(1), 35-68.
- 김사엽 (2016). 생활스포츠지도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운동몰입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4), 299-308.
- 김영학 (2022). 장애인 차별 경험과 우울감의 관계 연구: 종교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5(3), 141-160
- 김정두 (2017). **교인이 지각한 담임목사의 의사소통유형과 교회생활 적응 및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진경 (2012). **필라테스 참여 여성의 여가만족과 지속의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찬목 (2014). 크리스천들의 영적성장에 대한 신앙생활 양태와 목회자의 영향 분석. **로고스경영연구**, 12(2), 183-204.
- 김춘경·이수연·이윤주·정종진·최용용 (2016). **상담학 사전**. 서울: 학지사.
- 김한나 (2013). **기독교인 대학 신입생의 영성이 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 나선영 (2017). **셀프네일 소비자의 소비동기, 자기효능감, 관여도, 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 남정훈 (2016). 스포츠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코칭능력개발지**, 18(2), 95-106.
- 도미향·박용권·최성남 (2022). 중간관리자의 코칭역량 척도 타당화 연구. **코칭연구**, 15(3), 101-126.
- 박수진 (2014). **성인학습자의 귀인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인 평생교육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박준성·박은미·정태연 (2009). 종교성이 일반적 신뢰, 자기효능감 그리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연구**, 55, 159-190.

- 박철용·송영수 (2023). 코칭리더십이 경력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리더의 겸손과 주도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30(3), 21-44.
- 서정하 (2007). 종교 조직에서의 리더십과 조직 몰입: 한국 개신교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49, 273-306.
- 선유진·이숙경 (2019). 전북태권도장 지도자 리더십유형이 수업몰입, 교육만족,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무예연구**, 13(1), 117-143.
- 송영진 (2012). **코칭리더십의 한국교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신건용 (2019). **외식산업 종사자가 지각한 공유리더십이 지속근무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팀 신뢰 매개효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안재균 (2022). **영성과 정신건강 및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양교 (2023). **임파워링 리더십이 일터영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양명환 (2004).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97-215.
- 오혜정·임희수 (2022). 코로나 19 상황 속 기독교 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신앙생활 점검. **기독교교육정보**, 73, 101-154.
- 유해룡 (1999). **하나님체험과 영성수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윤혜영·김근향 (2015). 다차원적 종교성/영성척도 단축형 한국어판의 타당화. **한국융합학회**, 6(5), 257-274.
- 이은기 (2008). **중소기업 CEO의 리더십 유형이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 이정아 (2015). **영성리더십이 부하의 일터영성을 통해 직무열의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종석·정득 (2018). 종교성과 교회생활이 교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리교인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8(1), 71-100.
- 이창준·윤정구 (2007). 정서와 리더십에 대한 한 이론적 모형의 검증: 카리스마적 및 감성적 리더십, 집단정서, 집단효과성. **인사·조직연구**, 15(3), 1-51.
- 임명성 (2021). 조절초점이 미래 불안감, 직장 내 종교활동, 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4), 73-100.
- 임은정·탁진국(2023). 코칭리더십과 경력정체가 20~30대 직장인의 자기주도적 경력태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1(2), 261-275.

- 장경철 역 (1994).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Daniel L. M. (1991).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장미애 (2022). **영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춘천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 장위 (2020). **넷플릭스(Netflix)의 서비스 특성이 이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 전성표 (2011). 종교와 삶의 만족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및 무종교인의 생활만족도 비교. **한국종교사회학회**, 4, 9-38.
- 정진오·변상해·김중수(2009).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 265-288.
- 정현우·서정기·류태모(2014). 사회적기업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일터영성의 매개효과 관한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3(5), 35-54.
- 조성호 (2012a). 리더십에 대한 실천 신학적 제언. **신학과 실천**, 30, 67-98.
- 조성호 (2012b). 기독교 리더십과 영성의 상관관계. **신학논단**, 70, 259-297.
- 조성호 (2023). ‘나노사회’ 파편화를 극복한 기독교 영성과 리더십. **신학과 실천**, 84, 85-114.
- 조은현·탁진국 (2011). 코칭리더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155.
- 한석빈·탁진국 (2023). 목회자의 내재적 종교성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 매개효과. **기독교 철학**, 36, 291-332.
- 한진우 (2018).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함영주·이현철 (2021). 한국교회 청년들의 교회 이동 및 신앙생활 포기 요인 분석. **기독교교육논총**, 66, 209-241.
-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3), 351-370.
- Couraeya, K. S. & McAuley, E. (1993).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from Intention: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 50-62.
- Fetzer Institute/National Institute On Aging Working group (1999).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religiousness/spirituality for use in health research*. Kalamazoo, MI: Fetzer Institute.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Wilson, P. M. & Rodgers, W.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utonomy support,

exercise regul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in wome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5(3), 229-242.

목회데이터연구소 (202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 교세 통계 분석.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18(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a).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결과.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8&page=3(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2b). 3040세대 개신교인 신앙의식 조사.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76&page=2(검색일 2023.10.13).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 및 의식 조사.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94&page=1(검색일 2023.10.13).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urch Leaders' Coaching Leadership on the Intention to Continue Faith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and Satisfaction with Faith Life

김정진 (광운대학교)

하규영 (광운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 코칭리더십이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을 통해 신앙생활 지속의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의 매개 효과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 4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 영성, 신앙생활 만족,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의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은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 지도자의 코칭 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회 지도자의 코칭리더십과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며 영성과 신앙생활 만족이 신앙생활 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발견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속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회 지도자의 리더십의 변화 방향을 코칭리더십으로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신앙생활, 지속의도, 만족, 영성, 코칭리더십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중심으로*

The Protestant Hym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and the Making of Modern Nation State – Focused on *Chanmiga* 『讚美歌』(1908) Translated by Yun Chi-ho

조경덕 (Kyoung-Duk Cho)**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that Christian hymnody played in the task of creating a modern nation stat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through Yoon Chi-ho's translation of *Chanmiga*(1908). Yun Chi-ho's *Chanmiga* was an early publication in the history of Korean hymnbooks. Among protestant hymnals, Yoon's *Chanmiga* is unique. First, it is a booklet with 15 songs. The hymnal produced by the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es in the same year contained 317 songs. It was intended for use in a mission school rather than for church use. Second, there are privately produced hymnals. With the exception of Underwood's hymnal(1894), other hymnals were usually created by denominational hymnal committees, which Yun Chi-ho's knowledge of English and national language skills made possible. Third, "Korean national anthem" were included. Three of the 15 songs are anthems. At the time, Christianity was closely associated with nationalism. Yun Chi-ho sided with Japanese imperialism in the last days of the colonial period, so some researchers deny the nationalist character of *Chanmiga*. However, it would be unfair to judge his entire life by his later actions. Yun Chi Ho wrote *Chanmiga* from a nationalist position. And readers at that time sang together their Christian faith and loyalty to the country through *Chanmiga*.

Key words: Yun Chi-ho, *Chanmiga*, Hymn, Korean national anthem,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 2023년 11월 10일 접수, 11월 27일 게재 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평택대학교의 학술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평택대학교(PYEONGTAEK UNIVERSITY) 피어선칼리지 교수,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oldjacob@ptu.ac.kr

I. 들어가며

이 연구는 근대 국가 만들기가 당면 과제였던 근대 전환기에 윤치호가 역술(譯述)한 『찬미가』(1908)가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독교 찬송가는 천주교의 천주가사에서 시작한다. 천주가사의 처음은 1779년 이벽(李穡)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와 정약전(丁若銓)의 「십계명가(十誡命歌)」다. 이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200여 종이 전승되고 있다. (민경배, 1997:59) 최초의 개신교¹ 찬송가집은 천주교 찬송가 편찬 이후 100여 년이 지나 1892년 북감리교 선교부에서 간행한 『찬미가』다. 그 이후로 찬송가집은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 등의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감리교는 찬송가집 제목을 주로 ‘찬미가’로 하였고 장로교는 ‘찬성시’로 하다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찬송가』를 간행하였다. 당시 간행된 찬송가집은 한국 초기 기독교의 선교·신앙 상황과 근대 전환기의 민족 정서 그리고 한국 어문의 형성사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자료다.

찬송가집에 관한 연구는 교회사, 음악사 측면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문학사 기반 위에서 찬송가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도한 이는 김병철이다(김병철, 1975). 그는 ‘번역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주로 관심을 가진 텍스트는 한국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간행된 찬송가집들이다. 그는 이 찬송가들의 번역자와 원 노래 제목 등을 밝히는 기초적이면서 방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박재훈의 『찬송가 작가의 면모』(서울 전도사, 1955-1958)와 사이토 다케시(齋藤勇)의 『讚美歌研究』(研究社, 1962)를 참고하여 초기 개신교 찬송가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찬송가집에 동일하게 실린 찬송가를 늘어놓고 번역 양상을 살폈으며 초기 한국 찬송가가 초기 애국 가사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 가사들이 그 형식적 측면에서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김병철이 사이토 다케시의 연구를 주목하고 우리나라 찬송가 연구의 주요 참고서로 활용한 것은 일본이 경험했던 근대 전환기 기독교와 우리의 그것이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박선희는 메이지 시대 창가집인 『幼稚園唱歌集』(1887), 『尋常小學唱歌』(1911)등을 분석하여 메이지 시대 창가 탄생과 더불어 일본 근대 음악이 ‘국민 창출’의 과정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근대 초기 기독교는 근대 국민 창출이라는 메이지 이데올로기의 환경 속에서 찬송가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메이지 정부는 가치 표상의 전달 도구로써 찬송가를 수용했다고 평가한다(박선희, 2016). 이 부분은 우리 근대 문학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민 창출’의 이념을 담은 『독립신문』의 애국 가사들의 상당수가 찬송가의 가사나 곡조의 영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1)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괄하는 용어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행에 따라 개신교를 기독교라 표현하겠다.

는 많은 경우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었다. 기독교 이념이 일본 제국주의와 충돌했기 때문이다(장규식, 2001). 흥미로운 것은 당시 간행되었던 찬송가집 중, 애국가와 찬송가가 함께 실린 책이 있다는 점이다. 그 찬송가집은 바로 윤치호의 『찬미가』(광학서포, 1908)이다.

II. 윤치호의 『찬미가』(1908)

윤치호(尹致昊, 1864-1945)는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일원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였고 동인사(同人社)에서 2년간 공부했다. 1883년에 귀국하였고 갑신정변 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운영하는 중서서원(中西書院)에서 3년간 공부하였다. 그는 1887년에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이후 중서서원의 원장 알렌(Allen) 박사의 추천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남감리회 소속의 벤더빌트(Vanderbilt) 대학, 에모리(Emory) 대학에서 공부했다(조서운, 2018). 1895년 귀국하여 학부 협판이 되었으며 1898년 2월 서재필을 이어 독립협회 회장이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을 사퇴한 후, 1906년 장지연, 윤희정 등과 대한 자강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그 해 10월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기독교 학교 설립을 위임받아 개성에 한영서원(韓英書院)을 설립하였다. 1912년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검거되어 3년간 수감 생활을 겪고 1915년에 석방되었다. 출옥 후 YMCA의 총무와 회장으로 활동했고 송도 고등 보통학교와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 상무 이사와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이사로 친일 활동을 하였으며 1945년 귀족원 의원을 지냈다(윤경남, 2017). 윤치호는 일찍이 서양에서 공부를 한 선각자이며 독립 운동에 힘썼으나 후에 친일 활동을 하였다.

윤치호는 1908년에 『찬미가』 재판을 간행하였다. 윤치호의 『찬미가』 표지에는 가운데에 제목, ‘찬미가’가 표기되어 있으며 책 뒤 판권지에는 “隆熙二年六月二十日再版印刷/隆熙二年六月二十五日發行”으로 간행 연도가 기재되어 있다. 1908년에 재판이 발행되었다는 것인데 초판 간행 연도에 대한 정보는 없다. 또한 ‘譯述者 尹致昊’로 저자명과 역할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 이외 판권에 대한 정보로 “發行者 金相萬 / 印刷所 塔印社 / 發賣所 廣學書舖”가 있다. 정가(定價)는 ‘二錢五厘’이다. 기독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우선 곡이 15곡 들어 있는 소책자다. 1905년에 간행된 감리교의 『찬미가』가 182곡, 1908년에 간행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가 317곡을 수록한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단출한 찬송가집이다. 둘째, 책을 만든 이가 개인이다. 1894년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를 제외하고 다른 찬송가집은 대개 교파 찬송가 위원회가 만들었다. 셋째, ‘애국가’ 류의 찬양이 포함되었다. 수록된 15곡 중에 3곡이 국가와 황제를

찬양하는 ‘애국가’이다.

노동은은 음악사가의 시각에서 윤치호의 『찬미가』를 다루었다. 그는 『찬미가』가 ‘민족적 형식에다 기독교 신앙 고백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 찬송가를 창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노동은, 1995:713). 민경배는 교회사 차원에서 당시 여러 개신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를 주목했다. 그는 윤치호가 “애국의 충정에다가 그 스스로 운문하여 그래도 내놓을 만하다고 해서” 『찬미가』를 간행했다고 평가하였다. 『찬미가』에 애국가 류 세 곡이 포함된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나라의 비극과 고난과 더불어 동행하였다. 따라서 교회 찬송가와 충군(忠君)의 역사는 “영켜 혈맥을 이루었다”(민경배, 1997:74)고 말하며 윤치호의 『찬미가』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숙은 윤치호의 『찬미가』는 적은 편수의 찬송가를 담고 있지만 애국가 류가 포함되어 있어 “초창기 한국 교인들의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찬송가”라고 평가한다. 또한 현재 불리는 「애국가」가 최초로 수록되어있는 귀중한 찬송가집임에도 감리교에서 공식 간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한다(김영숙, 1998). 조서운은 윤치호가 서구식 문명화만이 19세기 말의 조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했다. 그는 찬송가 가사 15곡의 내용을 곡조와 함께 분석하여 살피며 윤치호의 『찬미가』는 민족의 사명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조서운, 2018). 이와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강효백은 애국가가 포함된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본 기독교 협회에서 펴낸 『찬미가』(1903)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말한다(강효백, 2021:254).

윤치호의 『찬미가』는 당시 찬송가집과는 달리 ‘애국가’ 류의 노래가 포함되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독교 정신에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 논리가 결합된 것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체제가 일본 메이지 시기 찬송가집의 체제를 모방했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 후자의 평가는 오늘날 부르는 ‘애국가’의 작사자 논쟁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 바탕에서 윤치호의 『찬미가』(1908)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 3편을 분석하고 그 3편이 수록된 의미에 대해 논증하고자 한다. 윤치호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우 그의 친일 경력과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일기에 쓰여진 그의 정세(政勢)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윤치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치호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부당한 점이 있다. 『찬미가』를 간행할 무렵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 그는 한영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대한 자강회의 회장이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규정한 「의회통용규칙」을 잡지에 싣고 일제에 대한 비판이 담긴 우화집, 『우순소리』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3-40년대 그의 친일 경력이 이 시기의 행적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기는 개인의 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적 활동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옆두에 두고 윤치호의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 류의 특징과 그것이 근대 전환기에 가졌던 의미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I. 윤치호 『찬미가』의 구성과 애국가류

『찬미가』에는 모두 15장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다. 각 찬송가에는 곡조 명인 ‘Tune’과 곡명이 표기되어 있다. 『찬미가』에 수록된 곡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ontents *Chanmiga* Translated by Yun Chi-ho

순서	곡조 명(Tune)/ 곡명	『21세기 찬송가』 수록 곡명
1	AMERICA / KOREA	
2	JESUS, LOVER OF MY SOUL	비바람이 칠 때와(388장)
3	NICAE/ HOLY, HOLY, HOLY	거룩 거룩 거룩(8장)
4	STAND UP FOR JESUS	십자가 군병들아(352장)
5	HARK THE HERALD ANGELS / CHRISTMAS	천사찬송하기를(126장)
6	THE MORNING LIGHT IS BREAKS ANEW	예수의 전한 복음(264장)
7	WORK FOR THE NIGHT IS COMING	어둔 밤 쉬 되리니(330장)
8	MY FAITH LOOKS UP TO THEE	못 박혀 죽으신(385장)
9	ONWARD, CHRISTIAN SOLDIERS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351장)
10	AULD LAN SINE/PATRIOTIC HYMM NO.III	
11	BLEST BE THE TIE	주 믿는 형제들(221장)
12	HOW FIRM A FOUNDATION	
13	ABIDE WITH ME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481장)
14	AULD LANG SINE/PATRIOTIC HYMM	
15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	저 북방 얼음산과(507장)

언더우드가 1894년에 간행한 『찬양가』를 제외하고 당시 찬송가집이 대개 그렇듯이 『찬미가』에도 악보가 없다. 대신 가사가 적혀 있는 본문 상단에 제목과 함께 곡조명이 병기되어 있다. 예컨대 제1장은 “KOREA/ TUNE AMERICA”이라고 적혀 있는데 노래 제목은 ‘KOREA’, 곡조 명(TUNE)은 ‘AMERICA’라는 것이다. ‘AMERICA’는 영국 국가의 곡조이며 현행 찬송가 「괴난처 있으니 환

란을 당한 자 이리오게』의 곡조이기도 하다. 이름이 하나만 기재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곡조 명이 아니라 노래 제목으로 보면 된다.

『찬미가』는 윤치호의 ‘역술(譯述)’이지만 그것은 12개의 찬송에 해당하고 3개의 애국가 류는 윤치호의 ‘작(作)’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14장 ‘애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와 같아 작사자가 누구냐는 논쟁이 뜨겁다.² 1908년에 간행된 『찬송가』가 317곡을 수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찬미가』의 12곡은 윤치호가 매우 엄선한 찬송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찬미가』 수록곡 15곡 중, 제1장, 제10장, 제14장은 ‘애국’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은 『찬미가』 수록 찬송의 순서는 어떤 원칙에 따라 배열되었는가다. 우선 ‘애국’ 내용을 담은 노래는 따로 구분되지 않았다. 1장, 10장, 14장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KOREA’를 제1장에 배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내용을 지닌 국가(國歌)를 맨 처음에 놓은 것이다.

제10장의 곡명은 ‘PATRIOTIC HYMN NO. Ⅲ’이고 곡조는 ‘AULD LANG SINE’, 제14장의 곡명은 ‘PATRIOTIC HYMN’, 곡조는 ‘AULD LANG SINE’이다. 제10장과 14장의 곡명과 곡조는 같은 셈이다. 곡명은 둘 다 애국가(PATRIOTIC HYMN)다. 제10장에 ‘NO. Ⅲ’가 부기되어 있는데 번호를 부여할 만큼 애국가가 여러 종류가 있어 그 가운데 10장과 14장을 선별하여 올린 것 같다. 곡조는 우리에게 「석별의 정」의 곡조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민요, ‘Auld Lang Sine’이다. 현행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의 곡조이기도 하다.(조서윤, 2018:256) 이 세 애국가 중, 제1장과 제14장은 이 찬송가집에 처음 실린 노래이며 제10장은 일명 ‘무궁화가’로서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자에 이미 실린 노래다. 우선 제1장과 제14장을 분석하고 제10장과 『독립신문』에 실린 가사를 비교·분석하면서 윤치호의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의 의미를 논하기로 하겠다.

2) 이러한 텍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것은 윤치호의 친일 이력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가 지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모두를 납득할 만한 확증된 자료는 아직 없다. 1890년대부터 여러 애국가가 만들어졌고 그것은 집단으로 창작된 경향이 있으므로 「애국가」는 한 개인의 작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지금은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어 있는 형편이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PATRIOTIC HYMN

데— KOREA / TUNE AMERICA 664.6464	데十四 PATRIOTIC HYMN /TUNE AULD LANG SINE
— 우리 황상 폐하/턴디일월갓치/만수무강/산높고 물고흔/우리대한데국/하나님도오사/독립부강 二 길고긴양업은/룡홍강푸른물/쉬지안 듯/금강천만봉 에/날빛찬란함은/태극기영광이/빗취난 듯 三 비단갓흔강산/봄꽃가을달도/굽거니와/오곡풍등하 고/금옥구비하니/아세아락토가/이아닌가 四 이천만동포난/한맘한뜻으로/직분하세/사육은바리 고/총의만압세워/님군과나라를/보답하세	— 동해물과백두산이/말으고달토록/ 하나님이보호하사/우리대한만세 二 남산우헤저소나무/갑을두른 듯/바람이슬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三 가을하날공활한대/구름업시높고/밝은달은 우리가슴/일편단심일세 四 이기상과이마음으로/님군을섬기며/괴로오나 질거우나/나라사랑하세 후렴 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 대한사람대한으로/길히보전하세

『찬미가』에서 제1장은 국가(國歌)의 지위를 갖고 있다. 물론 공식적인 국가는 아니다. 윤치호가 『찬미가』내에서 국가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 노래는 ‘황상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일명 ‘황제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대한 데국’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독립 부강할 것을 염원한다는 것이다. 황제와 나라를 함께 기리며 그 바람을 구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기독교 신앙과 충군애국의 정신이 접합되어 있는 것이다. 1절의 마지막 표현 ‘독립 부강’은 노래가 지향하는 바를 또렷하게 표현한다.

이 노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한다. 2절에서 ‘룡홍강’이 쉬지않고 흐르고 ‘금강천만봉’이 날빛찬란하다는 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 ‘룡홍강’은 함경남도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으로서 조선 태조(太祖)의 출생과 관련이 있다. ‘금강 천만봉’은 우리나라에서 기릴 만한 자연 풍광을 가진 장소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풍광을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3절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수확이 풍부한 땅을 연관시켜 우리나라를 ‘아세아 락토’로 소개했다. ‘아세아’라는 지역명이 나온 것은 ‘세계’를 염두에 두고 유럽이나 아메리카와 대비한 지리학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절에서는 ‘이천만’ 동포가 사육을 버리고 임금과 나라에 보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윤치호는 당시 인구를 ‘이천만’이라고 여긴 듯하다. 민족의 의미로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은 임금과 나라에 은혜를 받았다는 전제를 두고 개인의 욕망은 후순위에 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찬미가』의 모든 찬송에는 ‘ㆍ’가 없다. 윤치호

는 자신의 국어학 식견을 바탕으로 ‘ㆍ’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답호세’로 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실수로 표기한 듯하다.

제14장은 오늘날 ‘애국가’와 거의 비슷하다. 인쇄된 ‘애국가’ 중 가장 앞선 자료다. 이 ‘애국가’를 제1장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제1장의 제목은 나라 이름 ‘KOREA’인데 비해 제14장은 ‘PATRIOTIC HYMNS’다. 국가(國歌)와 애국가(愛國歌)를 구분한 것이다. 즉, 국가는 제1장 하나이며 애국가는 제10장, 제14장이다. 제1장에서 ‘룡흥강/금강산’이 나왔지만 제14장에는 ‘동해/백두산’이 나왔다. 전자에 조선 황제의 표지가 갖든 것에 비해 후자는 그러한 표지가 없다. 대신 제14장 2절에는 ‘남산’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화자가 노래하는 위치를 가리킨다. 즉 화자가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한양 혹은 서울에 있다는 것으로 나라와 정치의 중심지는 한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제1장과 같이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4절에는 ‘이괴상’과 ‘이마음’으로 ‘님금’을 섬기고 ‘나라사랑’하자는 다짐이 담겨 있다. ‘이괴상’은 2절의 “바람이슬불변함”을, ‘이마음’은 3절의 “일편단심일세”를 받고 있다.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임금과 나라를 위한다는 것으로 ‘충군애국’의 정신의 강조다.

다음으로 제10장을 살펴보자. 제10장은 「무궁화가」로 알려졌으며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자에 그 가사가 소개된 바 있다. 그 외 『대한매일신보』 1906년 10월 30일자,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자에 소개되어 있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A Mugunghwa song and PATRIOTIC HYMN III

「무궁화 노래」,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테+ PATRIOTIC HYMN NO. III./TUNE AULD LANG SINE
一 성조 신손 오백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슈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호세	一 승자신손 천만년은 우리황실이요 산고슈려 동반도난 우리본국일세 후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
二 위국 호는 열심익의기 복악 고택치 놓고 충군 호는 일편 단심 동회 고택치 깊혀	二 애국하난열심의기 복악갓치놓고 충군하난일편단심 동해갓치깊혀
三 천만인 오직한 무음 나라 사랑 호야 스롱공상 귀천 업시 직분만 다 호세	三 이천만인오직한맘 나라사랑하야 사롱공상귀천업시 직분만다하세
四 우리 나라 우리 황데 황천이 도오사 군민 동락 만만세에 태평 독립호세	四 우리나라우리님군 황천이도우사 국민동락만만세에 태평독립하세

우선 ‘무궁화가’에서 주목할 점은 제14장과 후렴이 같다는 것이다. 즉 오늘날 ‘애국가’의 후렴이 ‘무궁화가’에 맨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제10장의 ‘무궁화가’는 『독립신문』의 ‘무궁화가’와 그 가사가 온전히 같지는 않다. 눈에 띄는 차이는 ‘오백년’이 ‘천만년’, ‘천만인’이 ‘이천만인’, ‘황태’가 ‘님군’, ‘군민’이 ‘국민’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찬미가』의 초판 연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1908년 재판본의 간행 연도를 염두에 두고 따져보자. 『찬미가』에는 ‘조선’이란 나라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오백년’이란 구체적으로 조선이 점유한 세월을 지우고 ‘천만년’이라는 추상적 시간을 내세웠다. ‘황태’는 대한제국의 황제다. 그것을 소거하고 ‘님군’ 즉 일반 명사인 ‘임금’을 내세웠다. 윤치호는 그의 일기 1897년 5월 27일자에 고종이 ‘황제’라고 불리며 얻는 것은 “공허한 호칭과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경멸”이라고 썼다.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어 ‘황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1장에 ‘황상 폐하’라는 용어가 있기에 이 해석을 완강히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용어를 고친 것에 의도성을 부여하면 ‘황제’와 ‘임금’이라는 명칭 사이에서 윤치호가 고민하였다는 점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군민’을 ‘국민’으로 고쳤는데 이것은 입헌 군주제로서 근대 국가 체제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천만인’이 ‘이천만인’이 되었다. 십여 년 만에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³ 앞서 ‘오백년’을 ‘천만년’으로 한 것은 시간과 역사를 추상화한 것이라 했는데 이 경우는 과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는 만큼 한껏 숫자를 올려잡은 것이다.

1절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은 “임금의 자손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찬미가』에는 ‘승자신손’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자신손’의 오기로 보인다. 왜 ‘성’을 ‘승’으로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2절에서 애국의 ‘의기’를 북악산이 높은 것에, 충군의 ‘일편단심’을 동해가 깊은 것에 비유했다. 3절에서는 한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사농공상 귀천없이 직분을 다하자는 다짐을 담았다. 조선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따라 귀천(貴賤)을 두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것이다. 4절에는 “우리님군 황천이도우사”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황천’은 ‘황천(皇天)’으로서 ‘절대자’를 뜻한다. 신이 우리 임금을 도와달라는 바람을 드러낸 것인데 제1장, 제14장처럼 기독교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정신을 연결시킨 표현이다.

요컨대 윤치호의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류는 국가와 애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조선 왕조의 특징을 담은 제1장은 당시 실제 국가로 쓰였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김을한은 1904년에 영국 군함이 제물포 항에 들어왔을 때 고종의 명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김을한, 1982) 그것이 이 제1장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없이 제14장 애

3) 광무 10년(1906년) ‘內務部調査’는 5,793,976명, ‘警務顧問部調査’는 9,781,671명이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통계표에는 12,934,28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편차가 크다(朝鮮總督府 編, 1927:92). 대체적으로 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가가 국가로서 불리고 있다. 특이할 점은 세 곡 모두 충군애국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기독교 신앙이 함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계가 지니고 있었던 정서와 신앙의 특징을 반영한다.

IV. 윤치호의 『찬미가』의 성격과 특징

윤치호의 『찬미가』에는 문명이 발달한 부강한 나라와 기독교 신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윤치호의 신념이 담겨 있다. 『찬미가』 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찬미가』의 특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찬미가』의 제14장에 주목을 하고 현행 ‘애국가’ 작사가가 윤치호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논자는 『찬미가』의 구성 특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강효백은 윤치호가 애국가 작사자일 수 없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애국가 세 편을 수록한 『찬미가』가 “얼핏 보면 대단히 독창적인 것 같지만 일본 기독교 협회에서 펴낸 1903년 『讚美歌』의 체제와 구성을 본떠 엮어낸 것”이다. 이 『찬미가』는 감리교파 목사 벳쇼우메소스케(別所梅之助, 1872-1945) 등 4인에 의해 창작 편집되었고 일본 제국 해군 군목 오자키 히로미치(和田秀豊) 등이 방역(邦譯)했으며 1931년판 『찬미가』가 나오기 전까지 일본 전국의 교회에서 사용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찬송가에 일본의 「기미가요(君が代)」, 「명치송(明治頌)」, 「부상가(扶桑歌)」 3곡의 애국가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강효백, 2021:254). 또한 메이지 시대 대표 창가 「반딧불의 빛(蛍の光)」(1881)의 곡조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이었다. 이런 점에서 강효백은 윤치호의 『찬미가』 구성은 일본의 『讚美歌』(1903)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미가』와 그것에 수록된 「애국가」를 왜색이 깃들여 있다고 평가 절하한다.(강효백, 2021:62) 덧붙여 강효백은 『찬미가』뿐만 아니라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가들도 당시 200여 수의 ‘막말애국가(幕末愛國歌)’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강효백, 2021:64) 이러한 강효백의 지적은 흥미롭다. 여러 연구자가 애국·민족 의식과 기독교의 결합이라고 상찬한 윤치호의 『찬미가』 구성이 일본에서 1903년에 간행한 감리교 찬송가집 『讚美歌』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애국가, 국화에 관한 노래가 들어있다는 사실마저도 같다.

임진택과 박재순은 윤치호가 『찬미가』 애국가의 작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임진택은 애국가의 작사자를 가리는 자리에서 ‘역술(譯述)’의 의미를 따져 묻는다. 『찬미가』에 수록된 세 곡의 애국가는 윤치호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12곡의 찬송가처럼 편집과 단어 바꾸기 등의 가필을 한 정도

라는 것이다(임진택, 2020:170). 박재순은 독립협회가 해체된 1898년 이후 윤치호는 애국 계몽 주제의 노래를 지은 일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당시 세계 질서상에서 그는 일본의 지배를 필연으로 받아들였기에 애국가를 지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박재순, 2020:60).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이유와 근거가 분명치 않다. 우선 『찬미가』의 12곡의 찬송가 가사는 기존 번역의 ‘가필’ 정도를 한 것이라는 임진택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12곡의 찬송가 가사와 기존 찬송가 가사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윤치호가 직접 번역한 찬송가도 상당수다. 또한 박재순의 1898년 이후 윤치호 행적에 대한 지적도 옳다 할 수 없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윤치호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대한 자강회 활동을 하는 등 1900년대 애국 계몽 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찬미가』의 구성 비판과 애국가 작사가는 윤치호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윤치호가 친일 지식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하지만 일본의 『讚美歌』(1903)와 그 구성과 체제가 같고 역술한 저자가 윤치호라고 하여 『찬미가』 자체가 친일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윤치호의 『찬미가』의 노래들은 윤치호가 교장으로 있던 송도의 한영서원에서 교육용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한영서원은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세운 사립학교로서 기독교 선교와 일제에 대해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한영서원과 비슷한 설립 목적을 지닌 배재학당과 관련한 기사에 마침 배재학당 학생이 ‘무궁화가’를 부른 대목이 있다.

A. 비지학당 학원들이 무궁화 노리를 불으는디 우리 나라 우리/님군과 빅성이 헛그지로 만만세를 길거허야 태평 독립 허여 보세 하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초아 병창 허더라
(중략) 비지 학당 학원들이 나라 사랑하는 노리를 불으니 외국 부인이 또 악기로 룰에 못초아 병창 허더라(『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 강조는 인용자)

B. The Paichai boys sang a song “National Flower” which was composed by the poet laureate of Korea Mr. T.H.Yun, for the occasion. They sang it to the tune of “Auld Lang Syne” accompanied by Mrs. M.F. Sarenton on the organ. (중략) The Paichai boys then sang the national hymn “Korea” in the tune of “America” or “God Save the Queen.”(『THE INDEPENDENT』 1897년 8월 17일)

조선왕조의 505주년 기념식이 독립협회 후원 아래 독립협회 회관에서 1897년 8월 13일에 열렸다

(『윤치호 일기』 1987년 8월 13일). 이 내용에 대한 기사로서 A는 『독립신문』 1897년 8월 17일자, B는 같은 날 『독립신문』 영문판이다. 배재학당 학생들이 ‘무궁화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그 날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A에 노래 가사인 듯한 구절, “태평 독립하여 보세”가 있는데 앞서 살펴본 「무궁화 노래」와 『찬미가』 10장 ‘PATRIOTIC HYMN No. Ⅲ’의 마지막 절 가사와 같다. 영문판 기사 B에는 ‘National Flower’를 ‘Mr. T.H.Yun’이 작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영문판 기사는 곡조도 소개하고 있다. ‘National Flower’의 곡조는 “Auld Lang Syne”이다. 『찬미가』의 제10장의 곡조와 같다. 둘이 같은 노래일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근거다. 한편 영문판 기사는 또 다른 노래 “Korea”를 “America” 혹은 “God Save the Queen” 곡조에 맞추어 불렀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즉 『찬미가』 제1장과, 제목과 곡조가 같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찬미가』의 애국가들은 1897년 즈음에 이미 있었던 노래들이며 조선 왕조의 기념식에 불리었고, 윤치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래였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고종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행사의 순서다. 『독립신문』에는 이와같이 각종 행사를 시간순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종종 실린다. 다음의 인용문도 그런 기사 중 하나다.

대조선 서울 야쇼 교회에서 누일 대군주 폐하 탄신 경축회를 후는디 아침에는 각 레비당에서 대군주 폐하와 조선 인민을 위하여 하느님의 찬미와 기도를 홀터이오 오후 네시에 모화관에 모도 모혀 이국가로 노리히고 명망있는 사름들이 연설도 홀터이라 무론 누구든지 이날을 경히 생각후는 이는 모도 모화관으로 와서 고티 이국가로 노리히고 연설도 들으시오(『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⁴

인용문은 아침과 오후에 열린 행사를 하나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아침에는 예배당에서 고종과 나라의 안녕을 위한 찬양과 기도를 한다. 이 행사는 주체가 ‘서울 야쇼 교회’다. 이 교회는 서울 새문안 교회로 추측된다.(윤경로, 2019:127) 오후에는 ‘모화관’에서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 하루 일정에 ‘찬송가’와 ‘애국가’가 한 데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찬미가』의 애국가와 찬송가의 조합은 이러한 행사 식순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시 새문안교회에 관련한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러한 조합은 낯선 것이 아니다. 충군애국

4) 『윤치호 일기』 1897년 8월 13일자 일기에는 조선의 개국 505주년 기념식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독립협회 후원 아래 독립협회 회관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식순은 다음과 같다. 1. 배재학당 학생들의 송가(頌歌)/2. 초대 회장 안경수의 연설/ 3. 이채연의 연설 “공공복리를 위한 시민의 의무”/ 4. 배재학당 학생들의 노래 “국화(國花)"/5. 아펜젤러 목사의 연설 “재류 외국인들의 의무”/6. 서재필의 연설 “조선의 발전”/ 7. 배재학당 학생들의 노래 “조선”/8. 나의 연설 “우리가 기념하는 날”/ 9. 다과

(忠君愛國)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하는 모습을 굳이 일본의 『찬미가』에서 따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음력 이월 팔일은 우리황태자殿下의 천추 경절인고로 정부에서 각부와 각학교에 경비를 나리섯
논디 비치학당에도 또한 은화 룩원을 반하 후신지라 본 학당은 특별이 다른 학교와 고지 아니후
여 예수교를 주장 후는 학당인디 그날이 못춤 레배일인고로 경축할 물건을 예비치 못하고 그
흔날 레식을 힝홀시 태극 국기를 놓히 돌고 각식 등을 학당 압헤 좌우로 길게 버려 들었시며 저
녁 날곱시에 학도들이 일제히 모히어 만세를 부르고 국가를 노리 후는디 등불이 휘황후여 늦고흔
지라 기도 찬미 후후에 서로 경축홀목역을 연설 후는디 학도중 일본 친구가 잇셔서 또한 요흔 말
씀으로 우리 나라를 위후야 경축후니 사름들이 다 쟈미 잇게 듯더라 실과봉 빅여기를 준비 후었
다가 후히들로 브터 쇼년 쟈지 논호아 주고 깃분 무옴으로 파 후니라(강조는 인용자)

인용문은 『대한그리스도회보』 1899년 3월 22일 「내보」란에 실린 기사다. ‘천추 경절’ 즉, 황태자 생일에 대한 소개다. 정부에서 황태자 생일을 기념하여 배재학당에 경축비를 내리고 배재학당은 그것을 기념하여 예식을 했다는 기사다. 행사의 내용은 고종 생일 때와 비슷하다. “국가를 노리”하고 “기도 찬미”를 한다는 것으로 국가와 찬송가 부르기가 한 행사에 함께 있다. 기독교를 신앙하는 단체, 즉 교회나 미션 스쿨에서는 충군·애국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닌 하나로 묶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으로 설사 윤치호의 『찬미가』가 일본의 『찬미가』의 형식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찬미가』를 왜색이 깃든 친일 찬송가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라의 안녕을 신앙에 기댄 체제 자체가 마음에 와 닿아 그러한 형식의 찬송가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치호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협력한 것을 지목하여 그 이전의 삶에서 친일과 관련한 행적과 생각을 찾고자 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찬미가』를 간행할 당시 윤치호는 조선이 나아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한 지식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일본의 야욕을 간파하고 분통해 했다. 1907년 7월 28일, 캔들러 박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윤치호는 “일본은 압도적인 힘으로 조선을 억누르고 합니다.”고 하며 일본이 조선을 대하는 태도에 분노했다(윤경남, 2020:178). 윤치호가 역술하고 편찬한 『찬미가』의 형식은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기울어가는 국운(國運)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것을 쇄신하고자 하는 바람이라는 배경에서 나왔다. 이는 당시 윤치호가 간행한 공적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찬미가』 즈음에 발표된 윤치호의 글과 저서를 살펴보자. 『대한자강회월보』(1906년 1월)에 실린

「議會通用規則」은 1898년 윤치호가 단행본으로 낸 것을 다시 재수록한 것이다. 「의회통용규칙」은 미국 해군 장교였던 로버트(Henry. M. Robert)의 *Robert's Rules of Order*를 초역한 것으로 “개화기 조선/조선인을 위한 사회적/국가적 공공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회의의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 글이다. 윤치호는 독립협회에 1897년 7월부터 참여하였는데 독립협회를 일종의 토론회(debating society)로 조직하여 의회주의를 훈련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류충희, 2014:3-5) 그 조직을 만들고자 펴낸 글을 1906년 다시 학술지에 실었다는 것은 그가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윤치호는 이숙 우화를 담은 『우순소리』를 1908년에 대한서림에서 펴냈다. 이 책에서 윤치호는 71편의 우화를 실고 각 편의 우화 말미에 우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에 대한 비판의 내용도 담겼다. 예컨대 제12회 ‘보호국’에서는 새매에게 보호를 맡긴 비둘기들이 낭패를 당하는 우화를 실고 글 마지막에 “제가 제 보호 못하고 남의 보호를 엿지 밋으리오”라고 적었다(윤치호, 2022:59). 당시 을사늑약에 대한 풍자인데 그 어조가 매우 강하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우순소리』는 1909년 통감부가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 1909년 통감부는 『우순소리』에 대해 발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윤치호의 친일 행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의 전 생애와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찬미가』를 간행할 당시 그는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찬미가』는 그 가운데 거둔 결실의 하나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살펴보았다. 『찬미가』는 당시 간행된 찬송가집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 자격으로 한국인이 펴낸 최초의 찬송가집이며 애국가 세 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찬송가집과는 다르게 『찬미가』는 기독교 신앙과 애국의 정신이 한 데 묶여 기독교 신앙과 찬송가가 어떻게 국가 만들기에 기여하려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윤치호 개인의 번역 특징을 볼 수 있다. 그의 번역 찬송은 이전 찬송에 비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웠다. 한국인의 언어 감각으로 내용과 운율을 잘 살렸으며 전문적 신학 지식으로 본래 취지를 흐리지 않았다. 또한 ‘ㆍ’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어문학적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말 그대로 풍운아(風雲兒)의 삶을 살았다. 그는 1865년에 태어나 194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보고 겪고 느낀 일을 평생 일기에 담았다. 국운이 기울고 나라가 망할 즈음인 1908년에는 『찬미가』 재판과 재담집 『우순소리』를 간행했고 1911년에 『영어문법첩경』을 간행했

다. 『우순소리』는 당시 언론에서 “애국 사상을 일으키며 독립 정신을 배양하는 비유소설”로 홍보했으며 일제 당국에 의해 출판이 금지당하기도 했다. 또한 1912년 ‘105인 사건’으로 피소되어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태평양 전쟁기 한국 청년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1945년 일본 중추원 의원이 되었다.

그는 일본에 저항하기도 했으며 협력하기도 했다. 『찬미가』(1908)에 대한 시각은 윤치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나라가 부강하고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개화 선구자의 결실이 될 수 있고 일본 찬송가집의 체제를 고스란히 본 따 만든 친일 지식인의 모방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미가』(1908)에는 ‘애국’과 ‘충군’의 내용이 담긴 가사가 수록되었고 그것은 당시 독자들에게 그 내용에 값하는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찬미가』 체제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친 일본으로 채색되는 것은 아니다.

윤치호는 일기에서 민족의 문제를 신앙의 측면에서 자성적(自省的)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생각했으며 한국인은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이희환, 1992 :193). 윤치호의 이후 행적을 감안하면 일견 당연하다 생각되는 식민 사관의 논리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이는 조선의 역사와 사회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반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판적이며 다분히 퇴영적인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나’와 민족의 회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더 나은 미래가 확보된다는 희망적 전망으로 연결된다. 식민 사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논문은 근대 전환기에 간행된 윤치호 『찬미가』(1908)의 성격을 검토했다. 『찬미가』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집필한 저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저서가 간행되었을 때 저자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실제 그 저서가 어떻게 독자에게 수용되었는가에 대해 방점을 두고 『찬미가』를 살펴보았다. 당시 『찬미가』는 충군·애국과 기독교 신앙이 결합된 텍스트이며 그 형식에 따라 활용되고 독자에게 수용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윤치호는 방대한 분량의, 자신의 내면을 담은 기록인 일기를 남겼다. ‘일기’라는 장르의 글쓰기 성격을 심분 고려하여 연구한다면 우리는 윤치호 개인과 일제 강점기 글쓰기를 이해하는 데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효백 (2021). **애국가**는 없다. 서울: 지식공감.
- 김병철 (1975).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乙酉文化史.
- 김영숙 (1998). **윤치호의 『찬미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을한 (1982). **좌옹 윤치호전**. 을유문화사.
- 노동은 (1995). **한국근대음악사**. 서울: 한길사.
- 류충희 (2014). 개화기 조선의 민會 활동과 「議會通用規則」-「의회통용규칙」의 유통과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167집. 1-32.
- 민경배 (1997). **한국 교회 찬송가사-한국 민족교회 찬송가의 편집사와 해석**.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박선희 (2016). 메이지 시대 창가와 일본 초기 기독교와의 상관관계. **日本文化研究**, 제58집. 109-135.
- 박재순 (2020). **애국가 작사자 도산 안창호**. 서울: 종문화사.
- 윤경남 편저 (2017). **좌옹 윤치호 평전**. 서울: 신앙과 지성사.
- 윤경남·민석홍 옮김. **우순소리**. 윤치호(1908). 서울: 곰시.
- 윤경로 (2019). **새문안교회100년사**. 서울: 교회역사자료편찬위원회.
- 윤치호 지음, 윤경남 편역 (2020). **개정 국역 좌옹 윤치호 서한집**. 서울: 신앙과 지성사.
- 윤치호 (1908). 『찬미가』. 서울: 광학서포.
- 이희환 (1992). 개화기 윤치호와 기독교 개화 사상. 이만열 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pp. 190-201). 서울: 종로서적.
- 임진택 (2020). **애국가 논쟁의 기록과 진실**.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장규식 (2001).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 조서운 (2018). 윤치호 번역의 『찬미가』(1908)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61집. 229-265.
- 朝鮮總督府 編 (1927). **朝鮮の人口現象**. 朝鮮總督府.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 (2011). **한국찬송가전집** 3권. 서울: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 독립협회(1897-1899). 『**THE INDEPENDENT**』. 서울: 독립신문사.
- 공립협회(1905-1909). 『**共立新報**』. 샌프란시스코: 공립신보사.
- 대한매일신보사(1904-1909). 『**대한매일신보**』. 경성: 대한매일신보사.
- 독립신문사(1896-1899). 『**독립신문**』. 서울: 독립신문사.
- 국사편찬위원회 편(2014-2016). 『**윤치호 일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와 근대 국가 만들기 -윤치호의 『찬미가』(1908)를 중심으로

The Protestant Hymn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and the Making of Modern Nation State – Focused on *Chanmiga* 『讚美歌』(1908) Translated by Yun Chi-ho

조경덕 (평택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윤치호가 역술(譯述)한 「찬미가」(1908)를 통해 한국 근대 전환기 기독교 찬송가가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과제에서 수행하였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윤치호의 「찬미가」는 우리나라 찬송가집 역사상 초창기에 간행된 찬송가집이다. 기독교 찬송가집 가운데 윤치호의 「찬미가」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첫째, 곡이 15곡이 들어있는 소책자다. 같은 해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만든 찬송가집은 317곡을 수록하였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회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이다. 둘째, 개인이 만든 찬송가집이다. 개인이 1894년 언더우드가 만든 찬송가집을 제외하고 다른 찬송가집은 대개 교파 찬송가 위원회가 만들었다. 그만큼 윤치호가 영어와 국어학에 관한 지식이 있어 가능했다. 셋째, '애국가'가 포함되었다. 15곡 중에 3곡이 '애국가'이다. 당시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경향은 선교사보다 한국인에게 더 강했다. 윤치호는 일제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 편에 섰다.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찬미가」의 민족주의 성격을 부정한다. 하지만 윤치호의 말년 행적으로 그의 전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윤치호는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찬미가」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독자들은 「찬미가」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함께 노래하였다.

주제어: 윤치호, 『찬미가』, 찬송가, 애국가, 근대 전환기

기독교대학 교수의 인식조사에 의한 중요성공요인의 분석과 성공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study of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박문식 (Moon-Shik Park)**
김재철 (Jae-Chul Kim)***

ABSTRAC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we examine the position and attitude of Christian universities in Korea in a social environment that is said to be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We also examine the diagnosis and alternative suggestions for the crisis of identity that has been raised for decades amidst a sustainable financial crisis caused by a serious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By synthesizing historical and theoretical papers and materials, we examine the nature and value of Christian universities needed in the present era.

It is emphasized that in-depth efforts and research at the institutional and association level are needed for Christian universities to be maintained, developed, and successful in the coming era. Looking at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Korean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do not show a variety of theore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In addition, through a literature survey in Korea, it was revealed that most studies on Christian universities are qualitative studies on identity and that there is no research on the oper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is paper, as an attempt at quantitative research, in the case of Hannam University as a case university, we research the perceptions of professors to quantitatively analyze and present the attributes of success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the factors necessary to achieve that succes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organizational theory, innovation theory, and experience working at a Christian university for over 20 years, we developed a question inventory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1월 30일 게재확정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ms.park@hnu.kr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jckim@hnu.kr

to find the success attribute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of Christian universities. We conduct a survey study using those questions, establis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present causal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important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success of Christian universitie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College success attribute, Critical success 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I. 서론

위키백과에 의하면 국내에는 93개의 기독교대학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가톨릭 배경은 13개, 개신교 배경은 80개이다. 개신교 신학대학 13개를 제외하면 67개 개신교 종합대학이 존재하고 이 중에서 기독교 교과목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학은 60개 정도이다.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이 기독교대학의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종교성이 없는 일반 대학인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은 그런 경우는 없다. 2022년도 국가통계에 의하면 대학의 수는 총 336개교이므로 이 중에서 기독교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해당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대학은 국가 고등교육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20년 전에 기독교대학이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수업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자금 조달에 있어서 심한 압박에 직면하면서 기관의 역사, 전통 및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극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Dockery & Gushee, 1999). 재정확충에 대한 어려움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데에 따른 것과 교육에서의 첨단기술의 도입에 따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양측에서 발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인 혁신이 요구되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각각 약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맞이하는 상황과는 잘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매우 두드러진 외적변수 중에 하나로서 강력한 정부주도의 대학정책을 추가할 수 있겠다.

가중되는 기독교대학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위기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탐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관의 차원에서 탐색, 협력, 제도적 접근 등은 사실상 전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주의 경우 1976년 설립된 기독교대학협의회(CCCU,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23)를 중심으로 188개의 복음주의 계열의 고등교육기관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것에 비하여, 한국의 1993년 조직된 한국기독교대학연맹은 초기의 적극적 활동에 비하면 2023년 현재 명목상의 35개 회원교만을 가지고 있을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기독교대학연맹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 1976년 설립된 아시아기독교대학협회(ACUCA,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2023)에서도 한국 회원의 6개교는 한국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변형에 걸맞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독교대학은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이고 비영리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과 같은 영리 법인의 성공은 비교적 명확하게 ‘이윤의 추구’에 있으며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가 부가된다. 반면에 비영리 법인인 기독교대학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기독교대학은 실패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대학의 성공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대학의 성공은 뚜렷한 준거가 없이 설립자 또는 경영자의 독자적인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사례대학인 한남대학과 같이 미국 선교재단으로부터 완전히 이양된 법인의 경우 그 철학과 의지마저 불분명하게 되어 대학은 지향점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건학이념에 걸맞은 성공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을 둘러싼 문제들과 그 본질을 조사한다. 그리고 고찰을 통해 기독교대학의 현상들과 원인들을 도출한다. 여기서 도출된 요인들을 가지고 양적연구 방법으로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가정한 연구가설을 수립한다. 즉, 기독교대학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형을 중요성공요인(CSFS, Critical Success Factors)들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수립하고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실증연구방법을 사용하며 현재 사례대학인 한남대학교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인식을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사회과학적 통계기법으로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II-1. 기독교대학의 유형

먼저 기독교대학의 유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형태론적 유형으로서 신학교와 종합대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종합대학에는 국립, 사립, 교립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과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단, 로마 가톨릭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내용론적 구분으로서 니버(Niebuhr)의 기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 모델을 기독교대학의 유형에도 적용하여 대립모델(Christ against culture), 일치모델(Christ of culture), 지배모델(Christ above culture), 병행모델(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변혁모델(Christ transformer of culture)로 분류하는 것이다(조성국, 2005).

셋째로는 목적론적 구분으로서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이다. 크게는 학문의 수월성의 추구하고 지도적 기독교 인재의 양성을 들 수 있고 학교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신앙, 기독교 원리, 기독교 교의를 근본이념 또는 철학으로 표방하면서 학문을 심화 발전시키며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지도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으므로 그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김동우, 1998).

어느 범주의 기독교대학이던지 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위기는 대학으로서 퇴보 및 소멸에 대한 것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60년에 1백만명에서 2000년에는 63만명, 2020년에는 27만5천명으로 급감하였다. 이것은 20년 후에는 현재 대비 대학 입학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현재도 이미 입학정원이 입학인구를 10만명 이상 상회하는 마당에 이것은 향후 20년간 대학 간의 극심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세속화의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대학들은 제대로 된 확립기를 다지지 못한 채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위기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한 세기 동안의 기독교대학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었던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대학이 가져야 할 가치와 본질은 무엇이었었던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기독교대학이라는 주제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연구 분야 또는 연구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다.

II-2. 기독교대학의 문제

1906년 평양에 숭실대학을 설립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은 교파,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1915년 서울에 조선기독교대학(1917년 연희전문학교)이 설립되면서 종교성(기독교성)과 학문성(근대성) 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옥성득, 2021).

“대학이 한 문명의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기관이라면, 신설되는 조선기독교대학이 지향하는 문명은 근대(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기독교 문명인가 아니면 근대(20세기 초 일본의) 세속 문명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었다. 평양은 후자 측면이 약했고, 서울은 양자를 아우르면서 우위를 차지했다.”

기독교대학이 본격적으로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하나의 일반대학의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대학의 본래적 모습을 지닌 독

특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1966년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이라는 논문에서 오은수(1996)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 한국 기독교대학들은 중대한 자기결단을 해야만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대학의 질적 가치가 일반대학을 능가하는 참다운 기독교대학을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낙오의 길을 걷고야 말 운명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일반대학 수준 이하의 기독교대학의 운영은 세상의 빛도 되지 못하리니와 기독교대학의 특이성을 옹기 살리지 못하면 길가에 밟히는 맛 잃은 소금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는 기독교대학이라는 이름을 갖는 하나의 대학을 해보는 시기는 지났다.”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들과 경쟁하면서 특히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지역 기독교대학들이 겪는 학생유치의 어려움은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1962년 계의돈(Roberet L. Goette)의 미국 선교재단에 보낸 선교편지를 참조해 볼 수가 있다(이정순, 2022).

“정부가 우리에게 허락한 최대 등록 인원은 340명입니다. 현재 학생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로 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러 상당의 설비를 주문했습니다. 실험실의 설비와 공간을 이용하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재정과 기도 후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의돈은 23세에 플로리다대학에서 화학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듀폰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한하여 1960년부터 1987년 까지 사려대학의 교육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화학과를 발전시키고 ‘성경과 과학’을 강의하였으며 KIST 설립과 한국창조과학회의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1962년 김기수도(Keith R. Crim) 선교 편지를 통해 신입생 수급의 문제와 교수 수급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영근 외, 2022). 여기서도 기독교대학 정체성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수의 안정적인 수급의 문제를 앞서 내다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펴면서 대학생 수를 급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더욱 심하게 받아 신입생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대전대학이 기독교인 교수들만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학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헌신된

기독교인 교수를 계속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 치하에서 병원과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통제를 겪어 보았고 끝까지 학교를 지키다가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하면서는 1936년에 모든 학교의 폐쇄를 결정했던 경험을 공유 하였던 까닭에(최영근, 2022) 정부의 허가(permit)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학의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확인해 주는 인증제(creditation)가 있을 뿐이다.

1998년 한국의 7개 기독교대학들의 교육이념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요인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김동우, 1998). 외부적 원인들로는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기독교대학의 생존을 위한 현실타협, 기독교대학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들었으며 내부적 원인들로는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의 이원적 형태 등을 꼽았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국가를 의존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이며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재정문제가 깔려있고 대학이 형식적으로는 서구적 대학이면서도 재정은 자립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즉,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독교대학이 정체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자는 한국이 신자유주의 경제모델로 전환되고 그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대학교육개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면서(박문식, 2010) 더욱 심화되어 버린 대학의 양극화와 질적 저하를 지적하였다.

“정부는 선정대학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지표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의 구조 및 교육과정의 방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2014년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이신형의 연구에서는(이신형, 2014) 두 상반된 주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양승훈은(1996)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차원에서, 김세열은(1997) 대학교육의 장에서 ‘학문공동체’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용훈(2003)은 정체성의 위기로서 지성의 반종교화, 입학 경쟁 서열화, 기독교 문화의 약화, 선교적 헌신과 열정의 약화를 들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세계관의 세속화, 정부 통제, 대학의 거대화, 신앙과 학문의 연계의 부족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신형은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구성원 주체,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학문 활동, 채플과 기독교 필수과목으로 정리하였다. 즉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수의 자아정체성의 확립에서부터 시작하여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을 통하여 가르침과 배움에서 확립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펼쳐 나가야 할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여러 광범위한 주장들을 종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이신형, 2014).

“필자의 인식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회복은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독교대학 교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학생들의 정체성, 즉 기독교인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한 세기 동안의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 운동가, 지식인을 배출하였고 해방 이후로는 사회를 개화시키고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설립 초기로부터 교과문제, 재정문제,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재정문제는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동안 새로운 학문 분야의 도입에 따른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학생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으로 보완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입학하는 1980년도부터는 양적 팽창이 학교의 재정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대학들은 거대화되었다. 그러나 거대화의 결과는 곧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들의 등록학생수가 휘튼, 켈빈, 도르트, 바이올라, 베델, 벨몬트, 리버티 대학 등 대략 평균 3~4천명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그 3~4배, 많게는 10배 정도이다. 기독교 대학의 문제에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거대화와 재정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3. 기독교대학의 본질과 가치

기독교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일 것이다. 이는 보통 설립이념 또는 교육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이룩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명선언문을 제정하는데 사명선언문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해가능하고 모두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엄선된 사명선언문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립하고 동기를 부여 받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다. 또한 사명선언문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이루는 공통분모 즉,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그 목적에 헌신할 수 있게 한다(Woodrow, 2006).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제대로 된 사명선언문은 마치 인류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창 1:28)과도 같은 것이다.

기독교대학이 세속화되어가는 첫 단계의 현상은 그 대학이 설립이념이나 교육목적 즉 사명선언문에서 종교적 연결고리를 벗어나는 것이며(Marsden, 1993)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이 종교적 사명에 맞게 교육철학을 수립하여 신앙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Hughes & Adrian, 1997).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의 전 영역, 즉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제반 분야로 세분화되어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체성 구현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수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사례들을 제시한 논문이 있다(이은실, 2012). 국내의 기독교대학들이 교수개발에 있어서 일반 교수법 강좌에 머무르며 보편적 연구 실적물 위주의 학문성과를 정년보장 승진의 중요 기준으로 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승진의 필수항목으로 반영하여 세속화를 막고 설립목적의 구현하는 주체로서의 교수들의 교수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에 있어서 사례대학의 교육이념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립위원 중 한 명이었던 서의필(John N. Sommerville)의 사명선언문과 현재 대학현장에 수록된 문구를 비교해 보고 그리스도 중심성,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서 하나님의 영역주권의 약화를 지적한 연구를 볼 수 있다(박문식, 2023). 서의필은 1954년부터 1994년 까지 대학의 설립위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종합대학으로서의 성장기까지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이루어 진 베이비 붐,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하버드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글과 한문, 그리고 한국의 족보에 관한 탁월한 학자이자 교육 선교사였다(김남순·이기석, 2023).

방법론적으로나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대학들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강조한다(Holmes, 박진경 역, 1989). 그러나 많은 기독교대학들이 설립목적의 추구하고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 사이의 과정에서 변천하는 역사적 궤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세속화의 과정에, 어떤 대학은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신앙, 영성, 선교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장로교 계통의 아그네스스캇대학(Agnes Scott College)의 1889년 설립부터 2012년까지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 사명선언에서 기독교가 삭제되었는지 정체성의 변화를 역사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참조할 수가 있다(최영근, 2020).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학과 법학 및 역사학을 공부하고 교수이자 교육행정가, 외교관, 총장을 지냈던 이원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이원설, 정선희 역, 2017).

“선교사들이 기독교학교를 설립했던 목적은 단순히 신학문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 있어서 교육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종교적 목표는 교육을 통한 선교였다. 기독교학교가 이 목표를 상실한다면 그 학문 수준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이미 기독교학교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사실 선교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학문의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원설은 지식사회의 도래를 내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사회’의 도래를 낙관적 측면에서만 보는 단견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서 정보화가 가져오는 각종 원치 않는 부산물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의 과다공급(information glut)이 가져오는 혼란, ‘그레섬의 법칙’으로 나쁜 정보가 좋은 정보를 구축하는 현상, 그리고 지식이 악의 도구화하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원설은 기독교대학은 하나님중심세계관을 모든 학문의 기본에 두어 자연관,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경제관, 역사관, 예술관 등을 정립하는 이른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야말로 기독교교육을 보다 유효하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천지인’의 삼축 사상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즉, 그것이 기독교교육의 ‘특이한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현대 정보화 및 기술사회에서 더욱 그 유효성이 커져가며 학문적 수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덕적 수월성과 영적 탁월성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이 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원설은 이미 1980년대에 기독교대학과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이원설, 1998).

“첫째는 오늘날의 지식은 더욱 세분화, 다양화 되어 가기 때문에 자기 전공 이외의 것은 더 모르게 되며, 둘째 지식의 깊이가 더 할수록 모르는 것은 너무 많은 즉 지식의 유한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식이 높아갈수록 예측불허의 시대가 도래되는 무지혜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Christ-centeredness),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되 그 목적과 방향은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진리이어야 하는 점(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인간과 기술에 있어서 다원화와 다변화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근본 문제들의 해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점(Cultural mandate)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의 구현은 인적 차원에서는 이사회, 총장, 교수, 직원, 학생 차원으로 전개되는 한편, 커리큘럼 차원에서는 채플, 성경과목, 교양과목, 전공과목, 그리고 다양한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논리적 귀결로서 기독교대학의 본질은 기독교수의 개인적 신앙고백과 학교의 설립이념이 융합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것이 채플 등의 종교 과목과 일반 과목은 물론 다양한 성경과의 만남(encounter) 및 영성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초대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며 모든 학문과 지식활동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체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믿음과 배움의 통합에 대한 이상과 실천을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4. 기독교대학의 조직론

그렇다면 기독교대학들은 위기의 타개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론과 어느 정도의 혁신을 전개하고 있는가? 2001년 1912개의 미국 및 컬럼비아 지역 비영리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Obenchain, Johnson & Dion, 2004) 조직유형 중에서 기독교대학은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더 자주, 공립대학보다는 덜 자주 혁신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족벌형(clan), 위원회형(adhocracy), 위계형(hierarchy), 시장형(market)의 4가지의 조직문화유형 중에서 족벌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뚜렷한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문화이론에서 이 네 가지는 각각 관계지향, 혁신지향, 위계지향, 과업지향으로도 불리며 관계지향 유형과 혁신지향유형이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동수, 2008).

조직이론에서 족벌형은 응집, 참여, 팀워크, 가족분위기의 속성을 가지며 충성심, 전통, 대인밀착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인적자원, 헌신, 사기부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우세 유형 중에서는 시장형, 위원회형, 위계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분석을 통해서 혁신의 수준에 있어서는 위원회형이 우세하였고 그 다음은 우세유형 없음으로 나타났다. 위원회형은 기업가정신, 창의성, 적응성의 속성을 가지며 창업성, 유연성, 위기성을 응집요소로, 주요 전략으로는 혁신지향, 성장,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학교의 장은 어떠한 하나의 유형에 매달리기 보다는 족벌형과 위원회형 즉 관계지향과 혁신지향을 기관과 조직에 맞게 접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정체성 이외에도 거버넌스 및 조직 운영론 그리고 혁신이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은 이사회, 총장선출방식, 재정과 조직을 아우르는 경영방식 등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측면이 있었고 대학의 경영과 운영에 관한 논문이 아주 없었던 점을 볼 때 향후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기독교대학의 성공에 대한 인식

기독교대학의 성공은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건학이념에 맞는 진정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 기독교대학은 교육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왔으나 현

제의 기독교대학은 실패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생존하며, 발전하며, 최고의 가치인 교육목적을 이룩하는 것을 포괄하는 성공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담론적 수준이 아니라 경영학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여 기독교대학도 일반대학의 하나이므로 정부나 권위 있는 평가기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소위 객관적인 공시 척도가 있다. 둘째, 객관척도의 다른 한 가지로서 국가나 사회가 기대하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에 대한 대사회적 기여척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주관적인 척도로서 각 대학의 기독교적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문헌조사연구나 학교의 정관 및 규정체계를 기초로 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를 통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의 성공 척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조사연구를 통한 실증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 성공 척도인 기독교대학의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성공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실증연구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일반적인 관심사항은 “기독교대학의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성원의 인식에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구성하는 중요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구성원의 인식에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속성과 중요요인들은 어떻게 관련되며 매개 또는 조절되는가?” 등이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직효능감척도(OEI,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ventory)가 있다. 예를 들어 쿠크(Cooke, 1997)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척도(OCI, Organizational culture inventory)를 토대로 하여 태도와 행동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미션과 철학(mission and philosophy), 인사 분야 역량(skills), 업무 프로세스와 방법론(systems), 문화적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조직의 구조(structure)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한 논문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기독교대학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명확한 정체성의 재정립, 전통학습모델의 분절현상에 대한 적응, 인구통계변화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를 대비시키는 유효한 대학으로의 발전 등의 도전들에 직면하여 이에 부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체성의 재확립, 대학 모델의 분절현상 극복, 경영방식의 전환, 적실한 학습법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고 미래 대학의 모델로서 평생학습의 고객으로서의 학생들과의 동반자적 학교 문화 등을 들었다(Reynolds & Wallace, 2016). 조용훈(2009)은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대학이 일반대학과 다르게 가져야 할 특성들을 정체성과 교육이념, 교수와 직원의 근무 자세, 학교 분위기로서의 대학 문화,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원용하고 비영리 교육기관 및 한국적 상황을 감안하여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6개의 성공속성들을 정의하고 속성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구성원들은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정체성 신념’, ‘교육 콘텐츠’, ‘교수 인사’, ‘직원 인사’, ‘학교 분위기’, ‘재정 확보’로 인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각각의 속성의 값들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함으로서 응답이 가장 뚜렷한 것을 성공을 인식하는 참 값으로 보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성공의 속성에 ‘재정 확보’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본래 대학의 기본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기독교대학들의 재정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각각의 속성들에 대한 값으로서 네 개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Timothy Keller의 문화모델로부터 착안하여(Keller, 오종향 역, 2016) 교육을 통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기독교대학에 적용한 것으로서 ①은 보수적 전통교수를 ②는 변혁주의를 ③은 적절성 모델을 ④는 자유주의 시장모델을 나타낸다. 만약 I의 ‘정체성 신념’ 속성에서 ③이 가장 우세하다면 구성원이 인식하는 대학성공의 지표는 적절성 모델 즉, ‘정체성 신념에서 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가 되는 것이다.

Table 1.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을 묻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목록

속성: ‘정체성 신념’ (Identity)	
I	학교의 비전과 사명 선언문에서 천명하는 신념 체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①창학 정신과 설립이념을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정신은 계승하되 시대적 요구와 절충한다.
	③특수 이념보다는 보편적 이념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시대의 변천에 맞게 완전히 변모한다.

속성: ‘교육 콘텐츠’ (Educational Contents)	
E	학교의 교육 콘텐츠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기독교 교과목과 채플을 의무과목으로 확고하게 유지한다.
	②교과과목의 유지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절충점을 찾아 나간다.
	③기독교 내용보다는 인문적 내용으로 변화해 나간다.
	④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독교적 내용을 삭제한다.

속성: '교수 인사' (Professor Personnel)	
P	교수의 임용과 진급 체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학문적 수월성보다는 기독교적 사명 의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②신앙 자체보다는 기독교적으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③기독교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문적 연구의 수월성을 강화한다.
	④기독교적 의무를 삭제하고 학문적 자유와 수월성으로 적용한다.

속성: '직원 인사' (Staff Personnel)	
S	학교의 행정 서비스와 인사제도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업무 전문성과 능력을 구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②업무적인 분야에서 신앙적인(사랑, 공정, 협력, 포용) 부분이 나타나도록 한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우선시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속성: '학교 분위기' (Mission Ethos)	
M	학교의 문화적 에토스 즉, 기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교육과 대학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과 기독교적 신앙을 포함한다.
	②교육은 전문적인 내용으로 하고 대학 생활에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③신앙적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하고 더 많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한다.
	④신앙 내용을 배제하고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분위기로 변화한다.

속성: '재정 확보' (Finances)	
F	공적자금 등 외부 재원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	①외부 재원은 학교 설립 정신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②내부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 재원은 보조 수단으로 한다.
	③외부 재원을 최대한으로 유치하여 학교 발전에 투입한다.
	④대학평가 등의 공적자금을 포함한 외부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IV.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중요 요인과 성공모형의 제안

중요성공요인(CSFs, Critical Success Factors)은 최고경영자가 사업을 번성케 하고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대로 가야만 되는” 소수의 중점영역(few key areas)을 구성원의 인터뷰로부터 찾는 것으로서 1979년 하버드경영보고서(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제안된 것이며 (Rockart, 1979) 구체적인 내용은 MIT 보고서에도 수록되었다(Bullen & Rockart, 1981). 여기서는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요인들이 어떤 관계의 의하여 성공을 가져다 주는 지에 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제기독교학교연맹(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은 기독교학교의 6가지 탁월성 중대요소를 이사회 거버넌스, 경영 리더십, 학교 생존력, 영성 형성, 학교 문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대학의 생존의 차원에서는 앞 장에서 다루었듯이 크게 정체성의 유지와 재정적 뒷받침을 들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실증연구 논문을 참고하면 (허훈 외, 2021) 두 가지의 핵심요인은 정체성과 재정이다. 그런데 정체성은 광범위하며 사람과 제도에 걸쳐 스며들어 있고 그것이 발현되는 것은 대학문화이므로 이것을 기독교적 분위기 즉, ‘미션 에토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독교적 분위기 또는 미션 에토스에 관한 하나의 논문에서는 성경과 학교규범을 매개로 하는 제반 활동과 특히 이사회와 학교의 장의 역할이 교수자와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미쳐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Everett, 2017). Thomas(2008)의 연구에서도 미션 에토스의 가장 유효한 동인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구성원들의 기독교적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현재의 기독교대학들이 복합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혁신과 적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원의 전략과 수행과정이 전개되어 나가야 하고 이를 추동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즉 리더십은 이사회와 협력하여 학교의 경영을 맡음으로서 학교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명선언 하에 인재의 발탁, 기획, 평가, 소통의 차원에서(Frawley, 2014) 혁신과 적응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대부분 기독교대학들은 외국의 선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설립기와 발전기에는 전적으로 외국의 선교재단의 기금에 의존하였다(이정순, 2022). 그러나 이러한 의존도는 대학이 커지면서 점차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에는 양적팽창에 의해 해결되었다. 또한 재정적 독립을 전후하여 선교재단들은 지배구조에서 물러났으며 모든 것은 한국인의 거버넌스에 맡겨졌다. 그렇지만 거버넌스를 맡은 이사회들은 재정자립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대학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주식의 발행이나 록펠러재단

기금의 유치 등 기금확보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볼 수가 있다(Hughes & Adrian, 1997). 따라서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에 파트너십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재정의 확보를 주로 국가의 지원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은 Figure 1 과 같이 정리된다. 다만 이사회와 파트너를 외적 주체로서 취급한다면 현재는 사례대학은 물론 다른 기독교대학들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내적인 것으로 총 4개의 요인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이다. 구성원들의 중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측정항목들이 필요한데 현재 문헌조사를 통해서서는 적절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 II 장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것과 저자들의 기독교대학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부록 Table A1과 같이 구성하였다. 세부 측정항목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하위 요소들로는 비전성, 개혁성, 조달력으로 하여 총 7항목을, ‘혁신과 적응력’의 하위 요소들로는 교육혁신, 조직화, 협력화로 하여 총 7항목을, ‘지속가능 재정’의 하위 요소들로는 수입, 관리, 공정성으로 7항목을, ‘미션 에토스’의 하위 요소들로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7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28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를 5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을 위해서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종속변수로 놓고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잠재변수들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도해 본다. 일반적으로 낯선 주제에 대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고 저자들의 교수 근무 경험, 행정 경력, 기독교 학문연구 단체 활동, 기독교 학원 선교 활동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수립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 H1.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 가능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강력한 리더십은 혁신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강력한 리더십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지속 가능 재정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지속 가능 재정은 혁신과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혁신과 적응력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미션 에토스는 대학 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Figure 2 와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는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잠재변수(latent variable)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통계분석 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잠재변수를 다룰 수 있으며 여러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측정변수(observed variable)를 이용하여 잠재요인을 간접적으로 측정 후 이들 잠재요인 간의 이론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한다(곽기영, 2019).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실증적인 방법론으로 두루 사용되며 심리학에 적용한 예와(박소희, 2013 ; 박상희, 2020) 정책학에 사용한 예를(장문영 외, 2019 ; 김성일·이형찬, 2004) 볼 수 있다. Figure 2의 모형 에서 I-모형은 은선이 없는 것이고 II-모형은 은선을 포함하는 것이다. 연구모형 I 은 완전 매개모형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이 미션에토스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 매개효과만 존재하고 직접효과는 없다고 가정한 것이다. 반면 연구모형 II 는 부분 매개모형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이 미션에토스에 미치는 효과는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모형 I과 II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비교해 보고 더 적합한 모형을 가려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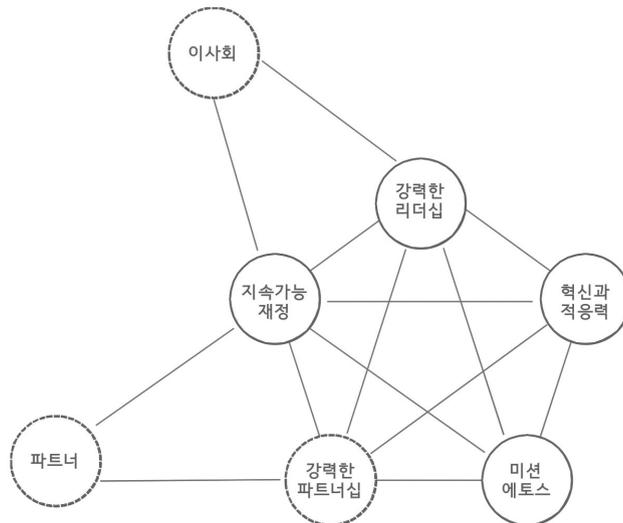


Figure 1.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들과 상관관계도. (은선 항목들은 내부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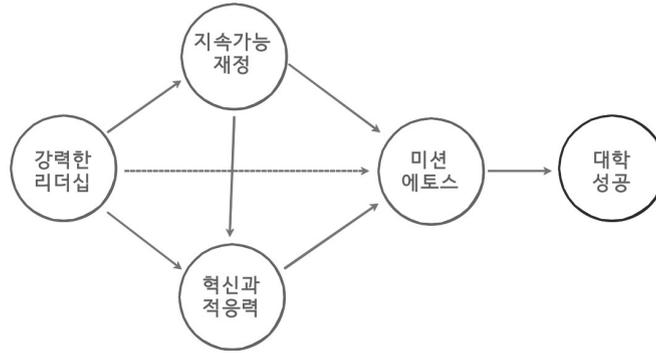


Figure 2. 기독교대학의 성공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모형-I은 은선을 포함하지 않고 연구모형-II는 은선을 포함함)

V.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V-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고 조사에 응한 인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재직 중인 전임교수의 분포는 2023년 4월 현재 정년계열이 306명(75%), 비정년계열이 100명(26%)이며, 비정년계열 중에서 중점교수 58명, 외국인교수 19명, 연구교수 23명이다. Table 2에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정년계열이 79%, 비정년계열이 21%이며, 근속연수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44%로 10년 이상자 56%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임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61명으로서 응답율이 15%에 그쳐 호응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응답률이 낮은 것을 볼 때, 이러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도가 낮음을 볼 수 있고, 더불어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분석의 유형에 따른 표본의 크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단순 회귀분석의 경우 최소 표본의 수를 50으로, 변수 대 표본의 수의 비는 1:10 정도이며, 구조방정식에서는 다섯 개 이하의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각 개념이 3개 이상의 항목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0.6 이상이라면 100~150의 표본 수가 적합하다고 하는 연구를 참조해 볼 때(박원우 외, 2010), 본 연구의 표본의 수는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적당한 표본의 크기의 결정에 관한 문제는 응용통계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서 경험칙(rule of thumb), 절대적 크기 기준, 잠재변수 당 관찰변수의 비 기준, 상관계수 또는 결정계수 기준, RMSEA 기준 등이 존재하지만 어느 기준이 더 우

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측정 변수들이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판단하에 최대 우도법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모형의 적절성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구조모형검정의 가능성과 적합성을 판별하고자 한다.

Table 2. 한남대학교 교수의 설문조사 응답자 통계

구분		빈도	퍼센트
지위	비전임	2	3.3
	비정년	11	18.0
	정년제	48	78.7
근무연수	0~9년	27	44.3
	10~19년	17	27.9
	20년 이상	17	27.9
기독교 대학에 대한 인식	대체로 그렇다	29	47.5
	매우 그렇다	28	45.9
	잘 모르겠다	4	6.6
전체		61	100.0

먼저 Table 1과 Table A1의 질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해 보기 위하여 크론바흐 알파 값을 구해서 Table 3에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0.7 이상이면 받아들일 수 있으며 0.8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므로 모든 질문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3.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과 성공의 속성을 묻는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사

연구변수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비전성	2	.896
개혁성	3	.929
조달력	2	.814
강력한 리더십	7	.956
수입	2	.890
관리	3	.915
공정	2	.862
지속가능한 재정	7	.949

교육혁신	3	.840
조직화	2	.825
협력화	2	.876
혁신과 적응력	7	.936
교수	2	.870
학생	3	.805
직원	2	.803
미션에토스	7	.915
대학 성공속성	6	.866

V-2. 사례대학의 교수가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결과

6가지의 성공 속성에 대한 응답결과의 분포도를 Figure 3에 표시하였다. Table 1의 각 질문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를 보수적(전통고수), ②에 응답하였으면 문화변혁적, ③에 응답하였으면 적절성(포용 성장), 그리고 ④에 응답하였으면 자유적(시장주도)이라고 구분하였다. 따라서 ‘정체성 신념’의 응답분포도는 보수적(전통고수)에 27.87%, 문화변혁적에 49.18%, 적절성(포용 성장)에 14.75%, 그리고 자유적(시장주도)에 8.2%가 응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②와 ③의 경계에 오각형 마크를 하였고 6가지의 속성마다 오각형 마크를 이어서 은선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사례대학의 대학 성공의 속성 프로파일을 나타낸다. 즉 ‘정체성 신념’과 ‘교육콘텐츠’에서는 보수적이며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며, ‘재정확보’와 ‘교수인사’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기 보다 문화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 성장)을 성공으로 인식하며, ‘직원인사’와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변혁적인 것을 성공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대학은 ‘재정확보’에서는 개방적으로 다양성과 외부환경의 적절한 수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정체성’과 ‘교육 콘텐츠’에 있어서는 전통의 고수와 문화변혁적인 즉, 선교지향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Figure 3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 값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것을 목표 값으로 하는 성공요인들을 찾아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론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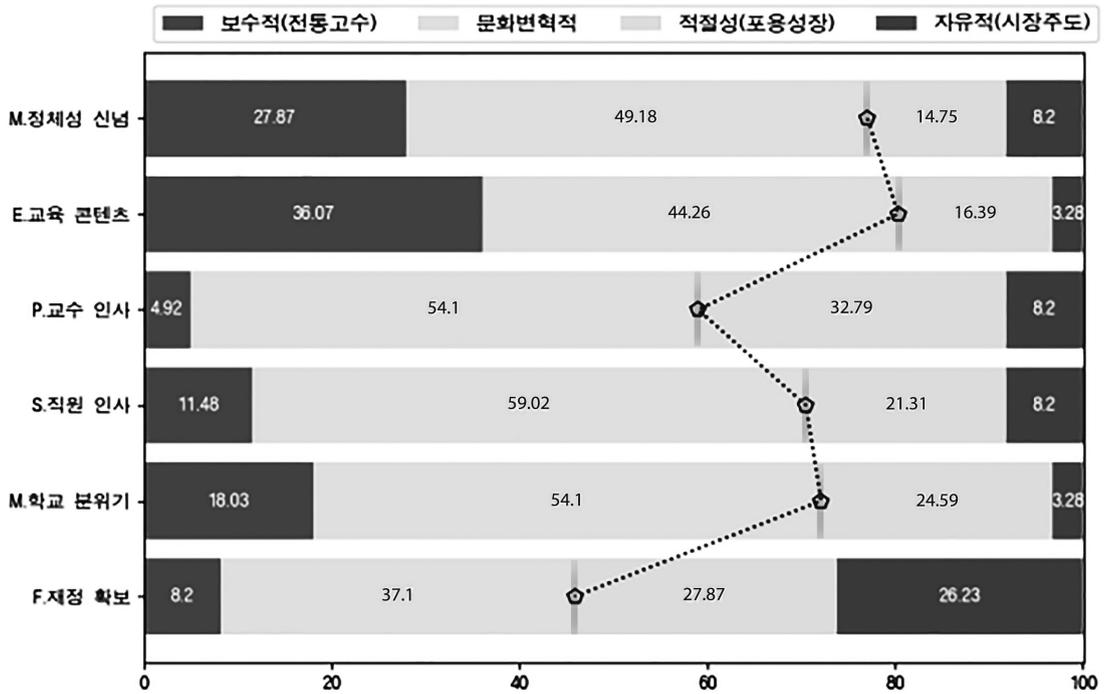


Figure 3. 사례대학의 교수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대학의 성공 속성 프로파일

V-3. 중요성공요인과 성공 속성간의 분석 방법

Table 4는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결과이다. 특히 West, Finch, Curran(1995)의 지침서에 따르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0과 7.0이하인 것으로 보아 정규성(normality)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다.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이하라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력한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통해 대학 성공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였다. 두 모형 중에서 간명하면서도 적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잠재변수들 간의 가능한 모든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절차인 측정모형 분석과,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인 구조모형 분석을 차례대로 행하였다.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χ^2 검정,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05, TLI>.90, CFI>.90,

RMSEA<.10이다(홍세희, 2000). 표준화경로계수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구하였고, 그것에 대한 유의확률을 추정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특히, 단일요인인 대학 성공속성의 경우, 측정의 오차를 통제하기 위해, 신뢰도를 근거로 산출한 측정의 표준오차 제곱 $S_e^2 = S_{\xi}^2(1-r_{xx'})$, 단, $r_{xx'}$: 신뢰도]을 연구모형에 고정모수로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Bollen, 1989).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적인 통계 처리를 위해 SPSS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Mplus(Muthen & Muthen, 2023)를 활용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method)이 이용되었다.

Table 4. 연구변수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연구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비전성 (1)	1																	
개혁성 (2)	.877**	1																
조달력 (3)	.792**	.881**	1															
강력한 리더십 (4)	.931**	.979**	.934**	1														
수입 (5)	.545**	.600**	.594**	.612**	1													
관리 (6)	.711**	.700**	.672**	.730**	.790**	1												
공정 (7)	.636**	.615**	.600**	.647**	.829**	.834**	1											
지속가능한 재정 (8)	.681**	.688**	.669**	.714**	.924**	.946**	.939**	1										
교육혁신 (9)	.712**	.719**	.662**	.736**	.755**	.753**	.760**	.806**	1									
조직화 (10)	.704**	.819**	.766**	.811**	.725**	.770**	.733**	.795**	.847**	1								
협력화 (11)	.592**	.684**	.686**	.692**	.708**	.666**	.635**	.715**	.780**	.822**	1							
혁신과 적응력 (12)	.719**	.789**	.748**	.796**	.781**	.781**	.762**	.827**	.947**	.945**	.916**	1						
교수 (13)	.516**	.423**	.346**	.448**	.439**	.625**	.480**	.561**	.556**	.434**	.364**	.493**	1					
학생 (14)	.554**	.522**	.545**	.564**	.599**	.679**	.660**	.692**	.665**	.609**	.577**	.664**	.739**	1				
직원 (15)	.676**	.580**	.484**	.608**	.669**	.655**	.713**	.721**	.738**	.602**	.524**	.675**	.688**	.777**	1			
미션에토스 (16)	.636**	.561**	.514**	.597**	.629**	.721**	.684**	.727**	.719**	.610**	.547**	.677**	.880**	.941**	.898**	1		
대학 성공속성 (17)	0.097	0.117	0.030	0.092	0.102	0.108	0.009	0.083	0.089	-0.018	0.071	0.054	.413**	.268*	0.233	.330**	1	
최솟값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33
최댓값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83
평균	3.48	3.13	3.14	3.23	3.06	3.08	2.92	3.03	3.22	3.12	3.15	3.17	2.82	2.93	3.17	2.97	2.76	
표준편차	1.06	1.14	1.08	1.05	1.21	1.04	1.11	1.04	0.94	1.09	1.06	0.95	1.07	0.98	1.08	0.94	0.63	
왜도	-0.36	-0.29	-0.15	-0.27	-0.16	0.06	0.15	0.16	0.13	-0.21	-0.13	-0.11	0.27	0.18	-0.07	0.13	-0.44	
첨도	-0.72	-1.03	-0.86	-1.01	-0.98	-0.68	-0.66	-0.84	-0.61	-0.74	-0.62	-0.63	-0.83	-0.50	-0.87	-0.57	-0.57	

* $p < .05$ ** $p < .01$ *** $p < .001$

V-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적합도, 요인 부하량,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χ^2 의 유의확률>.05에서 TLI>.90, CFI>.90, RMSEA<.10이다.(홍세희, 2000)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χ^2 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없었지만($\chi^2=114.988, p<.001$), 사례 수와 모형의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TLI, CFI, RMSEA는 TLI=.900, CFI=.929, RMSEA=.097로서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Table 6에서와 같이 측정변인들의 요인 부하량도 0.4를 모두 상회하였다. 이처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는 것은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이에 따르면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는 서로 간에 정적인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션 에토스와 대학 성공속성 간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지속가능한 재정과 대학 성공속성, 혁신과 적응력과 대학 성공속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Figure 2와 같은 연구모형과 해당 연구 문제의 설정은 타당하다.

Table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df/p$	TLI	CFI	RMSEA
114.988 / 56 / .0000	.900	.929	.097

Table 6.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분석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β	s.e.	z
강력한 리더십	비전성	0.890	0.029	30.263***
	개혁성	0.983	0.014	68.022***
	조달력	0.896	0.029	31.399***
지속가능한 재정	수입	0.883	0.034	26.256***
	관리	0.911	0.028	32.441***
	공정	0.919	0.026	34.796***
혁신과 적응력	교육혁신	0.902	0.029	30.584***
	조직화	0.951	0.020	47.753***
	협력화	0.852	0.039	21.952***

	교수	0.799	0.054	14.845***
미션에토스	학생	0.896	0.036	24.665***
	직원	0.875	0.040	21.889***
대학 성공속성	대학 성공속성	0.930	0.013	70.182***

*** $p < .001$

Table 7.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 분석결과

잠재변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강력한 리더십	.732***	.852***	.628***	.117
지속가능한 재정	-	.879***	.805***	.081
혁신과 적응력	-	-	.733***	.030
미션에토스				.354**

** $p < .01$ *** $p < .001$

2) 구조모형 분석결과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 대학 성공속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의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Table 8과 같았다. 그리고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 간의 차이도 구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087, p > .05$). 그러므로 Table 8은 연구모형-I 이 더 적절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연구모형-I 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고 후속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Table 8. 연구모형I 과 연구모형II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들의 차이 검증

모형	$\chi^2/df/p$	TLI	CFI	RMSEA
연구모형I	122.224 / 60 / .000	.902	.925	.130
연구모형II	122.137 / 59 / .000	.899	.923	.132
모형 비교	$\Delta\chi^2/\Delta df/p$	ΔTLI	ΔCFI	$\Delta RMSEA$
연구모형I vs 연구모형II	.087 / 1 / .768	.003	.002	-.002

** $p < .01$ *** $p < .001$

최종모형인 연구모형-I에서의 직접효과의 크기 및 이에 대한 검증결과인 Table 9과 Figure 4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37, p<.001; \beta=.445, p<.001$).

둘째, 지속가능한 재정은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53, p<.001; \beta=.681, p<.01$).

셋째, 혁신과 적응력은 미션에토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133, p>.05$).

넷째, 미션에토스는 대학 성공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3, p<.05$).

Table 9.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및 중다상관제곱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s.e.	z	R^2
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737	0.068	10.894***	0.543***
혁신과 적응력	강력한 리더십	0.445	0.098	4.528***	0.867***
	지속가능한 재정	0.553	0.098	5.673***	
미션에토스	지속가능한 재정	0.681	0.235	2.900**	0.642***
	혁신과 적응력	0.133	0.243	0.550	
대학 성공속성	미션에토스	0.313	0.132	2.370*	0.09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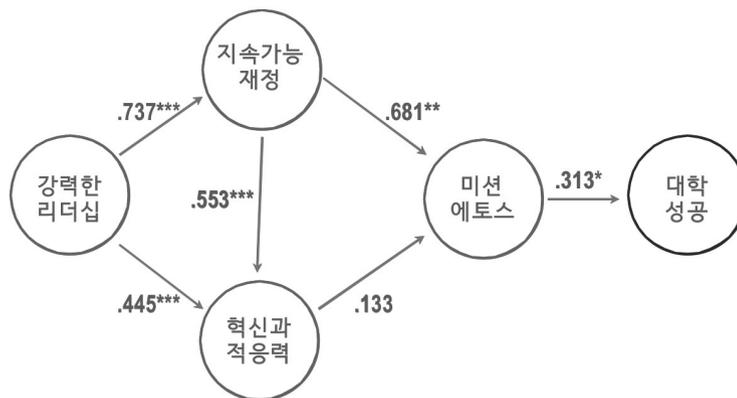


Figure 4. 최종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가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았고, 이로부터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매개로 하여 혁신과 적응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408, p<.001$).

둘째, 강력한 리더십과 미션에토스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을 매개로 한 매개효과와 총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615, p<.001$). 세부적으로 본다면, 강력한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매개로 하여 미션에토스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eta=.502, p<.01$). 그러나 그 밖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을 통한 개별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강력한 리더십과 대학 성공속성 간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매개로 한 매개효과와 총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eta=.193, p<.05$). 그러나,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에토스를 매개로 한 세부적인 개별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H3(강력한 리더십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설 H6(혁신과 적응력은 미션 에토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을 보여준다. 즉, 기독교 대학의 성공은 강력한 리더십이 지속가능한 재정과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하여 일어나며, 혁신과 적응력은 강력한 리더십과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시사해 주지만 혁신과 적응력이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한 대학의 성공에는 미미한 수준의 영향을 보여준다.

Table 10.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와 전체효과 결과

종속 변수	매개변수	독립 변수	전체 매개효과		전체효과 (직접+매개)	
			β	s.e.	β	s.e.
혁신과 적응력	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408***	0.081	0.408***	0.081
	지속가능한 재정		0.502**	0.185		
미션 에토스	혁신과 적응력←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054	0.098	0.615***	0.079
	혁신과 적응력		0.059	0.110		
대학 성공 속성	미션에토스←지속가능한 재정	강력한 리더십	0.157	0.089		
	미션에토스←혁신과 적응력 ←지속가능한 재정		0.017	0.032	0.193*	0.086
	미션에토스←혁신과 적응력		0.019	0.035		

* $p<.05$ ** $p<.01$ *** $p<.001$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기독교대학들이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개별 대학의 차원이나 연합회의 차원에서 기독교대학의 문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대학이 그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은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철학적이거나 규범적인 담론의 질적 연구였고 양적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문헌조사와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대학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 기후위기 그리고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여전히 교육을 통한 선교의 사명에서 적실함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연합체인 CCCU에서 기독교대학과 관련되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을 수행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러한 활동이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의 기독교대학들 및 연구자들은 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에 걸맞게 자기 기관들에 대한 조직론, 경영론, 혁신론, 문화론, 역사론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조직론적 관점에서 조직 효능감과 문헌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기독교대학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사례대학의 교수들이 인식하는 기독교대학의 성공의 속성들을 도출하는 6개의 질문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그 속성들은 ‘정체성 신념’, ‘교육 콘텐츠’, ‘교수 인사’, ‘직원 인사’, ‘학교 분위기’ 및 ‘재정 확보’이다. 그리고 그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각 속성의 수준들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이론연구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교수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결과물이라는 데서 매우 실증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속성은 대학의 성공의 목표 값으로 분명히 설정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경험하는 무지향성의 바다에서 등대와 같은 매우 유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사례대학의 경우, 정체성과 교육에 있어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교수인사, 직원인사, 학교분위기에 있어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성장),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적절성(포용성장)과 시장주도를 반영하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얻어진 성공속성 프로파일은 어떤 대학이 구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성공속성을 목표 값으로 할 때, 그 성공을 위한 중요성공요인들을(CSFs) 분석하기 위하여 총 4개의 잠재요인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28개의 질문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목록은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연구와 혁신이론, 그리고 저자들의 20년 이상의 교수 근무 경험, 기독교 학문연구 및 학원선교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성공에 중요한 4개의 잠재요인들은 ‘강력한 리더십’, ‘지속가능한 재정’, ‘혁신과 적응력’, ‘미션 에토스’이며 이 요인들이 어떻게 상관되

며 매개되어 대학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2가지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안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기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질문목록은 성공속성과 성공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타당하였다.

둘째, 사례대학의 성공속성 프로파일(Figure 3)은 ‘정체성 신념’과 ‘교육 콘텐츠’에서는 보수적이며 문화 변혁적인 것으로, ‘교수 인사’에서는 문화 변혁적이며 적절성(포용성)인 것으로, 그리고 ‘재정 확보’에서는 적절성(포용성)과 시장주의로 나타난 것을 볼 때, 6개의 성공속성 마다 다른 정책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셋째, 성공 구조방정식을 위한 가설수립과 확인적 요인분석법을 통하여 연구모형-1이 채택되었으며 “대학의 성공은 ‘미션 에토스’를 매개로 일어나며 ‘미션 에토스’는 ‘강력한 리더십’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정’과 ‘혁신과 적응력’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보였다. 구체적인 경로의 적재 값들은 Figure 4에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문헌조사 연구를 통한 기독교 대학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질적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조직론 연구와 저자들의 실제적 경험을 통합하여 양적연구를 제안하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가 다소 부족하고 엄밀한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 분석 등은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본 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한 기독교대학의 운영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동기로 하여 향후 다양한 세부적인 연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부 록

Table A1. 잠재변수로서 기독교대학의 중요성공요인들과 측정 질문들

변수: '강력한 리더십'		
번호	문항	선택
A1	대학의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 대학의 설립이념에 부응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A2	대학의 리더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을 발휘한다. - 공동체에서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며, 학교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	
A3	대학의 리더는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여 준다. - 당면한 위기와 도전을 구체화하여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공동체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	
A4	대학의 리더는 인사 측면에서 개선하고 개혁한다. - 우수한 교수진과 직원들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체계, 성과에 따른 승진 기회 제공	
A5	대학의 리더는 재무 측면에서 개선하고 개혁한다. - 학교의 재정 건정성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운영, 투명한 재무보고	
A6	대학의 리더는 재무 측면에서 외부 재원을 유치한다. - 연구 자금, 교육 자금 및 대학 기부금의 확충	
A7	대학의 리더는 지역사회와 대학 커뮤니티와 상호작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 한다. -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치	

변수: '혁신과 적응력'			
번호	문항		선택
B1	교육 혁신	미션 대학의 핵심가치와 교육목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B2		대학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B3		교수 및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를 한다.	
B4	조직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조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적시에 도입한다.	
B5		기술혁신과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이를 활용한 교육 및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품질을 향상시킨다.	
B6	협력화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B7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인지도와 경쟁력을 확보한다.	

변수: '지속가능 재정'			
번호	문항		선택
C1	수입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C2		다양한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여 자금 확보를 강화한다.	
C3	관리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	
C4		학생 모집, 연구 수주, 사업 수주 및 수익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C5		학교 운영과 연구 등 핵심 업무에 대한 우선순위의 설정과 자원의 분배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한다.	
C6	공정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과 보고서 공시 등을 시행한다.	
C7		비즈니스 분야와 대학 재정관련 법규에 기반 한 최신의 재정 모델을 도입하고 재정 운영을 개선한다.	

변수: '미션 에토스(ethos)'		
번호	문항	선택
D1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여하지 않음 • 약간 기여함 • 대체로 기여함 • 상당히 기여함 • 매우 크게 기여함
D2	교육적 지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D3	성경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D4	학생들에게 청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고 현대적 소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루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윤리와 영성을 경험하게 한다.	
D5	학생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D6	교내에 조형물, 건축물, 행사 등에서 학교의 설립이념과 철학에 맞는 상징들을 사용한다.	
D7	교수와 직원이 학교의 설립이념에 따른 학문적 노력과 기독교적 분위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한다.	
	직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 공정, 포용의 가치를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참 고 문 헌

- 곽기영 (2019). R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정차 및 방법, **지식경영연구**, 20(1), 1-26.
- 김남순·이기석 (2023).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이야기: 서의필 목사의 한국 선교**, 동연.
- 김동우 (1998). **한국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위기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성일·이형찬 (2004).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 분석, **국토연구**, 41, 53-68.
- 김세열 (1997). 한국의 기독교대학과 아시아적 조망. **21세기의 아시아와 기독교대학**, 10, 7-13.
- 박문식 (2010).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대학교육개혁의 기독교적 고찰, **신앙과 학문**, 15(3), 47-76.
- 박문식 (2023). **한남대학교 교수의 기독교대학 인식조사 및 대학성공속성 분석,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47-286.
- 박상희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습된 무기력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박소희·조민아 (2013).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 행동과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 자아개념, 인지적 자기조절학습전략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263-289.
- 박원우·손승연·박해신·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 박진경 역 (1989). **기독교 대학의 이념**. Holmes, A.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s*. (Revised Ed.), 서울: CUP.
- 양승훈 (1996). 기독교대학, 그 이상을 꿈꾼다. **빛과 소금**, 11, 30-32.
- 오은수 (1996). 기독교 대학교육의 문제점. **기독교사상**, 10(4), 76-81.
- 오종향 역 (2016). **팀 켈러의 센터 처치**. Timothy Keller (2012). *Center Church*., 서울: 두란노서원.
- 육성득 (2021). 대학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353-386.
- 이동수 (2008). 조직문화유형 척도 OCAI의 측정 속성적 건전성. **사회과학논총**, 27(1), 373-394.
- 이신형 (2014). 기독교대학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40, 129-171.
- 이원설 (1998). 하나님 중심 세계관과 학문, **기독교언어문화소식**, 2, 57-65.
- 이은실 (2012). 기독교대학 정체성을 위한 교수개발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35, 33-67.
- 이정순 (2022). **과학자 계의돈(Dr. Robert L. Geette)박사의 한국 선교이야기(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문영·김방룡·이찬구 (2019).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관리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2(3), 475-502.

- 정선희 역 (2017). **하나님의 사람 문명사학자 송계 이원설 박사**. 서울: 그리스심.
- 조성국 (2005). 기독교대학교의 유형과 상황. **고신신학**, 105-134.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조용훈 (2009). **기독교 대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최영근 (2020).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아그네스스캇대학의 사례연구-, **대학과 선교**, 43, 129-170.
- 최영근 (2022). **인본의 생애와 기독교 정신**, 서울: 한국교회총연합(UCCCK).
- 최영근·송현강·이재근·이진구·한규무 (2022). **미국 남장로회 교육선교 연구**. 서울: 도서출판 동연.
- 허훈·최무렬·이경미 (2021).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독교대학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실증연구, **생명과 말씀**, 31, 301-33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ollen, K.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Chapel Hill, NC: John Wiley & Sons, Inc.
- Bullen, C. V. & Rockart, J. F. (1981). A Primer On Critical Success Factors, *CISR*, No. 69, MIT.
- Cooke, R. A. (1997). *Organization Effectiveness Inventory*, Arlington Heights, IL.
- Dockery, D. & Gushee, D. (1999).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 introduction*. Nashville, TN: Broadman and Holman Publishers.
- Everett, G. R. (2017). *An exploration of factors which affect the Christian ethos of Christian schools: A comparative case study analysis of two Christian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Frawley, R. (2014). The impact of leadership on the role and mission of a Christian college. *Journal of Applied Christian Leadership*, 8(2), 34-48.
- Hughes, R. & Adrian, W. (1997). *Models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Strategies for succ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m. B. Eerdmans-Lightning Source. Grand Rapids, MI.
- Marsden, G. (1993).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then, L. K. & Muthen B. (2023).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Muthen & Muthen.
- Obenchain, A., Johnson, W. & Dion, P. (2004). Institutional type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novation in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Christian Higher Education*, 3, 15-39.
- Reynolds, J. & Wallace, J. (2016). Envisioning the future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Leadership for embracing, engaging, and executing in a challenging Landscape. *Christian Higher*

- Education*, 15(1-2), 106-114.
- Rockart, J. F. (1979). Chief executives define their own data needs. *Harvard Business Review*, 57, 81-93.
- Thomas, J. C. (2008) Administrative, faculty, and staff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climate and commitment in Christian higher educa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7, 226-25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 Woodrow, J. (2006). Institutional mission: The soul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5, 313-327.
- “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https://www.acuca.net/newacuca/>
(검색일 2023.7.1.)
-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https://www.ccu.org> (검색일 2023.7.1.)

기독교대학 교수의 인식조사에 의한 중요성공요인의 분석과 성공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study of success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perception survey of Christian university professors

박문식 (한남대학교)

김재철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대전환의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은 어떤 위치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본다. 그리고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독교 대학의 지속가능성의 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들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역사적이며 이론적인 논문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현시대에 필요한 기독교 대학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고찰한다.

다가올 시대에 기독교 대학이 유지되며 발전되어 성공하기 위해서 기관 및 연합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노력과 연구들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및 연합체들은 다양한 이론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헌 조사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대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정체성에 관한 질적연구이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독교 대학의 운영에 관한 연구는 부재함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양적연구의 시도로서 사례대학으로서 한남대학교의 경우, 교수들의 인식을 연구 조사하여 기독교 대학의 성공의 속성과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 연구와 조직론, 혁신론, 그리고 20년을 넘게 기독교 대학에 근무해 온 경험 및 기독교 학문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독교 대학의 성공속성과 중요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질문 목록(inventory)을 개발하였다. 질문 목록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계적 기법인 구조방정식모형을 수립하고 기독교 대학의 성공을 위한 중요성공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들을 확인적 요인분석법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기독교대학, 대학성공속성, 중요성공요인, 확인적 요인분석법, 성공 구조방정식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Issues Surrounding the Expression of Malformed and Deformed
Huma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he Art Works of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심상용 (Sang Yong Sim)**

ABSTRACT

The human body is one of the oldest subjects in the history of 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non-representational - that is, imagined, deformed or distorted -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increased significantly, and have intensified over time.

In the midst of this contemporary trend in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this paper examines the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by two contemporary artists,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in an attempt to summarize the posthuman discours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provides artistic justification for these expression, and to contrast them with Christian beliefs and worldviews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difficult contemporary art.

In Alison Lapper Pregnant (2000), based on the real-life figure of Alison Lapper, who was born with a congenital deformity, Quinn posits the deformed body as an alternative concept of beauty to traditional notions of beauty. Piccinini fictionalizes monstrous, alien-like hybrid creatures whose genes are a mixture of at least two animal species, including humans. She predicts the emergence of such creatures in the near future and discusses a new ethic of tolerance in the posthuman era.

Thoughts and perceptions based on Christian faith and worldview can be summarized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on Quinn's deformed bodies and Piccinini's mutant

* 2023년 11월 9일 접수, 11월 30일 게재확정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syshim61@snu.ac.kr

species : The perception of love for human beings and the world groaning in pain. Awareness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going astray and the perception of beauty. The image of God imprinted in existence.

Key words: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Posthuman discourse, Marc Quinn, Patricia Piccinini, deformed body, hybrid creature, A new concept of beauty, suffering, image of God.

서론: 신체표현과 포스트휴먼 담론(posthuman discourse)

사람의 신체는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모티브들 가운데 하나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체는 정신과 지식, 감정을 담는 표현과 소통의 보고(寶庫)였다. 제의(祭儀) 시대 미술은 인체표현에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염원을 담았고, 고대는 인체에서 미(美)의 이상을 보고자 했다.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고대적 이상과 사실의 긴장이 유지되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형태를 변형하거나 신체 일부를 크게 왜곡하는 표현이 일반화되고, 대전 이후로는 변형이나 왜곡의 정도가 경향적으로 더욱 심해졌다. 인간인지 짐승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훼손, 끔찍한 범죄가 남긴 상흔, 내장기관의 노출, 호르몬이나 배설물의 분비 등 여과 없는 극단적인 표현도 목격된다.

이 논의는 2000년 이후 이러한 신체표현 추이의 해석에 있어, 주목할만한 두 작가, 영국의 마크 퀸(Marc Quinn)과 호주의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마크 퀸은 1990년대 영국의 yBa 붐을 타고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아온 작가로, 여기서는 선천적 신체 기형을 지닌 실제 인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한 <앨리슨 래퍼>를 통해 기형 신체를 미(美)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퀸의 반(反)미학적 인식과 주장에 대해 다루어볼 것이다.

호주 작가 피치니니는 인간을 포함해 두 동물 종(種) 이상이 생물학적으로 혼합된 생물체들을 만든다. 극사실적(hyper-realistic)으로 표현된 상상의 생명체들은 외계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괴하다. 일례로 ‘스카이웨일’이라는 이름의 생물은 거북이와 유사한 머리에, 고래상어를 닮은 거대한 몸통을 지니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전구가 달린 10개의 젓가슴이 늘어진 채 매달려있다. 이러한 혼종 또는 변종 생물체들은 유전자 합성이나 조작과 관련된 과학 실험의 예기치 않은 산물들이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는 그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관용을 가까운 미래의 윤리적 지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작가의 신체표현 논의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는 왜 이 시대의 미술에서 기형 및 변형된 신체표현이 자주 등장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에 반영된 인간존재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단면이 그것이다. 예컨대 극단적인 형태 변형이나 왜곡은 정의가 부재하는 부조리한 시대상과 억압된 자아,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혼돈되고 분절된 정신세계에 관한 상징이나 은유일 수 있고, 따라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나 구원에 대한 염원이 그것의 역설적인 저변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형 신체나 괴생물체에서 인간 해방의 새로운 단초를 구하려는 두 작가의 표현이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논의의 두 번째 층위는 두 작가의 추구와 그것을 지지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해방적 지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에 기반하는 기독교적 구원의 섭리와 대조해 보는 것이다. 신체 기형을 전통을 전복하는 해방적 미(美) 개념으로 상정하는 입장, 첨단 과학기술의 여결적 산물인 돌연변이 종들이 대거 출현하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섭리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다음의 세 관점에서 유의미한 해석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인식. 잘못된 길로 치닫는 현대기술문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 존재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

이 논의의 구조와 지향, 취지는 이러하다. 두 작가의 신체표현과 담론, 그리고 해방된 미래의 염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현상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대조하고, 이로써 양자 간의 근원적인 차이를 분별하며, 이 분별 안에서 이 시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접근을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세우는 것이다.

현대미술과 그 해석을 전담하는, 주로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인식론에 크게 기대는 이 시대의 주류 담론을 기독교 복음의 지평으로 소환하는 작업에 내재하는 지적 긴장감은 이러한 과제에 따르는 필연적인 도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이야말로 신앙과 지성의 균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할 것이다.

I. 신체표현과 담론

I-1. 포스트휴먼 신체 표현

이 논의는 현대미술,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의 신체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성에 관한 것이다. 장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현대에 새롭게 부각된 신화들 가운데 하나다(Baudrillard, 이상률 역, 1991: 190). 현대적 몸은 시효를 상실한 ‘영혼’을 대체하는 탈주와 해방으로서의 몸이자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뉴미디어(new media)로서의 몸이다. 오늘날 몸은 과거에 정신과 영혼이 도맡았던 사건들의 대리 수행자이자 그 연대기의 성스러운 후계자이다.

1960, 70년대의 현대미술은 후천적인 훼손이나 선천적인-유전적인- 기형으로 인한 비정형의 몸들, 찢기거나 절단되거나 결핍된 신체들을 대거 소환했다. 이러한 흐름은 두 차례에 걸쳐 연이어진 대전의 상흔, 즉 피폐한 정신과 부조리한 전후 상황에 대한 반응이요 기록이었다. 미국의 크리스 버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든(Chris Burden)이 폴크스바겐 자동차 지붕 위에 자신의 손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킴으로써 예수의 책형을 흉내 내었던 <고정됨>(Transfixed. 1974)을 선보였다.¹ 프랑스의 미셸 주니아크(Michel Journiac)은 <몸을 위한 미사>(Messe pour un corps. 1969)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혈액으로 반죽한 소시지로 영성체를 수행했다. 이보다 조금 이른 1961년, 이탈리아 작가 피에로 만조니(Piero Manzoni)는 자신의 배설물 30 그램(g)을 밀봉해 만든 통조림에 <작가의 배설물>이라는 제목을 붙여 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 키키 스미스(Kiki Smith), 영국의 길버트와 조지(Gilbert and George) 등 잘 알려진 당대의 작가들이 구토물, 생리혈 등의 같은 체액이나 분비물을 가지고 이 대열에 합류했다. 터너상 수상자(1986)이자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이기도 했던 길버트와 조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의 부산물인 대소변을 형이상학의 최상위로 격상시켰다. 이런 흐름이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독일의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는 역사적 기록물들에 자신의 정액을 흘뿌려 자전적 연대기를 구성, 설치했고, 미국의 안드레 세라노는 소변 통에 담긴 십자가 상을 촬영한 사진(1995)으로 스캔들과 명성을 동시에 얻는 데 성공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극단적 폭력에 노출됐거나 혐오스러운 상태의 신체표현이 더욱 전면에서 부상했다.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로나 폰딕(Rona Pondick), 오를랑(Orlan), 매튜 바니(Matthew Barney) 등이 연이어 극적으로 해체된 신체표현을 보여주었다.

세기말로 치달을수록 목적과 방향을 잃은 영혼의 대리물로서, 실낙원의 대체불가능한 기록물로서 극단적이고 혐오스러운 신체표현이 모색되었다. 전통 철학에 기반을 둔 지성은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새롭게 재생된 진화, 새로운 해방을 표방하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그에 입각하는 신체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다.

포스트휴먼 신체 개념은 유전적으로, 외과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형, 진화된 신체, 기계나 각종 보철(prosthesis)로 강화되어 인간 신체보다 우월하게 된 사이보그나 유전자 공학, 나노기술, 신경약리학, 기억향상 약물 등에 의해 창조된 진화한 신체 개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폭력적인 근대에 대한 자각, 특히 기술결정주의 문명에 대한 회의로 폐기되다시피 했던 ‘진화’ 개념이 재소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위해 더는 유효하지 않은 휴머니즘을 벗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진화된 과학을 동반하여 다시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다.²

1) 1971년 4월에는 졸업 작품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사물함에 몸을 구겨 넣은 채 5일간 물만 마시며 지내기도 했다.

2) 전혜숙, 「현대미술 속의 신체변형」,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NRF-2007-361-AL0015).

현대미술 장에서는 IDEO라는 디자인회사 창업자이자 유명한 화상이기도 한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가 일찍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기술론과 유전공학,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에 따라 변화된 인간의 사회적, 성적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을 재정의할 새로운 유형의 미술 형태”에 대한 요구였다(Politi & Kontova, 1992: 66-68). 기계적으로 진화된 사이보그건 생물학적, 유전적 기술에 의해 진화된 신체건, 인간 신체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한 인간을 상상하는 것이 미술의 중요한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그렇기에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진화된 인간(신체)을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적 존재들에서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이자 종간합일(種間合一)에서 오는 감정적 반응인 공포와 즐거움을 한껏 끌어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신체가 “어떤 오래된 상자를 열어 거기로부터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얻어내는 들뜬 기분”을 동반한다고 헤일즈는 말한다.

헤일즈는 생물학적 기술에 의해 세포 수준에서 조정된 포스트휴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음의 특성들을 잠재적 해방의 단초로 인식한다.

- “주어진 궤도를 따르지 않는 우발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수용.”(탈규범성, 창의성)³
- “셀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는 것도 아닌, 무엇 혹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개방성, 열린 가능성)
- “순수 계몽적 주체가 아니라, 혼합물(an amalgam)이자 이질적 구성물들의 집합체”(전체주의적인 근대적 이성의 극복)
- “경계가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물질-정보의 총체.”(유동성, 유연성)⁴

3) 이것은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가 키잡이의 역할에 필요한 세 개의 강력한 요소들-정보, 통제, 소통-에 의해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을 비예측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이버네틱한 인간-기계는 “민첩하게 잘 해내고 변화에 민감하며, 그 자체가 흐름이면서 그 흐름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atherine Hayles (1999), p.8, p.104.

4) Judith Halberstam and Ira Livingston (eds.), p.10.



그림 1. 미셸 주니악, <몸을 위한 미사> (Messe pour un corps), 1969, Galerie Templon.



그림 2. 로나 폰딕, <여우>(Fox), 1998-99. 스테일레스스틸, 36.8x20.3x96.5 cm

헤일즈에 의하면 포스트휴먼 주체는 인간의 본성에 각인된 거의 모든 부정적 특성에서 자유로운, “경계를 가로지르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becoming) 자유로움과 변화 가능성을 즐겁게 누리는”, 해방되어 낙원을 회복한 존재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질적인 존재, 심지어 이물질, 타자, 타 생물체와의 결합이나 그 결과로서의 혼종성을 마다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진화된 첨단과학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존재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건, 퀴어나 비정상의 상태이건 그것들이 제지하는 미래로 즐거이 나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교환 가능성, 경계의 해체에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짐승의 그것도 포함된다(Graham, 2002: 33).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에서 언급된 3개의 ‘경계 침해(boundary breakdowns)’ 중 하나가 인간과 동물의 경계 침해다.⁵ 해러웨이는 이 침해가 좋은 침해고, 우호적인 침해로서 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나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인간 신체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기에, 침해해오는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5) 나머지 두 개의 침해는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물리적인 것과 비 물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D. Haraway (1985), p. 154.

1-2. 저급한 물질주의에서 현대미술 비평 담론까지

변형되거나 훼손된 신체를 해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난 세기 초 조르주 바타이유(George Bataille)⁶의 ‘저급한 물질주의(Base materialism)’ 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바타이유의 저급한 물질론이 무신론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예컨대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 같은 현대 사상가의 ‘무신학’과도 계보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그-옹프레는 “인간에게 자신과 세상을 지배할 힘을 되돌려 주었고 어떤 형태의 감시도 거부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악마를 은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Onfray, 강주현 역, 2006: 145-146). 이러한 종류의 무신학은 니체가 현대적으로 숙성시킨 무신론의 연장으로서 그다지 참신한 것은 아니다.⁷ 이를 위해서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 곧 정통파나 어른의 체계에 대한 파괴의 충동이 지난 세기 초 바타이유를 거쳐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일련의 흐름이 하버드와 존스홉킨스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의 미술사학과를 중심으로 확장해온 현대미술 비평 담론에서 차지해온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⁸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들의 비평에서 예컨대 ‘규정 가능하지 않은’, ‘경계 설정이 불가능한’, ‘끊임없이 연기되는’, ‘이상야릇하고 정의할 수 없는’ 등의 용어로 번역, 확장되면서, 그들이 현대미술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의 특성으로 독해할 때 그 각각의 틀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수평성(horizontality), 저급한 유물론(Base Materialism), 펄스(Pulse), 엔트로피(Entropy) (정은영, 2012: 239), 이 모든 담론 틀들은 직간접적으로 바타이유의 철학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의 ‘하락’(수평성)이 그렇고, 유혹적인 낭비이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유치한 것의 호소는 직접적으로 저급한 유물론의 연장이며, 모더니즘의 순수 시각성의 탈신체적 자기 완결성에 구멍 내기(펄스)와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저하(엔트로피)도 이와 다르지 않다(Bois & Krauss, 정연심 외 역, 2013).

6) 조르주 바타이유는 1920년대에 활약한 초현실주의 이론가이다. 당시에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앙드레 브루통이 우세하였고 형이하학으로 천대받았으나 후기구조주의에 이르러 재조명되면서 미셸 푸코가 서문을 쓰고 전집을 재 발행하기에 이른다.

7) 니체 이전에는 성직자로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설파했던 프랑스의 유물론자 장 멜리에(Jean Meslier.1664-1729)와 유물론의 성서로 불리는 『자연의 체계』를 써서 기독교의 신비성을 까발렸던 폴 앙리 돌바크(Paul Henri Thyry D’Holbach.1723-1789)가 있었다. 그리고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것이다” 등으로 신을 해체해, 이후 K.마르크스와 F.엔겔스로 계승되었던 루드비히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1804-1872)도 있었다. 하지만, 단연 니체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그가 가치의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신을 죽였기에 무신론을 궁극적 목표로 여길 이유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8) 하버드 미술사학과와 이브 알랭 부아(Yve-Alain Bois), 콜롬비아의 미술사학과 교수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등이 그 흐름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II. 마크 퀴인 of 기형 신체: 아름다움과 고통에 대한 질문

II-1. 미(美)의 새로운 개념(?)

어느 날 대영 박물관에서 문뜩 들었던 생각으로 인해 마크 퀴인은 신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사람들은 미술관에서는 신체 일부가 손상된 고대 조각상을 미적으로 감상하지만, 일상에서는 그것을 장애로 인식해 시선을 돌리거나 외면한다.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생물학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함 때문으로, 이로 인해 일상에서 미술관에서 처럼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Quinn, 2006).

퀴인에 의하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생물학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신체적 장애는 오히려 새로운 영웅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 정상과 장애의 경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결핍된 몸, 비정형의 몸을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생물학적 운명을 정복했고, 그래서 축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Quinn, 2006).”

퀴인은 선천적 장애를 지닌 실제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아름다움과 추함, 숭고와 혐오의 이분법에 관여하는 편견을 드러내어, “인간이 상정한 완전함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불가능함”을 상기시키고자 했다(정은영, 2012: 250 ; Quinn, 2006). 비정형성을 통해 정형화된 인식의 해체를 꾀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전형화된 접근이다. 퀴인은 비정형성과 정형성이 비교되는 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료인 대리석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사실 재현의 방식으로 선천적 사지기형을 지닌 인물인 엘리슨 래퍼의 조각상 <임신한 엘리슨 래퍼>를 만들었다.

<임신한 엘리슨 래퍼>는 퀴인이 주창하는 새로운 미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심한 기형을 지닌 래퍼의 신체가 사회가 강요하는 편협한 미 개념을 넘어서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미래에는 장애를 지닌 인물이 군주나 전쟁영웅보다 더 기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부세계를 정복해 영토를 확장한 영웅담보다 자신의 신체 조건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안적인 미래에 부합하는 서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엘리슨 래퍼의 조각은 크게 확대되어 미래의 기념비로서, 트라팔가 광장의 비어있던 ‘네 번째 좌대’(fourth Plinse)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 전시되었다.

하지만 선천적 기형을 지닌 인물을 미래의 영웅으로 간주하고, 광장에 설치하는 퀴인의 접근에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말한 ‘미적 무관심’(Aesthetic disinterestedness)이나 ‘관조’ 개념에서 온 무심함의 태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한 엘리슨 래퍼>가 미의 개념을 생물학

적 차원에서 해방시킨 새로운 미래의 신호인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까지 ‘재난과 그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미적으로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는’ 문화에의 편승인지, 즉 수전 손탁(Susan Sontag)의 말했듯 재난 상황을 ‘순수한 형태’의 스펙터클로 재현해, 관객으로 파괴와 폭력에 대한, 무심(dispassionate)한 조망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경향의 일환인지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다(Sontag, 1961: 213).

재난이 일상이 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이기에, 퀴이 모델로 삼은 레퍼의 선천적 기형의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이 문제를 미적 무관심이라는 특권적인 울타리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더 어려워진다(이윤중, 2015: 70). 이 해소되지 않는 의구심에 관한 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이다.

II-2. 미(美)와 고통의 문제

퀴도 언급했듯 예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가 미래의 모뉴먼트로 제시하는 신체 기형이 실제 삶에서 초래하는 고통의 문제가 그것이다. <임신한 엘리슨 레퍼>의 경우, 고통은 그녀의 선천적 기형의 원인으로 인해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레퍼의 선천성 기형은 1957년 FDA 승인으로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의약품의 부작용의 산물이었다.⁹ 콘테르간은 진정제, 수면제, 임신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1953년 독일계 제약회사 그루넨탈(Grunenthal)¹⁰에서 개발되었고, 된 화학적 화합물로, ‘모유만큼 안전하다’는 문구와 함께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되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형태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판되었다.¹¹

콘테르간에 포함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성분으로 인해, 시판 후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콘테르간을 복용한 임신부에게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 12,000명 이상의 콘테르간 키즈(Contergan Kids), 또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Thalidomide Baby)¹²들이 태어났다.¹³

9) 1958년 일본에서는 ‘이소민’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퀴이 이 연작으로 만든 조각상의 모델들이 모두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 독일 그루넨탈은 지난해 매출 1조5000억 원을 기록한 세계 50대 제약회사의 하나로 신규 복합기전의 아편계 진통제인 ‘팔레시아’를 미국 ‘존슨 앤 존슨’과 공동으로 개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등 진통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다.

11) 탈리도마이드는 최면 효과는 약했지만 독성이 적어서, 위장약으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었다.

12) 귓구멍이나 장이 기형이거나 항문이 없거나 팔과 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

13)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는데, 미국의 FDA 약물 심사위원이었던 프랜시스 켈시(Frances Oldham Kelsey)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자체 시험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의 불충분을 이유로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덕에 미국은 이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림 3. 마크 퀸, <임신한 엘리스 레 퍼>, 2011, 대리석.



그림 4. 트라팔가 광장의 fourth plince 위에 설치된 <임신한 엘 리스 레퍼>, 2011.

태아의 팔다리가 생성되는 시기인 임신 5주에서 8주 사이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이 태아의 사지가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해표지증(바다표범손발증)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사후에 발표되었고,¹⁴ 2010년 제약사 그루넨탈을 상대로 제시된 고소장에는 제약회사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기되었다.¹⁵

기형아 출산으로 인해 산모와 가족이 받는 충격과 슬픔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산모는 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지는 절망감에 빠진다. 무력감, 좌절감, 열등감이 뒤섞인 ‘모성 상처’(Mother’s Trauma)의 엄습을 피하기 어렵다(최소영·이미라, 1997: 23). 격한 슬픔, 불안, 비탄, 죄의식, 회피 등의 감정 상태에 잠식당한다. 한 뇌성마비 아이의 부모는 장애아 진단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끊임없이 슬픔을 갖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항상 그럴 것이다.” 슬픔

14) 사지 기형이 아닌 경우, 심장 같은 내부 장기 기형, 뇌 손상, 시력 또는 청력 상실, 자폐증, 뇌전증(간질) 등이 나타났고, 극심한 신체 기형에 더해 생존률도 매우 낮았다. 제약사 그루넨탈은 시판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1962년 5월 ‘콘테르간’의 출하를 정지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1963년 6월 그루넨탈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제소되었지만, 오랫동안 해결이 미뤄지다가, 1974년 10월에야 국가와 제약회사가 배상금을 지불했고, 그 밖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었다. 정부도 유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약품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5) 원고 측 변호사는 “탈레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레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은 ‘만성화된 슬픔(chronic sorrow)’이 된다. 현재 50, 60대를 맞이하는 콘테르간 키즈들의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고통은 그들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¹⁶

고통은 비록 한 사람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문제다. 아픔, 배고픔, 굶주림, 고통스러운 질병, 고문, 노예제도, 강간, 학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眷念)하셨더라.”(출애굽기 2:24-25)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차단된 안락하고 포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 다른 사람의 곤경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다.”(Haugen, 이지혜 역, 2011: 19, 34)

적어도 래퍼의 경우, 신체 기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고통은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하면 그 이면이 거대한 범죄의 체계를 방불케 하는 산업체계의 매우 직접적인 산물이다. 빅 파마(Big Parma)체제로 알려진, 각국의 정부들에 의해 ‘엄청난 보호’를 받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독점적 권리’를 둘러싼 공공연한 결탁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심상용, 2019: 23-39). 사이먼 젠킨스(Simon Jenkins)¹⁷는 현대사회에서 약이 갖는 권력은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본과 산업 체계에서 온다. 이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고, 양심선언자를 협박하고, 감시를 게을리하도록 정부 기관과 결탁한 제약회사에 의해 12,000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이 팔과 다리를 잃은 채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악(惡)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명백하게 반(反)하는 일이다(Weil, 권은정 역, 2008: 21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잠언 8:13) 이 비극은 연구와 임상에서 최종 판단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악을 제한하려는 노력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작용했더라도, 예컨대 누군가가

16) 지난 2010년 10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탈레도마이드 약물 피해자들은 기형아 출산, 신체 일부의 부재, 수명단축 등의 책임을 이유로 독일 그루넨탈 제약회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2013년 11월 20일 스페인 법원은 그루넨탈이 탈리도마이드 피해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당 수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탈레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레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17) (1943~). 영국 <Evening Standard>와 <The Times>의 편집장이었다.

수억 달러의 매출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연구에 참여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정부 기관이 조금만 덜 부패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이집트의 산파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했다면 화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집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다.(출1:17) 이 애굽의 산파들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야 할 도덕적 위엄이요 인격의 힘이다.”(Ferguson, 이용덕 역, 2015: 172.)

엘리스 래퍼의 선천성 기형을 대할 때, 그것을 미래의 새로운 미(美)의 대사로 세울 때, 그것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고통에 대해, 그리고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을 태어나게 만든 사건과의 연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비극이 왜 끊이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쟁영웅과 군주의 영웅담 위에 정초된 문명을 극복한다는 선(善)의 명제와 래퍼의 선천성 기형에서 확인되는 악(惡)의 곪기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간극, 그로 인한 갈등과 지적 긴장과 마주해야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가 말한 현대적인 것들, 현대적인 삶, 현대예술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절제’에 대해 질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베이유에 의하면 이 문제가 단지 방법론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신과 세계가 맺은 원초적 계약을 잃어버린 것”에서 도래하는 필연적인 귀결일 것이다(Weil, 권은정 역, 2008: 204-205). 선언이나 명제와 그 방법론의 상관성의 문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통상적인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위기는 생명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기형아 출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의 기형아 발생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생아 100명에 4명이 심장기형, 정신박약아, 무뇌아, 신장 이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상 등 크고 작은 선천적 기형을 동반한 채 태어난다.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임신기간에 복용하는 약물이나 교란된 생태계, 오염된 먹거리로 인한 유전적 요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III.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III-1. '동물 되기' 담론

2005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MASS MoCA)에서 개막된 《동물 되기》(Becoming Animal) 전(展)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절, 곧 인간과 동물의 삶을 분리시키는 '얇은 막(thin membrane)'의 전향적 이해를 통해, 양자가 "더는 타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이로써 동물을 공감의 대상인 "동료 피조물"로 재발견하는 것이었다(Cox, 2005: 24). 5개국 12명의 작가들이 진화론, 생명공학과 유전자 이식과 관련된 작품들을 출품하여 포스트 휴먼 미술로 가는 문을 열었다.

《동물 되기》전에 나온 작품들 가운데서도 호주 작가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The Young Family>(2002-2003)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인간과 포유류, 소와 영장류의 종 특성이 뒤섞인 괴생명체, 관람자들은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나 외계인을 떠올렸다. 고치처럼 보이는 가죽 받침대 위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생명체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분리를 당연시하는 인간의 인식을 문제 삼기 위해 만든 피치니니의 피조물로, 즉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3년 5월에는 피치니니의 또 다른 돌연변이 생물체, 거북이 같은 머리에 거대한 고래상어 같은 몸통, 그 몸통에 달린 각각 전구로 밝혀진 10개의 늘어진 젓가슴을 가진 <스카이웨일>(Sky whale, 2013)이 열기구로 제작되어 호주 캔버라 상공에 띄워졌다. 여러 개의 가슴은 어미 고래의 모유 수유를 환기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스카이웨일>의 몸통 양쪽에서 늘어진 열 개의 거대한 유방 때문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무엇보다 <스카이웨일>의 유전적 잡종성이 호주를 대표한다는 작가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¹⁸ 비평가들도 그 괴생명체를 공중에 띄우는 일이 35만 불의 비용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아해했다.¹⁹ <스카이웨일>은 길이 34 미터, 무게 500 킬로그램에 제작 기간만 7개월이 걸린, 보통 열기구의 두 배 이상 되는 크기였다. 못마땅한 건 정제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전위미술에 무지하다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스카이웨일>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²⁰ 이후로도 일본, 아일랜드, 브라질의 상공에서 <스카이웨일>이 비행했고, 이를 계기로 피치니니는 유명해졌다.²¹

18) 스카이웨일은 호주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공중에 띄워졌다.

19) Clarissa Sebag-Montefiore, The Skywhale Returns to Australia's Skies, and Its Creator Braces for Impact, Oct. 17, 2018. <https://www.nytimes.com/2018/10/17/world/australia/skywhale-patricia-piccinini-yarra-valley.html>

20) 수도권의 야당 지도자인 제러미 한슨(Jeremy Hanson)은 그것에서 "당혹스러운 치기"를 보았을 뿐이며, 지역의 수장이었던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는 피치니니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21) 브라질 문화센터(Centro Cultural Banco do Brasil)에서의 전시 이후, 'Art Newspaper'는 그녀를 2016년 세계 방문객 수 1위의 현대 예술가로 선정했다.

앞서 언급했던 《동물 되기》전의 제목에 등장하는 ‘becoming(되기)’은 분리된 유사한 종들 간의 친족관계를 환기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질 들뢰즈(Delleuze)와 펠릭스 가타리(Guattari)의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1980)에서 인용한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becoming’의 의미에 인간과 동물의 중간 분리를 넘어 대안적 융합으로 나아가는, 탈주와 해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의 제 10 고원에서 동물 되기의 모든 의미가 함축된 사례로서 영화 <윌라드> (Willard, 1972)를 든다. 영화에서 주인공 윌라드는 벤이라는 쥐와 함께, 완력으로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실업가 마틴을 살해한다. 여기서 윌라드의 ‘쥐 되기’는 벤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가능성의 산물이다. 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와 쥐의 신체, 사람의 동작과 쥐의 동작..., 양자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분포의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둘을 섞어 무언가 다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이수경, 2013: 420).” 즉, 양자가 분리되었을 때보다 더 나은 어떤 해방적인 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치니니는 자신의 창조물인 돌연변이 생물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을 호소한다.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해 이미 존재하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돌연변이 생물체들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achel Kent) 작가는 “왜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현대적 삶을 허락한 과학기술의 산물인 만큼, 다른 산물들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Jefferson, 2018).

하지만, 과학기술의 오류로 참혹해질 미래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가정은 과학기술이 야기한 생태학적 수탈의 문제와 급증하는 세계의 비참성에 대한 질문을 흐리거나 희석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 피치니니가 내세우는 미래 윤리는 우리가 지금처럼 기술에 종속된 채 살아가는 한 이러한 문제는 더 확대될 것이고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결과를 양전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자조적인 윤리와 유사하다. 예컨대 전술핵이나 핵 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술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1만여 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는 비교조차 안 될 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모든 방사선은 체내에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염색체나 생식기관 내 유전자를 파괴해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와 신체 기형을 야기할 수 있다. 방사성 원소가 태반을 가로지르며, 심장의 막이나 뇌의 우반구, 또는 왼팔을 형성하는 특정 세포를 죽이는 등, 온전한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진 정상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방사성 물질과 태아 기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연관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진실이 은폐되어왔기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헬렌 칼디코트, p.66).²²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1979.3.28.)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반면,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스트레스와 관련시키는 연구들은 지나치게 많아졌다. 정작 방사성 물질로 인한 희생자에 관한 연구는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아래 방해되었다(Caldicott, 이영수 역, 2007: 104-105).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진실은 충격적이다. 1997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핵실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발표와는 달리 21만 2,000명의 미국인이 갑상선 암에 이미 걸렸거나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조차도 결과치가 축소된 것으로, 핵실험에서 흘러나온 스트론튬 90과 세슘137,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원소들로 인해 유발되었을 암의 유형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Caldicott, 이영수 역, 2007: 106). 이러한 맥락에서 피치니니가 말하는 ‘불완전한 것에 대한 사랑’의 윤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적인 사건인 진실 은폐에 대한 인식 안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대예술 표현에 있어서의 무제절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III-2.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경계의 해체, 식별 불가능성에 기반하는 새로운 배치를 통해, 윌라드의 쥐-되기, 그리고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꼬마 한스의 말-되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물 되기는 인간의 한계로부터의 탈주에 대한 기대고 해방의 일환이다. 들뢰즈의 표현에 의하면 “흰 벽을 뚫고 검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경직된 선분을 벗어나기, 습관이 된 배치를 바꾸기, 그리하여 탈 영역화하기”이다(고미숙 외, 2004: 337).

이러한 접근, 인간과 동물을 유사종으로 전제하고 그 친족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두는 포스트휴먼 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내재하는 파괴와 충동의 에너지, 곧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니체의 주목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자신에 잠재해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Guinness, 2008: 58)²³ 저급한 것, 속된 것, 외설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바타이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에 이르기까지, 근대기 내내 일관되게 개진되어 온 방향성이다. 이 흐름이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의 《동물 되기》의 그것, 곧 인간과 동물의 중간 경계를 허물고 식별 불가능성의 영토로 도주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22) 일례로 플루토늄은 그것을 발견한 글렌 시보그(Glen Seaborg) 말했듯,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사람이 100만분의 1 그램 이하만 흡입해도 폐암이 유발될 정도다.(헬렌 칼디코트, pp.90-91)

23) 푸코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소르본 대학은 “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기독교 복음과 이에 근거하는 세계관의 맥락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없애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한다는 ‘동물 되기’는 그 내부에 실패가 예고된 여러 탈주 담론들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존재성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선형적으로 내주하는 존재이기에, 사람과 다른 생물 종과의 구분은 영적, 생물학적 차원 모두에서 전복되거나 완화될 수 없는 성역이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직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성서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2:20~21)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짐승에 가까워지기를 지향하고, 동화에 무감각해지는 때는 ‘위’에서 멀어지는 때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존재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몽매무지, 혼계를 싫어하는 것, 총명과 멀어지는 것이다.²⁴ 인간이 존재적으로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존재 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물 되기(Becoming Animal)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으로 전락하기’(Turning into Beast) 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안에서 궁극적인 인간 해방의 길은 존재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허락된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부터만 주어진다.²⁵ 반면 포스트휴먼 담론은 그 대상이 기계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종간 융합을 해방의 가능성의 일환으로 논한다. 베이유에게 이런 접근은 ‘허공을 향해 뿔뿔이는 방식’, 즉 조금 더 높게 뛰면 하늘-자유와 해방의 궁극-에까지 닿을 수 있으리라는, 오래된 ‘헛된 희망’의 후기현대적 버전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진정한 해방은 ‘더 깊은 아래’로부터 도래하지 않으며 ‘위를 쳐다봄’에서 온다. “쳐다 봄으로서 우리는 문제를 헤아리고 신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신은 위를 들어 올리고 날개를 달아준다.”(에릭 스프링티드, p.115)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구원은 오로지 ‘위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그것과 극명하게 갈린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쯤 하시고 인간이 반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Ellul, 1972: 192). 인간의 궁극적 해방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하다(Ellul, 1989: 82).

24)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1),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 “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 12: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잠 30:2) 등.

25) “11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장11-12)

여호와와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민 12:8; 신 4:12, 15-16), 여호와와 형상-형상대로 지으심-이 있는 곳이 곧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아름다움의 원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죄로 물든 세상의 재현에 안주하는 대신, 그 형상을 사모하고 회복에 관여함으로써 더 높은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예술의 새로운 정의일 것이다. 조시 맥도웰(Josh McDowell)과 밥 호스테틀러(Bob Hostetler)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하나님의 속성을 (피상적으로라도) 반영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반예술(anti-art)은 정반대의 것을 달성하고, 비예술(non-art)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McDowell & Hostetler, 유정희 역, 2009: 174.)²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피조 세계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지만, 현재는 피조 세계 전체가 절망 상태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 피치니니는 문명이 저지른 오류의 결과물을 포용할 것을 촉구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더 악한 오류를 범하는 상태로 내모는 뿌리 깊은 성향으로 인해 파괴된 세계를 책임지는 역량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설계한 문명의 오류와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존재이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라르킨(Larkin)이 말했듯,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다른 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 다른 이는 일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다음으로는 자연계의 피조물들이다.²⁷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평은 인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은 가능하게 만드는 제대로 된 반듯한 지평이 아니다. 동물이나 기계 같은 비인간 종과의 합일을 잠정적인 해방구로 삼는 담론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의 절박한 위기상태를 다만 대변할 뿐이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짐승의 그것으로 끝을 내어가는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

26) “참된 예술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오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것을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야 한다.“(벨 4:8)

27) Larkin, Silent Presence, pp.7-8.

결론: 기형 및 돌연변이 신체 표현과 성찰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미 1960년대에 인간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로 기형과 돌연변이, 충상을 입거나 고문당한 신체, 학대당한 신체가 줄을 이었다. 훼손되거나 왜곡된 신체 표현은 부조리한 실존에서 오는 막막함, 절망적 상황, 혼돈과 허무의 반응이었다. 지난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분위기의 반전이 있었다. 퀴는 선천성 사지 기형을 지닌 신체를 전통적인 미 개념에 반하는 대안적인 아름다움으로 선언했다. 피치니니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유전적 교합의 산물인 돌연변이 생물체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퀴의 기형 신체와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파괴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퀴의 기형 신체는 탈리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의 오남용과 결부되어 있고,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들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인 유전자 기술의 오류로 인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가설 안에서 등장한다. 또한 이 논의는 현실의 악(惡)과 고통,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신체표현을 지지하는 이론적 틀인 포스트휴먼 담론을 재조명해보았다.

퀴의 <임신한 앨리슨 래퍼>를 통해서 그는 대안적인 아름다움으로 제시한 기형 신체의 이면에 서 글로벌 제약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관여된 진실과 마주하고자 했다. 제약업계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건강하게 태어났을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은 그들을 아름다움의 인식 전환을 위한 도구로 소환하거나 미래의 영웅으로 명명하는 것에 의해 누락되거나 은폐되어선 안 될 진실이다. 무엇보다 선천적 기형을 지닌 사람들이 겪는 실재로서의 고통이 이 시대와 문명의 필연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사람이나 자연계가 고통에 신음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뮐러(Friedrich G. E. Martin Niemöller)가 말했듯, “(사람과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때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Metaxas, 김순현 역, 2011: 422).²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와 분리된 것일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인간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성)의 맥락에서,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에 대한 전향적인 읽기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본론의 논의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다. 사람에게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 아름다움의 원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손상된 형상, 소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의 허용으로, 그 안에는 바타이

28) 800명의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이 나치에 체포될 당시(1937), 그들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뮐러가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이다.

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해방으로 간주하는 것, 곧 저 밑바닥의 물질성으로 곤두박질치거나 생물학적 역진화를 수행하는 것과는 정반대 쪽으로의 나아감이 내포되어 있다.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담론들이 밀려들어, 정신에 허무와 무의미를 수혈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목전의 현상들에 대해 분별하는 것 또한 이 나아감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권의 기형 신체나 피치니니의 변종 돌연변이 생물체들을 포함해 온갖 유형의 훼손된 신체 표현이 한편으론 탈주와 해방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한편으론 무절제하고 자극적인 구경거리로서 소비되는, 인문적인 탐구의 깊이를 반기지 않는 대중잡지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성향적으로 동일한 측면이다. 이는 창조와 본질인 생명이나 진실 탐구와는 동떨어진 것을 해방의 추구하고 뒤섞어 혼돈을 부추기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심을 사는 것에 골몰하는 상품 판촉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 심하게 훼손된 신체 표현과 상실감과 혐오감마저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 사이는 그리 멀지 않으며, 따라서 오히려 인식을 잠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미숙·고봉주·권용선·문성환·이진경·진은영·황지현 (2004). **들뢰즈와 문학-기계**. 서울: 소명출판.
- 이지혜 역 (2011). **정의를 위한 용기**. Haugen, G. A. (2009). *Just courage*. 서울: Ivp.
- 강주현 역 (2006). **무신학의 탄생**. Onfray, M. (2005). *Traité d'Athéologie*. 서울: 모티브북.
- 윤진 역 (2021). **중력과 은총**. Weil, S. (1947). *La Pesanteur et la Grâce*.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종석 역(2008), **회의하는 용기-회의를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G. Os. *God in the Dark*. 서울: 복있는 사람.
- 이용덕 역 (2015). **헛된 것에 속지 마라**. Ferguson, S. B. (1995). *Pundits Folly*. 서울: 규장.
- 김순현 역 (2011). **디트리히 본회퍼**. Metaxas, E. (2011). *Bonhoeffer*. 서울: 포이에마.
- 권은정 역 (2008). **시몬 베이유**. Springsted, E. (1998). *Simone Weil*, 칠곡: 분도출판사.
- 정연심·김정현·안구 역 (2013).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Bois, Y. A. & Krauss, R. E. (2000). *Formless: a user's guide*. 서울: 미진사.
- 백종현 역 (2009). **판단력 비판**. Kant, I. (1790). *Kritik der urteilstkraft*. 파주: 아카넷.
- 김희건 역 (1987).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Ellul, J. (1966). *Politique de Dieu : politiques de l'homme*. 서울: 두란노.
- 이상률 역 (1991).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서울: 문예출판사.
- 유정희 역 (2009). **톨레랑스의 두 얼굴**. McDowell, J. & Hostetler, B. (1998). *The new tolerance*. 고양: 스텝스톤.
- 이영수 역 (2007). **원자력은 아니다**. Caldicott, H. (2006).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서울: 양문.
- 심상용 (2019).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약품 연작의 비평적 읽기: 약을 믿는 것처럼 예술을 믿어야 하는가?.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10. 1(19), 23-39.
- 이수경 (2013).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연구. **철학논총**, 72, 409-441.
- 이윤종 (2015). 할리우드 지구 종말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인터스텔라>의 디스토피아적 시공간성. **인문과학**, 57집, 67-99.
- 전혜숙 (2007). 현대미술 속의 신체 변형. **현대미술사연구**, vol.31, 133-160.
- 정은영 (2012). 현대조각의 파편화된 형상과 부분 대상에 관한 연구: 마크 퀴 <완전한 대리석상>(1999-2001) 해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26, 231-260.
- 최소영·이미라 (1997). 기형아 출산 산모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3(1), 28-38.

- Ellul, J. (1989). *What I believe*, Geoffrey W. Bromiley (trans.)
- Ellul, J. (1972).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Geoffrey W. Bromiley(trans.), Eerdmans.
- Cox, C. (2005). Of Human, Animals, and Monsters. in Thompson S.(Ed.). *Becoming Animal, Contemporary Art in the Animal Kingdom. Exhibition Catalogue of MASS MoCA*, May 2005-March 2006, MASS MoCA Publication and MIT Press.
- Graham, E. L. (2002). *Representations of Post/Human*, Monsters, Aliens and others in Popula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 Guinness, O. (2008). *Rising to the Call*. PI: Thomas Nelson
- Politi, G. & Kontova, H. (1992). Post Human, Jeffrey Deitch's Brave New Art(interview). *Flash Art*, No. 167.
- Sontag, S. (1961). The Imagination of Disaster. in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Picador.
- Kent, R. (2005). Nature is as Nature does: Patricia Piccinini's Super-natural Creations. in Piccinini P.(Ed.). *Nature's Little Helpers*. Exhibition Catalogue of Robert Miller Gallery, New York, 22 October-30 November.
- High, K. (2004). *Embracing Animal*, 2004, Glass tubes, DVD, four mini LCD monitors, live rats, steel mesh, plywood and Lexan cage.
- Quinn, M. (2006). Recent Sculptures Catalogue, Groninger Museum. Retrived from <http://marcquinn.com/artworks/single/kiss>
- Jefferson, D. (2018). Patricia Piccinini's hyperrealist sculptures are a call for radical empathy and change, Retri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8-04-12/patricia-piccini-curious-affection-at-qagoma/9638564>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Issues Surrounding the Expression of Malformed and Deformed Huma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he Art Works of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심상용 (서울대학교)

논문초록

인체(人體)는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대상 가운데 하나다. 20세기 후반 들어 비재현적인, 즉 변형되거나 왜곡된 상상된 비재현적 신체 표현이 크게 증가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논의는 이러한 인체 표현의 현대적 경향 가운데서, 두 현대 작가,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들에 예술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이론적 틀로서 포스트휴먼 담론을 소개하고, 이를 기독교 복음과 이에 근거하는 세계관의 맥락과 대조함으로써 현대미술의 표현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퀴는 선천적인 기형을 지닌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임신한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 Pregnant, 2000)를 통해 전통적 미(美) 개념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미 개념으로서 기형 신체를 내세운다. 피치니니는 인간을 포함해 적어도 두 동물 종 이상이 유전자가 뒤섞인, 괴물이나 외계인을 방불케 하는 혼종 생물체를 극사실적으로 만든다.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혼종 생명체들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것들을 관대하게 맞이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기독교 복음과 세계관에 기반하는 인식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퀴의 기형 신체와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종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인식, 잘못된 길로 치달는 기술문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존재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

주제어: 인체 표현, 포스트휴먼 담론, 마크 퀴, 파트리샤 피치니니, 기형 신체, 혼종 생명체, 새로운 미(美) 개념, 고통, 하나님의 형상.

노아 언약과 두 나라 이론에 비추어 본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성경적·신학적 의의*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litical Entity and Law in Light of Noah Covenant and the Two Kingdoms' Theory

조 혜 신 (Hye Shin Cho)**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justify the existence and function of secular political entities and laws both biblically and theologically. The secular political entities is blessed with God's preserving grace, which is given through the Noah covenant, and is given a certain role.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secular entities to implement "redemption or salvation" through politics and law, and attempting to do so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ir nature and purpose, but in some cases, they may commit the crime of arrogance. The moral achievement that the state and law can achieve is by no means "maximum", but at the level required for retributive justice, maintenance and survival of society. In this respect,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its nature to achieve a higher moral purpose, such as the level of holiness and purity, through secular laws and institutions. This is a limitation where the ideal of 'Christian State' or 'Christian Politics' must keep.

This interpretation of the Noah covenan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insights given by the Two-Kingdoms' theory of Reformation Theology, which establishes social thoughts based on the creation order preserved by Common Grace after corruption caused by sin. Above all,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distinguishes between the nonviolent Kingdom of Christ and the forced state with a sword, and clarifies the limits of the powers each can exercise. In addition, every human's conscience proves the law that God has engraved, and these universal and general laws correspond to the commonness shared by Christians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2021년 한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법학부 부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hyeshin@handong.edu

and non-Christians. For this commonness,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can pursue the just and good, and achieve cultural excellence together. In today's pluralistic society, which embraces religious freedom and denies state-church, the 'Two Kingdoms' and the Natural Law Theory of Reformation Theology provide a framework and concept suitable for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secular laws and political entities.

The interpretation of Noah's covenant and insight into the secular political community resonate with considerations of the function of laws, further clarifying and enriching the legal and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secular laws. The discussion of the function of the law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at is, whether its function is to protect social and ethical norms or individuals from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s granting the role of a secular state and also limiting it. There is clearly an active role of the law to curb the action of the fallen nature of man, but it is impossible to purify the fallen nature or redeem men through the law. In other words, the role and action of the state is bound to remain preserved and maintained in the realm of General Grace. Discussions in criminal law academia also want to set limits to maintain their secularity through legal interests protection, which is in line with Noah Covenant's implications and theological insights of the 'Two Kingdoms' theology. Although various norms with moral and ethical characters under the criminal law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Natural Law that God has engraved on all human conscience, when the state seeks to secure its implementation through power, it must comply with limitations in terms of a covenant with God and in terms of delegation from the community. If you exercise power in violation of these limits, you will have to take responsibility not only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delegated that power, but ultimately before God.

Key words: Noah Covenant, Two Kingdoms' Theory, Secular Law, Secular Political Entity, Common Grace

1. 서론

이 연구는 창세기 9장의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존재를 성경적 및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적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그 정치공동체의 기능과 역할을 ‘법’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기 원한다. 하지만 이처럼 두 차원에서의 삶을 동시에 잘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를 활용하거나 복속시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투해 가고자 하는 역동성은 때때로 배제와 폭력이라는 극단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통과하며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깊고 뼈저린 성찰을 해 왔으며, 그 자취는 중세신학으로부터 개혁신학으로 이어지는 두 나라 이론으로 남아 있다.

노아언약은 신구약 성경의 맥을 이루는 다른 언약들과 몇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 상대방이 온 인류 전체를 비롯한 피조세계 전체라는 점, 그리고 이 상대방이 이미 악과 저주를 배태하고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인데, 이로 인해 노아언약의 목적은 온전한 거룩과 구속이 아닌 단지 자멸과 파괴를 저지하는 보존이 된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보존의 은혜 가운데 형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가 법을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획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독교적 국가’ 혹은 ‘기독교적 사회’는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감과 열정을 불러일으킨 모토이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치공동체를 구속하거나 변화시켜 그 공동체가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혁주의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그러한 모토와 주장이 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두 나라의 경계를 오가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해 왔다. 때때로 실패와 과오도 있었지만, 세속 권력과의 결합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면서도, 비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정의를 위해 협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다시 한번 노아언약과 두 나라 신학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 특히 칼빈의 이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요섭, 2022: 9-10), 그가 영적인 나라와 세속의 나라를 구별하고 각각에게는 독자적 정당성과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는(대표적으로 Van Drunen의) 해석이 있는 반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의 변혁을 강조했다는 해석

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본고에서 상세히 검토하지는 않겠지만, 설사 칼빈의 신학에 사회변혁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혁신학에 있어서 두 나라의 존재와 차원을 준별하고 각각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기독교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오늘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본고에서는 창세기 9장의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칼빈과 카이퍼를 비롯한 개혁신학자들의 사상으로부터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에 미치는 독자적 은혜의 차원이 존재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성경신학적 탐구로서 창세기 9장 노아언약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존재와 기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해 왔는지 그 역사적 전개를 통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난 후에는 세속의 정치공동체가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과 제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세속의 법은 자신의 목적과 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형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앞서 보인 세속법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와 세속법 스스로의 이해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며 공명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아언약에 따른 보존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이 땅의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빛으로 소금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단초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노아언약: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노아언약의 의의

‘언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어라 할 수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거치며 유지되고 갱신되었으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 물론 ‘창조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아담과의 언약은 언약의 형식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개혁과 전통을 따르는 성서해석에서는 창조언약을 하나님이 인류와 맺은 최초의 언약이자 언약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손석태, 2014: 9). 그런데 구약의 여러 언약 중에서 노아언약은 그 목적, 성격, 범위 등에 있어서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고유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왔다(이희성, 2018: 8). 창세기 6장 내지 9장 노아언약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창세기 1장

창조 본문과의 대응이다. 창세기 8장 홍수 심판 이후의 재창조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관성을 보여준다(이희성, 2018: 11). 예컨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1:28)” 부분은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신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9:1)”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모든 생물체를 암수 한 쌍씩 보존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도 아담이 각종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상응한다. 이러한 창세기 1장과 8~9장의 언어적·문맥적 상응성은 노아언약이 창조언약을 유지·확증하며 갱신하는 차원에 존재할 뿐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가 새로운 아담의 기능을 하는 인류의 대표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여지를 제공한다(이희성, 2018: 12, 18 ; 손석태, 2014: 15).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노아언약의 함의는 그 전제이자 계기가 되었던 홍수심판의 성경신학적 해석으로부터 보다 분명해진다. 홍수는 인간의 전적부패와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창세기 6장 5~6절은 그 부패와 타락의 참상이 대단히 참혹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즉, 죄악의 강도와 범위(“세상에 가득함”), 죄악의 내향성(inwardness)(“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선한 모든 것을 배제시킨 죄악의 절대적인 지배력(“악할 뿐임”), 죄악의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활동(“항상”)에 있어서, 완전한 멸절이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다(김영철, 1984b: 238-9 ; Vos, 2021: 50). 노아언약은 그 범위에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땅위의 모든 생물을 전멸시킨 ‘보편적’인 것이었다(김영철, 1984b: 240).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보편적 범위는 이어지는 언약의 보편적 범위와 일치한다.

다른 한편 이 노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기가 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셈과 야벳에게는 복이 선언되고 함에게는 저주가 선언되는데, 특히 셈의 계보로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이어진다는 점은 중요하다.¹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의 약속이 부가된 갱신된 언약인 한편, 노아언약에서와 같은 보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자면, 아브라함 대에 이르러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셈의 계보와 달리, 야벳과 함의 계보에서는 여전히 노아언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아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횃불언약’과 17장의 ‘할례언약’으로 이루어진다. 전자의 언약에서는 땅이 강조되고, 후자의 언약에서는 후손이 강조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앞서 창조언약과 노아언약에서는 언약의 핵심이 “생육하고

1) 창세기 9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하여,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손석태, 2014: 14).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담겨있는 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땅과 자손으로 실현되는 ‘유업’이 언약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 유업 혹은 기업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업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 아브라함과 언약과 그렇지 않은 노아언약의 대치는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선택과 배제’의 구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언약의 분화는 언약의 내용 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나타난다. 창조언약과 노아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언약이 체결되었으나,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쪼개어 벌려진 짐승 사이를 지나는 의식과 아브라함 편에서의 할례 의식이 행해진다. 그리고 모세언약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보다 더 정식화된 언약체결의 의식이 거행된다. 전반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언약 당사자의 쌍무적 의무의 수락과 이행, 그리고 이행에 따르는 복과 불이행에 따르는 징벌이 강조된다. 반면 노아언약에서는 언약의 편무성과 무조건성이 두드러지고, 언약의 일방 당사자인 인간의 조건, 즉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조건이 고려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순종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창조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다른 한편,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세 아들 대에 이르러 곧 재현되는 죄로 인해 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가 나뉘게 되었고, 복의 계보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으로 언약의 갱신과 확약이 이루어진 반면, 저주의 계보에서는 여전히 노아언약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을 통하여 ‘더 좋은 언약(히 7:20~22; 8:6)’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새창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세계에 관한 원래의 창조명령은 노아언약을 통해 수정되었고, 이것은 ‘땅이 있을 동안’에 한하여 효력을 갖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불의 최후심판이 행해질 때 종료된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점에서 불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새언약과 노아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아언약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언약들과의 관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하는 매우 독특한 위상에 놓인다. 즉, 창조언약의 수정·갱신이라는 점에서는 이와 연속성을 갖는 한편, 아브라함 언약과 분기됨으로써 불연속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노아언약은 비록 타락하였을지언정 첫 피조세계를 보존함으로써 새언약과 새창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창조 목적의 궁극적 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만약 노아언약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새창조의 사역이 최소한의 평화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인류의 존속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VanDrunen, 박문재 역, 2020: 101-2).

2. 노아언약의 특징

반드루넨은 노아언약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편성, 보존성, 한시성이 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통하여 설명한다(VanDrunen, 박문재 역, 2020: 87).

첫째, 노아언약은 노아 자신과 그 가족 뿐 아니라, 모든 인간, 동물, 식물 등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하나님은 단지 노아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미래의 모든 세대와 이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생물’, 즉 살아 있는 모든 존재와 이 언약을 맺으셨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이다. 이 점은 노아언약이 창조언약과 갖는 공통점이자, 아브라함 언약 이후 언약들과의 차이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아언약의 대상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약과 저주가 잠재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악하고, 생물은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이것은 기실 창세기 3:16-19의 보편적 저주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일반 저주의 이면에는 보편적 은총, 즉 일반은총도 존재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Kline, 김구원 역, 2012: 209-10).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유지되었다. 여자는 저주를 받았지만 결혼제도가 지속될 것임이 암시되었고, 이 제도를 통해 땅을 후손으로 채우라는 축복이 실현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노동을 통해 삶이 유지되고 문화적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창세기 4:17 이하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산업, 과학, 예술의 기원을 열었음을 암시함으로써, 저주의 계보에서도 복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은총의 유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아언약의 보편성 혹은 일반성은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Kline, 김구원 역, 2012: 211). 이와 관련하여 노아언약에서 다시금 선포된 문화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안식일 규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아언약 하에서 이룩되는 문화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안식일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규례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음을 보여준다(출 31:13). 요컨대, 노아언약은 이 언약이 선포된 대상이 인류를 비롯한 피조세계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뿐 아니라 가인과 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저주의 백성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또한 세속적(secular)이다.

둘째, 노아언약은 보존적이다. 이 점에서 노아언약을 ‘보존언약(Covenant of Preserv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손석태, 2014: 13). 노아언약에는 비록 이 땅에 인간의 죄와 악이 계속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조세계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창 9:11,

15). 이는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으로 선언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다(이희성, 2018: 19). 즉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시킨다는 보존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고, 자연의 중단 없는 변화 주기를 유지시키실 것이고, 생물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노아언약을 통하여 부여되는 보존의 복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서,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권한 및 의무의 변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창조언약에서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노아언약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과 대조된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명령에서 위임된바 통치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신 하나님께서 생물로 하여금 인간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것들이 인간의 손에 붙여졌다고 하신다(창 9:2). 그리고 모든 식물과 동물이 인간의 먹을 것으로 주어졌으나, 고기를 피째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창조언약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내용과 범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창조 명령은 노아 언약을 통해 수정되었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타락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형태의 창조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정한 형태인 노아 언약의 구속을 받는다.

특히 이 언약에서 인간에게 부여하는 도덕적·윤리적 의무가 인류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언약의 목적은 이 세계를 구속하거나 유토피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출산하고, 먹고, 폭력을 억제해야 하므로,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뿐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응보 수준의 의무가 부여된 것인데, 이를 통하여 노아언약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아언약은 생명의 피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속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에 대한 응보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 노아 언약은 한시적이다. 물은 ‘다시는’ 이 세계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지만 여기서 ‘영원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끝이 없이 무한하다는 뜻 뿐 아니라 단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땅이 있을 동안’에만 자연 질서를 유지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아 언약의 유효기간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불’로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이다(벧후 3:10-13).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심판의 날과 새 창조의 때까지만 인간 사회와 이 세계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3. 소결: 노아언약에 따른 세속의 정치공동체의 정당성과 책임

노아언약은 성경의 맥을 이루는 다른 언약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점, 그 목적이 보존과 유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아닌 심판 주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유효한 한시적 언약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언약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구별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는 노아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공존하게 된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복과 저주를 보건대, 셈을 통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야벳과 함을 통하여 노아언약이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노아언약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복의 계보에 들지 못한 야벳과 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일정한 언약 관계에 놓이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세속의(secular)’ 공동체라 할지라도 노아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다는 것의 의의는 이 세속의 공동체들도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정당성(legitimacy)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용인하실 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에 이들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이 담겨있다.

성경은 이들이 번성하여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나간 예들을 수없이 보여줄 뿐 아니라,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의 도구로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생활을 하게 된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통치에 순응하여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예레미야 29장에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그 소산을 먹으며 결혼해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말한다(20:3-6). 특히 바벨론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20:7)하시는 부분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개 등은 바벨론과 바사에서 공직에 올라 해당 정치공동체의 통치 기능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거룩한 백성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땅에서는 세속적 정치공동체의 존재가 용납되지 않으며 이들은 철저한 배격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홍수 심판 이후 이 세계는 창조언약을 대체하는 노아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수정된 언약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이른바 세속적 정치공동체가 존재할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이루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세속적 정치공동체는 새 언약과 그 궁극적 성취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정치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존재와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아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포괄적인 규범과 제도를 형성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노아언약은 인간의 공동체적인 활동, 예컨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가족과 사회의 형성, 양식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서 노동과 기술의 발전,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체계 구축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는 일정한 제도·조직과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VanDrunen, 박문재 역, 2020: 113). 특히 노아언약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자에 대한 응보적 정의의 실현은 일정한 사법 제도를 필요로 하고, 이는 권위있는 시민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정치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는 책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지는 책임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 이들이 지는 책임의 기준은 노아언약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한데, 그것은 공동체가 유지·번영하는데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수준의 정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거룩’과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성경의 여러 본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해석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에게는 가장 무거운 의무로서 부여되는 이상숭배 금지 의무가 세속의 정치공동체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즉 이들에게는 이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의무가 없으며, 이상숭배에 대해 정죄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엘리사에게 자신이 왕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 몸일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용서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이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말하고, 그의 이상숭배와 관련하여 책망하지 않는다(왕하 5:18-9). 한편 이들에게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즉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신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는 세상의 나라들이 자신의 불의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본문이 다수 존재한다. 예컨대, 이사야 13:1~14:23, 예레미야 50~51장, 다니엘 4~5장, 특히 4:27~30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정의와 자비를 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처럼 세속의 정치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할 의무’를 지고 그 행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법 역시 그러한 의무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기능과 역할은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계 지워진다. 전자의 측면은 세속법의 신학적 의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노아언약이 적극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을 부여하는 측면인 반면, 후자의 측면은 노아언약이 소극적으로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설정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노아언약으로부터 통찰할 수 있는바 세속의 삶을 통치하는 정치공동체와 이 영역을 규율하는 법의 본질은 개혁신학의 전통에서도 지속적으로 숙고되어 온 주제이다. 물론 이 주제가 언제나 성경 신학적 방법으로, 특히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찰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매우 실제적인 국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한다. 앞서 살펴본대로 아브라함-모세-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새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별개로, 노아언약을 통하여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책임을 지는 세속의 정치공동체가 존재한다는 해석은,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이 관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이하에서는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이 여러 신학자들을 거치며 시대적 과제와 요구에 반응하여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신학적 의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I.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두 나라 이론의 정초: 칼빈

두 나라, 두 도성, 두 칼 등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을 ‘두 도성’으로 논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성에만 속해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세속적 문제들이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 공통된 것이면서 세속적 권력 안에 상대적 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VanDrunen, 김남국 역, 2018b: 74). 개혁신학자로서 두 나라 이론을 정식화한 것은 루터와 칼빈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한 왕국 안의 두 통치로서, 영적인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그 목적과 역할에 있어서 구별되고, 각각의 영역을 지키면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두 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의 어조는 약간 다르다. 둘 모두 교회와 국가의 관할이 중첩되는 사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루터보다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였다(서윤발, 2012: 150). 특히 칼빈은, 중세의 두 나라 이론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명확히 구별하고 모든 사람은 이 중 하나의 나라에 속한다고 본 것과 달리, 이 두 나라의 차원을 영적 통치와 시민적 통치로 분리하여 ‘이중적 통치’로 재구성한다. 즉,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에 속한다는 것인데, 이는 두 통치가 내면적·외면적, 영적·세속적, 구속적·비구속적인 것으로서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에 (비록 차원을 달리하기는 하나) 동시에 속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에 관한 한 두 나라가 중첩된다. 또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세속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둘이 ‘공통성(commonness)’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칼빈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Mouw, 권혁민 역, 2012: 17).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장에서 다음과 같이 두 나라의 통치와 법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Calvin, 김대웅 역, 2022: 955-6).

“우리는 인간이 두 가지 형식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다. 이 통치를 통해 양심은 하나님과 경건에 관련된 것들을 배운다. 또 하나는 정치적 통치 혹은 세속적인 통치다. 이 통치를 통해 우리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인간됨의 의무와 예절을 배운다. … (중략) … 첫 번째 종류의 통치는 영혼의 삶과 관련되고, 두 번째 종류의 통치는 현재의 삶과 관련된다. 이것은 음식이나 의복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서로 명예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는 특정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통치는 내면의 영혼에 그 처소가 있지만, 두 번째 통치는 단순히 외면의 행동을 구성하고 지시하기 때문이다. … (중략) … 우리는 이 두 나라를 구별했으므로, 각기 따로 고찰해야 하며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두 왕과 두 법률로 다스려지는 두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칼빈의 두 나라 이론에 있어서 세속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세속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외적이고 세속적일 뿐 아니라 구속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혹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 혹은 양심에 심겨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근거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성경적 근거로 이해되는 것은 로마서 2:14~15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각인시키신 자연법과 양심에 본질적으로 증거하듯이, 모든 법의 본질인 공정성

역시 자연법에서 온전히 드러난다고 하였다(Calvin, 김대웅 역, 2022: 1018). 그리고 자연법은 세상의 나라에서 좋은 법을 만들게 하고 사회적 선을 이루기 때문에, 만약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서 다른 새 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Calvin, 김대웅 역, 2022: 1019). 세상의 나라에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자연의 빛에 힘입어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속국가와 그의 법에서 그러한 성취, 이를테면 정의, 정직, 청렴, 자비, 호혜, 상생 등과 같은 덕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 나라에서 참된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칼빈은 세상의 나라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 유일하게 또는 근본적으로 다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연법을 수여하신 것도 구속 사역의 일부가 아닌 비구속적인 창조 및 보존 사역의 일부라고 이해하였다(Van Drunen, 김남국 역, 2018b: 180-1).

한편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국가에게 ‘공동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 시현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게는 ‘칼’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일종의 협력적 역할을 분담한다. 즉, 교회의 영적 통치는 시민적 통치를 돕고 장려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세속적 통치는 우상숭배와 신성모독과 같은 모욕적 행위가 공공연히 조장되고 유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Calvin, 김대웅 역, 2022: 1003). 심지어 이단에 대해서 세속적 권위를 사용한 강제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서도 율법의 통치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한편, 시민적 사안인면서 동시에 영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결혼과 가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의 당회가 모든 시민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칼빈의 이론에서는 두 나라가 배타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의 영역에 일정 부분 관여함으로써 관할권의 중첩이 발생한다. 실제로 제네바 시에서 교회의 당회는 일종의 예비심리를 위한 법정으로 기능한 한편, 시민 정부가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추천과 임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제 주목할 부분은 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인데, 칼빈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보다 입체적인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두 나라의 관할상 분리와 구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외관상 시민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관여와 외관상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했다. 특히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인이 차원을 달리하는 영적인 나라와 세속의 나라에서 동시에 살아간다는 통찰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적인 나라의 통치를 세속적 사안에까지 확장하거나 영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세속적 권력의 칼을 사용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 이후 두 나라 신학은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되었는데, 16세기 제네바, 17세기 뉴잉글랜드, 18세기 버지니아 등에서 나타난 이른바 ‘신정정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긴장 가운데 공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두 나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두 나라의 본질, 목적, 규범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에 모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각각의 나라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도 두 나라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침투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두 나라가 그 원리, 관할, 차원, 영역에 있어서 분리된채 공존한다는 인식은 중세신학 뿐 아니라 개혁신학에서도 대체로 동의되어 온 것이지만, 그 공존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종말적 승리를 역동적으로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작용과 침투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포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세속국가가 (신학적으로도) 정당하게 독점하게 된 물리적 강제와 폭력은 교회가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데도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였고, 이러한 유혹에 굴복한 교회는 때때로 엄혹한 신정정치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2. 일반은총론으로의 전개: 카이퍼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카이퍼와 바르트라는 걸출한 신학자의 등장으로 두 나라 이론, 즉 세속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나라 이론의 흐름에 있어서 이들을 새로운 국면에 위치시키는 중요한 맥락의 변화는 바로 기독교의 주변화이다. 가톨릭이라는 헤게모니와의 대결 구도 속에서 그에 맞서는 신학체계를 정립해 나갔던 기존의 개혁신학과는 달리, 19세기의 개혁신학은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의 도전 앞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와 자연법 이론은 ‘일반은총’ 이론으로 변모하게 된다. 카이퍼는 앞선 개혁신학자들의 두 나라 개념 대신 자신만의 고유한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의 연속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일반은총 개념은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자연법을 통하여 세속국가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두 나라 및 자연법 이론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다(Van Drunen, 김남국 역, 2018b: 440, 463). 이와 더불어 카이퍼 신학에는 이전의 개혁신학 전통을 뛰어넘는 혁신적 면모도 있었음이 언급되어야 할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적 자유를 긍정하고 국가-교회에 대한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국가에 대한 사고와 단절한 점이 그 예가 될 것이다(Van Drunen, 김남국 역, 2018b: 469).

먼저 카이퍼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일반계시와 성경으로부터 오는 특별계시를 구별하고,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자연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으나, 타락 이후에는 인간의 지성 및 의지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앎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보완적이고 잠정적인 방법으로 특별계시를 시작하셨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별계시는 죄가 이 세상에 현존하는 때만을 위한 것으로서, 타락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시기를 위한 것이기에 잠정적이다. 따라서 일반계시는 정상적인(normal) 것이고 특별계시는 비정상적인(abnormal) 것이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일반은총은 홍수 사건 후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서(Kuyper, 임원주 역, 2017: 47), 인간 전체에 미치면서 죄악을 억제하지만 제거하지는 않는다. 주목할 것은 카이퍼는 일반은총을 종국적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체가 고유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Kuyper, 임원주 역, 2017: 622). 즉, 일반은총을 통해 인류는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창조시에 부여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창조 위임에 따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상이 어느 정도 성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세속의 국가도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타락과 저주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은총의 산물로 주어진 것이다(최용준, 2023: 300). 그렇기에 죄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의, 평화, 번영 등과 같은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영적인 나라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카이퍼는 ‘자연법’이라는 개념 대신 ‘하나님의 법(ordinances of Go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자연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규범으로 이해하는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본다면 양자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개인으로 축소하고 인간의 의지에 기반을 두는 사회계약론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다고 단언한다(Kuyper, 1873: 243-4). 하나님의 법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온다(Kuyper, 1873: 244).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민족들의 정치적 삶을 규율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시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존재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Kuyper, 1873: 246). 하나님의 법은 최초에 인간의 본성에 숨겨져 있다가, 인간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인식하고 사고하는 존재인 인간은 사실로부터 정치적 삶의 규범을 배우며, 그것을 배운 후에는 의식적으로 이를 실천에 옮긴다(Kuyper, 1873: 246).

하지만 죄의 현실로 인하여, 왜곡된 삶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위한 법을 드러내지 않으며, 또한 인간이 삶을 바르고 진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마찬가지로 죄는 오로지 삶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정치이론을 정초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부질없게 만든다. 그렇다고 삶에 대한 관찰을 무시하고 성경을 국가의 법으로 삼아 단순히 이스라엘의 상황

을 복제하는 국체(國體, state polity)는 어리석음의 전형이 될 것이다(Kuyper, 1873: 248). 그럼에도 성경은 근본 규범, 근원적 관계들, 인간의 삶을 규율하는 원리들,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시하고, 죄로 인해 왜곡된 삶이 더 이상 계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가운데 알리셨으며, 이는 우리의 정치적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Kuyper, 1873: 250). 하지만 그러한 원리를 현재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다양한 시대와 사람들의 본성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국가의 법률과 결정에 어떻게 표현하여야 할지 등에 관해서는, 비록 죄의 영향으로 인한 모호성과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삶의 경험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Kuyper, 1873: 250).

그러면서도 카이퍼는 정치, 학문, 교육, 예술, 상업 등 모든 문화 영역들의 ‘기독교화’, 혹은 일반은총에 대한 특별은총의 영향력을 주장하는데, 이는 일응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구별하고 각 차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의 신학체계와 정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인데, 제도로서의 교회는 조직되고 가시적인 교회공동체로서 말씀과 성례의 시행, 구제, 권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인간 사회를 기독교 신앙의 통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변혁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즉, 제도로서의 교회와 달리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일반은총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세상을 변혁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카이퍼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통한) 사회의 기독교화와 동시에 (제도로서의 교회를 통한) 국가·사회와 교회의 분리를 유지하고자 했다(VanDrunen, 김남국 역, 2018b: 459). 카이퍼가 말한 국가 혹은 사회의 ‘기독교화’가 구성원의 ‘기독교인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 혹은 사회는 일반은총 차원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사용한 이유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모두의 배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자 구원자로서 뚜렷이 구별되는 두 영역 모두를 통일적으로 붙들고 계신다(Kuyper, 임원주 역, 2017: 330). 이처럼 두 나라 신학의 기본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원론을 피하고자 했던 카이퍼의 이론은 칼빈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면모이기는 하지만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카이퍼 이후의 신칼빈주의자들은 이원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나라 범주를 거부하고 문화의 ‘기독교화’를 보다 일관되게 관철하고자 함으로써, 칼빈이나 그 이전의 개혁신학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칼빈과 카이퍼 이후

카이퍼 이후 두 나라 이론의 전개에는 칼 바르트라는 걸출한 신학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나, 그는 구원하는 은혜와 구별되는 보존하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카이퍼의 신학과는 현저히 구별된다. 물론 국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정치 영역에서 간접적으로만 혹은 익명으로만 기독교를 제시해야 하며, 국가-교회 혹은 기독교 정당 조직도 반대했다는 점에서는 카이퍼까지 이어진 개혁신학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두 나라와 자연법 이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철저히 밀고 나간다(Van Drunen, 김남국 역, 2018b: 487). 즉, 창조질서에 속한 세속적 국가와 구속질서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와 독립된 그 어떠한 지식(자연법)도 존재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은 배격된다. 전반적으로 두 나라 이론에 관한 한 바르트는 개혁신학의 전통으로부터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카이퍼의 개혁신학은 도예베르트(Dooyeweerd)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북미의 개혁신학자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신칼빈주의(Neo-Calvinism)’로 일컬어지는 이 신학은 두 나라를 지양하고 ‘한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들은 과거의 개혁신학이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구별하고, 각각을 일반은총의 차원과 특별은총의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전자의 독자적 목적과 원리를 인정해왔던 것과는 달리, 최근의 신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세상 전체는 창조의 회복이자 구속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개혁하고 구속할 사명이 부여되고, 이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도록 한다. 즉, 문화활동 자체가 종말론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카이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군의 신학자들, 이를테면 반틸(Cornelius Van Til), 바빙크(Herman Bavinck),² 스킬더(Klaas Schilder), 호스마(Herman Hoeksema) 등은 일반은총론을 더욱 정교하게 전개해 나갔다. 이들이 일반은총 개념을 수용하는 적극성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고 심지어 부정하기도 하지만(송인규, 2012: 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칼빈을 뿌리로

2) 바빙크는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을 가장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글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Bavinck, 박하림 역, 2021: 41).

“하나님께서서는 죄가 그 파괴적인 일을 행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고, 타락 후에도 계속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창조 사이에 일반은총, 즉 진정으로 새로워지지는 않지만 제약하거나 강제해주는 은혜를 끼워 넣으셨습니다. 선하고 진실한 모든 것이 이 은혜 안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심지어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이 거할 처소도 주시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고 카이퍼의 일반은총 개념에 기대어 논지를 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반틸의 경우에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계에 있어서 카이퍼와 사뭇 대조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즉, 카이퍼는 특별은총이 일반은총의 영역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촉진한다고 본 반면, 반틸은 역사의 진행에 따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심화되며 결국 공통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특별은총은 일반은총을 소멸시켜 나간다고 보았다(Van Til, 정성국 역, 2022: 203).

하지만 클라인의 경우에는 반틸의 영향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카이퍼로 이어지는 초기 개혁신학의 두 나라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접근방법은 반드루넨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인데, 이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수행된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영역을 구별하고, 일반은총의 근거를 창세기 1장의 창조언약과 9장의 노아언약에서 찾는다. 그는 일반은총이 인류에 대한 저주를 제한하는 재갈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도입되었고, 중간 역사 단계를 구속 계획이 펼쳐지는 장으로 만들어 준다고 보았다(Kline, 김구원 역, 2012: 210). 창세기 3:16-9의 일반저주로 인해 자연적·사회적 악들이 존재할 것이나,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손은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일반저주를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다(Kline, 김구원 역, 2012: 210-1). 그리고 신칼빈주의자들이 의미있게 여기지 않았던 자연법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로마서 2장에 근거하여 이를 신학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다.

4. 소결

노아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선택하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갖는 공동체를 승인하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 펼쳐지게 될 공간을 여는 것이었다. 이 잠정적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가정과 국가를 이루어 삶을 이어가며 문화적 성취도 이루어가고 있다. 이 공동체는 세속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이처럼 노아언약을 근거로 세속의 정치공동체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그 목적과 기능의 독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성경해석은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을 통해 신학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은 칼빈에 의해서 정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칼빈의 두 나라 이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그 주된 의의가 세속국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이원론을 배격하고 세속국가를 변혁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있는지에 대해

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 9장의 노아언약의 해석에서 도출되는 세속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정합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이퍼의 일반은총론 역시 노아언약을 해석하는 틀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는 저서 ‘일반은총론’에서 일반은혜 교리의 출발점으로서 노아 언약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룬다. 하나님께서 종국적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신 ‘유예와 보존’은 ‘구속과 구원’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은혜라 할 것이고, 카이퍼는 이를 ‘일반은총’으로 관념하였다. 특히 개혁신학자들의 자연법 이론은 하나님께서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연법’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으며,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제도와 활동을 다스리신다고 설명하였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동시에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법은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다스리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연법론과 두 나라 이론이 연결된다(Van Drunen, 김남국 역, 2018b: 14).

칼빈과 카이퍼 이후 두 나라 이론은 그 이원론적 측면으로 인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지난 세기의 개혁신학, 즉 신칼빈주의는 창조질서의 ‘보존’이 아니라 창조질서의 ‘구속’을 향하여 나아감으로써 문화의 변혁과 구속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카이퍼의 일반은총론도 여러 칼빈주의자들을 거치며 긍정과 반박을 통하여 정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과 카이퍼의 두 나라 이론 및 일반은총론은 오늘날에도 국가와 법을 법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하에서 짚어볼 몇 가지 지점에서 그러하다.

먼저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인 교회와 칼을 지닌 강제적인 국가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속의 칼, 즉 권력, 법, 폭력을 동원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왔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시도는 교회를 세속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은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국가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본분을 지키도록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은 자연법과 연결됨으로써, 세속의 권력과 법이 정의와 평화의 담지자이자 문화적 탁월성을 촉진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자침을 제시하고 있다.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은 결코 기록에 도달할 수 없으며 구원을 가져다줄 수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속의 공동체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의와 선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속의 권력과 법을 거룩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세속의 권력과 법이 하나님의 공의에 결코 미치지 못함을 의식하며 비판적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 보편성과 일반성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공통성(commonness)이 되는데, 이른바 후기 기독교(Post-Christendom) 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법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좋은 공통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통의 토대는 기독교적 국가·사회 혹은 크리스텐덤에서 살아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달고 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에는 자연법이라는 토대가 분명히 남아있고,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법의 보편적 증거로 인해 국가는 도덕이나 선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 공통의 토대 위에서 보편적으로 정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일반은총의 세속적 질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된다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은총 하에 있는 세속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 계속해서 침범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침투 가운데 성과 속, 즉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이 땅 어디에서나 공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결정적인 침범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일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과 일반은총론은 세속의 나라 속에 존재하는 거룩한 나라가 가지는 예외적이고 침입자적인 성격(Kline, 김구원 역, 2012: 215),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의 통치를 세속의 나라로 침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정치공동체에 좋은 시민으로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의롭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IV. 세속의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법의 기능: 형법을 중심으로

이제 앞서 검토한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두 나라 신학을 세속법이 갖는 기능에 비추어 보고자 한다. 세속법의 기능에 대한 이해, 즉 세속법은 도덕과 윤리 규범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익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국가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이다. 만약 전자로 이해한다면 국가는 법을 통하여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보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는 도덕적 이상뿐 아니라 종교적 이상이 담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공동체의 이상을 법과 강제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정치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자로 이해한다면 국가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간 외부적·현실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여할 뿐 그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에는 국가의 역할을 질서와 안전의 유지 정도로 묶어두려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속법의 기능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국가가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어느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앞서 살펴본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 및 두 나라 신학에 따른 세속적 정치공동체의 역할 및 기능과 대체로 일치한다면, 앞서의 성경적 및 신학적 설명체계가 현실의 국가와 법을 이해하는데 적실한 것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속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바를 관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아언약을 통해 부여하신 보존의 일반은혜가 세속의 정치공동체, 즉 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형법이라는 강제력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자신의 ‘세속적’ 성격을 어떻게 견지해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당위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 노아언약 이래 보존의 은혜를 누리는 세속의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비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공통성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호의적 대화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노아언약과 두 나라 신학 모두 두 영역 혹은 두 차원의 구별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이 둘이 맞대고 있는 경계에서는 격렬한 상호작용 혹은 상호침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의 법역과 법률을 두고 법의 기능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다소 추상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의 기능과 임무에 대한 고찰이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법을 중심으로 세속의 법이 자신의 과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근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 세속화된 국가가 교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면서 형성된 법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이에 이하에서는 형법을 중심으로 세속법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아언약과 두 나라 신학이라는 성경적·신학적 설명 틀이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논한 후에, 이러한 체계적 이해에 따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제안하도록 한다.

1. 사회윤리보호주의와 법익보호주의

형법학에서는 형법의 과제 혹은 임무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사회윤리보호주의와 법익보호주의가 대립해 왔다. 먼저 법익보호주의는 범죄의 본질을 법익 침해 혹은 법익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

는데, 여기에서 ‘법익(Rechtsgut)’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가 평화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인 생활이익 중에서 특별히 법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이용식, 2001: 277). 즉,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조건들, 예컨대 생명, 신체, 재산 등과 같은 실존조건이나 생활이익을 의미한다(이용식, 2001: 278). 물론 법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논쟁적이라는 점은 이 입장이 갖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양천수, 2014: 123). 그렇지만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즉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형법이 합리화되면서 형법이 점점 윤리나 종교 문제와 거리를 두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입장이 지향하는 것은 명확하다. 형법은 풍속범이나 종교범을 범죄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적 권리, 특히 자기결정·자기처분·자기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성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양천수, 2014: 125).

반면 사회윤리보호주의는 범죄의 본질을 사회윤리규범의 위반으로 파악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생명, 건강, 자유, 재산 등의 보호에 앞서 적극적인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국가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보다 더 강력한 토대이기 때문이다(이용식, 2001: 279). 단순한 법익보호는 단지 소극적·예방적 목적을 갖는데 불과하지만, 형법의 보다 더 심오한 임무는 적극적·사회윤리적 속성을 갖는다(이용식, 2001: 279). 사회윤리보호주의는 칸트와 헤겔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칸트에 따르면 범죄는 ‘도덕적 세계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정의의 요청에 따라 여기에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헤겔에 따르면 범죄는 정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형벌은 법을 부정한 범죄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형법학자의 대다수는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와 사회윤리보호 모두에 있다고 본다. 즉, 사회윤리규범 위반과 법익침해 결과 혹은 위협이라는 두 측면 모두가 인정될 때 비로소 형법상 범죄로의 불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형법은 사회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회윤리적 판단을 형성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김성돈, 2014: 39). 그러나 사회윤리규범 위반만으로 가벌성을 근거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덕·윤리 혹은 신의 뜻이 범죄화의 근거가 되었을 때 피하기 어려운 자의적이고 직관적인 형벌권 행사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형법이 양심의 법정을 대신하거나 형법의 도덕화 경향을 부추기게 될 위험이 있다(김성돈, 2014: 39). 이러한 형법의 운용을 도덕형법 혹은 심정형법이라고 부른다. 물론 법감정(Rechtsgefhl)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정당성과 타당성에 확신을 더해주는 직관이기는 하지만(임웅, 1998: 87), 이것이 불법성과 가벌성의 유일한 혹은 주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형벌권은 국민의 총의에 근거하는 것이란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 더구나 형법은 국민에게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사회통제의 최후수단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윤리규범에 반하는 지극히 다양한 양상의 행위들 중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익침해라는 외부적 결과의 발생 혹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윤리규범에는 반하지만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대체적 합의이다. 이 점은 현대 형법학의 큰 흐름인 ‘형법의 자유화 혹은 탈윤리화’의 주요 동인이기도 하다.

2. 검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형법상 범죄를 (당연하게도) 윤리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한 행위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경에서 정죄하는 행위’로 곧장 연결시키는 주장이 드물지 않다. 예컨대, 성, 혼인 혹은 가족과 관련된 여러 범죄들, 이를테면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낙태죄 등에 대한 비범죄화와 관련하여, 많은 교회 및 기독교단체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행위들은 성경에서 죄악시 되는 행위인데,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됨으로써 윤리적 퇴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낙태죄의 문제는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것으로서, 단지 가족의 문제를 넘어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계의 입장은 더욱 완강해 보인다.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에 대한 한 연구(이경직, 2007: 64)에서는, 한국 기독교인은 낙태율에 있어서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하여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 기독교의 규범은 그 자체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낙태 여성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종교와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본고에서 살펴본바 개혁신학의 오래되고 일관된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서 거론한 범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민법상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는 보수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왔다(세계일보 2017. 12. 4. 기사). 또한 국가가 범죄와 형벌로서 규율하기를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가 계도, 권징 등의 수단을 통하여 문제적 행위의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노컷뉴스, 2015. 3. 9. 기사). 작금의 비범죄화 흐름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성경에 근거한 원칙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비범죄화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고 윤리적인 삶은 교회의 권한과 관심이 미쳐야 마땅한 영역이다. 그

러나 가르침과 권면을 넘어서, 개혁신학자들이 일관되게 가르쳐온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칼’, 즉 강제와 폭력을 사용하는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규범의 도덕적·윤리적 측면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규범과 연결되고, 더 이상 타협과 조정이 불가능한 절대적 신념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자주 목도된다. 물론 형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을 수반하는 법률을 통하여 사회윤리와 도덕을 보호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도 부인하기 어렵다(정현미, 2011: 150). 일종의 위하적 효과를 통한 범죄억제를 기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속국가의 법에는 성경적 원리와 상통하는 법리나 제도도 존재한다. 형법상 타인의 중대한 법익이 현재의 위난에 처한 때 자신에게 현저한 위험이 없이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경우에 긴급구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하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형법의 예(임웅, 2023: 602)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구현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불법성에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형벌의 부과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형벌의 지도원리인 죄형법정주의, 특히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무엇보다도 법공동체가 공감하지 못하고 설득되지 않는 범죄화는 (낙태죄의 예에서 보느냐와 같이) 형벌권의 불행사로 인해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거나 사실상 규범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³ 근본적으로 과연 국가가 도덕·윤리 위반을 근거로 형벌을 가해도 될 만큼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 만약 형벌의 근거가 초월자의 뜻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국가는 이를 대언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임이 자명하다. 국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개혁신학의 확신은 세속의 정치공동체와도 공유되는 것이고, 세속의 법도 자신의 과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형벌의 기능을 사회윤리규범의 보호라는 관점에 치우쳐서 보는 것은 형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이를 ‘도덕적 세계질서’로, 헤겔은 ‘국가기성’이라고 표현한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세속의 정치공동체가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윤리적 이상은 노아언약을 통해 약속된 보존의 복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모든 인간의 양심이 공유하는 자연법과 대체로 일치할 것이다. 만약 형벌을 수단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윤리규범을 그 이상의 수준으로까지 고양하고자 한다면 이는 두 나라 혹은 두 영역 각각

3)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불합치 결정). 그러나 국회는 위 시한에 이르기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폐기된 상태이다.

의 독립적 목적과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그르친 결과는 생각보다 나쁜 것일 수 있는데, 중세의 야만적이고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에까지 거슬러 오르지 않더라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법이라는 칼을 사용하여 공동체 전체를 신학적 이상으로 이끌어 가고자 했던 시도는 교회의 역사에 결코 사소하지 않은 과오를 남겼다. 형법학계의 논의가 사회윤리보호 기능에 치우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법익보호 기능을 통하여 그 세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세우는 이유도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형법상 도덕·윤리규범적 성격을 갖는 여러 범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자연법에 대체로 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준수를 형벌을 통하여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는 법공동체의 동의와 공감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국민의 총의 뿐 아니라 이른바 법감정으로 표현되는 전반적인 국민의 공감대도 포함된다.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공통성 차원에서 이들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수준에서 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속의 정치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정의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지워져 있고, 이를 넘어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권력을 위임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 잠정적 시공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본고의 연구는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존재 및 기능을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는 노아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존적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존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세속의 공동체가 정치와 법을 통하여 ‘구속적 통치’ 혹은 ‘구원의 복’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국가와 법이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달성은 결코 ‘최대’가 아니고, 응보적 정의,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요구되는 수준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그 이상의 도덕적 목적, 이를테면 거룩과 성결의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국가’ 혹은 ‘기독교 정치’의 이상이 내용적 및 수단적 측면에서 견지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

노아언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이 주는 통찰과도 부합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일반은혜에 의해 보존되는 창조질서에 기반하여 개혁신학적 사회사상을 정초한다. 무엇보다도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칼을 지닌 강제적 국가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각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 그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법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공통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통의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문화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수용하고 국가-교회를 부인하는 오늘의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 개혁신학 전통의 두 나라와 자연법 이론은 세속의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법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체계와 개념을 제공한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바라보는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개혁신학의 통찰은 법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기능에 대한 고찰과도 공명하는 것이어서, 세속법에 대한 법신학적 이해를 더욱 명쾌하고 풍부하게 한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기능에 관한 논의, 즉 그 기능이 사회윤리 규범을 보호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는지의 문제는 세속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또한 소극적으로 한계지우고 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법을 통해 타락한 본성을 정화하거나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국가의 역할과 작용은 일반적 은총의 영역에서의 보존과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법학계의 논의도 사회윤리보호 기능에 치우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법익보호 기능을 통하여 그 세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는 노아언약의 성경신학적 함의와 두 나라 신학의 개혁신학적 통찰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비록 형법상 도덕·윤리적 성격을 갖는 여러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자연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차원에서 또한 공동체로부터의 위임 차원에서 분명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위반하여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권력을 위임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동시에 세속의 나라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 각각에 합당한 방식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궁극적으로 또한 영속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잠정적으로 또한 일시적으로는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속의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의 나라에 고유한 목적과 기능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 본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되, 이 공동체에서 자신이 일시적인 거주민이자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정치와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은 악의 중력을 억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저 잠시 이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로서 주저앉는 세상을 힘껏 붙잡는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땅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환영하고 향유하며, 비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이 그 정의와 평화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참여하되, 여기에 내재된 타락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담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예언자의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신학자들이 통찰한 바와 같이, 언젠가 노아언약에 따른 일반은총의 보존과 유지는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인데, 그 때까지 이 잠정적 시공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신실한 현존(Hunter, 배덕만 역, 2014: 353)’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혁민 역 (2012). **문화와 일반 은총: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Mouw, R. (2001). *He Shines in All That's Fair*. 서울: 새물결플러스.
- 김구원 역 (2012). **하나님 나라의 서막: 언약적 세계관을 위한 창세기적 토대**, Kline, M. G. (1993). *Kingdom Prologue*.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성돈 (2014). **형법총론**(제3판). 서울: SKKUP.
- 김대웅 역 (2022). **기독교 강요**, Calvin, J. (2014).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복 있는 사람.
- 김남국 역 (2018a). **언약과 자연법: 자연법에 대한 성경신학적 연구**, Van Drunen, D. (2014). *Divine Covenants and Moral Order: A Biblical Theology of Natural Law*. 서울: 부흥과개혁사.
- 김남국 역 (2018b). **자연법과 두 나라: 개혁과 사회사상의 발전에 대한 연구**, Van Drunen, D. (2009).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서울: 부흥과개혁사.
- 박문재 역 (2020). **기독교 정치학: 기독교 세계 이후 다원주의 시대의 정치신학과 정치윤리학 연구**, Van Drunen, D. (2020). *Politics after Christendoom: Political Theology in a Fractured World*. 서울: 부흥과개혁사.
- 박하림 역 (2021). **헤르만 바빙크의 일반은총**, Bavinck, H. (1894). *De Algemeene Genade*. 경기: 다함.
- 배덕만 역 (2014).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Hunter, J. D. (2010). *To Change the World: the Irony, Tragedy and Possibility of Christianity in the Late Modern World*. 서울: 새물결플러스.
- 송인규 (2012).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서울: 부흥과개혁사.
- 윤석인 역 (2012).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균형잡힌 기독교인의 삶**, Van Drunen, D. (2010). *Living in God's Two Kingdoms: A Biblical Vision for Christianity and Culture*. 서울: 부흥과개혁사.
- 임웅 (2023). **형법총론**(제13판). 파주: 법문사.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정성국 역 (2022). **개혁주의 일반 은총론**, Van Til, C. (2015). *Common Grace and the Gospel*.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 김영철 (1984a). 노아 홍수의 성경 신학적 의미 (1). **신학정론**, 2(1), 60-81.
- 김영철 (1984b). 노아 홍수의 성경 신학적 의미(II). **신학정론**, 2(2), 233-255.
- 김요섭 (2022). 그리스도 왕국의 두 통치: 칼빈의 정치신학의 기본 개념 연구. **역사신학논총**, 41, 9-49.

- 김종원 (2016). 개혁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예베르트 철학에서 국가 개념 연구: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신앙과 학문**, 21(3), 61-89.
- 서윤발 (2021). 국가 중립성 논의와 정교분리. **신앙과 학문**, 26(2), 139-162.
- 손석태 (2014).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사상의 기원과 배경. **개신논집**, 14, 1-22.
- 양천수 (2014). 윤리적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인권 이론과 실천**, 14, 119-130.
- 이경직 (2007).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기독교와 철학**, 8, 63-93.
- 이용식 (2001). 형법의 임무- 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피해자학연구**, 9(2), 275-301.
- 이희성 (2018). 구속사의 맥락에서 본 노아언약: 성경신학적 접근. **신학지남**, 85(4), 7-32.
- 임웅 (1998).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1, 85-104.
- 정현미 (2011). 낙태규제에 있어서 형법의 효용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16(2), 139-158.
- 최용준 (2023).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8(1), 297-314.
- Van Drunen, D. (2010). *Living in God's Two Kingdoms: A Biblical Vision for Christianity and Culture*. Illinois: Crossway.
- Van Drunen, D. (2010).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Reformed Social Thought*.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 Van Drunen, D. (2014). *Divine Covenants and Moral Order: A Biblical Theology of Natural Law*.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
- Van Drunen, D. (2020). *Politics after Christendom*. Michigan: Zondervan Academic.
- Vos, G. (2021). *Biblical Theology*. North Haven: Independently published.
- Kuyper, A. (1873). The Ordinances of God. in: Skillen, J. W. & McCarthy, R. N. (1991). *Political Order and the Plural Structure of Society*. Georgia: Scholars Press for Emory University.

노아 언약과 두 나라 이론에 비추어 본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성경적·신학적 의의*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litical Entity and Law in Light of Noah Covenant and the Two Kingdoms' Theory

조 해 신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고의 연구는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존재 및 기능을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는 노아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존적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존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세속의 공동체가 정치와 법을 통하여 '구속적 통치' 혹은 '구원의 복'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국가와 법이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달성은 결코 '최대'가 아니고, 응보적 정의,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요구되는 수준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그 이상의 도덕적 목적, 이를테면 거룩과 성결의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국가' 혹은 '기독교 정치'의 이상이 내용적 및 수단적 측면에서 견지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

노아언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이 주는 통찰과도 부합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일반은혜에 의해 보존되는 창조질서에 기반하여 개혁신학적 사회사상을 정초한다. 무엇보다도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칼을 지닌 강제적 국가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각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 그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법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공통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통의 토대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문화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수용하고 국가-교회를 부인하는 오늘의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 개혁신학 전통의 두 나라와 자연법 이론은 세속의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법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체계와 개념을 제공한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바라보는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개혁신학의 통찰은 법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기능에 대한 고찰과도 공명하는 것이어서, 세속법에 대한 법신학적 이해를 더욱 명쾌하

고 풍부하게 한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기능에 관한 논의, 즉 그 기능이 사회윤리규범을 보호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는지의 문제는 세속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또한 소극적으로 한계지우고 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법을 통해 타락한 본성을 정화하거나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국가의 역할과 작용은 일반적 은총의 영역에서의 보존과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법학계의 논의도 사회윤리보호 기능에 치우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법익보호 기능을 통하여 그 세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는 노아언약의 성경신학적 함의와 두 나라 신학의 개혁신학적 통찰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비록 형법상 도덕·윤리적 성격을 갖는 여러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자연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언약 차원에서 또한 공동체로부터의 위임 차원에서 분명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위반하여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 권력을 위임한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아언약, 두 나라 이론, 세속법, 세속의 정치공동체, 일반은총

기독교 관점에서 본 해결중심치료: 적용과 한계*

Solution-Focused Therap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홍구화 (Gu Hwa Hong)**

ABSTRACT

This study will analyze solution-focused therap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nd provide insight on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Solution-focused therapy has been more evidence based since its development from the influence of the constructivist and social constructivist psychology in the post modernist trend. Solution-focused therapy assumes that humans have strengths, wisdom, and experience for change and aims to build solutions through solution-focused questions and dialogue. Specific techniques include asking questions about pre-session change, setting solution-focused goals, miracle question, scaling questions, constructing solutions and exceptions, coping questions, taking a break and reconvening, and assigning experiments and homework assignments. In order to apply solution-focused therapy to Christian counseling, the reductionist characteristics of solution-focused therapy and the following limitations need to be recognized and complemented: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of counselor's attitude, the view of human being, no concept of growth, solutions limited to the present life, not dealing well with the past, ignoring confrontation, interpretation, and resistance, and overlooking the benefits of psychological testing.

Key words: solution-focused therapy, Christian counseling, constructivism, social constructivism

* 2023년 11월 8일 접수, 11월 30일 최종수정, 12월 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3년 10월 28일 백석대학교 방배캠퍼스에서 실시한 복음주의신학회 제 81차 정기논문발표회에서 발표한 "해결중심 치료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고찰"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Hapdong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상담학 부교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0, gyi4@hotmail.com

I. 들어가며

해결중심 단기치료는 1980년 초에 등장한 이래 상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Gingerich, 2000, 2013 ; Kim, 2008 ; Kim et al., 2019)와 학교(Franklin et al., 2001 ; Franklin et al., 2008 ; Gong & Hsu, 2017), 병원(Zhang et al., 201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모델로 발전해 왔다. 해결중심치료는 해결중심 단기치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접근들을 접목하고 포함시키는 해결중심/지향 접근으로 확장되어 왔다(최중진, 2017). 해결중심치료는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속성상 단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동안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Daki & Savage, 2010 ; Knekt et al., 2013 ; Novella et al., 2022 ; Paul et al., 2013), 약물중독(Franklin & Hai, 2021 ; Kim et al., 2018 ; Smock et al., 2008), 지적 장애(Roeden et al., 2014), 가정폭력(Lee et al., 2004 ; Milner & Singleton, 2008), 부부관계(Jalali et al., 2018) 등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대상 연령도 다양해서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Alguzo & Jaradat, 2021 ; Naela & Abdul-Kareem, 2021 ; Perkins, 2006) 및 대학생(Novella et al., 2022)들을 포함한다. 상담 형태는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가족 상담(Bond et al., 2013 ; Jalali et al., 2018)과 집단상담(Carrera, et al., 2016 ; Smock et al., 2008)의 효과성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국내 정문자와 김윤경(2010)의 연구에서도 해결중심치료의 효과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결중심 치료를 주 모델로 사용하는 가족치료 연구소 한 곳에서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상담한 290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료의 효과성 파악을 위해 2009년에 종결된 20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결 후 3, 6, 9, 12개월에 치료 효과의 유지 등에 대한 전화 면담을 한 결과, 주 호소 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보고한 내담자가 가장 많았다. 문제 해결 만족도 질문에 응답한 15개의 사례 중 14개의 사례에서 상담 종결 시 만족도 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되었다.

최중진(2021)이 200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해결중심치료는 상담가들에 의해 다양한 대상들을 돕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간 발표된 해결중심치료를 분석한 김은영(2007)의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나 최중진(2021)의 연구에서는 약 14년간 총 111편의 연구가 포함되어 해결중심치료에 대한 연구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상담 현장에서 해결중심치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연구 수의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상담(14편)과 가족상담(13편)에 비해 집단상담(59편)에서 해결중심치료를 활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집단상담의 대상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45.8%). 또, 김현수 등(2018)에 따르면 해결중심치료에 관한 연구는 연구 이전 10년간 ‘가족과 가족치료’에 발표된 단일 치료개입모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해결중심치료는 여러 상담 형태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돕는 주요 상담 모델로 발전되어 왔고 근거 기반도 확장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et al., 2019). 이런 흐름 속에서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에 접목하여 상담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해결중심치료를 목회 상담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며 그 유용성과 한계를 제시하는 연구(장명수, 2007), 심리적 위기를 위해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하는 기독교 상담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해결중심치료와 기독교의 통합적 관점에서 제시한 연구(장명수, 2011), 해결중심치료의 한계를 복음적 선포를 내포하는 케리그마 언어와 접목하여 극복할 것을 제시한 연구(장명수, 2014), 종교적 영적 관심을 가진 내담자들에게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 연구(Guterman & Leite, 2006), 통합적 심리영적 치료 모델에 대한 Alton(2020)의 연구 등이 그 예이다. 이 연구들은 해결중심치료가 기독교인 내담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상담과 목회 상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나름의 방법들을 제시한다. 해결중심치료를 사별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목회 상담에 적용하였을 때 애도 과정의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Yuan, 2015).

그러나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상담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하는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결중심치료를 탈근대주의와 인본주의의 소산이라고 기독교 상담에서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일반은총 교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다. 해결중심치료를 무비판적으로 기독교 상담에 사용하는 것 또한 해결중심치료가 기독교 세계관과 충돌하는 점들이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다.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이 양극단을 방지하고 기독교 상담에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가능한지 검증하고 한계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본 연구는 먼저 해결중심치료의 역사와 기본 원칙 및 기법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관점에서 해결중심치료의 가정과 전제들을 분석하고 기독교 상담에서의 적용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결중심치료의 역사와 기본 가정

해결중심치료는 탈근대주의의 흐름 속에서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초에 미국 위스컨신 주의 밀워키에 있는 단기가족치료센터(Brief Family Therapy Center, BFTC)의 Steve de Shazer(1985, 1988)와 Insoo Kim Berg(1994) 및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Berg & De Jong, 1996 ; Berg & Miller, 1992 ; Lipchik, 2002 ; Murphy, 1996)에 의해 발전하였다. 해결중심치료의 개발에는 Milton Erickson과 캘리포니아 주 펠로 엘토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Mental Research Institute, MRI) 안에 있던 단기치료센터(Brief Therapy Center)의 영향이 컸다(de Shazer, 1988).

Milton Erickson의 영향으로 해결중심치료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de Shazer, 1985). 펠로 엘토의 단기치료센터의 치료자들은 내담자 문제 주변이나 그 뒤, 혹은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기 보다는 내담자의 주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든, 혹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아주 먼 것이든 상관없이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였다. 어떤 환경에서 문제는 특정한 생활 문제나 종종 정상적인 생활문제로부터 생겨나고 유지되며 그 문제가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 이성이나 논리, 관습 또는 상식에 따른 다양한 해결책을 적용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에 같은 해결책을 반복하면 문제가 고착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 접근이 논리적이고 옳았다 해도 당장 그만두거나 심지어 뒤집어서 시도되었던 해결책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문제를 유지하는 피드백 고리가 일단 변화하면 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가정하였다. 단기 치료의 중심 철학은 다음과 같았다: (1) 고장이 아니면 고치려 하지 마라. (2)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다시 하지 마라. 다른 것을 하라. (3) 일단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Cade, 2007: 66-67).

단기치료자들은 또한 치료자가 신중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지고 Milton Erickson이 말한 ‘알지 못하는’(not-knowing) 자세를 취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치료자가 이러한 자세를 취할 때 내담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안에 있어서 좀 더 창조적인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치료자가 내담자보다 상담이나 상담의 성과에 대해 더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일 때에만 변화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Cade, 2007: 69-71).

초기의 밀워키 단기 가족치료센터의 해결중심 단기 치료는 펠로 엘토의 단기치료센터와 비슷하게 문제 중심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단기 치료센터가 이미 실패한 대인관계 패턴을 중단시키

는 것에 치료 목표를 두었던 것과 달리 단기 가족치료센터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생태체계 접근을 하였고 내담자와의 협력관계를 더 중요시했다. 또, ‘가족은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었고 치료자와 내담자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탈근대주의의 영향으로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가 가족치료 영역에서 지배적이었던 것과 연관되었다(Lipchik, 2002: 36-37).¹ 또, 문제를 명료화하거나 실패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해결책을 알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 내담자의 문제와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de Shazer와 Berg는 내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 주목하여 단기치료가 가지고 있는 중심 철학의 순서를 바꾸어 이를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기본 철학으로 받아들였다(de Shazer & Berg, 1995: 252): (1) 고장이 아니면 고치지 마라. (2) 일단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이 하라. (3)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다시 하지 마라. 다른 것을 하라.

de Shazer는 또한 내담자의 삶에서 이미 기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강조했다. 또, 어떤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만능열쇠와 같은 개입 공식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을 추구하여 다음과 같이 개입 공식을 제시하였다(de Shazer & Berg, 1997: 123): (1) 첫 회기 중에 치료자는 ‘기적 질문’을 한다. (2) 첫 회기와 그다음 몇 회기 안에 적어도 한번 내담자에게 ‘0-10’ 또는 ‘1-10’의 척도 위에 점수를 매기도록 질문한다. (3) 치료자는 매 회기마다 휴식 시간을 갖는다. (4) 휴식 시간 이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돌아와 칭찬을 하고 제안이나 과제(종종 ‘실험’이라고 부르는)를 제시한다. 이러한 개입 방법들은 내담자의 병리적인 문제를 탐색하거나 진단하기보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것, 현재에 효과가 있는 것, 미래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고 내담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변화는 불가피하며 내담자는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내담자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Cade, 2007: 77).

해결중심 상담자들의 임상과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해결중심 단기치료 협회가 결성되었고 해결중심 단기치료 매뉴얼도 업데이트 되어 2판이 나왔다(Bavelas et al., 2013). 이 매뉴얼을 통해 해결중심치료의 주요 개입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치료자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이고 해결중심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해결중심치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 지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치료 모델들이 ‘저항’이라고 보는 것들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기제 또는 조심하고 천천히 가고자 하는 현실적인 바람, 혹은 치료자의 잘못, 즉 내담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개입으로 본다(Bavelas et al., 2013: 11).

1) 탈근대주의인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이 해결중심치료에 미친 영향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둘째, 이전에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책들과 예외들을 찾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성공적인 해결책을 계속 사용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예외는 문제가 발행할 수 있었는데 발생하지 않았던 때를 의미한다. 과거의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예외상황에 대한 최근의 예들을 가지고 있다(Bavelas et al., 2013: 11).

셋째, 모든 치료 모델에서 질문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해결중심치료는 특히 질문을 주요 의사소통과 개입 도구로 사용한다. 해석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내담자를 도전하거나 직접 직면하는 것도 극히 드물다. 질문은 거의 항상 현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나 이미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과거에 대한 질문은 내담자가 유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또는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 과거의 어떤 강점이나 자원을 끌어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질문은 과거와 문제의 근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미 효과가 있는 것과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는 기본 신념을 반영한다(Bavelas et al., 2013: 11-12).

넷째, 칭찬은 또 하나의 핵심적인 기법이다. 칭찬은 치료자가 경청하고 있고 내담자를 돌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내담자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타당화해 준다. 또한 칭찬으로 치료자가 내담자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내담자의 변화를 촉진해 준다(Bavelas et al., 2013: 12).

다섯째, 문제에 대한 과거의 해결책이나 예외를 발견했으면 효과 있는 것들을 좀 더 하도록 하거나 그들이 시도해 보고 싶은 변화, 즉 실험을 시도해 보도록 유도한다. 내담자의 과거 해결책이나 예외에 기초하지 않은 제안이나 과제를 치료자가 내주는 일은 거의 없다. 변화에 대한 아이디어나 과제는 대화 중에 최소한 간접적으로 치료자가 아니라 내담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Bavelas et al., 2013: 12).

구체적인 기법들로는 첫 회기 전 변화에 대한 질문, 해결 중심적 목표 설정, 기적 질문, 척도질문, 해결책과 예외를 구축하기, 대처질문, 휴식과 재소집, 실험과 과제 부여 등이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 첫 회기 전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치료자는 첫 번째 회기 초반에 상담 약속을 하기 위해 전화를 한 이후 내담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내담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거나 변화가 일어나거나 좋아졌다고 하거나 비슷하다고 답할 수 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각각의 반응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목표를 이끌어내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강조하며 과거의 해결책과 예외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해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Bavelas et al., 2013: 12).

둘째, 해결 중심적 목표 설정을 할 때에는 큰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를 도출하도록 한다. 내담자로 하여금 목표를 문제가 없는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하지 않고 해결책이 존재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또, 목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정기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해결 중심으로 목표가 설정되면 척도화하기 쉬울 수 있다(Bavelas et al., 2013: 13). 목표는 구체적이고 성취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내담자의 실재를 고려해야 한다(Thomas와 Nelson, 2007: 38-39).

셋째, 기적 질문은 밤사이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때 다음 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즉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면 무엇이 달라져 있었냐고 묻는다. 기적 질문은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내담자의 목표를 묻는 방법이다. 기적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좀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목표를 생각해 낼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에 대해 가상 여행 연습을 해 보게 한다. 기적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치료자와 함께 도출해 내는 것은 목표로 설정하기 쉽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는지 묘사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미래를 깨닫게 해 주는 예외와 과거 해결 행동들에 대해 좀 더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다(Bavelas et al., 2013: 13-16).

넷째, 척도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직접 목표를 설정하였던 기적 질문을 통해 설정하였던 목표 설정 뒤에는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첫 번째 회기에서 0-10 척도로 내담자가 선호하는 미래를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정도를 묻는 것은 변화를 위한 동기를 측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0-10 척도로 물어볼 수 있다. 척도질문을 매 회기마다 사용하면 내담자는 자신의 발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치료자의 평가보다 내담자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척도질문은 이전의 해결책과 예외들에 대화를 집중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력한 기법이다. 치료자는 척도상의 차이를 통해 드러난 내담자가 이룬 작은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점점 더 수집하여 질문을 만든다. 치료자는 자연스럽게 내담자로 하여금 효과 있는 것들을 계속하도록 제안하게 된다(Bavelas et al., 2013: 16-18).

다섯째, 상담자는 해결책과 예외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한다. 상담자는 과거의 해결책, 예외,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에 거의 모든 회기를 보낸다. 이것들을 발견하면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해 주고 해결 대화가 계속 중심이 되도록 한다. 해결중심 치료는 전통적인 문제 중심의 상담에서 사용되는 기술들과 전혀 다른 다양한 기술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전통적인 문제 중심의 치료들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에 관심을 두는 데에 비해 해결 중심 치료는 발전과 해결을 보여주는 징후에 관심을 둔다(Bavelas et al., 2013: 18-19). Thomas와

Nelson(2007: 42)은 예외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내담자에게 이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담자에게 있다는 것을 상담자가 믿는 것이라고 한다.

여섯째, 대처 질문은 내담자가 문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고할 때 어떻게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지금 정도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Bavelas et al., 2013: 19).

일곱째, 해결중심 상담자들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휴식을 갖도록 권장된다. 팀이 있다면 상담자에게 피드백과 내담자를 위한 칭찬 목록과 내담자의 강점, 과거 해결책, 또는 예외에 기초한 개입 방법들에 대한 제안을 제공해 준다. 팀이 없어도 상담자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칭찬과 가능한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위해 휴식을 갖는다. 상담자는 회기에 돌아와서 내담자를 칭찬할 수 있다(Bavelas et al., 2013: 19). Thomas와 Nelson(2007: 44)은 휴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예외를 강조하고 변화를 칭찬하는 것으로 회기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목표와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

여덟째, 해결중심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회기 사이에 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하는 것으로 회기를 종종 마친다. 이런 실험은 내담자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생각, 감정 등 내담자를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에 기초한다. 과제는 내담자에 의해 고안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내담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상담자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낫다는 공통 철학을 따른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담자에 의해 제안된 것은 대개 내담자에게 익숙하다. 내담자들에게 대개 이전에 효과 있었던 것이나 내담자가 정말로 하기 원하는 것을 과제로 낸다. 그러면 과제는 목표 및 해결책과 좀 더 연결된다. 내담자가 스스로 과제를 내면 내담자의 저항을 줄여준다. 해결중심 치료는 저항을 자연스러운 보호 과정으로 보고 저항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내담자가 과제를 스스로 내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Bavelas et al., 2013: 20).

Insoo Kim Berg의 ‘No More Lectures’라는 비디오 해결중심치료 사례를 미시 분석한 연구들은 해결중심치료의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해결중심 대화는 기적 질문, 예외 질문, 척도 질문으로 구성된 해결중심 질문들과 해결중심적 철학과 언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해결 대화로 이루어졌다(최종진·백종환, 2017 ; 최종진, 2019). 후자의 해결 대화에는 내담자의 강점 탐색과 관련된 해결 대화, 목표 설정과 관련된 해결 대화, 해결중심적 재명명의 과정을 대화에 활용하는 해결 대화, ‘알지 못함의 자세’를 나타내는 해결 대화, 내담자의 안전 확인과 관련된 해결 대화, 내담자에 대한 공감과 관련된 해결 대화, 메시지를 통한 과제전달과 관련된 해결 대화가 포함되었다. 최종진(2019)의 분석에 따르면 해결 대화는 내담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 강점, 자원에 기초한 희망적인 대화 속에서 작은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 내담자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성화하고 협력적 언어에 기초해서 해결을 구축하고 내담자의 역량을 강화해 주었다.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내담자의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믿음과 기대 및 희망은 전체 치료 과정에서 해결중심적 개입을 통해 나타났는데 이것은 치료적 동맹의 질을 강화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여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변화기제로 작동하였다.

III. 기독교 상담과 해결중심치료: 적용과 한계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상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적용한다면 그 한계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결중심치료에 영향을 준 탈근대주의와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를 기독교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수 없다.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탈근대주의에서 출발하는 해결중심치료의 환원주의적 한계를 인식하며 건설적 비평의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적용점과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근대주의 관점에서는 지식과 언어를 고정되고 보편적이며 실제 사물이나 구조 뒤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근대주의에서는 개인이 집단보다 더 가치 있으며 세상의 실제와 진실된 것은 이성과 증거 및 논리를 사용하는 개인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의되고 정확하게 기술된다. 절대적 실재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표면 밑에 숨겨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관찰한 것과 아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구조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구조주의 관점을 취한다(Bidwell, 2007: 104-106).

이에 비해 탈근대주의 관점에서는 철학에서 일어난 ‘언어로의 전환’의 영향을 받아 지식과 언어는 합의할 수 있고 수사학적이고 상황 반응적인 것으로 본다. 즉, 지식은 맥락의존적이고 상호주관적 또는 관계적 과정에서 나오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언어와 지식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의한 해석의 과정적 측면으로 인간관계에 위치하고 인간관계에 의해 발생되며 인간관계를 생성한다(Bidwell, 2007: 105-106). 따라서 탈근대주의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고 진리는 각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진리는 특정 공동체 사람들 사이의 상호주관적 합의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탈근대주의는 일종의 반실재론(anti-realism)으로서 실재는 그 실재의 성격과 우리 생각 속 실재의 현존에 의지하며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또,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기준으로 규정된다. 통일된 자아는 없고 자아는 각기 나름의 진리를 규정하는 다양한 해석

공동체에 의해 흡수되며 계속 변화하는 관점들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인간의 인식은 역사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공동체에 의해 좌우된다(Pearcy, 2015: 156-159).

이러한 탈근대주의 흐름 속에서 해결중심 치료자들은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에 의존하였다. 구성주의는 실재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인간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모호한데 상담자가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경험은 경험을 조직하고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탐색하고 의미를 찾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다(Nichols, 2014: 366-367).

구성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지식과 지식에 부여하는 의미에 의해 구성되고 실재의 특성에 대한 합의는 언어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실재의 성격에 대한 합의는 언어적 도구와 문화적 소산을 제공하는 관계를 통해 발달하며 개인이 집단에 영향을 주기 전에 집단이 개인을 형성하고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어서 오늘의 설명과 의미는 내일의 가능성을 형성하며 관계는 사회 질서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실재의 구성은 최선의 미래를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실용성에 의해 평가된다. 지식은 개인의 신념이 객관적 진실에 얼마나 유사한가에 의해 타당화되지 않고 실행 가능성, 즉 개인 신념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Bidwell, 2007: 108-109).

사회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낼 때 이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개인의 신념도 사회적 구성체 안에서의 결과물로 본다. 사회적 구성은 사회적 실재를 통하여 실제 세계에 영향을 준다. 사회적 실재는 심리치료 모델을 포함한다. 상담자 또는 내담자 모두 자신의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Bidwell, 2007: 110 ; Nichols, 2014: 368).

탈근대주의에 기초한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의 영향으로 해결중심치료는 상담자의 ‘알지 못함’(not-knowing)의 자세와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재나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상담에서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관찰된 것 이면에 사물의 본질이나 구조가 존재한다는 근대주의적 접근으로 해결중심치료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재 구성의 타당성은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가까운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등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해결중심치료는 문제의 원인 탐색이나 진단을 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 현재 효과가 있는 것, 미래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해결책을 구축하는 데에 상담의 초점을 맞춘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오늘의 설명과 의

미는 미래의 가능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결중심치료의 질문과 해결 구축 대화는 항상 현재나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 상담은 해결중심치료와 다른 세계관으로 상담에 접근한다. 기독교 상담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이루어진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담 관계와 상담 과정을 바라본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불변하는 절대적 실재의 존재와 진리의 영원성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시작한다. 이런 면에서 Percy(2015: 163)가 지적하였듯이 진리의 보편성, 객관성, 영원성에 대한 모든 주장을 배격하는 탈근대주의는 기독교 상담의 전제가 되는 기독교 세계관과 상충된다. 그러나 해결중심치료도 일반은총의 맥락에서 기독교 상담에 접목할 수 있는 점들을 찾아 내담자들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홍구화, 2015). 해결중심 치료를 기독교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을 찾고 한계와 유의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해결중심치료의 환원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결중심치료의 기독교 상담에서의 적용점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결중심치료에서 주장하는 상담자의 ‘알지 못함’의 자세와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자세는 기독교 상담자의 자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상 상담자의 자세가 비슷해 보일 뿐 이유는 다르다. 기독교 상담자는 상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롬 11:36).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한도 내에서 알려질 수 있는 분임을 내포한다(Beeke, 2008: 84-85). 내담자들은 고난 가운데 상담자를 찾는데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오자 하시는 통로이다(요 9:3). 기독교 상담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내담자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함께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내담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담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빌 1:6) 상담자도 믿음으로 내담자와 함께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함’ 자세와 협력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해결중심치료에서는 언어가 실재를 구성하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함으로써 실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알지 못함’과 협력적 자세를 상담자에게 요구한다면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에게서 일하고 계시는 절대적 실재이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알지 못함’과 내담자와 협력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기독교 상담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빌 2:5-8) 겸손하게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 내담자의 관점으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도 해결중심치료의 상담자 자세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둘째, 기독교 인간관은 해결중심치료가 전제하는 인간관과 다르다. 해결중심치료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인간은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 지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

러한 인간관은 기독교에서 보는 인간관과는 다르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이미-그러나 아직”(already-but not yet) “의 긴장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인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재창조 때까지 구속 받았지만 원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창조 언약(창 2:16-17)의 위반으로 아담 안에서 유죄로 판결받았다. 이 저주의 효과는 나머지 창조 세계에까지 확대되었다(롬 8:22) (Horton, 2011: 417-419).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악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죄악의 희생자이면서 범죄자인 것이다(Horton, 2011: 426-430). 인간에게는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할 자연적 능력은 있지만 타락으로 인해 변형되어 인간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죄에 예속되어 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도덕적 능력은 없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몸, 몸의 욕구, 영혼, 정신, 마음, 의지 등 인간 본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면에서 손상되고 부패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 있다(Horton, 2011: 434-439).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창 3:16)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어 입히심(창 3:21)으로 최종적 형벌을 유예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의를 입히실 “어린양”(요 1:29)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마지막 아담이자 참된 이스라엘인 성자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Horton, 2011: 440-445). 해결중심치료가 구원 이후 성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죄성과 연합함을 간과한 것은 뒤에서도 지적하듯이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상담에 적용할 때 유의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다.

셋째, 해결중심치료가 인간의 강점과 지혜 및 경험에 초점을 맞춘 것은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독교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인간은 타락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과 강점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한다(롬 7:22).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담자에게 주신 강점과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해 주는 칭찬과 더불어 해결중심치료의 해결중심 질문들과 해결 구축 대화 기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결중심치료는 해결 구축에 개인의 강점과 자원에만 초점을 두지만 기독교 상담은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가 줄 수 있는 종교적 지지(홍구화, 2019)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바울은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등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며 자신에게 능력 주

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빌 2:11-12).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뜻(빌 2:13)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며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담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넷째, 해결중심치료는 해결 구축에만 초점을 두어서 성장의 개념이 없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엡 4:13-16)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갈 5:22-25) 삶으로 성화를 추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전의 돌들이자 거룩한 삶이라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들로서(고전 3:17 ; 벧전 2:4-5)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롬 12:1). 기독교 상담자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내담자의 성화 과정을 촉진해 주어야 한다. 기독교 상담이 해결 구축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기독교 상담은 궁극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 구축을 넘어서서 내담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은 환란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 속에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 수 있다(롬 5:3). 어려움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 주시기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시 62:1-12). 이런 때는 기독교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을 함께 견디어 주며 내담자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도출해 낼 수 있는 최선의 해결일 수 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롬 8:26).

다섯째, 해결중심치료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인 점은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는 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마 12:28)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막 14:25). 그리스도인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가는 삶이다(빌 3: 13-14). 최선의 미래를 가져올 현재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는 해결중심치료의 이러한 면은 기독교 상담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중심치료의 미래는 현세에 머무른다는 한계가 있다.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현세를 뛰어넘은 미래를 바라보도록 촉구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고후 5:17)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계 21:1)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산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롬 8:18)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는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이다(롬 8:24-25). 기독교 상담에 접목한 해결중심치료의 해결 구축은 이러한 소망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해결중심치료가 과거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탐색할 때 외에는 과거를 잘 다루지 않는 것이나 직면이나 해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기독교 상담에서 용서를 촉진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루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홍구화, 2013 ; 홍구화, 2015 ; 홍구화, 2018). 용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감정들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심으로 반응하여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건강한 죄책감으로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상담에서 다루려면 기독교 상담자는 과거의 감정, 사고, 행동들을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직면과 해석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해결중심단기치료의 효과성을 보고한 정문자와 김윤경(2010)의 연구에서도 내담자들은 해결중심단기치료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 개방과 감정표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해결중심치료를 사실상 저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죄로 인한 저항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다루어야 한다(롬 7: 21-25).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렘 17: 9)이고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쉬운 존재이다(딤후 3:2).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죄로 오염된 복합적인 내적 동기와 마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내담자의 진정한 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Jones & Butman, 1991: 80 ; Tan, 2011: 466).

여덟째, 해결중심치료를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담자에 대한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병리적인 측면 파악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도와 내담자가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로 선택이나 학업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경우 지능검사나 적성검사를 통해 내담자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거나 학업 수행상의 강점과 취약한 점을 찾아 해결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내담자에게 필요할 때도 있다(Pruyser, 1976).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들을 간과하는 것은 해결중심치료의 약점과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IV. 나가며

탈근대주의 흐름과 함께 발달해 온 해결중심치료는 다양한 대상들과 어려움들을 상대로 효과성 연구가 축적되어 근거 기반도 확장되어 왔다. 해결중심치료는 기독교 세계관과 다른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철학적 전제와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해결중심주의의 환원주의적 특성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중심치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은총의 일환으로 보완하고 적용한다면 기독교 상담에 주의 깊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가운데 구속 받았지만 아직 죄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진 강점과 자원뿐만 아니라 약점과 결핍도 균형 있게 같이 다루어야 한다.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과 해결 구축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기초한 것일 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해결중심치료는 기독교 상담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목회 상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 상담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목회 돌봄과 상담뿐만 아니라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 및 행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데 목회자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 또, 목회자가 전문적인 상담 훈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목회자와 장기적인 심층 상담을 한 신자들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은 수치심으로 교회를 떠나기 쉬운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Blackburn, 2013). 이러한 점에서 속성상 단기로 이루어지고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구축해 가도록 돕는 해결중심치료 기법들은 앞서 논의한 한계들을 보완하면 목회자들에게 목회 돌봄과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해결중심치료 집단 상담을 교회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유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유순·이재원 역 (2015). **정서지향 해결중심치료**. Lipchik, E. (2002). *Beyond Technique in Solution-Focused Therapy*. 서울: 학지사.
- 김은규 역 (2000). **생의 진단자로서 목회자**. Pruyser, P. W. (1976).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ersonal problems in pastoral perspective*. 서울: 도서출판 동서남북.
- 김은영 (2007). 해결중심단기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1988-2006.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18.
- 김현수·노미화·조성봉 (201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분석을 통한 가족치료 연구의 동향 분석: 임상치료 연구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6(4), 729-760.
- 김희정 역 (2017). **얕: 인식론과 해결중심치료**. **해결중심단기치료: 이해와 실제**. Bidwell, D. R. (2007). Miraculous knowing: Epistemology and solution-focused therapy. In Nelson, T. S. & Thomas, F. N. (Eds.), *Handbook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Clinical applications*. 서울: 학지사.
- 김희정 역 (2017).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역사. **해결중심단기치료: 이해와 실제**. Cade, B. (2007). Springs, streams, and tributaries: A history of the brief solution-focused approach. In Nelson, T. S. & Thomas, F. N. (Eds.), *Handbook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Clinical applications*. 서울: 학지사.
- 김희정 역 (2017). 해결중심 단기치료의 가정과 실제. **해결중심단기치료: 이해와 실제**. Nelson, T. S. & Thomas, F. N. (2007). Assumptions and practices within the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tradition. In Nelson, T. S. & Thomas, F. N. (Eds.), *Handbook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Clinical applications*. 서울: 학지사.
- 오현미 역 (2017). **완전한 확신**. Percy, N. (2015). *Finding Truth: 5 Principles for unmasking atheism, secularism, and other God substitutes*. 서울: 복있는 사람.
- 이관직 역 (2009). **현대 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Jones, S. L. & Butman, R. E. (1991).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서울: 대서출판사.
- 이용중 역 (2012). **언약적 관점에서 본 개혁주의 조직신학**. Horton, M. (2011). *The Christian Faith*.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장명수 (2007). 단기가족치료의 목회상담적 접목 가능성.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3, 189-211.
- 장명수 (2011). 현대의 심리적 위기문제와 기독교해결중심치료적 접근, **복음과 상담**, 17, 153-178.
- 장명수 (2014). 케리그마 언어사용을 통한 해결중심치료의 적용, **복음과 상담**, 22(2), 247-274.
- 정동섭·김영근·김형선·유재성·전요섭 역 (2014).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 Tan, S.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서울: 이레서원.

- 정문자·김윤경 (2010). 해결중심단기상담사례의 특성과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1), 1-25.
- 최중진 (2017). 해결중심단기치료의 변화 여정 고찰: 서구문헌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1), 1-24.
- 최중진·백종환 (2017). Insoo Kim Berg의 해결중심단기치료에 대한 미시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5(3), 529-553.
- 최중진 (2019). 해결중심상담의 변화기제로서 해결대화의 역할에 대한 미시분석. **가족과 가족치료**, 27(1), 103-123
- 최중진 (2021). 해결중심치료의 국내 연구동향 문헌분석: 2007~2020.6. **가족과 가족치료**, 29(1), 1-32.
- 홍구화 (2013). What brings forgiveness. **복음과 상담**, 21, 352-372.
- 홍구화 (2015). 칼빈주의와 심리학의 이중 언어로 이루어지는 상담. **신앙과 학문**, 20(4), 223-247.
- 홍구화 (2018).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영적 정신역동적 이해: 창 3:1-21과 요 4:1-42를 중심으로. **목회와 상담**, 31, 281-320.
- 홍구화 (2019). 종교적 지지가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4), 241-271.
- Alguzo, N. A. & Jaradat, A. M. (2021).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two therapeutic modalities in enhancing self-esteem among female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6), 870-877. DOI: 10.1002/ijop.12773
- Alton, G. (2020). Toward an Integrative Model of Psychospiritual Therapy: Bringing Spirituality and Psychotherapy Together.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74(3), 159-165.
- Bavelas, J., Jong, P. D., Franklin, C., Froerer, A., Gingerich, W., Kim, J., Korman, H., Langer, S., Lee, M. Y., McCollum, E. E., Jordan, S. S. & Trepper, T. S. (2013). *Solution Focused Therapy Treatment Manual for Working with Individuals*(2nd version).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Association.
- Berg, I. K. (1994). *Family based services: A solution-focused approach*. New York: Norton.
- Berg, I. K. & De Jong, P. (1996). Solution-building conversation: Co-constructing a sense of competence with clients. *Families in Society*, 77, 376-391.
- Berg, I. K. & Miller, S. D. (1992).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 A solution-focused approach*. New York: Norton.
- Blackburn, B. (2013). Pastors who counsel. in Sanders, R. K. (Ed.) (2013). *Christian Counseling Ethics: A Handbook for Psychologists, Therapists, and Pastors*. Westmont, IL: InterVarsity Press.
- Bond, C., Woods, K., Humphrey, N., Symes, W. & Green, L. (2013). Practitioner Review: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with children and families: a systematic and critical evaluation of the literature from 1990-2010.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 Psychiatry*, 54(7), 707-723. DOI: 10.1111/jcpp.12058.
- Carrera, M., Cabero, A., González, S., Rodríguez, N., García, C., Hernández, L. & Manjón, J. (2016).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for common mental health problems: Outcome assessment in routine clinical practic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9(3), 294-307. DOI: 10.1111/papt.12085
- Daki, J. & Savage, R. S. (2010).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mpacts on academic and emotional difficul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3(5), 309-326. DOI: 10.1080/00220670903383127.
- de Shazer, S. (1985). *Keys to solution in brief therapy*. New York: Norton.
- de Shazer, S. (1988). *Clues: Investigating solutions in brief therapy*. New York: Norton.
- de Shazer, S. & Berg, I. K. (1995). The brief therapy tradition. In Weakland J. H. & Ray W. (Eds.) *Propagations: Thirty years of influence from the Mental Research Institute* (pp. 249-252). Binghamton, NY: Haworth.
- de Shazer, S. & Berg, I. K. (1997). 'What works?' Remarks on research aspect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121-124.
- de Shazer, S., Dolan, Y. M., Korman, H., Trepper, T. S., McCollum, E. E. & Berg, I. K. (2007), *More than miracles: The state of the art of solution focused therapy*. New York: Haworth Press
- Franklin, C., Biever, J., Moore, K., Clemons, D. & Scamardo, M. (2001).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therapy with children in a school setting.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4), 411-434. DOI: 10.1177/104973150101100401
- Franklin, C., Moore, K. & Hopson, L. (2008).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a school setting. *Children & Schools*, 30(1), 15-26. DOI: 10.1093/cs/30.1.15
- Franklin, C. & Hai, A. H. (2021).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for substance use: A review of the literature. *Health & Social Work*, 46(2), 103-114. DOI: 10.1093/hsw/hlab002.
- Gingerich, W. J. & Eisengart, S. (2000).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review of the outcome research. *Family Process*, 39(4), 477-498. DOI: 10.1111/j.1545-5300.2000.39408.x.
- Gingerich, W. J. & Peterson, L. T. (2013).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systematic qualitative review of controlled outcome studi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3(3), 266-283.
- Gong, H. & Hsu, W. (2017).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in ethnic Chinese school settings: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67(3), 383-409. DOI: 10.1080/00207284.2016.1240588.

- Guterman, J. T. & Leite, N. (2006). Solution-focused Counseling for Clients with Religious and Spiritual Concerns. *Counseling and Values*, 51, 39-52.
- Jalali, F., Hashemi, S., Kimiaei, S., Hasani, A. & Jalali, M. (2018).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brief couple therap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prisoners and their w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10), 3023-3037. DOI: 10.1177/0306624X17733662
- Kim, J. S. (2008).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8(2), 107-116. DOI: 10.1177/1049731507307807
- Kim, J. S., Brook, J. & Akin, B. A. (2018).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with substance-using individual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tud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28(4), 452-462. DOI: 10.1177/1049731516650517.
- Knekt, P., Lindfors, O., Sares-Jäske, L., Virtala, E. & Härkänen, T. (2013). Randomized trial on the effectiveness of long- and short-term psychotherapy on psychiatric symptoms and working ability during a 5-year follow-up.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7(1), 59-68. DOI: 10.3109/08039488.2012.680910.
- Lee, M. Y., Uken, A. & Sebold, J. (2004). Accountability for Change: Solution-Focused Treatment With Domestic Violence Offenders. *Families in Society*, 85(4), 463-476. DOI: 10.1606/1044-3894.1832.
- Milner, J. & Singleton, T. (2008). Domestic violence: Solution-focused practice with men and women who are violent. *Journal of Family Therapy*, 30(1), 29-53. DOI: 10.1111/j.1467-6427.2008.00414.x
- Murphy, J. (1996).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the school. In Miller, S., Hubble, M. & Duncan B. (Eds.), *Handbook of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y* (pp. 184-204). San Francisco: Jossey-Bass.
- Novella, J. K., Ng, K. & Samuolis, J. (2022). A comparison of online and in-person counseling outcomes using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for college students with anxiet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70(4), 1161-1168. DOI: 10.1080/07448481.2020.1786101.
- Roeden, J. M., Maaskant, M. A. & Curfs, L. M. G. (2014). Processes and effects of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8(4), 307-320. DOI: 10.1111/jir.12038.
- Smock, S. A., Trepper, T. S., Wetchler, J. L., McCollum, E. E., Ray, R. & Pierce, K. (2008).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for level 1 substance abus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4(1), 107-120. DOI: 10.1111/j.1752-0606.2008.00056.x

- Yuan, S. S. J. (2015). Using Kollar's solution-focused pastoral counseling for bereaved clients: The process of empowerment from clients' perception. *Psychological Reports: Mental & Physical Health*, 116(1), 127-148.
- Zhang, A., Franklin, C., Currin-McCulloch, J., Park, S. & Kim, J. (2018). The effectiveness of strength-based,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 medical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2), 139-151. DOI: 10.1007/s10865-017-9888-1.

기독교 관점에서 본 해결중심치료: 적용과 한계

Solution-Focused Therap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

홍구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해결중심치료를 기독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독교 상담에의 적용점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중심치료는 탈근대주의 흐름 속에서 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근거 기반이 확장되어 왔다. 해결중심치료는 인간이 변화를 위한 강점, 지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해결중심 질문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첫회기 전 변화에 대한 질문, 해결 중심적 목표 설정, 기적 질문, 척도질문, 해결책과 예외를 구축하기, 대처질문, 휴식과 재소집, 실험과 과제 부여 등이 있다. 기독교 상담에 해결중심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중심치료의 환원주의적 특성과 함께 상담자의 자세에 대한 해석의 한계, 인간관의 한계, 성장 개념이 없는 한계, 해결책이 현세에 국한되는 한계, 과거를 잘 다루지 않고 직면과 해석, 저항을 도외시하는 한계, 심리검사의 유익을 간과하는 한계 등을 인식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주제어: 해결중심치료, 기독교 상담,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현직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인식과 요구*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among Current School Teachers Volunteering as Sunday School Instructors

김기흥 (Ki Heung Kim)**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ix research participants who are current school teachers and Sunday school teachers at a church located in Busan to find out their basic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7 categories and 14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basic perception of Sunday school, and 2 categories and 6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subjects' demands for church Sunday school.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wo majo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mprove church Sunday school educatio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hristian school teachers as Sunday school teachers is necessary.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the church's Sunday school, the senior pastor's active pastoral philosophy toward Sunday school and the cultivation of the pedagogical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Sunday school assistant pastors seem to be very important factors.

Key words: Sunday school, Sunday school teacher, church, school teacher

* 2023년 11월 8일 접수, 12월 2일 최종수정, 12월 4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일학교는 복음사업의 일환으로 주일에 유·초·중·고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직된 개신교회의 교육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886년 아펜젤러(Appenzeller)에 의한 미 감리교 한국 선교부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당시 교육과 의료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당시 주일학교 학생(Sunday-Scholars)이 12명이었고, 아펜젤러의 집에서 모였다. 또한 영어로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성경과 교리문답, 십계명 및 주기도문 등이 주 교재였다(장종철, 1999: 44-46).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일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계기는 먼저 1905년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회의 한국복음주의연합공의회 결성과 주일학교위원회 조직되면서였다. 이어서 1910년대와 20년대에 장로교와 감리교의 주일학교연합 운동이나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세계주일학교협회 등의 협력과 도움을 통하여 주일학교가 재차 부흥하게 되었다. 이후 일제시대 주일학교 운동은 신사참배 강요 등의 식민정책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으로 시련을 겪었지만, 해방 후 1947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의 재건, 1948년에는 이는 대한기독교 교육협회로 개칭되면서 주일학교운동을 넘어 기독교교육 전반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부터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교단 간의 분열과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종교다원주의 등의 내외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연합기관으로서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고 교단별로 공과 교재나 교사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1960년대 이후 기독교교육은 교단의 진보 및 보수 등의 이념에 따라서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박용규, 2022: 78-82).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단 시간에 빠른 성장을 기록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양적성장 둔화와 더불어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 급감소식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장화선, 2015: 259-263 ; 전병철, 2016: 143-144 ; 조철현, 2017: 157-158).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쇠퇴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를 비롯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종교에 대한 무관심, 반기독교적인 세속문화의 등장 등을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교회뿐 아니라 특히 주일학교의 성장을 위협하는 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는 내적 요인으로 담임 목회자나 사역자의 무관심이나 교육철학의 부재, 교회 교사의 사명감 및 전문성 결핍, 부모의 인식과 연계적인 신앙교육 부재, 교회의 디지털미디어 환경 미비 등 매우 복잡적이며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장화선,

2015: 270-273 ; 함영주 외, 2015: 3-7 ; 전병철, 2016: 170-172).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와 함께 주일학교의 심각한 침체 현상의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인 강조점은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강용원, 이현철, 2010: 114 ; 함영주 외, 2015: 2 ; 함영주, 2016: 46-50 ; 조철현, 2017: 157-160 ; 이성복, 2019: 419-421 ; 박미화 외, 2019: 71-72).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전통적인 격언이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의 자질과 역량은 교육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이나 기능은 일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의 성경 및 신앙교육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본다. 즉 주일학교 교사의 준비성은 주일학교의 부흥과 발전뿐 아니라 미래 교회를 이어 나갈 신앙의 계승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교회는 주일 학교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일정한 자질이나 준비가 되기 전에 단지 ‘열심’이나 ‘열정’으로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일(교회)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나 자질을 살펴보면, 홍종근(2002: 175-176)은 전문성(기독교 교육 이론 및 방법, 성과 학생 이해 등), 영성(기도, 말씀, 예배생활 등), 교사됨(소명감, 헌신, 인격 등)을 꼽고 있다. 이어서 박상진(2007: 46-58)은 교사의 교육적 전문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역량인 영성을 중요하게 보기도 했다. 또 강용원, 이현철(2010)은 영성, 교수방법, 학생생활지도, 문화적응력 및 행정능력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한편 신현광(2012)은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영성, 인성, 체계적인 교수내용과 방법, 기술과 태도에 대한 지식이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공통적인 역량은 크게 전문성(교육학이나 성경적 지식, 정보, 기술 등), 영성(기도, 예배 등) 및 인성(성품, 인격 등)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사의 인식이나 역량 등을 다룬 선행연구는 연구방법 면에서 절대 다수가 양적 연구였다. 특히 연구대상에서도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의 학력이나 직종 등 일반적 배경에서도 매우 혼합적이고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초기 주일학교 역사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반을 조직하여 교육학, 아동심리학, 교수 방법 등 근대 교육학을 기초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양성된 주일학교 교사들은 계속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학적 지식과 기능을 응용하면서 성경과 신앙교육을 하였던 것이다(이윤진, 2008: 115-116).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주일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단일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동시에 일반 학교(초·중등)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의미 있고 빈번하게 지적된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과 역량 측면에서 볼 때 현직 학교 교사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은 주일학교의 개선과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 바이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반 학교에 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주일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주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현재 일반 학교에 재직 중이면서 동시에 주일 학교에서 봉사하는 교사들이 주일 학교 발전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부산 소재 H교회(예장 합동측, 교인 800여명, 주일학교 학생 300여명/교사 100여명)와 S교회(예장 고신측, 교인 2,000여명, 주일학교 학생 340여명/교사 110여명) 소속이며 일반학교에 재직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6명이다. 이들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이 성별로는 대부분 여성, 연령 평균 48세, 주일학교 교사경력 평균 16년, 현재 재직 학교는 초등과정 2명과 중등과정 4명이다. 연구 대상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처리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research subjects

	성별	연령 (세)	교사 경력(년)		담당 과목	소속 교회
			주일학교(봉사부서)	일반학교(재직학교)		
교사 1	여	43	10(중학부)	20(중학교)	수학	S교회
교사 2	남	43	14(초등부)	16(중학교)	기술	H교회
교사 3	남	51	22(고등부)	22(고등학교)	지리	S교회
교사 4	여	48	14(초등부)	21(중학교)	영어	H교회
교사 5	여	47	6(초등부)	25(초등학교)	-	S교회
교사 6	여	54	30(초등부)	32(초등학교)	-	S교회

2. 면담 도구

본 연구는 주일학교 교사이며 현직에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면담 질문지는 이윤진(2008: 161-177)의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연구, 함영주 외(2015: 107-115)의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들의 인식 연구, 조철현(2017: 19-29)의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연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비면담 질문지는 관련 전공 교수 2명을 통해 타당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학교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한 후에 난해하거나 불분명한 문장, 용어 등에 대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반 구조화된 면담지가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담을 위한 질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Table 2. Content of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partial example)

Example detailed question cont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기초 배경 관련 사항(예, 성별, 연령, 경력 등) •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는가? • 언제 주일학교교사로 보람을 느끼는가? • 주일학교에 학교교사로서 가지는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가? • 주일학교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주일학교 교사로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3년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4주에 걸쳐 개별심층면담과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조사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이 새로운 조사 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인 눈덩이 표본 추출(Snowball Sampling)방식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로서의 선정 기준은 첫째,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둘째, 현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고, 동시에 현직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 셋째, 주일학교교사 및 현직 학교교사로 각각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정하여 가능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 등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은 이미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주제를 비롯하여 방법, 목적 등에 대해 공지를 하였다. 또 이들의 개인 신분과 정보의 비밀유지를 약속하고 개별 면담에 대한 동의를 거쳤다.

면담 일정이나 장소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였고,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녹음되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은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직접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개별 심층 면담 시간은 총 465분이었으며, 연구 대상자 1인당 평균 약 76분으로 나타났다. 또 심층 면담 분량은 A4용지(글자크기 10, 글꼴 신명조, 줄 간격 160, 자간 -10 등)로 총 51쪽이었다. 전사본에는 면담일자, 면담 대상자의 개인별 아라비아 숫자 등이 병기되었다. 아울러 연구 결과에 연구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면담대상자의 번호만 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 전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과정들을 거쳐 분석 및 범주화하였다(이종승, 2009: 421-423). 먼저, 녹음된 개별면담 내용을 가능한 원본대로 전사 작업(transcription)을 실시한다. 이어서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주제별로 약호화(coding)단계를 거친다. 이때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유사한 단어나 문장에 대해 특정 주제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약호화의 면밀한 반복 읽기, 분석 및 추론 등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추출하는 주제별 유목화 작업과정을 거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 시간을 최대한 제공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에 의한 연구내용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나 이 메일 등을 통하여 검토, 확인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이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관련 전공 교수 2인의 검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현직 학교교사이며 주일 학교에 봉사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은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 또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에서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perceptions and needs of research subjects

대 주제	범주	하위범주
•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 내·외적 봉사동기	• 자연스런 소명감 • 주변의 권유
	• 뿌듯함/아쉬움의 마음	• 성장/변화하는 학생 • 소극적 태도의 부모
	• 학교 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 익숙한 수업 • 마음 읽고, 이해하기
	• 열악한 인프라 (Infra)	• 기본적 인식 결여 • 독립된 분반 공부실 부족
	• 혼돈스런 교육관(教育觀)	• 만만하게 여기는 주일학교 • 엇갈리는 시각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 모범적 태도 • 교육적 역량
	• 교사 지원 기피	• 이미 소진(burn out) • 소명 의식 부족
•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	•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 담임 목회자의 확고한 교육적 비전 • 주일학교-현직 학교교사 간 소통/협력 • 부교역자의 교육학적 소양 •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 부모의 관심과 협력 • 부모교육/참여 기회 제공

1.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

(1) 내·외적 봉사 동기

① 자연스런 소명감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 동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자로서 자발적 소명감의 발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언급하였다.

…내가 보던 아이들이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중등부로 오게 되었죠. 사실은… 오히려 저는 중등부가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항상 보던 아이니까…(연구 참여자, 1)

특별한 동기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연구 참여자 4)

② 주변의 권유

이어서 현재 학교교사이자 주일학교 교사인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주일학교에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를 찾던 중에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제 동기가 여기 초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연구 참여자 2)

제가 개척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개척교회 부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교육대학 생이니까,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냐? 그랬을 때 내 신앙도 좀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쪽…(연구 참여자 6)

(2) 뿌듯함/아쉬움의 마음

① 성장/변화하는 학생

본 연구 참여자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꼽았다.

저는 아이들을 초등부를 섬기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진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리더로 섬기고, 믿음의 일군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고…(연구 참여자, 2)

제 작은 손길이나 격려나 이런 관심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저의 자그마한 헌신 때문에 학생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죠(연구 참여자, 3)

② 소극적 태도의 부모

한편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 등 소극적 태도에 대해 다소 서운한 마음을 예들러 표현하기도 했다.

지금 있는 교회는 좀 큰 교회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유선으로 통화할일은 많이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우연히 만나게 되면 가끔씩 감사하다는 말씀을...(연구 참여자, 3)

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감사합니다라는 경우는 잘,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요구사항이 더 많잖아요? 특히 유치부나 유년부는 더 많은데, 처음에는 그게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내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는데...(연구 참여자, 4)

(3) 학교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① 익숙한 수업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현직 학교교사로서 이미 교수법 등에 익숙하여 이를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분명한 이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제가 현직교사니까 그렇지 않는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교사들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공과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때, 현직에 있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고 교수법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교회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정리된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높고, 그래서 공과 공부에 질적 수준에서 조금은 평균보다는 그 이상으로 더 좋게 제공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연구 참여자, 3).

일단 애들 수준에 맞는 교수이론이라거나 그것을 다른 일반 집사님들보다는 교회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 제가 어떤 도구를 좀 준비해가지고 학습 자료를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다른 일반 집사님보다는 훨씬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연구 참여자, 6)

② 마음 읽고, 이해하기

이어서 현직 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심리·정서적인 면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적절한 중재 활동적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점을 언급하고 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다른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직교사가 아닌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분반공부 시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것을 좀 자제시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연구 참여자, 1)

그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왔을 때, 좀 힘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현직 선생님들은 케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올해 다른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선생님은 대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현직 선생님이 아니시거든요. 현직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제가 현직교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엄마들이 교사가 아닌 엄마들이 한 번씩 물어요. 이 아이가 어떡냐? 우리 애는 이런데 어떡냐?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연구 참여자, 5)

(4) 열악한 인프라(Infra)

① 기본적 인식 결여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당국이 주일학교 교육과 환경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 수준이 높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저희 교사모임에서 아까처럼 책걸상 좌석문제나 이런 것도 선생님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의자를 배치를 해서 요즘 아이들이 불편해 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반응을 나타내죠. 대부분…(연구 참여자, 2)

목사님의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이 주일학교를 위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5)

② 독립된 분반 공부실 부족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일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예배 후에 실시되는 분반 공부 시간에 독립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분반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음을 피력하였다.

확실히 분리된 공간에서 하시는 반을 보면,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시간도 보내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충분히 되고,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그룹이 같아하면 안 들리거든요. 제 목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 소리도 안 들리고, 애들도 집중이 안 되고… 교실이나 공간 등 환경이 더 문제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연구 참여자, 2)

개별 조별 공간은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한 공간에 한 5반 정도가 같이 하니깐 시끄러워서 적응도 안 되고,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옆 반에서 떠들면…(연구 참여자, 6)

(5) 혼돈스런 교육관(教育觀)

① 만만하게 여기는 주일학교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실제로 주일학교 예배나 분반공부시간에 비협조적이고 매우 소극적 태도에 대해 많은 고충이 있음을 밝혔다.

…성경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시간에도 눈을 뜨고… 지금은 막 핸드폰 보고, 또 지각도 많이 하고… 조금은 쉽지가 않구나하는 이런 생각을 들고… 학교에서는 사실 집중이나 관심이 성적이나 이런 아이들을 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연구 참여자, 2)

교회 자체가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규율이 더 풀어지다보니까, 조금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기에 앉아 있는 아이를 여기로 옮기려고 하면, 애야, 여기로 좀 앉아! 하면, 그쪽에 앉으면 잘 안보이니까, 여기 앉아! 라고 하면, 학교는 거의 99%가 조용히 와서 앉는데, 교회에서는 '싫은데요, 여기가 더 좋은데요!' 안 오죠. 대부분… 학교에서는 안 그러는데(연구 참여자, 4)

② 엇갈리는 시각들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나 분반 공부 시간에 보이는 학생들의 방해 행동이나 수동적 태도에 대한 교사들, 특히 현직 학교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들의 간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회에서도 좀 엄격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학교 일을 대하는 제자

세랑, 교회 일은 조금 달랐던 같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압적으로, 사실은 강압적으로 해도 되냐?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던 것 같기도하고... 제 자신이 제 안에 확신이 좀 없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 참여자, 2)

학생들에게는 입시 준비, 공부가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뭐 일단 공부에 애들이 너무 지겨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성경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애들하고 가볍게 교제하고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애들한테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적으로 많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적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성경 지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들어가면 이게 평생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연구 참여자, 3).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좀 힘들어 하는 것은 교사는 교사들이 볼 때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무조건 이것은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데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덮어야, 좋은 게 좋다하고...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따끔하게 말을 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애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들의 말문을 너무 닫히게 하면 안 되겠지만, 또 교회가 의무적으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이 애가 안 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연구 참여자, 4)

(6)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① 모범적 태도

주일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자세는 주일학교의 부흥과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생님이 지각을 자주하거나, 그래도 선생님이 좀 모범적으로 찬양할 때 하고, 이런 예배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을 이끌어 가고 모범되는 모습이 있으면 학생들도 따라 올 텐데, 지각을 자주 하고, 예배 시간에 폰을 자주 보고, 또 찬양도 소극적이고, 교사의 예배 태도가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시면 반 아이들은 숫자가 더 늘거나 애들이 반이 잘 꾸러지는데 좀 불성실하거나 게으른 반은 학생 수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연구 참여자, 3)

우리는 지금 6명이 있는데, 우리 팀에... 일부 팀은 공부는 하지 않고, 물론 아이들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재로만 공과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 참 그렇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20분정도 하는 것도 안 하면, 집에서는 더더욱 안 하는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6)

② 교육적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주일학교의 짧은 공과 공부 시간(약 30분 이내)이나 다소 소란스런 공동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효율적인 분반 공부를 위해서는 각 반 교사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 등이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교도 설교지만, 이 공과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30분으로는 불가능, 부족해요. 총회에서 이 책자를 만들 때는 1시간 30분짜리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30분 안에 그 교재 내용을 다하기에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담임 선생님, 교회 선생님의 역량인거예요.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걸 완전 다 할 수가 없어요 공과 내용을, 그래서 교재 연구도 필히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연구 참여자, 5)

어떤 반은 교재 내용을 안 할 때도 있고, 중간에 단합회하러 나가버리고, 반마다 분반공부 내용이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이... 그래도 다른 반이 일찍이 마치고 중간에 나가면, 분위기가 팍 깨지니까... 확실히 분리된 공간에서 하시는 반을 보면,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시간도 보내시고, 아이들과 소통도 충분히 되고, 아이들이 충분히 듣고...(연구 참여자, 2)

(7) 교사 지원 기피

① 이미 소진(burn out)

현직 학교 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봉사에 소극적 현상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심신이 지쳐있음을 강조하였다.

교회 내 현직교사가 많이 있을텐데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는 감정 소모하는 것이 많아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면 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읽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요즘은 너무 많이 지치고...(연구 참여자, 4)

그런데 현직 선생님들이 교회에 봉사를 안 하려고 하세요. 주일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주일에 좀 쉬어야... 교회에 까지 와서 난 안 하련다. 힘들다! 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직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세요.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연구 참여자, 5)

② 소명의식 부족

아울러 연구 참여자들은 현직 학교 교사들이 내적 소명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교회에 현직 선생님이 많으신데 주일학교에 봉사를 안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명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분명히 보면 교대를 가거나 사범대를 갈 때 기도한바가 분명히 있을 건데, 막상 현직에 있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교사의 길을 갔는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현직에 갔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연구 참여자, 3)

제가 갈등을 많이 느껴서 해마다 그만 둘까하다가 또 기도해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너의 천직이다 이렇게 하셔서 내가 계속했는데요. 그런 갈등이 많았습니다(연구 참여자, 6).

2. 연구 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요구

(1)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① 담임 목사의 확고한 교육적 비전

현직에 있는 학교교사들은 주일학교에 대한 바람에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의 비전 제시 등 적극적인 관심과 교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목사님의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주일학교도 있으니까, 이 주일학교를 위해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비전이 있는 분이면 더 좋겠어요... 교회에서 기독교사에 대한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요... (연구 참여자, 5)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 자주 언급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선생님들 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참 중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연구 참여자, 6)

② 주일학교-현직 학교교사 간 소통/협력

아울러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교육기관인 주일학교의 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현직 학교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한 전반적인 운영에서 긴밀한 협력적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교회에서 교사들을 좀 세워줘서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할 때 아이들 학부모 중에 현직 교사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으시냐? 조언할 것이 있으시냐? 등등 조금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다보면 현직교사들이 주일학교에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연구 참여자, 4)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의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부장집사님, 회계 집사님 등 임원들끼리만 의논을 하시고...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가 있더라도, 사전에 좀 의논을 해주면 좋은데, 그전에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연구 참여자, 6)

③ 부교역자의 교육학적 소양

이어서 본 연구에 참여한 현직 학교교사들은 주일학교를 직접 담당하는 부교역자들의 기초적인 교육학적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부목사님들도 교육사범계열을 전공했다면 좀 더 주일 학교를 세밀하게 조직하고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료 하나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주니까 애들이 그냥 즐기고, 이 주일학교가 어려운 게 신앙과 교육을 함께 요구 하는데, 목사님은 신앙이고 교사로 있는 사람은 사실 교육인데, 사실 이것이 조화가 쉽지 않는 것이... 서로 돕지 않으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목사님 바뀌고 그냥 기존 목사님, 장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중고등반에 오시면, 교사는 너무 좋은데, 애들은 너무 지겹고 시계보고... 그래서 교역자 분들도 뭔가 조금 한 곳에서 오래하셔서,

그쪽에 특화된 것도 필요하고… 담당 목사님이 가이드라인을 줘야하는데, 본인도 사실은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충분히 교육을 좀 하셔서, 아니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갖추면 교회가 교회학교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4)

④ 교사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끝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신학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교육학적인 직무 역량도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교회에서 하는 교사연수는 가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앙적인 것 특강들이 많죠. 교육학적인 부분은 좀 적죠… 어쨌든 교회에 건의한다면 교사연수,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좀 많이 교회차원에서 좀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구 참여자, 3).

저희 교회 교단에서 하는 연수는 갔는데, 주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여름성경학교 울동을 배워서 오는 거죠. 그것도 한 10%만 배운 것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기도 싫고, 갔다 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연구 참여자, 4)

(2)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① 부모의 관심과 협력

본 연구에 참여한 현직 학교교사들은 부모들(특히 불신자 부모)이 자녀들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모님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셔서 아이 혼자만 오니까 집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아이, 저는 사실 이런 아이가 조금 더 많아서, 이 아이들은 일단 부모님하고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할 일은 거의 없고, 아이가 부모님에게 교회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자기만 몰래 오는 거죠. 부모님들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애가 어딜 가든지…(연구 참여자, 1).

저는 부모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학교에 던져놓고 알아서 키워주세요! 가 아니라,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특히 불신자 부모님들이 더 심하시죠. 믿는 부모님들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 관심이라는 것이 뭐, 가정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예배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듣고 분반공부도 잘해라! 하고 가정에서 그것들이 교육이 되어서 연계가 좀될 수 있으면...(연구 참여자, 2)

② 부모교육/참여 기회 제공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의 주일학교 운영에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위해 부모교육 또는 주일 학교 예배에 초대하는 행사 등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불신자 가정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저도 저 나름으로는 결국에는 전달이 되려면 마음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많이 먹이고 데리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 보통 한 그룹에서 1-2명, 저희 반에도 지금 1명이 있고...(연구 참여자, 2)

부모님도 한 번씩 예배에 초대를 하시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부모님들만 또 따로 모아서 말씀하 시기도 하고... 주일학교는 부모님의 영향도 커요.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또 자녀를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보다는 저는 오히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회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가정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연구 참여자, 5)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현직 학교교사로 재직 중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주일 학교에 대한 인식에서는 내·외적 봉사 동기를 비롯하여 뿌듯함과 아쉬움의 마음, 학교교사로서의 효능감 자각, 열악한 인프라, 혼돈스런 교육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 교사 지원 기피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일학교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요구에는 교회적 차원의 인식과 지원, 교회-가정의 연계 방안 강구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논의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주일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 내 현직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력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패는 사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라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될 정도로 교육에서 교사의 자질이나 역할은 결정적 요인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교사로서 주된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후세대에게 교과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능 및 기술 등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원만한 인격 등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활동인 생활지도이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은 입장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전문적 자질(교과 지식, 교수법, 아동발달심리 등)과 인간적 자질(가치관 및 태도, 인성 및 품성 등)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교사는 봉사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교사로서의 개인적 직무수행과 피교육자들의 교육적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쉽지 않다(이종재 외, 2003: 84 ; 서재복 외 2011: 18-19).

이 같은 측면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물론 일반 학교와는 교육 목적이나 교육의 장(場), 교육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사의 역할과 자질 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은 유사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즉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필요한 자질로는 학습자의 발달 심리를 비롯하여 교수내용과 교수방법 등의 전문성과 인성 및 영성을 꼽을 수 있다(신현광, 2012: 499 ; 박미화 외, 2019: 83, 87). 또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주일학교 교사의 삶과 신앙 지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유미, 2016: 75-77 ; 김성원, 2020: 438-444).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에서 대두되는 어려움 중에 특히 준비된 교사의 부족 등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의 자질 문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대두되고 있다(강용원·이현철, 2010: 113-115 ; 김남일, 2019: 46 등). 특히 전국의 교회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이현철(2013: 253, 261-262)은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열정과 소명의식 속에서 봉사를 하지만, 성경적 지식, 교수법, 아동 심리 등 전문성 부족으로 자신감 상실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주일 학교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현직 학교교사들은 비교적 교육학적 소양과 교육현장의 다양한 경험 등 교회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들을 이미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은데, 먼저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변화에 교사로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학교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하는데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그들은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학교교육뿐 아니라 교회 학교의 발전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일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교회 내의 현직 학교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과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일학교의 양적, 질적 성장과 성숙은 무엇보다도 교회적 차원에서 담임 목회자나 담당 교역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협력적 지원 등의 환경 조성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할 것이다. 최근 주일학교의 위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성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적인 비전 상실이나 각 교인의 소명감 결여 등 교회 내부적 원인이 더 크다 할 것이다(김정준, 2021: 17- 25).

이와 관련하여 함영주 외 (2015: 19-25)와 전병철(2016: 152-154)의 교회교육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회학교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담임 목회자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은 목회철학의 부재와 부교역자들의 전문성 부족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더군다나 교회의 교육정책 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담임 목회자의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적 노력 여부는 교육적 사명 고취나 재정 투입 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교육적 전문성이 부족한데다가 자주 바뀌는 부교역자들에 의해 대부분 운영되고 있음으로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철학, 내용, 방법 등의 계획과 실행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김남일, 2019: 50).

또한 담임목회자가 설교 중에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간담회 또는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특히 현직 학교 교사들에게 소명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함으로써 원활한 주일학교 교사 수급을 통하여 교회학교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장화선, 2015: 265-266, 270-271).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는 ‘주일·교회’ + ‘학교’의 복합 명사형이다. 즉 이는 신학(신앙)적인 측면과 교육학(교육)적인 측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육과 운영은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내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 간에 상호 협력적 관계(Team ministry) 속에서 신학적, 성경적 가르침의 내용을 교육(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 교사교육을 실시할 때부터 교육학적 지식을 주일학교교육 활동에 접목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윤진, 2008: 115). 이에 교회나 담임 목회자는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적 은사를 주일학교에서도 소명감으로 승화시켜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담임 목회자나 부교역자들이 차세대 교회교육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재 성인목회에만 관심이 머문다면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는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 교회나 교단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와 관련하여, 먼저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두 교회의 주일학

교 교사이며 현직교사 6명이라는 소수에게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교회의 지역이나 교단 등의 경계를 확장하고 표본 수가 더 확대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연구 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중인 교회 내 현직 교사와 현직교사가 아닌 주일학교 교사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도 의미가 있으리라 보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용원·이현철 (2010). 교회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 연구: 전문성 저해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54, 93-119.
- 김남일 (2019).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근거한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소고. **생명과 말씀**, 제23권, 46-76.
- 김성원 (2020). 유아 신앙 형성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한 유아 신앙. **신학과 실천**, 68, 411-449.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 나유미 (2016). 영아부 예배를 통한 영아와 부모의 신앙변화. **기독교교육정보**, 50, 53-80.
- 박미화·하연희·권미량 (2019).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예장 고신 교단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4(1), 59-93.
- 박상진 (2007). **교사 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박용규 (2022). 특별기고. 주일학교운동과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활동 1884-2015. **역사신학논총**, Jun. 30, 2022, 9-95.
- 서재복·권정숙·김양자·김태호·손충기·신봉섭·유평수·이석열·이호섭·한상훈 (2011). **교사교육론**. 서울: 태영출판사.
- 신현광 (2012). 교회목회에 있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2, 477-514.
- 이성복 (2019). 주일학교 영유치부 교사의 핵심역량 강화에 관한 조사 연구. **칼빈論壇**, 39, 415-436.
- 이윤진 (2008).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 101- 118.
- 이종승 (2009).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재·정태범·권상혁·노종희·정진환·정영수·서정화·이군현 (2003).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현철 (2013).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Narrative) 탐구. **개혁논총**, 28, 247-279.
- 장종철 (1999). 한국 감리교회의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논총**, 5, 33-93.
- 장화선 (2015).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5, 259-283.

전병철 (2016). 한국교회학교의 위기의 내적인 요인 심층 분석. **ACTS 신학저널** 30, 141-177.

조철현 (2017). 교회학교 교사의 역량, 헌신도, 만족도, 그리고 교사사역 인식에 대한 양적 연구: 장로교 K 교단을 중심으로. **개혁논총**, 43, 157-181.

함영주·전병철·신승범·이현철·조철현 (2015). 한국교회교육에 대한 교육지도자의 인식도 연구. **성경과 신학**, 75, 1-33.

함영주 (2016). 고등학교 교사의 리더십 역량과 학생이해, 교수학습능력, 사역만족도의 상관성 연구. **성경과 신학**, 79, 27-56.

홍종근 (2002). **교회교육행정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중인 현직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에 관한 인식과 요구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unday School among Current School Teachers Volunteering as Sunday School Instructors

김기 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이며 현직 학교교사인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기본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주일학교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7개의 범주와 14개의 하위범주, 아울러 연구대상자들의 교회주일학교에 대한 요구에서는 2개의 범주와 6개의 하위범주가 각각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가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그리스도인 학교교사들의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회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담임목회자의 주일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목회 철학과 더불어 주일학교 부교역자들의 교육학적 역량과 자질 함양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 교회, 학교교사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창세기 1:1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소진희 (Jin-Hee Soh)**

ABSTRACT

This is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Bible to the live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live the life God requires of them. The Christian Education of Faith that takes place primarily in the home, namely prayer, reading the Bible, and family devotions, is postulated as an enabler of the Christian life and the practicalities of these practices in guiding children in their pragmatic lives were elaborated. After discussing the need for Christian Parenting in light of the command to “first seek His Kingdom”, the concept of ‘Distinction’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is suggested as the core principle and the beginning of Christian parenting; obedience is discussed not in the Confucian sense, but as Biblical “Obedience” through Distinction; the importance of trivialities based on Biblical Distinctions is discussed; finally, principles of Biblical “Discipline” parents ought to know and practice in educating their children are discussed. The first step in practicing Christian parenting is to recognize that parents are also children of God. Parents living first as a child of God in applying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discussed within this study themselves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Christian Parenting and suggested as the verdict. If Reformative Christian Parenting professing God’s Lordship over all spheres of life is practiced within the home, the primary institution of education, it will greatly aid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advancing the vocation of humans to revolutionize the world.

Key words: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parenting, distinction, obedience, trifles, discipline

* 2023년 11월 8일 접수, 12월 3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3회 기독교학문학회(2016년 11월 5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학부대학 조교수, 부산 영도구 와치로 194, jhso@kosin.ac.kr

1. 서론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대한 연구¹로, 성경 말씀과 신앙적 행동(기도하기, 말씀 읽기, 예배드리기 등)이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는 개혁주의 세계관은 이원론적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요구한다. 우리의 교리가 참되다는 것, 성경이 전하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삶을 실제로 살 때에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오춘희, 2018: 13). 더욱이 성경적 지식관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삶 속에 실천해야 할 의무를 제공하는데, 성경적 지식관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능동적인 것(김성수, 2015: 29)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을 지식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경적 지식관에 근거해 보더라도 자녀교육은 성경 말씀과 신앙적 행동이 자녀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독교인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관심은 지대하다. 오히려 자녀교육을 위해 가족이 떨어져 지내거나 주일마저 자녀를 학원에 보낼 만큼 교육에 대단한 열의를 가진 부모도 있다. 자녀 세대를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교육열은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일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세상적인 성공, 혹은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함승수는 그의 연구 ‘한국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제언’에서 “입시 위주 교육의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상향성의 욕구를 성경은 경계하라 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 왜곡된 욕심이 교육에 투영되지 않도록 자각하고 참회해야 한다(함승수, 2018: 329)”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게 하는 관점에는 한국인들이 견지한 유교적 사상이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박상진, 2008 ; 양승준, 2018 ; 이찬수, 2000 ; 주인옥, 2007). 박상진은 한국의 입시 문제는 유교문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는 이러한 현상을 개혁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박상진, 2008: 99). 주인옥 또한 한국사회의 유교문화를 기독교의 중요한 요인, 특히 총체적 기독교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주인옥, 2007: 325). 민족성 혹은 세계관은 공동체적이기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부지불식간

1)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자녀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독교인 부모들로부터 받은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실제적인 지침에 대한 요구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교육을 가정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부모(혹은 교회교사까지도, 기독교교육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부모 교사까지도)를 염두에 두어 이론의 일상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에 스며든 유교문화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교는 유교 최초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유래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여기며 수직적 사회질서를 강조(안점식, 2008: 172)하기 때문에 유교문화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성을 얻은 상태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닌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인 관점이 세상의 머리가 되라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닌 사회적 성공과 명성을 얻은 상태로 적용하게 된다.

기독교적 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교육을 제시²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유대인의 교육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이유 중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육’이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둔 것일 수 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관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비록 비기독교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면 타협하거나 그것에 기독교적인 것을 덧붙여서 기독교적 가치인 양 활용하는 것이다.

자녀교육의 책임을 소명으로 받은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영역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녀교육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부모의 소명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다. 부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자녀교육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육하기 위해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녀 양육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대한민국 시민의 대립이 아닌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성경적 자녀교육은 신앙적 행동(예배, 성경 읽기, 기도, 헌금 등)이 최종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한다. 셋째, 성경적 자녀교육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그곳이 어디이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전제는 창세기 1:1이며, 자녀의 주인은 부모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부모의 역할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자녀교육이라는 교육적 소명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기준 ‘기독교교육(결과 내 검색어 +유대인)’ 키워드 검색 결과 국내 학술논문 75건, 학위논문 175건이 검색된다(2023년 11월 기준). 최근에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황병준과 김지숙은 가정을 경건한 신앙공동체로 세우는 신앙훈련 및 영성 훈련의 장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를 제시하고 있다(황병준 김지숙, 2018).

3)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부모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이련저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부모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자녀교육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을 지닌 기독교인 부모들이 성경에 기초한 자녀교육의 원리를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기초해 논의한 후, 자녀교육의 핵심 원리이자 시작으로서의 ‘구분’을 창세기 1:1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유교적인 순종이 아닌 구분에 따른 성경적인 ‘순종’, 그리고 성경적인 구분을 기초로 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부모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성경적 ‘징계’ 원리를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둘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의의이자 독특성은 자녀교육의 핵심이자 시작을 창세기 1:1을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 상정한 것에 있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가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핵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전제한 것은 이전 연구들보다 좀 더 본질적인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관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 연구가 원리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지만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선형적 경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들의 주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이다. 그러나 선행해야 할 질문은 ‘왜 해야 하는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보다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에 기초한 연구이며 방법론적 연구가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리에 근거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II.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토대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이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시민 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원리이다. 시민 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라’, 또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민, 영토, 주권 등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나라 또는 국가라 할 수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다.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소유권이 결정된다. 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 통치권의 개념(조호형, 2023: 385) 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원리에 입각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간이 만든 국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조리가 난무하고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부모로서 자녀교육의 소명을 수행할 때도 예외일 수 없다. 자녀교육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이론과 원리에 입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자녀교육의 출발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현대사회 혹은 한국적 상황과의 대립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고, 원수를 대하는 태도, 경쟁의 상대, 성공의 개념, 공부하는 목적, 나아가 인간 삶의 목적까지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괴리는 성경적 원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적 원리를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란격석(以卵擊石)’에 비유하며 합리화할 때도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바위에 속해 있으며 세상이 계란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진리, 창조주의 진리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쉽게 깨어지는 달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진리가 바위인 기독교의 진리를 만났을 때 깨어져야 하는 달걀이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만나 삶의 목적이 바뀌고 행복과 성공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성경적 원리와 현실 삶의 간극은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통치권에 의한 다른 방향’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 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며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다. 외현적으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교육이 현실 삶과 괴리가 있는 듯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부합하

4) 우리나라가 일본 국권 침탈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시민이 살고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표현한다.

는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듯이 말이다.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과 수고, 헌신이 요구되지만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로무공(徒勞無功)처럼 보이거나 손해를 본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에 쥐어지는 유익이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III. 자녀교육의 원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를 몇 가지로 정리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본 연구자는 기초적인 원리라 가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분, 순종, 사소한 것, 그리고 징계이다.

창세기 1:1을 기초로 한 구분은 자녀교육의 핵심이자 시작이라 전제한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은 앞서 논의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먼저 그의 나라, 즉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12:1-2), 즉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자신의 주권만을 구하라고 요구하신다. 따라서 삶의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중요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할 때 성경적인 순종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하게 여겨 실천할 수 있다 하겠다. 구분과 순종, 그리고 사소한 것의 실천은 자녀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면 징계는 부모가 실천해야 하는 영역이다. 징계는 자녀들을 기독교적 삶으로 양육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부모는 성경적 징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징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이므로 부모도 구분에 기초할 때 자신이 기준이 되는 징계가 아닌 성경적 징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1. 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성경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다. 기독교가 여타 다른 종교의 연속선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며 복음이라는 독특성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 세상과 사람의 주인(Wenham, 박영호 역, 2001: 101)이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무엇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것을 자신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계획도 자신의 생각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부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자녀 또한 주시는 대로 받은 것이라 부모의 것이 아니다. 주어진 자신의 생명도 자녀도 본질상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세기 1:1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이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 법과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준다. 창조주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피조물은 그의 것이며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피조물의 뜻이 아닌) 그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 어떤 것에도 제재를 받거나 어떤 누구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창세기는 이 세상과 인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재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1:1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구분’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것은 창조주가 있으면 창조주를 제외한 모든 것은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구분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다. 창조된 자신과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신국원, 2006: 66)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의식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단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게 한다. 인간의 위치와 존재 이유,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의 존재 방식 등 모든 것은 인간에게

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인적으로 인정하게 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며 인간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기초라고 한다. 면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시작도 이러한 구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구분이 없는 교육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실패를 초래하고 자신의 존재 방식의 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구분을 교육에 적용하여 ‘신분 구분’과 ‘행동 구분’으로 나누고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문화형성이기에 문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문화 구분’도 포함한다. 신분 구분과 행동 구분은 전혀 다른 구분이라기보다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신분 구분에 따른 행동 구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할 수 있다.

(1) 신분 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누군가의 자녀인 것, 누군가의 부모인 것, 누군가의 형제자매인 것, 학생인 것 등은 우연이라 할 수 있는가?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가? 학생인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고백은 자신의 신분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하는가? 본 연구자는 신분을 소명(부르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소진희, 2019: 44).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이것을 증거 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 1:16).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 치도 없기 때문에(Kuyper, 박태현 역, 2020: 71) 자신의 신분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나 같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분의 자녀를 양육할 어머니로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관점에 기인한다고 할 때, 신분 자체가 소명(부르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배상민 교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에서 인권보고서를 인용하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전 세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생인 것은 자신의 노력 이전에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한국에 태어난 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 2013).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분을 소명으로 해석하고 기독교교육의 목적을 ‘소명을 성취하는 삶’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득적 혹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소명)에 요구되는 삶을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신분 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이다. 신분 구분의 중요성은 신분에 맞는 행동이 무엇

인지 구분하여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 구분의 시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이 창조주인지 인간인지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이런 구분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부모인지 자녀인지)부터 학교(교사인지 학생인지), 교회(목회자인지 성도인지), 가족관계(형인지 동생인지), 성별(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성인인지 청소년인지) 등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분 구분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모든 신분에 적용된다.

신분 구분은 자신의 신분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것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한가지 신분만을 생각해서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도행역시(倒行逆施: 도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본 연구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지만 자녀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이다. 교수의 신분과 학부모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에서 교수의 신분만을 염두에 둔다면 갈등이 초래된다. 근래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살펴보면 신분을 구분하지 않아서 입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여러 신분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은 앞서 언급한 여타 다른 신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은 신분 구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라디아서 2:20)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된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영속적인 사건이다. 세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게 하는 중요한 출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 구분을 위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혹은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세례 교육’을 들고 싶다. 세례 교육은 통상 세례 혹은 입교를 앞둔 신자를 대상으로 교회가 일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의무만이 아닌 부모의 의무이며 가정에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⁵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며 이것은 자기 주장자가 아닌 자기 부인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출발이 된다.

5) 본 연구에서는 세례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차후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2) 행동 구분

행동 구분은 신분에 따라 취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 구분도 포함된다. 사람의 신분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바뀐다. 가정에서는 자녀이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행동과 학교에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간에 요구되는 행동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동은 같을 수 없다.

자녀들의 행동을 제재할 때 종종 제기되는 문제는 누구(아버지, 어머니, 누나, 동생, 내 친구 등등)는 할 수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는가이다. 어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허용되는 것은 행동의 내용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신분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신분과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행동 구분은 신분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동의 또는 실천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언제(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식사 시간인지 TV 시청 시간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주장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 어디서(가도 되는 장소인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공공장소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누구(만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공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인지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사람인지, 교제를 해야 할 사람인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인지 등)와 무엇(즐거워 되는 문화인지 피해야 할 문화인지, 바른 문화인지 퇴폐적인 문화인지,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인지 아닌지, 그것이 기쁨인지 쾌락인지, 가져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함께 쓰는 물건인지 개인의 것인지, 돈을 써야 할 때인지 쓰면 안 되는 때인지, 청소년문화인지 성인문화인지 등)을 할 때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에게는 허락된 장소라도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장소가 있다. 성인에게는 허락된 물건이라도 자녀에게는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는 허락된 행동이라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다. 부모님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있다. 다른 가정에서는 허용되지만, 자신의 가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러한 행동 구분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구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이 있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용납되거나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법과 윤리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과 윤리를 지키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행동 구

분의 핵심은 법과 윤리적 차원에서만의 행동 구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다. 법과 윤리적 차원에서 용납되는 행동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식적인 차원의 당연한 행동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법과 윤리는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라는 것이다.

신분과 신분에 따른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갈등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은 신분 구분에 의한 행동 구분이 되지 않는대서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도 동일하다 하겠다. 결혼한 남녀가 남편과 아내라는 신분이 아닌 청년이라는 신분과 행동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자녀들이 자신의 신분, 즉 자녀이며 학생이며 청소년(혹은 어린이)이라는 신분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한대서 발생하고, 부모 또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욱 그렇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위한 헌신과 사랑, 배려와 희생 등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일방적인 헌신이나 자녀의 일방적인(유교적인) 순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자는 각자가 자신의 신분에 요구되는 행동을 사랑 안에서 실천할 때 의도하지 않아도 좀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신분 구분에 의한 행동 실천이 가능하다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 구분

사람은 본질상 문화를 만들고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사상이나 이념, 전통, 관습, 학문 등 정신문화에서부터 의식주로 대변되는 물질문화, 그리고 책, 영화, 연극, 드라마, 광고, 여가 등 대중문화는 우리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화형성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자신이 속한 문화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문화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현대사회의 문화는 하나님을 향하는 문화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어떤 문화는 인간을 파괴시키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하여 정신적 심리적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아가 인간존재의 목적까지도 왜곡시킨다.

문화를 구분하는 힘은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존재의 목적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세속적인 세계관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녀들이 쉽게 노출되는 대중문화는 자녀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어 행동양식에 적극적으로 모방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은 중요하다. 대중문화 구분의 기준은 순전한 기쁨인지 잘못된 쾌락인지, 쉽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지 해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인지 등인데,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비록 개인적으로는(혹은 사회적으로) 그 문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실제로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⁶ 본 연구에서는 문화 중 정신문화 구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사상, 학문, 종교, 예술, 언어 등의 정신문화는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시대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학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예술 등은 그 시대가 존재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 준다. 많은 사람들은 학문연구에 의해 이론화된 지식, 과학적 탐구에 의한 이론,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주장되는 개념이라면 거의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⁷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까지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도 한다. 그런 지식이나 이론, 신조어 등을 더 빨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온당한 삶의 태도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신문화를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세속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정신문화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지식은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 이론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정신문화를 구분하기 위한 출발이 되는 질문일 수 있다. 모든 공부와 이론과 학문과 사상에 적용되어야 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부모들도 자녀들도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질문과 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기독교학교 일 것이다. 그러나 자녀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러한 질문과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잡한 정신문화 분석에 유연해지게 하는 용이한 방법은 정신문화 중 다소 단순한 신조어를 구분하게 하는 것이다. 그 신조어에 내포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 혹은 어긋나는지, 그 신조어는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파괴하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기준 ‘기독교교육(결과 내 재검색 +대중문화)’ 키워드 검색 결과 국내학술논문 110건, 학위논문 342건이 검색된다(2023. 10월 기준).

7) 2022년 8월경 프랑스의 유명 물리학자 에티엔 클렝(Etienne Klein)의 소시지 사진 사건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이라며 아주 자세하게 찍어 올린 사진에 네티즌들은 열광했지만, 사실은 얼마 후 클렝은 그 사진이 스페인 소시지 단면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권위 있는 물리학자의 장난을 무책임한 것으로 여겼지만 클렝은 ‘권위 있는 사람의 주장이나 그럴듯한 사진이라고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기독교적 발문’이라 명명하는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고 그 관점에 내재된 세속주의를 인식하게 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서울이라는 말은 누가 왜 말한 것인가? 누구 혹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말인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금수저 은수저 ... 어느 집에 태어날 것인지 결정할 수 없음에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할까?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던 것에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을 가지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모는 결정할 수 없었지만 어떤 자녀로 행동하는 것은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등의 질문이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이나 신조어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좀 더 복잡한 학문이나 이론, 사상 등을 구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학습의 전이’라고 한다. 학습의 전이란, 어떤 학습 경험에서 얻은 지식, 능력 등이 다른 상황이나 과제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으로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소한 신조어를 해석하는 것에서 복잡한 이론까지 해석할 수 있는 학습의 전이를 기대할 수 있다.

2. 순종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4)

(1) 듣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은 ‘들으라’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며 지식 축적을 위해 들으라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순종하라!’(Koehler et al., 1994-2000: 1570-1574)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순종은 이성적 판단으로 동의가 되면 행동하고 동의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후에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유일하신 전능자의 말씀에 이성적 판단이 전제될 수는 없다. 순종은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결단이라기보다 이성적 판단보다 앞서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이성적 판단에 앞서 어떠한 가치판단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인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개혁주의자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던 대소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등도 순종의 방

법을 취한다. 주어진 질문에 정해져 있는 답이 있고 주어진 답을 암송하여 대답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을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리는 스스로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의 역할은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진리를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확장시킬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기독교적 교육의 출발은 ‘순종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이 일반교육과 구별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일반교육의 목적은 합리적인 인간 형성에 있다. 합리적인 인간은 이성에 부합하거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실 판단의 근거가 과학과 이성이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성적 판단에 앞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요구한다.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의 순종에 기초할 때 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서의 받아들임이 전제되지 않은 이성의 판단은 불순종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합리성조차도 신실(Smith, 박세혁 역, 2018: 48)해야 한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은 ‘듣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로 교육해야 한다. 마음으로서의 순종 영역이 있고 이성적 판단으로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살고 현대교육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이성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조차 이성적 판단을 위한 질문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식이나 정리된 이론을 저울질하는 것, 더 나아가 일반적 이론이 기준이 되어 성경 말씀의 내용을 판단하는 등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진리를 자신의 삶에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데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감사의 적극적 반응으로서의 순종

기독교적인 순종교육을 위해서는 ‘순종’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수직적인 사회질서를 강조하는 유교적 삶의 원리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순종’이 연장자(혹은 직책 등)인 타자의 요구에 의한 거절할 수 없는 소극적인 행동, 때로는 원치 않으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순종은 감사함에 대한 적극적 반응으로써의 행동이다. 월터스토포르프(Wolterstorff, N. P.)는 감사를 위한 교육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항상 ‘복 주시어’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명령에 대한 반응은 복 주심에 대한 감사(Wolterstorff, 2002: 267)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순종하는 이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이 거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근원이 될 때 참된 의미의 순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유교적 관점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순종교육은 부모의 의견과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판단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순종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는 자녀교육을 소명으로 받았기에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권면의 차원이어야 한다. 진리 안에 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 있다면 구체적인 적용이 부모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녀의 결정에 지지와 응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순종’을 ‘자신의 신분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 ‘외부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행동이 아닌 감사에 의한 적극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 청소년으로서 자신이 즐기는 문화를 선택하는 것 등을 구분하며 행동하는 것은 자녀로 학생으로 청소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반응인 것이다.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분의 자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여 자녀를 위해 밥을 하는 것에서부터 물리적 시간적 사용을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이다. 결국 자녀의 일차적인 순종의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적인 순종’은 ‘구분’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하겠다. 구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상실된다.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구분이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한다. 부모님은 자신을 양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구분이 부모님의 권면을 귀담아듣게 한다. 앞서 신분 구분에서 언급했듯이, 1%라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하셔서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 자신의 신분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감사함으로 행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3. 사소한 것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창세기 3:6)

창세기 3장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불순종의 결과로 최초의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 완벽했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은 열매의 양 때문이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⁸ 물질주의 세계관으로 보면 양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는 하나님이지기에 하나님 말씀에의 불순종이 단절의 원인이다. 드러난 현상 또는 그것이 지니는 객관적인 값어치가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가 누구인지,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현상이나 상황의 가치를 결정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은 긍정적인 면에도 부정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10)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누가복음 19:17)

여기에 언급된 ‘작은 것’도 외현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한 존재에 대한 인정이며 충성의 대상은 그 일이 아닌 그것을 요구한 주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겉으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1) 사소한 의식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일평생을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에게서도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 1:8)

뜻을 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 일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의식주’는 모든 문화의 기본으로 그 사회의 가치관이 의식주를 형성하고 또한 의식주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민족은 동일한 의식주를 가지고 있고 그 의식주가 그 민족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준다.⁹ 따라서 의식주는 아주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평생 바벨론을 위해 핵심적인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에 동화되지 않

8) BHS 창 3:6. NIV는 some으로 복수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으나 오역이며 히브리 원문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9) 이슬람은 그들만의 의식주를 철저히 지킨다. 히잡, 할랄식품, 그리고 도시나 건물을 건축할 때 알라의 가호가 느껴지도록 건축한다. 본 연구자는 철저한 이슬람식 의식주가 이슬람 결집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한다.

을 수 있었던 것은 사소해 보이거나 가장 기본적인 문화부터 거부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그의 나라’를 먼저 구했고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위해 일했으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민족은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의식주를 공유하는 자라는 전제를 통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의식주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의식주 내용 자체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방해하거나 삶 속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기꺼이 멀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세대의 의식주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의 흡수를 가속시키게 되는데 앞서 논의한 것과 동일하게 세계관은 문화를 형성하고 자신이 속한 문화는 세계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질문화의 한 영역인 의식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간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는 또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디이며 그 공동체와의 결속력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대의 의식주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 세대가 요구하는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의식주를 선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사소한 삶의 태도

자녀의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나쁜 습관, 사소한 잘못 등 사소한 삶의 태도가 당장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사소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사소한 삶의 태도 빈도나 강도가 그것에 대한 교육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특히 물질주의 관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식탁에 올려둔 천원이 없어졌을 때와 십만 원이 없어졌을 때, 자녀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갔다는 전제하에, 부모는 돈의 값어치를 떠나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댄 것에 대한 교육은 돈의 액수와 관련이 없다. 사소한 규칙을 어겼을 때와 중요한 규칙을 어겼을 때도 그것을 다루는 내용과 방법은 동일해야 한다.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의 행동이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그 나이에서 행할 수 있는 큰 잘못 일 수 있다.

자녀교육에서 중요하나 자주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소한 삶의 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인데, 사소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 사소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약속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적은 돈도

관리하지 못하면 큰돈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지키는 자녀로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성경적 인간관이 거부하는 인간관은 본질상 선하다는 인간관, 본질상 결정론적이거나 전적으로 부정적인 관점의 인간관, 인간의 자율성을 조장하는 인간관(김성수, 2015: 21-22) 등이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자녀의 사소한 삶의 태도에 대해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며 크면서 알게 된다고 적극적 교육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되고, 지나친 비관론은 사소한 삶의 태도가 교육으로 바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나 완전히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 받은 자이다. 낙관론이나 비관론은 세상이나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크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존재도 아니고 사소한 삶의 태도가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타락의 모습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또한 타락한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사소한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4. 징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창세기 3:23)

징계는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자는 교육의 목적을, 일반적인 용어로는, ‘전인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활동’으로, 기독교적 용어로는 ‘소명을 성취하는 삶’으로 정의한다.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소명을 성취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는 교육목적 달성에 중요하다. 오춘희는 그의 연구, ‘기독교교육의 잃어버린 보화: discipline’에서 discipline이 징계, 훈계, 교훈, 벌, 징벌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하며, 교회에서의 discipline이 상실되고 기독교대안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discipline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정에서의 discipline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증대한 것이 되었다고 강조한다(오춘희, 2014, 21-22).

기독교적 자녀교육에서 부모가 시행해야 할 자녀에 대한 징계 또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징계는 처벌의 목적이거나 비난의 도구가 아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하신 말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창세기 3:16)의 ‘고통(아차브)’은 ‘명심하게 하다, 각성시키다’의 뜻이다. 하나님의 징계는 명심하게 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 징계로 말미암아 그러

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단순한 처벌이나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자는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의 원리를 소극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으로,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과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의 원리를 중심으로 용서와 책임의 분리, 성실함과 함께함, 그리고 뉘우침과 결단이 포함된 징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며 변화된 상태에 대한 소망이 징계의 핵심임을 밝히고자 한다.

(1)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징계의 원리, 즉 ‘돌아갈 수 없는 에덴동산’의 원리는 용서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용서받았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완벽했던 에덴동산에서 피흘림의 제사를 감행하시면서까지 말이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용서는 불순종을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진 벌과 함께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이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에덴동산에서 불순종 이전에 누리던 모든 완벽함과 영원히 사는 것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용서받았다고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땀을 흘려야 했으며 해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받았기에 이전에 누리던 것, 자신이 누려야 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

인간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볼 때, 부모는 자녀의 어떠한 잘못이나 불순종도 용서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자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녀의 불순종 또는 잘못에 책임질 기회를 주지 않는 용서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다. 오히려 방종으로 이끌 수 있다. 잘못에 대한 불편함과 힘들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바른 징계를 위해서는 용서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분리해야 하며 징계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예컨대, 일주일 학교 통학 교통비로 받은 돈을 여타 옳지 않은 것에 사용했을 경우, 그런 행동을 용서하는 것이 일주일 사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다시 주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교통비를 받을 때까지 걸어서 등교하는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2) 성실함과 함께함의 징계

부모에게는 자녀를 징계할 때조차 성실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히 징계하시는 것

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징계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준은 확실하며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징계가 가능한 것은 ‘사랑’에 기초한다. 창조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창조주의 말씀이 삶에 기준이 될 때 가능하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에의 순종을 성실하게 강조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성실하게 징계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사랑에 근거한 성실함이 요구된다. ‘순종’에서와 같이 징계의 기준도 부모님 말씀에의 불순종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어야 하고, 자녀가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징계는 피해야 한다. 징계의 내용도 그러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불이익을 주고 마는 징계는 징계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

징계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방법 또한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 성실한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는 자이고, 징계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랑은 역기능적이고 자녀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징계를 할 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자녀들의 끊임없는 요구 등의 이유로 성실한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자는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는 이유를 부모의 이기심 때문이라 표현한다. 이기적인 자녀 사랑, 자녀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반응, 자녀의 자존감의 문제, 자신의 분주함, 자신의 필요 충족 등 때문에 성실한 징계에 실패하거나 징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의 전적인 희생이다.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죽음과 고통 속의 인간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셨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희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다. 징계의 상황에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요한복음 3:16; 로마서 5:8)을 보여주셨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희생과 함께함이 필요하다. 자기희생이 없는 징계는 폭력일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일 수 없다. 부모도 징계로 인한 자녀의 불편함과 힘들에 함께 해야 한다. 예컨대, 자녀가 교통비를 다른 데 사용하여 학교까지 걸어가야 할 때 어린 자녀라면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자녀에게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면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징계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로의 돌이킴이기 때문에 징계의 상황일 때에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3)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

징계에서 또 다른 원리는 징계받는 자녀에게 그러한 행동이 심각한 불순종이며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뉘우침과 결단’을 끌어내듯이 자녀교육에 있어 징계 또한 ‘뉘우침과 결단’이 따라야 한다. 근래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의 반복되는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징계, 즉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지 않는 징계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육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교육의 연장인 징계 또한 더 나은 사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뉘우침과 결단을 하게 하는 동기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획일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된 징계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알아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연구된 인간 성향이 아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심리가 아닌 자신의 자녀를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정희영 등은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일반교육과 심리학의 분야에서 제공된 자녀 양육의 방법과 기술들이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유익한 통찰과 유용한 원리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부모들이 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일반교육학이나 심리학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교육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희영·정희정, 2008: 267).

이러한 연구들은 참고해야 할 중요한 자료이지만 바로 내 자녀를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자녀는 무엇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가, 가장 기뻐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일 때 반성하는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가, 언제 회로애락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일 때 힘들어하는가 등 자녀를 아는 만큼 뉘우침과 결단이 동반되는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적절한 ‘징계’가 주어져야 한다. 사소한 것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으면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소한 것부터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돌아갈 수 없는 에텐동산’의 징계, ‘새로운 언약에의 소망’의 징계가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학습자를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가는 학습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자녀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치는 부모이다. 자녀를 교육할 때 기독교적 가르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부모가 먼저 기독교적 원리에 헌신 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적 원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 이전에 기독교적 원리가 삶에 내재 되어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능하다 하겠다. 흔히 ‘모델링의 원리’라고 하지만, 기독교인 부모는 자녀에게 이상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모방하는 것이 진정한 모델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 된 자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하며,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적절한 징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은 실천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만약 내 자녀가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토대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토대 출발로 구분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용서와 책임이 분리된 징계, 성실함과 함께함의 징계, 뉘우침과 결단이 있는 징계를 해야 한다. 부모에게 주어진 교육적 소명은 자녀가 이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교육의 개론적인 원리에 관한 연구에 목적을 둔바, 제시한 각각의 원리들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한 공부하는 목적, 진로 교육, 인성교육 등에 제시된 원리의 적용은 차후 연구로 남겨둔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16). 일상의 삶: 행복과 불행. **철학논집**, 46, 41-68.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2009). **기독교교육의 기초**. Richard J. E.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그리스.
- 김기숙 (2020). 21세기 시대정신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64, 1-36.
- 김난예·김요셉·옹성욱 (20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자녀교육**. 서울: 쿤란출판사.
- 김달효 역 (2013). 단호한 훈육. Canter, L. (1992). *Lee Canter's Assertive Dicipline: Positive Behavior Management for Today's Classroom*. 서울: 학지사.
- 김병재 (2022).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그리스도인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1), 89-119.
- 김성수 역 (2003). **가르침은 예술이다**. Van Dyk, J. (2000). *The craft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IVP.
- 김성수 (2015). 기독교교육의 정체성. **기독교교육학 개론**(강용원 책임편집), 15-45. 서울: 생명의 양식.
- 김세윤 (2015). **바른 신앙의 질문들**. 서울: 두란노.
- 김진홍 (2011).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만 선포하라**. 서울: 팜트리.
- 김헌수 (2014). **영원한 언약-유아세례 예식문 해설**. 서울: 성약.
- 김홍만 (2013).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박문재 역 (2022).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강해**. Alexander, W. (2004). *An Exposition on the Shorter Catechism*. 서울: CH북스.
- 박상진 (2008). 입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18, 99-129.
- 박상호 역 (2012).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 Van Dyk, J. (2011). *Letters to Lisa*.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호 역 (2001). **창세기 1-15**. Wenham G. (1987). *Word Biblical Commantary*, Vol. 1: Genesis 1-15. 서울: 솔로몬출판사.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군포: 다함.
- 소진희 (2018). **우리 이야기와 노래**. 부산: ReEd.
- 소진희 (2019). **HERE and NOW-학문 소명 진로**. 부산: ReEd.
- 신국원 (2006).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신승범 (2016). 부모, 신앙교육의 주체인가?. **기독교교육논총**, 48, 293-319.
- 안점식 (2008). **세계관 종교 문화**. 서울: 조이선교회.

- 양승준 (2018). 임영택의 기독교교육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57, 63-91.
- 오광만 역 (2004). **기독지성의 책임**. Plantinga, C. (2002). *Engaging God's world*. 서울: 규장.
- 오춘희 (2014). 기독교교육의 잃어버린 보화: discipline. **기독교교육정보**, 41, 1-33.
- 오춘희 (2018). 일상의 삶으로 접근하는 기독교교육: 세상의 미로 속에서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정보**, 58, 1-25.
- 유선희 (2023). 기독교 가정의 긍정적 언어 환경을 위한 연구: '토마스 고든'과 '마조리 코스텔닉'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77, 89-119.
- 유은희 (2023).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신앙과 학문**, 28(3), 91-121.
- 유재봉 (2019). 쉽고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 유해무 (2019). **우리 신조 수업(유교수의)**. 서울: 담백.
- 윤석인 역 (2010).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Horton, M. S. (1995).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A Christian View of Culture and Your Role in it*. 서울: 부흥과개혁사.
- 이경섭 역 (2017). **개혁주의 교육학**. Berkhof, L. & Van Til, C. (1989).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Addresses to Christian Teachers*.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 이지선 역 (2021).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Ferrando, F. (2020). *Philosophical Posthumanism(Theory in the New Humanities)*. 서울: 아카넷.
- 이지혜 역 (2010). **공부하는 그리스도인**. Opitz, D. & Melleby, D. (2007). *Outrageous Idea of Academic Faithfulness, The: A Guide for Students*. 서울: IVP.
- 이찬수 (2000). 한국의 전통문화 입장에서 본 기독교 가정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0, 87-103.
- 이해명 역 (2009). **교육적 상상력**. Eisner, E. W. (2001).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경기도: 단국대학교출판부.
- 진중권 (2019). **현대미학 강의**. 파주: 아트북스.
- 정옥분·정순화 (2019).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희영·정희정 (2008). 일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 **신앙과 학문**, 13(3), 267-306.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03-239.
- 조호형 (2023). 바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대체 용어에 대한 고찰: '엔 그리스토'에 대한 재고.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71, 384-414.
- 주인옥 (2007). 기독교 교육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 **기독교교육논총**, 15, 325-345.
- 최은택 (2020).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적 가정영성교육 모형: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3, 91-120.

- 함승수 (2018). 한국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제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57, 329-358.
- 홍종락 역 (2017). **사랑과 정의**. Wolterstorff, N. P. (2011). *Justice in Love*. 서울: IVP.
- 황대우 편역 (2013).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 황병준·김지숙 (2018). 하브루타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4, 209-242.
- Abbott, J. S. C. (2005). *The Child at Home: Living to Please God and Your Parents*. FL: Solid Ground Christian Books.
- Clarkson, S. (2004). *The Ministry of Motherhood*. CO: Waterbrook Press.
- Elliger, K. (2007). *Biblic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 Koehler, L., Baumgartner, W., Richardson, M. E. J., Stamm, J. J., Hartmann, B., Jongeling-Vos, G. J. & Regt, L. J. (1994-2000).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 Palmer, P. J. (2007). *The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CA: Jossey-Bass.
- Plantinga, A. (2015). *Knowledge and Christian Belief*. MI: Eerdmans Publishing Co..
- Plantinga, C. (2023). *Under the Wings of God*. MI: Brazos Press.
- Smith, D. I. (2018). *On Christian Teaching*.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Smith, J. K. A. (2006).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MI: Baker Academic.
- Smith, J.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MI: Baker Academic.
- Smith, J. K. A. (2010). *Letters to a Young Calvinist: An Invita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MI: Brazos Press.
- Smith, J. K. A. (2013). *Imagining the Kingdom*. MI: Baker Academic.
- Wayne, I. (2017). *Education: Does God Have an Opinion?* AR: Master Books.
- Wayne, I. (2018). *Answers for Homeschooling*. AR: Master Books.
- Westerhoff, J. H. (2012).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3rd ed.). NY: Morehouse Publishing.
- Wilson, D. (2022). *The Case for Classical Christian Education*. ID: Canon Press.
- Wolterstorff, N. P. (1980). *Educating for responsible action*. MI: Eerdmans Publishing Co..
- Wolterstorff, N. P. (2002). *Educating for life*. MI: Baker Academy.

Wolterstorff, N. P. (2004). *Educating for shalom*. MI: Eerdmans Publishing Co..

Wolterstorff, N. P. (2019). *In This World of Wonders: Memoir of a Life in Learning*. MI: Eerdmans Publishing Co.

“세상을 치유하는 나눔 디자인” 세바시 329회 (2013). Retrieved from <https://youtu.be/LH71QPRuQDQ?feature=shared>. (2023.10.1.)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창세기 1:1을 중심으로

The Principles of Christian Parenting -in the Context of Genesis 1:1

소진희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적 자녀교육의 원리에 관한 연구로, 성경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신앙교육, 즉 기도하기, 말씀 읽기, 가정예배는 기독교적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자녀의 현실적 삶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성경적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기초해 논의한 후, 자녀교육의 핵심 원리이자 시작으로 창세기 1:1절을 중심으로 ‘구분’을 제시하고 유교적인 순종이 아닌 구분에 따른 성경적인 ‘순종’, 그리고 성경적인 구분을 기초로 한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데 부모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성경적 ‘징계’ 원리를 제시하였다. 기독교적 자녀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다. 부모가 먼저 본 연구에서 논의된 자녀교육의 원리를 스스로 삶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기독교적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의 핵심적인 장소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되심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도록 하는 개혁주의적 자녀교육이 실천된다면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곳에서든 세상을 변혁해야 하는 인간의 소명을 성취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기독교교육, 자녀교육, 구분, 순종, 사소한 것, 징계

신명기 6:4-9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한 유아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고찰: 부모의 마음을 중심으로*

**Discussion about the purpose and details of biblical parenting during infancy
through a command to teach in Deuteronomy 6:4-9: Focused on parent’hearts**

박은호 (Park, Eun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biblical evidence from Deuteronomy 6:4-9 that parents are given a command to teach their children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biblical parenting. Nowadays, several theories regarding and parenting are developed and suggested. However, parents feel more confused and anxious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suggestions. The cause of the confusion and anxiety that these days parents experience are caused by the fact they have lost the nature of parenting that was instructed by God. Therefore, the purpose, detail, and instruction of biblical parenting are closely looked at in Deuteronomy 6:4-9. First, the purpose of parenting is to teach them to fear God. Second, the detail of parenting is to love God, the only one who is good. Third, the instruction of parenting needs the detail of education to be learned and internalized and last eternally. Lastly, the influence of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from individual to commun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arly childhood is the prime period to be educated and internalized the command from God, which is teaching, the reason i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imitation, and strong recognition development in infancy. The procedure of following the command suggests that parents need to be aware that although they are the first teacher of their children, yet they don’t have the ability to teach the children, and they need to fear God before teaching the children to fear God. In

* 2023년 11월 9일 접수, 12월 3일 최종수정, 12월 14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상담대학원 조교수, 서울 동작구 사당로 143, ehpark9090@gmail.com

conclusion, biblical parenting is parents becoming the first ones to love God, convey it to children through communication, and internalize it.

Key words: parenting, God's command to teach, love of God, internalize of mind, early childhood

I. 서론

현대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동연구와 인지발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수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정희정, 2016).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P.E.T(Parents Education Training),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을 비롯하여 부모의 자질 향상, 의사소통, 사회성 증진, 부모의 기대감 탐색 등 부모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강조가 정점에 있는 만큼 자녀 양육과 교육 방침에 대한 연구와 담론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정보들은 방대하고,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 부모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정희정, 2011: 196 ; 지성애, 2016: 3). 이에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부모교육의 내용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양육의 공동 책임, 가사와 양육의 분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리더십,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양육 정보들로 매우 다양하다(한유진 외, 2019: 87). 다양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국가와 자녀를 위한 부모 개인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자녀 양육 자체가 큰 책임감을 수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심리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자녀교육 방향의 불확실함으로 인해 불안하다(진다희, 2022: 47 ; Kahneman, 2004: 432 ; 백영숙, 2007).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불안과 고민은 기독교인 부모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라는 의식은 있지만,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과 신앙 교육 모두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이다. 다양한 부모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들은 자녀의 문제 행동에 역점을 둔 서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교회와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다(채경선, 2006).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도 마더와이즈 프로그램, 유니게 프로그램, 아름다운 부모학교 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같다. 성경적 원리에 의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목표는 행동 수정에 한정될 수 없다. 성경은 순종의 결과로서 마음의 태도와 동기의 변화를 말한다. 마음의 태도와 가치, 신념이 변화될 때,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된다. 이 글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의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 마음의 욕구와 기대에 있다고 전제한다. 마음은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실행하는 중심이며(벤전 3:4), 행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경배의 영역, 회복되어야 할 영역으로 마음을 들고 있다

(신 30:14 ; 잠 4:23 ; 렘 31:33 ; 눅 6:43-45 ; 약 1:14). 그동안 쉼마를 중심으로 한 자녀 양육과 부모 역할,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김호식의 연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오직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김호식, 2004). 송지현은 쉼마를 통해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송지현, 2008). 김선환은 자녀를 위한 부모 양육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연구하였다(김선환, 2011). 이미향은 교회에만 맡겨진 자녀 교육의 현실에서 부모는 자녀의 목회자임을 강조하고 가정사역의 소중함에 주목하였다(이미향, 2012).

현대사회의 모습은 급격하게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절대가치를 부정한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통해 제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란 아이들로 인한 교육의 실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Zuck, 1997: 47). 개인의 자율성과 절대가치 중립의 문제점은 부모의 권위 상실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인간지향적인 부모 마음의 동기를 말해준다. 신 6:4-9 본문에 나타난 성경적 자녀 양육의 근본적인 원리와 방향성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담지해야만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곧 부모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자녀 양육이 가능하다. 부모 마음의 태도, 동기가 하나님과 관계있을 때 자녀교육은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신명기 6:4-9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알아보고, 자녀 양육 실천의 중점을 유아기에 두고자 한다. 유아기의 자녀 양육 모델, 양육 태도, 자질 훈련, 예배와 기도 등의 연구는 다수 있으나(박경숙, 2007 ; 이영주, 2007 ; 김홍순, 2017 ; 김성원, 2022), 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한 성경적 목표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기는 전 생애를 위한 신앙의 기초와 행동 지침의 토대가 된다. 그 성경적 근거는 유아기에 형성된 것은 평생 영향을 미치고, 유년기에 추구한 것은 장년기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에 둔다(잠 22:6 ; Monroe. 이원영 역, 2022: 25).

II 펴는 글

1.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사람은 생명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생명이 없어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의 과정을 거친다(신명희 외, 2019: 19). 사람은 태어나서 단계별 발달에 따라 급성장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또 각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는 도식에 따른 단계별 발달 과업의 성취는 다음 발달 단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큰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이다. 자녀 양육을 건강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움을 부모교육이라 한다. Croake와 Glover는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해주기 위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부모의 목적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했다(박성연 외, 2014: 16). Grotbert는 부모교육은 역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정희정, 2016: 26). Hamon과 Brim은 일생동안 개인이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태도, 가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며 주변 환경과 대중매체로부터 교육적 영향과 자원을 습득하는 비형식적 교육까지 부모교육의 영역으로 보았다(박성연 외 2014: 16). 부모교육의 목적은 부모로 하여금 효율적인 부모와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돕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히는 것을 돕는데 있다(윤혜경 2020: 17).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의 목적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대화법, 격려와 같은 특정한 기술의 훈련 영역,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정보의 전달과 습득의 영역, 부모의 문제 행동, 양육 태도, 자기 인식을 통한 자질 훈련, 가치 체계의 변화를 위한 영역들로 구성된다(윤혜경 2020: 17 ; 연미희·김진숙 2001: 45-47).

1) 부모교육의 목표와 내용

부모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피기 전 먼저 부모 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부모교육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현대와 같은 의미로서의 부모교육은 아니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동이 교육을 통해, 국가의 힘을 강하게 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것을 강조하며 7세까지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옥분·정순화, 2016: 60-61). 로마 시대에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자녀 양육을 어머니의 중대한 임무로 여겼다. 중세 시대에는 자녀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의 혹독한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근대에는 현대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코메니우스가 자녀는 최초의 6년 동안 어머니의 무릎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였다(정옥분·정순화, 2016: 60-65). 이를 부모교육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루소와 페스탈로치에 이르기까지 가정교육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었다(정옥분·정순화, 2016: 66-68). 20세기에 들어서며 과학적인 관점에서의 인간발달 연구와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도 가정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조선 시대의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의 자녀 교육법은 현대에 재조명되기도 했다.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모교육의 내용과 역할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다. 루소와 프리벨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관점을 두었고 페스탈로치는 도덕성, 사랑, 신뢰와 같은 품성에 초점에 두었다. 코메니우스는 신앙교육, 도덕, 건강, 언어 등 인간성의 성장을 강조하였다. 여러 학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공통된 강조점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도덕성과 신앙, 인격, 직업 기술 등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자녀교육의 중점 연령에 대해서도 학령기전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는 비슷하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의 목표와 내용, 역할은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부모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적인 기술뿐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지식, 도덕성과 인격의 형성에 관심을 두었다. 전통적으로 자녀의 역할 중에는 가업을 잇고 부모를 봉양하는 경제적 가치로서의 의미도 있었으나, 자녀 양육의 목표와 교육의 내용과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방식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방식대로 삶을 살도록 부모 스스로 본을 보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질로 가르쳤다. 예를 들면,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자식에게 농사를 가르쳤고, 목수는 자신의 기술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기술을 전수하는 등 가르침의 목표가 분명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자식들에게 부모가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따르게 할 삶의 방식이 모호하다. 따라서 현대의 자녀 양육의 교육 내용과 부모의 역할은 재정적이고 물리적인 보호를 통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로 한정되었고, 도덕성이나 인격, 신앙,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기능은 적어졌다(Senior, 이경식 역, 2014: 215-216 ; 문무경, 2017).

2)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원인

오늘날 자녀 양육과 역할 수행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부모의 구체적 현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첫째, 부모 역할로서의 정보의 수집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다. 현대의 부모교육이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대사회의 문화, 가치관에 따라 부모교육의 내용이 자주 바뀌게 되었다(이하정, 2005). 이로 인해 현대의 부모역할은 정보의 수집과 미래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자녀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목표는 있으나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급한 부모의 마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과 방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불안하고 조급한 부모는 새로운 이론이나 상충하는 이론을 시도하며 당황해 한다. 현대 부모의 불안은 사회의 변화와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 구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미래사회에 대한 예견은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슈퍼파워 세력에 의한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 낼 가능성(유발 하라리, 2018: 129-134)과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양육 방식체계였다. 이러한 체계의 도래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사용 기술이 중요하다고 한다. 양육자는 이미 방대한 교육 정보와 정보 수집에 가치를 두었는데, 뒤이어 수집된 이론은 정보의 양이 아닌 정보 사용을 위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당황과 혼란을 경험한다. 또 '대인 관계기술의 개발과 지식 습득의 중요성'에서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으로 방향이 전환되자 부모는 다급하게 되었다. 이에 부모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변화에 따른 대처는 물론이거니와 부모 역할에서도 혼란을 느낀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여러 새로운 것을 따르고 시도하는 동안 아이들은 성장해 버려, 부모의 자녀 양육은 결국 시도로 마치게 되는 현실이다. 부모에게는 불안뿐 아니라 실패감이 가중되고, 점차 자녀 양육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둘째, 자녀 양육의 목표로서의 문화적 가치와 신념으로 대두된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압박이다(Hays, 1998: 67-68).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의 미래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목표로 설정된 행복은 가치 있는 여러 활동들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행복은 매우 추상적인 목표로 막연한 것이다.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성공과 행복은 현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지하여 전수하는 양육자보다는 문화에 부응하는 양육의 전략가가 되기 쉽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문화적 전략과 방법에 휩쓸렸듯이 유년기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시기에 이와 같은 목표로 양육 받은 자녀 세대는 '안정과 성공'이라는 부모의 목표물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 한동안 사회전염과 같이 '공무원 되기'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의대 열풍'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현상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역할의 어려움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은 양육 스트레스 외에도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적어진 자녀의 수로 인해 아이 한 명당 들여야 하는 시간의 증가, 높아진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과 요구 수준, 맞벌이 부부의 역할 등이다

(지성애, 2016: 11-13). 마가렛 미드는 자녀가 잘 자라가도록 돕는 부모역할은 건강과 신앙, 인격, 도덕성, 능력의 발견, 놀이하기 등을 통해 수행하는데,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목적이 '교육'이 될 때, 부모의 불안과 불확실성은 현실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enior, 이경식역, 2020: 87-91). 즉 교육은 자녀 양육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은 부모 마음의 태도, 동기와 같은 내면적인 원인이라고 하겠다.

2.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부모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알아보겠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피조 세계의 창조자시며 그의 지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식의 원천이며 근원이 되시기에 인간의 모든 영역은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박은호, 2022: 71). 그러므로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신 30:16, 30:12). 성경적 의미에서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를 양육하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의 온전함, 거룩함과 기쁨을 영위하는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돌봄과 지지, 사랑을 경험하고 삶의 기초적인 자원과 역량을 얻는다(김규보, 2019: 81). 이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영원한 상에 참여하게 될 자의 마음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자녀의 성장이며, 성장을 돕는 일은 양육을 통해서이다. 신체와 인지, 정서의 체계적인 변화와 안정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장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점차 뚜렷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점진적인 안정과 구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 안정된 삶은 순종이 훈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전 1:5-6)"는 베드로의 권면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골 1:9-12)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의 좋은 예이다. 성장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도식이 뚜렷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고전 13:12).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은 말씀(명령)하셨고 부모는 그 명령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교육과정”으로 요약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며 가르침의 목적과 내용, 방법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 하셨다. ‘가르치라’는 명령의 목적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일하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답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것이며 감정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신 10:12-13, 11:1, 19:9, 30:16).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집약되고(정중호, 1999: 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전 생애를 통해 그의 교훈을 배워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내면화되어 능력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이 교훈에 따라 유대인은 신명기 6:4-9의 쉼마를 자녀 교육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 연구 또한 신명기 6:4-9의 본문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요구를 근거로 하여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모색한다(신 11:13-21 ; 민 15:37-41).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는 일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자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여 이것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는 과정이다. 역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하고 구분된 순종의 삶을 적용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을 교육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는 의무를 부여하셨다(Monroe, 이원영 역, 2022: 21 ; 신 33:26). 그러므로 성경적 자녀 양육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학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신명기 6:4-9을 근거로 하여 부모는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교육 과정을 개념화하여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시한다.

3. 신명기 6:4-9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성경적 근거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죽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교훈하며 그 교훈을 반복하기 위해 언약을 등사하여 지키라고 말한다(신 17:18).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교훈과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다음 세대도 그대로 받아들여 반복적으로 낭송하여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는 “생존하는 날 동안” “세상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다(신 4:9-10, 5:2, 32:46-47).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과업이다. 신명기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반복하는데, 특히 신명기 6:4-9의 짧은 구절 속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을 받은 자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1) 신명기 6:4-5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한다. ‘들으라’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한 요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야 할 순종을 의미한다. 신명기 6:4-5에서 살핀 자녀교육의 목적은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셨는지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충성의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금지하라고 명령하신다(Mcconville, 2019: 180). 사람은 전 생애 동안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간다. 그 유혹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출 19:6).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에 물들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Calvin, 김종흡 외 역, 2009: 135).

둘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나안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현대의 인간에게도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혼합된 동기와 갈망이 있다. 현대의 혼합된 동기와 갈망은 문화와 매체, 가치, 자신에 대한 집중,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나안의 신들처럼 다양하다. 이것들은 학교 교육과 자녀교육의 영역에서 인간 중심적인 목표와 자율성으로 표현되고 권장된다.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결핍된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물질적 안정과 성공을 바라고, 이 목표를 위해 전심을 다해 전략을 마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순종의 결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있다고 하신다(신 5:33, 6:24, 30:20 ; 잠 22:4).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에게 거룩한 삶과 교훈을 지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이 시대의 자녀 양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마음이 순종과 신뢰로 무장되는 것이다(Calvin, 김종흡 외 역, 2009: 135 ; 김미경, 2000: 34). 신명기 6:4-5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육의 목적이며, 자녀 양육의 목표가 된다.

2) 신명기 6:6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내용과 방법

성경은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신 30:14).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왜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Wolf는 ‘마음에 둔다’는 것은 사람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의미로(신 30:1 ; 렘 17:1 ; 단 7:28), 구별된 가치와 내적 동기를 요구하는 것이다(Wolf, 1974: 48). 또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한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성품의 중심인 마음에 내면화되는 것을 말한다(Wright, 전의우 역, 2017: 150). 그러므로 구별된 행동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마음의 내적 동기와 가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적 가치와 동기로 내면화된 말씀은 일생의 반역자가 된다(Miller, 1990: 105 ; 잠 6:20-22).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의 충성과 예배의 대상을 알 수 있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Tripp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단언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8 ; 마 6:24). 현대의 부모와 자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신에게 몰두하여 자기의 감정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며 쾌락과 물질적 안정, 명예와 행복을 바라는 동기와 갈망이 존재한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생명과 형통과 복을 주시게 위해서다. 즉 명령을 지켜서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신 5:29, 6:2-3, 29:9, 30:1-4). 신명기는 그의 교훈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언약적인 구조를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세상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목적과 이유도 인간에게 복(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신 4:1, 4:40, 6:24, 30:10 ; 잠 22:4).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지 않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47-52). 이 마음에는 여러 의도가 숨겨져 있다. 자녀를 향한 물질주의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해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의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보상받고 존경받고 싶은 동기

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동기와 갈망은 개인의 삶을 위해 당위성을 갖는 주제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가 자녀의 주인이 된 현상이다.

3) 신명기 6:7에 나타난 방법: 지혜와 대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신앙 전수와 양육의 방법은 명령을 전해 받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은 ‘대화’ ‘지혜’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서 강론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토론하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의도적으로 나누고 대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유대인의 자녀 양육은 구전에 의한 것으로, 쉼마를 매일매일 암송하는 것이다. 암송을 통해 소리 내어 읽음으로 스스로 내면화시킬 수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면화된 힘은 능력이 되어 늙기까지 행동의 추진력이 된다(잠 22:6). 부모와 자녀 간 대화의 유익은 첫째,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다. 둘째,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 자녀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한다(히 3:12-13).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담긴 욕구와 동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길어 낼 수 있고(잠 20:5), 대화를 통해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 할 수 있으며, 잘못된 욕구와 동기에 대해 권면할 수 있다(살전 5:14).

신명기 6:7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부모는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와 같으며, 복이 있다고 기록한다(잠 3:18). 대화는 상호관련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전수하는 자와 전수받는 자의 역할 속에 나타난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잠언은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길로 인도하라 (잠 23:19)”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잠언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초적인 틀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틀로 변화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의 관계적인 틀에 대한 배움을 준다(김희석, 2022: 234). 자녀가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여호와 경외라는 원칙을 붙잡고 자녀와 대화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4) 신명기 6:8-9에 나타난 이웃과 공동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을 위한 범위를 개인, 가족(집)과 사회(바깥 문)까지 넓힘으로 공동체는 여호와와 백성으로 일체가 된다(Merill, 신윤수 역, 2020: 195).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전인적인 헌신(5절)이 전체 공동체로 확대된다(Wright, 전의우 역, 2017: 151). Tripp은 자녀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76-77).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화되도록 가르쳐야 하고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

신명기 6:4-9의 핵심은 감정과 의지, 사고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반복하여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개인에게서 이웃과 공동체로 확대됨으로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령을 실천하는 원천이 된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강령이어야 한다.

4. 자녀 양육에 방해가 되는 부모 마음과 변화

논의를 통해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부모는 아이들의 삶을 대변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쉬우나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상담과 교육 영역에서는 의존성을 가진 유아가 점점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성장의 과제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더 나은 신뢰와 자율적인 순종으로 자녀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 일관성 없이 새로 제시되는 양육 이론과 지침으로 불안을 느끼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모가 먼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목표를 위해 부모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태도가 자녀의 양육과 성장에 어떻게 동일시되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정옥분·정순화, 2016: 56). 자신이 어떤 유형의 부모이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 동기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자기 인식은 부모의 태도 변화로 이끈다(정옥분·정순화 2016: 36). 사람이 가진 태도와 신념, 사고와 가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다. 현대 기독교인 부모의 정체성은 개인의 기대와 요구, 물질과 성공에 대한 관심, 행복 추구하고 같은 문화적인 힘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제시되는 방향에 의해 정해진다. 미래는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므로 예측할 수 없다(전 3:11).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부모 마음의 태도는 양육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능력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탐욕적인 마음이다.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것과 같다(시 10:3).

성경적 자녀 양육의 출발은 변화된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첫째, 부모의 마음에 담긴 혼합적인 동기,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새겨지지 않은 부모의 마음을 인식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의 의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신을 새로운 주조 틀에 즉 새로운 존재로서 완전히 다른 판단 가운데 살아야 함을 말한다(Harvey, 2017: 296). 그 판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분별은 검증하는 것이다(Danker, 2017: 169). 부모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현대의 거대한 문화적인 힘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판단과 가치관을 분별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둘째,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적 존재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이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시 37:5).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시며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까지 명령하셨다. 자녀는 부모의 집중적인 교육으로 비범한 성취를 이루어 내는 ‘트로피 아이’로서 부모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부모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세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과 기술을 갖추도록 양육하는 양육의 본질을 자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새 마음에 그의 법을 새기어 부모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다(렘 31:33 ; 겔 36: 26-2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만이 자녀들의 확실한 안전이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변하는 현실 세계와 부모 자신의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바라볼 때, 부모 마음의 태도와 동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5. 말씀의 내면화를 통한 유아기 자녀 양육

지금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은 하나님의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성경의 명령임을 확인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면화되도록 가르쳐서 전 생애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말씀은 일생의 반려자가 된다. 그러나 가르침을 통한 학습이 내면화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므로 양육을 통해 자녀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신앙과 행동 기반이 일찍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신앙발달이론을 주창한 Ronald Goldman과 James Fowler는 유아기 신앙교육의 당위성을 주장한다(정희정, 2023: 94). 인간의 발달 특성을 볼 때 유아기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핵심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하신 분”임을 가르쳐 알게 하는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메니우스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유아에게 하나님 경외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한다(Monroe, 이원영 역, 2022: 84). 유아기의 급격한 기억과 언어의 인지 발달은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유아기를 전 생애 발달을 위한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발달 단계로 보고자 한다.

1) 자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 발달 특징

인간 성장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는 ‘발달’이다(정갑순, 2009: 40). 인간발달의 개념으로 ‘유아기’는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유아기는 신체적·인지적·언어적·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다(곽금주, 2016 ; 신명희 외, 2019: 184 ; 조복희 외, 2017). 인지·사회적·정서적 발달이 왕성한 유아기의 특성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McQuitty는 유아기에 하나님, 자신, 타인, 가족, 자연 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McQuitty, 2008: 285-302). 유아기 신앙의 기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유아기 사고의 발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 죄, 부활, 예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성원, 1999: 71).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 발달 요소 중 먼저 사고와 기억, 언어에 해당하는 인지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유아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상개념과 상관관계를 가진 다양한 특징들을 표상할 수 있는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한다(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288). 표상적 사고는 유아가 상징을 사용하여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표상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이에 유아기에 ‘하나님’ ‘예수님’ 등으로 명명하여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권기수, 2013: 16).

유아의 기억발달은 유아의 주의 집중력 향상을 수반한다. 유아는 자신의 지식과 친숙한 환경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처음 본 것을 기억할 수 있다(신명희 외, 2019: 204). 이러한 유아들의 기억발달은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인지 발달 중 유아의 언어발달은 음절, 단어, 문장을 결합시키는 문법적 지식도 급속하게 발전하여 3세경에는 짧은 문장을 말하지만, 5-7세의 유아는 어른처럼 말하며 상호관계를 이해한다(성현란 외, 2018: 292). 유아기의 언어발달은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다(성현란 외, 2018: 384 ; 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329-339). 또 유아의 언어발달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한다. 유아기의 언어와 호기심을 동반한 사고 발달의 통합은 진리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언어로 질문할 수 있어 유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다(Zuck, 1997: 19-20 ; 정갑순, 2009: 43). 이 시기의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억한 내용을 혼잣말로 되풀이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이야기한다(Siegler & Alibali, 박영신 외, 2007: 275). 따라서 유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스토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듣고 기억하고 대화할 수 있다.

둘째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유아가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한다(송영란·오영희, 2006: 178). 유아기 발달 중 타인과 자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여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으로부터 사회적인 공동체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유아기 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변으로 그 사랑을 확장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더불어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다. 유아기의 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행동’이 가능하다(송영란·오영희, 2006: 178). 이 같은 유아의 행동 발달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해 동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형성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4-5세 된 유아는 옳고 그름을 이해하는 도덕성이 발달한다(신명희 외, 2017: 217). 잠언 20:11은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말씀한다. 이에 유아기는 하나님의 말씀 수행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2) 자녀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유아기의 본성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목적은 신체와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의 특성에 맞게 신앙을 전수하여 전 생애 동안 구별된 삶 곧 성화의 삶을 위해서다. 신체와 인지, 사회적 발달이 아니라도 사람은 본성과 모방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로마서 1:19-20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기록한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안다는 뜻이다. Calvin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종교의 씨’로 인간의 마음속에 원래 주어져 있다고 한다(Calvin, 김종흡 외 역, 1989: 30).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또 알기 위해 질문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유아에게 내재 되어 있는 본성에 물을 주고 돌보아 전 생애를 지나며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골로새서 1:16-17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기록하고, 골로새서 2:3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기록한다. 유아기의 상상력과 많은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올바르게 탐색하고 지각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유아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도서 3:11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기록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원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의미이다(Fredericks, 권대영 역, 2018: 152). 유아들도 영원과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 유아들의 영원과 죽음에 대한 관심과 질문에 대해 부모는 자녀가 영원과 죽음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제대로 언급하지 않거나 부모가 영원과 죽음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기 아동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지,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천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다(Zuck, 2003: 20). 그러므로 유아기는 신앙발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다. 성경적 근거에 의해 사람은 잉태에서부터 하나님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유아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을 모방한다(김미경, 2000: 115). 유아기 자녀는 모방학습이 가능하기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기 아동의 특징은 본 것과 들은 것

을 기억하여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모가 가진 태도와 가치관, 경건 행동, 태도들을 동일시하여 내면화시킨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통한 학습 가능 여부 외에 자녀 양육은 어릴수록 영향이 크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일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일찍부터 훈련하여 내면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유아기 발달 단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양육자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일찍부터 나타난다. 유아는 자기 마음을 숨길 줄 알고, 친구와 적을 구분할 수 있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정확히 안다. 2-3세의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떼쓰는 일이 빈번하여 양육자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 위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성장한다(시 51:1 ; 전 7:9).

유아기의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의존성과 신뢰감이다(정희영 외, 2007: 55). 유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 주는 존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한다. 유아들의 의존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 알게 되면 전적으로 믿으며 의심하지 않는다(마 18:1-4). 이처럼 유아기의 아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전적 신뢰와 믿음이 내면화되어 전 생애 동안 그 영향 아래 살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가치 있는 교육은 없다.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한다. 광야는 물이 없고 생필품이 없는 곳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이다(고전 10:1-4 ; 시 106). 사람이 인생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면화된 마음의 습성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근원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배우지 못하면 성공, 명예, 물질과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충성과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된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최적의 시기로 유아기를 제시하는 이유로 유아의 발달 특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성 외에도 유아기는 아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동기는 사회적 공동체로 이동을 시작하고 지능적으로는 논리가 성립되는 기간이다. 유아기는 진리에 대한 수납에 있어 전적 수납이 가능하나,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해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권리 주장이 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순종의 교육과 훈련은 아동기에 비해 유아기가 쉽다.

3) 자녀양육을 통한 유아기 자기 개념 형성의 기초

내면화는 반복을 통한 가르침(학습)과 훈련에 의해 이뤄진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성경의 교육은 ‘언제나’ ‘항상’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유아기는 자기 외에 타인을 인식하기 시

작하는 발달 단계로 가정에서 부모와의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아동기 발달 이전의 유아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분된 삶의 개념을 형성하도록 훈육해야 한다.

자아 개념의 변화는 각 성장단계의 특성이다. 유아기와는 달리 아동기의 아동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여 신체 특성이나 행동, 소유물,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유능감을 자신과 연관 짓기 시작한다(신명희 외, 2018: 2, 62).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특성에 의해 자아 개념이 더 확장되어서 자존감과 외모라는 특성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자아감에 대한 사회 비교는 점차적으로 잘못된 자아 개념으로 확장된다. 곧 잘못된 자아개념은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비교 의식으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걸림이 된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현대 상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독과 자해, 청소년 비행, 섭식장애, 우울증과 같은 병리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자녀 양육의 목표로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 현상이 70년대 이후 계속되었지만, 자존감 높이기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만을 발견한다(박은호, 2022: 20). 허지원은 현대의 자녀 양육은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양육 목표를 가지지만 자녀는 오히려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허지원, 2022: 18).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한 결과이다.

현대의 자녀 교육의 지침과 방향은 자녀의 강점과 재능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타인에 대해 냉담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자기애가 강한 아이를 만든다(조세핀, 2019: 75). 자녀 양육의 목표와 내용의 영향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영역은 확장되고, 믿음과 순종의 영역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유아기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신체, 자신의 고유성과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성인에 비해 유아들은 진리에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들은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Zuck, 2003: 20).

4) 유아기 자녀 양육과 부모의 마음에 대한 성경적 적용

본 연구는 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 양육 지침의 정보 수집이나 훈련의 부족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없는 부모의 마음이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의 구체적인 현실은 언제나 과거의 이론이 가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유행하는 이론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유아기 자녀의 삶의 틀과 방

향을 잡기 위한 적용은 이러하다.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대해 개인주의와 자율성, 권위에 대한 도전과 무관심 등으로 회자된다. 이는 가족 형태가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고, 자녀 양육에서 부모가 자녀의 선호와 선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 산물이기도 하다. 유아기의 ‘떼쓰는 아이’를 예로 들면, ‘떼쓰는 유아’는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제멋대로 하고 고집을 피우며 온다. 과거의 자녀 양육에는 체벌이 포함되었다면 현대 교육에는 체벌이 점점 금해지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했고 그 후 자녀의 인권을 위한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었다. 체벌은 아이의 지능 발달을 늦추고 IQ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수치감과 공격성을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다(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16 ; The Science Times, 2023).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 하신다(히 12:5-11).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내고(잠 22:15),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수록 징계한다고 기록한다(잠 19:18). 징계하라는 말은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경계와 한계를 정해 주는 것으로 처벌과 징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6:4의 본문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받은 권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다. 유아기는 전 생애를 위한 마음의 틀을 형성해 가는 시기다. ‘떼쓰는 유아’를 훈육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책선하지 않는 부모는 권위가 없고, 자녀는 말을 듣지 않는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죽지 않고 자라야 자존감에 손상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의 생각과, 또 좋은 환경과 무조건적인 수용은 자아를 완성한다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모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집을 피우는 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 ‘떼쓰는 아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며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는 즉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친구들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에서 위기를 맞을 때, 학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누가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누구나 맞게 되는 위기와 좌절을 경험할 때, 사회적 비교와 열등감, 분노로 반응하게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개념이 내면화된 아동은 유아기에 비해 더 익숙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성과 직업의 문제가 대두되는 청년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결혼과 직업적 소명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익혔기에 이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이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부모의 준비된 순종은 자녀의 미래를 대비시키고 결정한다. 말씀은 자녀들이 첫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지킬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엡 6:1-3).

주일학교 청소년 부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뜻을 정한 다니엘(단 1:8)'을 조명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시아의 개혁에 영향 받은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서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로 시작한다. 학자들은 이때가 B.C. 605년이라고 동의한다(Kenneth, 2010: 24 ; 황원하, 2018: 20).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B.C. 605년에 포로가 된다. 다니엘은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지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노래한다(단 2:20-23). 다니엘이 정치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도 평생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거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아(B.C. 640-609)왕에 의한 유다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아 왕은 율법 책을 발견하고 깨달은 후에 모든 무리에게 율법을 읽히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다(왕하 22:15-23:3).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 요시아는 이미 15년을 통치하였고 다음 16년 동안의 요시아로 인한 개혁은 그의 부모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니엘은 개혁된 부모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Gangel, 2010: 26).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평생의 행적을 통해 어린 시절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논의를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은 동일하게 부모가 가진 가치관과 신념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현대는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가 방대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한다. 이에 신명기 6:4-9을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는 교훈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다. 신명기 6:4-9에서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

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가르치라’는 명령 이행은 부모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 보유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 부모의 정체성은 가르치라는 명령을 전해 받았으며,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도록 부르신 자들로, 가르치는 책임이 있으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58-61). 부모의 책임은 오직 홀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Tripp, 조경애·조남민 역, 2002: 49). 성경적 자녀 양육의 내용의 전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부모가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신명기 6:4-9에 나타난 자녀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쳐서 그것이 체화되고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방식에 의해 전수된다. 시편 78:1-8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기록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자의 책임은 조상들에게 전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다(시 44:1).

둘째, 기독교인 양육자들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본 연구는 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양육자의 마음의 태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부모의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양육 스트레스 등에서 찾고 있다(지성애, 2016: 17). 그러나 성경적 자녀 양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Tripp, 김윤희 역, 2017: 92-93). 그러므로 성경적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미래를 대비해 주고자 하는 통제 욕구, 보상과 성공의 동기들이 담긴 부모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의 원인을 부모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정보수집의 부족에 둔다면 양육자는 더 큰 실패감을 경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한 번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내면화될 때 효율적인 활용과 실천이 가능하다. 내면화되는 일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정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언어와 사고, 기억이 급속하게 발달 되는 유아기는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된다고 논의하였다. 또 타인에 대한 모방력,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유아의 사회 정서의 발달은 사회화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의 이웃 사랑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와 문화는 자율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

을 강조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기 시작하여 점차 자기중심성과 자율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성장하는데, 죄의 본성을 가진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소유물과 외모, 성공의 여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또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 선택과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자리매김하며 타인과는 불편한 관계, 고통, 갈등 등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성경적인 성장은 점차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어려서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교훈이 삶의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진리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일은 유아기의 성경적 자녀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임을 내면 화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급변하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상에게 맺었던 약속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따를 때, 약속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다(히 12:1-2; 고전 9:24-27). 경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시작이 견고해야 한다. 이에 자녀 양육을 위한 신명기 6:4-9에 나타난 원리에 대한 강조는 시대를 초월하여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성경적 자녀 양육의 기초를 유아기로 설정하여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말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부모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요청했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회귀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직면하여 마음의 변화를 도모하는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참고문헌

- 강대이·황의무 역 (2019). **신명기**. McConville, J. G. (2010). *Deuteronomy*. 서울: 부흥과 개혁사.곽금주 (201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곽홍석 역 (2019). **신명기 강해**. Calvin, J. (2013). *Sermons on Deuteronomy*. 서울: 서로사랑.
- 국가교육평생진흥원 (2014). **유아원 3-5세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구경선 (2018). **유아교육 사상사**. 서울: 교육아카데미.
- 권기수 (2013). **유아의 기독교 개념의 측정 및 발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대학원.
- 권대영 역 (2018). **전도서, 아가**. Fredericks, D. & Estes, D. (2010). *Ecclesiastes & the song of songs*. 서울: 부흥과개혁사.
- 권미량 (2015). **기독교 가정과 영유아교육**. 고양: 공동체.
- 김규보 (2019). 헤르만 바빙크(H.Bavinck)의 언약이해와 가정사역: 성경적 가족생활교육을 위한 언약의 실천신학적 함의. **복음과 상담**, 27(1), 81-120.
- 김남철 (1998). **신앙 발달 이론으로 본 유대인의 신앙교육**. 서울: 도서출판국제 문화.
- 김미경 (2000). **기독교가정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 김성원 (2023).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신앙과 학문**, 28(3), 69-90.
- 김영옥 (2016). **부모교육**. 고양: 공동체.
- 김윤희 역 (2017). **완벽한 부모는 없다**. Tripp, P. (2016). *Parenting:14 Gospel Principles That Can Radically Change Your Family*.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종흡·신복윤·이종윤·한철하 역 (1989). **기독교 강요**. Calvin, J. (1536).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 김진선 역 (2010). **다니엘**. Gangel, K. (2002). *Daniel*. 서울: 디모데
- 김한원 역 (2017). **신약성서 그리스 사전**. Danker, F. W. *The Concise Greek-English Lexion of the New Testament*. 서울: 새물결 플러스
- 김희석 (2022). 잠언에 나타난 공동체 교육의 다양한 형태. **신앙과 학문**, 27(3), 233-253.
- 박영신 역 (2007). **아동 사고의 발달**. Siegler S. R.& Alibali M. (2005). *Children's Thinking*, 서울:아카데미프레스.
- 박은호 (2022). 현대사회 변화에 따른 성경적 상담의 방법: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103.
- 송영란 (2005). **유아의 신앙 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 증진을 위한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송영란·오영희 (2006). 성경동화 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26(60), 175-198.
- 신명희·서은희·송수지·김은경·원영실 (2018). **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윤수 역 (2020). **신명기**. Merrill, E. (1994). *Deuteronomy*. 서울: 부흥과 개혁사.
- 심성경 (1996). 어머니-유아 의사소통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47-59.
- 이경식 역 (2020). **부모로 산다는 것**. Senior, J. (2014). *All joy and no fun*. 서울: 알에치코리아.
- 이원영 역 (2022). **코메니우스 유아학교**. Monroe, W. S. (2016). *Comenius' School of Infancy*. 서울: 학지사.
- 이종숙·신은수·안선희·이경옥 역(2014). **아동발달**. Berk, E. L. (2008). *Child Development*.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하정 (2005). 조부모 세대와 모세대간 자녀 양육 문화 변화에 관한 질적연구. **생태유아교육학회**, 4(1), 141-162.
- 전병근 역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Harari, Y. N. (2013).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서울: 김영사
- 전의우 역 (2017). **신명기**. Wright, C. J. (1996). *Deuteronomy*. 서울: 성서유니온.
- 정갑순 (2009). **유아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정옥분·정순화 (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중호 (1999). 하나님과 사랑과 자녀 교육, 신명기 6:4-9. **성경연구**, 5(12), 24-31.
- 정희영·정갑순·김동춘·김미경·강은주 (2007). **기독교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정희정 (2011). “유아기 자녀를 둔 기독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통해 본 기독교 부모 교육의 방향성 연구. **신앙과 학문**, 16(4), 195-222
- 정희정 (2016). **기독교인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소원북스.
- 정희정 (2023). 하나 바이블 유치부 공과 교재 분석. **성경과 신학**, 106, 91 - 123.
- 조경애·조남민 역 (2002). **자녀의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진다**. Tripp, T. (1996). *Shpherding a Child's heart*. 서울: 디모데.
- 조복희·도현심·우가효 (2017). **인간발달**. 파주: 교문사.
- 조세핀 김 (2019). **교실 속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 지성애 (2016). 유아기 부모교육의 중요성. **열린부모 학회**, 16, 1-28.
- 진다희 (2022).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양육 경험의 의미 탐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 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종훈 역 (2003).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라**. Zuck, R. (1997). *Precious in His sight*, 서울: 디모데.
- 팽영일 (2017). **유아교육사상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유진·강민수·안복희 (2019). 유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87-110.
- 한용진·최정희 (2011). 신문기사에 나타난 자녀교육 인식 변천: 1920년대-199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 연구**, 17(3), 175-204
- 허지원 (2022). **나는 아직 나를 모른다**. 서울: 김영사.
- 황규명 역 (2004).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 Tripp, P. (1997). *Age of opportunity*. 서울: 디모데.
- 황원하 (2018). **언약의 관점에서 본 다니엘서**. 평택: 교회와 성경.
- Hays, S. (1998).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Boston: Yale University Press.
- Harvey J. (2017). *Romans*. Nashville, Tennessee: B&H Academic.
- Martin C. A. & Colbert K. K. (1997). *Parenting: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Miller, P. D. (1990). *Deuteronomy*. Louisville: Jojn Knox Press.
- Wolf, H. W. (1974).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fortress press.
- Kahneman, D. (2004). "Toward National Well-being Accounts", **American Review** 94, no 2

신명기 6:4-9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통한 유아기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한 고찰: 부모의 마음을 중심으로

Discussion about the purpose and details of biblical parenting during infancy
through a command to teach in Deuteronomy 6:4-9: Focused on parent's hearts

박은호 (충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말씀의 진리를 현대의 상황과 주제에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녀 양육과 부모교육에 대한 여러 이론이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지만, 이론과 방법의 다양함과 변화 속에서 오히려 부모는 혼란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느낀다. 부모의 혼란과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 양육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명기 6:4-9에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명령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성경적 근거를 통해 자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성경적 자녀 양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자녀 양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 교육의 내용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 자녀 양육의 방법은 교육의 내용이 학습을 통해 내면화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하나님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학습하고 내면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유아기로 제안하고, 그 근거를 유아기의 언어발달, 모방력과 사고력 등의 인지발달의 특성에 두고 있다. 가르치라는 교육 명령의 실천 과정의 전제는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스승이며 교사로 영향을 미치는 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신명기 6:4-9을 통해 성경적 자녀 양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대화와 권위를 통해 내면화하도록 돕는 과정이며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자녀 양육, 가르치라는 명령, 하나님 사랑, 마음의 내면화, 유아기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7)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회계·이회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

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OOI-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ingSUCCESS>. (검색일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김홍섭 (인천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박해일 (경희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박원근 (이화여자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송재일 (명지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8권 제4호 (통권 97호), 2023년 12월호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김태황 (명지대학교)

편집인 박해일 (경희대학교)

디자인 이지운

인쇄 (주) 에스제이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